

博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金 一 根

朝鮮朝 流配文學 研究

— 濟州島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ile Literature of
Chosun-Dynasty

— Mainly on JeJu Island —

建國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梁 淳 瑛

1 9 8 2

目 次

第1章 序 論	3
第1節 研究의 目的	3
第2節 流配文學의 概念	5
第3節 研究의 範圍 및 方法	9
第2章 流配文學의 背景과 概觀	11
第1節 背 景	11
1. 黨 爭	11
2. 刑律制度	16
第2節 概 觀	21
第3章 濟州流配文學의 分析과 性格	28
第1節 濟州島의 環境	28
1. 自然的 環境	28
2. 歷史的 環境	31
第2節 詩 歌	35
1. 歌 辭	35
2. 時 調	58
3. 漢 詩	62
第3節 隨 筆	91
1. 風 土 記	91
1) 金淨의 濟州風土錄	92
2) 李健의 濟州風土記	99
2. 書 翰	107
1) 金正喜의 한글書翰	108
2) 金正喜의 漢文書翰	117
3. 祭 文	128
1) 尹塾의 貞敬夫人李氏 祭文	130
2) 金正喜의 夫人禮安李氏 哀逝文	141

梁淳秘의
文學博士學位 請求論文을 認准함

審 查 委 員

主 審

副 審

委 員

委 員

委 員

198

建國大學校 大學院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目的

濟州島는 四面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른바 絕海孤島이다. 그러므로 지난 날 朝鮮時代까지 만 해도 最高刑을 받은 流刑囚들이 유배 온 최악의 流謫地였다. 그것은 流配者들을 다룰 때 遠惡地配보다 島配를 더 重罪人視했던 점에서도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고려 때 元에 점령된 후 100여년간 元·明 등 異民族의 流刑地였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高麗史』에 의하면 곧 元나라가 忠烈王 元년(1275) 4월에 도적 100여명과 同3년(1277)에 죄인 73명을 제주도에 流配시켰던 일, 明나라가 禍王 14년(1388) 12월에 귀순한 元의 達達親王 등 80 餘戶를 모두 제주도에 移住시켰으며, 그리고 恭讓王 4년(1392) 3월에 元의 梁王子孫 愛顔帖木兒 등을 제주도에 安置시켰던 일이 바로 그것이다.¹⁾

이렇게 異民族의 유형지이기도 했던 제주도가 조선시대에 와서 島配地로 정착했는데, 한 때는 朝鮮 成宗 때 盜犯者를 제주에 定役 流配하였던 바 牛馬 盜殺과 馬賊事件이 빈발하였으므로 盜犯者의 제주도 유배를 금지한 바도 있었다.

그러나 濟州島는 지리적으로 섬이라는 점에서 高麗朝 후기부터 朝鮮朝 말기까지 流配地로서 象徵的이며 代表的인 地域이 되어왔다.

조선시대에 제주도에 유배되어 온 사람들은 위로는 王族·政治人·官吏·學者들을 비롯하여 아래로는 京中の 범죄자와 북경 국경 지방의 越境犯人에 이르기까지 각종·각양의 죄를 범하였던 사람들이며, 그 수에 있어서도 실로 많았던 것이다.

그 중 燕山君 때의 金舜孫·洪裕孫, 中宗 때의 金淨·李世蕃·宋麟壽, 明宗 때의 僧普雨, 宣祖 때의 蘇德裕, 光海君 때의 光山府夫人 盧氏와 鄭蘊·宋象仁·李翼, 仁祖 때의 廢主光海君·李健·金尙憲·仁城君, 孝宗 때의 申命基, 肅宗 때의 宋時烈·張希載·金鎮龜·金春澤, 景宗 때의 申鉉, 英祖 때의 恩彥君·恩信君·任徵夏·趙觀彬·李存中·權震應·任觀周·李眞儒·尹璽, 正祖 때의 趙貞喆, 憲宗 때의 金正禧 등등 當代의 高名한 流配人士가 例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관세와 유배, 官爵과 流竄은 거의 표리관계에 있었다. 곧 流配는 官界에 나선 政治人에게 으레 따르게 마련이다. 黨爭이 심한 朝鮮朝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다. 이들 流配者들

1) 『高麗史』卷 28 “忠烈王元年夏四月元流盜賊百餘人于耽羅” “忠烈王三年丁丑五月戊戌元流罪人三十三人于耽羅” “忠烈王三年丁丑八月庚辰元流罪人四十于耽羅”

卷 137 “辛禍十四年戊辰十二月帝遣前元院使喜山大卿金麗普化等〈中略〉又傳聖旨云征北歸順來的達達親王等八十餘戶都要教他耽羅住去恁去高麗說知教差人那里淨便去處打落了房兒一同來回報於是遺典理判書李希椿于濟州修葺新舊可居房舍八十五所”

卷 46 “恭讓王四年壬申三月乙巳帝置前梁王子孫愛顔帖木兒四人于耽羅使與拍拍太子等完聚居住”

은 不遇한 流配生活을 그들의 소중한 創造的 空間으로, 그리고 創作的 契機로 만들어 流配生活 동안에 流配地에서 겪은 사실의 직접적 체험과 그 감정적 내용을 文學으로 表白하였다. 따라서 流配를 素材로 한 작품, 流配地에서 지은 작품이 많으며, 流配生活은 곧 創作生活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작품을 쓴 文人들도 있다.

필자는 朝鮮朝 流配文學 研究를 통해 그것이 갖는 主流的 內容과 國文學의 位置를 확립하고자 노력해 왔었다. 그런 연구를 통해 필자는 고향인 제주도가 가장 대표적인 유배지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지난 날 이곳에 유배 온 사람들의 유배작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國文學의 特殊 問題 研究의 範圍에 들 것으로 확신하여 그 작업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 계속해야 할 課題라 생각한다.

그래서 本 研究에서는 流配文學을 濟州島를 중심으로 이른바 濟州流配文學이라고 設定하고, 그것이 갖는 主流的 內容과 國文學史의 位置를 定立하고, 文學에 나타난 社會生活相, 意識構造 등을 고찰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각 地域마다 그 지역 특유의 문화가 있어 발전하고 계승되며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문화는 때로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원천적인 기본을 보존한 채 꾸준히 개조되고 계승되어 온 것이다. 인간의 감정과 이성을 표출한 문학을 논함에 있어 문화권의 특징과 그 계승·발전을 무시할 수는 없다.²⁾ 이러한 점에서 流配人이 濟州文化에 끼친 영향 등을 고찰하는 것도 부수적인 課題가 될 것이다.

우리의 國文學을 史的으로 研究함에 있어서 朝鮮朝의 경우 一次的으로 比重을 두고 보게 되는 문제는 당쟁이 빚어낸 流配文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조선조의 사화가 士大夫階層을 중심으로 문화를 발전시켰었다는 것과 당쟁이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엄연한 역사성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중앙의 先行文學에서 영향을 입었다고 하여 이것을 전혀 考察해 보지도 않고 創作的 價値를 의심하는 태도는 결코 옳다고 할 수 없다. 조선조 때의 濟州島는 環海性과 隔絶性·狹小性을 지닌 섬이었다는 단순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歷史的인 流配地였다는 관점에서 파악될 때 섬이 갖는 社會的 停滯性과 傳統的 生活文化의 後進性에 幅넓은 地域의 個性·鄉土性을 갖는다고 본다.

2) 이와 關聯한 筆者의 最近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拙稿 「秋史의 歲寒圖題文攷」(『제주도』 제 76호, 제주도 문화공보실, 1979)
「秋史의 濟州流配書翰攷」(世界平和教授協議會, 『아카데미論叢』 7호, 1979)
「李健의 濟州風土記小考」(高麗大 『어문논집』 제 21집, 1980)
「秋史의 悼亡詩와 祭文考」(『玄平孝博士回甲論叢』 대구: 螢雪出版社, 1980)
「流配地로서의 濟州島」(世界平和教授協議會, 『廣場』 93호, 1981)
「中庵의 濟州風土錄小考」(高麗大 『어문논집』 제 22집, 1981)
「中庵의 流配漢詩考」(高麗大 『어문논집』 제 23집, 1982)
「靜軒의 濟州流配漢詩考」(『沈汝澤教授回甲論叢』 대구: 螢雪出版社, 1982)
「秋史의 濟州流配漢詩」(濟州大 『論文集』 제 14집, 1982)

3) 鄭堯一 등 4人 共著 『韓國古典詩學史』(서울: 弘盛新書, 1980) p. 19.

이와같이 歷史와 地理의인 관점에서 濟州島 地域을 살펴보면, 거기에 山이 있고 江이 있어 일정한 面積을 가질 뿐만 아니라 人間의 歷史가 있다. 곧 地域은 自然的 對象이 아니라 人間의 歷史가 點綴된 초자연적 역사의 맥락이 약동하는 곳인 것이다. 그래서 환경·역사·문화·문학의 계승이 즐기차게 이어지는 地域文化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本 研究의 目的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考察할 때 중요한 課題라고 생각할 수 있다.

第2節 流配文學의 概念

閨房歌辭의 배틀노래에 “月宮에 노던 仙女 玉皇님께 죄를 지어 人間에 귀양와서(傍點筆者)”⁴⁾란 대목이 있다.

이 귀양⁵⁾이란 단어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어원은 歸鄉에서 나온 것이다.

歸鄉이라는 것은 벼슬을 辭하고 田園에 돌아가는 것을 말함인데 그 致仕의 이유가 혹은 身病人 경우도 있고, 혹은 官運이 좋지 못하여 削職된 경우도 있으며, 또는 政爭 속에서 勢不得하여 스스로 歸鄉하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귀양이라는 것이 애초에는 형벌이 아닌 鄉里放遂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점점 형벌의 뜻을 갖게 되어 遠竄이나 流配나 流刑이니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歸鄉이라는 개념을 좀 크게 설정하여 하나는 벼슬을 辭하고 鄉里로 돌아가는 정말 「歸鄉」과 다른 하나는 죄명을 쓰고 遠地로 放遂되는 「流配」의 둘로 생각할 수 있다.⁶⁾

이와 같이 귀양은 죄인을 먼 지방으로 쫓아 보내던 형벌의 뜻으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죄인을 귀양 보냄⁷⁾을 流配라 하고 있다.

곧 流配란 流刑에서 나온 말인데 『隋書』의 “大業五年 大敢天下 開皇已來流配”⁸⁾에서 비롯한다. 古來로 流刑은 配·謫·竄·遷·徙 등 여러가지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流配를 配流·謫落·遷謫·竄謫·門外黜送·圍籬安置·絕島安置⁹⁾ 등 각각 異義가 있는 듯한 용어로 表現되고 있지만은 流刑으로 流配갔다는 데에는 하등의 구별이 없으므로 이를 流配라 總稱

4) 淸州地方 「閨房歌辭, 배틀노래」 引用

5) 李熙昇 『국어대사전』(서울:民衆書館, 1971) p. 382 에 “ 고려시대의 형벌의 하나. 이조에 이르러 처음에는 放遂鄉里의 뜻으로 쓰이다가 후세에 와서는 徒配·流配·竄配·定配의 뜻으로 쓰이게 됨” 이라 하고 있다.

6) 張德順 「流配歌辭試考」(『國文學通論』 서울:新丘文化社, 1960. pp. 360 - 361)

7) 李熙昇 『前揭書』 p. 2232

8) 『隋書』 帝紀 第三 煬帝上

9) 用例는 생각하고 李家源 編著 『漢字大典』 (서울:韓英出版社, 1967)에 “ 竄黜·竄配·竄流·竄斥·竄陟·竄貶·竄責·竄謫·竄遂·放遂·放流·放黜·流刑·流配·流謫·流罪·流竄·黜送·黜責·黜遠·黜放·黜斥·杖配·杖流·遠配·遠流·遠竄·遷謫·遷移·遷徙 ” 등등 30 개어나 된다.

하기로 한다.¹⁰⁾

先學者에 의해 사용된 流配와 流配文學이란 용어는 현재 어떠한 저항감도 없이 學界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본다.¹¹⁾

이제 종래 流配文學을 定義한 것을 考察해 보면 첫째, 黨爭이 熾烈한 시기에 있어서는 그 야말로 宦海風波는 높아…〈中略〉… 政客 혹은 學者들은 대개가 귀양을 가서 공부를 하였고, 配所에서 文學을 일삼아 여기에 이른 바 配所文學이 成立될 수 있었던 것이다.¹²⁾

둘째, 流配의 體驗과 또는 그것을 素材로 한 모든 作品…〈中略〉… 그러나 아무리 謫所에서 창작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작품의 素材라든가 또는 主題가 유배를 「모티브」로 한 것이어야 流配文學이 될 것이다.¹³⁾

셋째, 君王에게 유배를 받아 생활 조건이 험악한 僻地나 落島에 유배되어 配所에서 春風秋兩 그들의 심정을 노래한 작품이다.¹⁴⁾

네째, 유배를 당한 사람이 謫所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당한 사실을, 또는 스스로 상상하고 假想해 본 虛構를 문예적으로 작품화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는 유배 그것을 제재로 하여 제 삼자가 상상과 推理로 유배의 情況을 예술적으로 그려낸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따라서 前者의 것을 直接的인 流配文學이라 할 수 있다면, 後者의 것을 間接的인 流配文學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廣義的으로 본다면 직접 간접의 것을 모두 통칭해서 유배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음은 물론이다.¹⁵⁾

다섯째, 流配文學이란 韓國의 政治 社會的 背景動因에 暗示받는 文學傳統의 한 方向이다.¹⁶⁾

여섯째, 流刑囚 자신이 黨論이 치열할 때 仕宦하는 몸으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 또는 모략과 사실 무근의 참소에 의해 불운의 유배를 당하여 자기 고향과 화려한 벼슬살이밖에 모르던 처지에서 꿈에도 상상 못해 본 絕島나 혹은 변경으로 옮겨져 체념과 사색의 시간을

10) 筆者가 ㉠ 『韓國人名大事典』(서울:新丘文化社, 1965) 중에서 朝鮮時代에 流配될 250명을 표집하여 분석해 본 결과 ①流配 200명 ②安置 14명 ③ 圈簡安置 14명 ④ 付處 10명 ⑤ 杖流 6명 ⑥ 귀양 4명 ⑦ 杖配 2명 등으로 나타나 流配가 優勢하게 기술된 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流配와 비슷한 용어의 頻度를 조사한 ㉡ 崔康賢님의 『韓國紀行文學研究』(서울:一志社, 1982, p.71)에 따르면 定配와 流配가 근사치에 가깝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와 ㉡를 근거로 流配라 총칭해도 무방하다고 믿어진다.

날 말	定 配	流 配	黜 斥	配 所	竄 配	竄 謫	竄 黜
빈 도	12	11	5	4	2	1	1
백 분 비	약 33 %	약 31 %	약 14 %	약 11 %	약 6 %	약 2.8 %	약 2.8 %

11) 流配를 학술논문의 논제로 맨 처음 사용한 것은 張德順님의 『前揭書』 p.360에 의해서였고, 流配文學이란 문학용어를 맨 처음 사용한 것은 徐東鈇님의 『流配文學考』(建國大『文湖』創刊號, 1960, p.18)에 의해서였다고 믿어진다.

12) 趙潤濟, 「國文學에서 본 生活觀」(『國文學概說』서울:東國文化社, 1956, pp366-367)

13) 張德順 『前揭書』 p.361

14) 徐東鈇 『前揭書』 p.18

15) 丁益燮 『流配文學小考』(『無涯梁柱東博士 華誕記念論文集』(서울:東國大學校, 1964, p.531)

16) 金永琪 『流配文學論』(『現代文學』 통권 147권, 서울:現代文學社, 1967, p.270)

통해서 인생과 자연을 진지하게 관조해 보기도 하고 異國의 情緒, 懷鄉의 情, 타향의 자연과 풍습 등의 건문을 소재로 하여 謫客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심리와 정서가 가미되어 이루어진 것과 또는 陪行者가 유배자 자신의 作인 것처럼 戀君의 衷情, 故國의 懷抱, 친족에의 연모의 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¹⁷⁾

일곱째, 李朝 사회는 오직 집권자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黨論이었으므로 이로 인해 慘禍를 입은 정치인들은 벽지 또는 絕海孤島에 많은 유배를 당하였다. 이 때 산간이나 島嶼에서 유배생활 또는 隱居生活를 하게 된 그들은 江湖에 파묻혀 悠悠自適한 생활로 閑居하면서 숨었던 詩想으로 失意를 달래며 작품을 낳았으니 이는 국문학의 전성기라 말할 수 있다.……〈中略〉…… 李朝時代의 극렬한 당쟁으로 정객 학자들이 군왕에게 遠隔한 謫所에 유배를 당하여 그 곳에서 春風秋雨 그들의 심정을 謳歌한 작품을 유배문학이라 命名한다.¹⁸⁾

여덟째, 流配歌辭는 작자의 敗北意識의 挫折感이 전편에 넘쳐 있기 때문에 泣訴·哀怨·傷心 등이 그 主潮를 이루지만 그런 諦念이나 絕望을 克服하고 다시 임금께 나아가려는 意志力이 여운처럼 남아 있는 것이 特質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流配歌辭의 제목은 美人으로서 象徵되는 것이다.¹⁹⁾

아홉째, 流配歌辭는 흔히 政治圈外에서 밀려 난 失意의 士大夫나 兩班의 述作한 歌辭다. 流配歌辭의 공통적인 性格은 忠臣變主之詞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작자 자신의 敗北意識과 挫折感이 哀怨과 呼訴를 낳기도 하지만 阿諛와 獨善, 自己 潔白·나르시수스(Narcissus)적인 感傷을 띠게 되는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종당의 諦念과 絕望을 극복하고 再起할 念願을 간직하고 있다.²⁰⁾

열째, 유배문학은 작가가 벼슬살이를 하다가 어떤 과오로써 득죄하여 僻地나 落島에 유배되어 신체적으로는 자유를 어느 정도 속박당하고, 정신적으로는 感傷과 諦念의 허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속세와는 격리된 고독과 恨의 경지에 빚어지는 울분의 所懷를 문학으로써 형식화한 것을 이르는 것이다.²¹⁾ 등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것을 요약하면 첫째의 것은 流配文學의 성립에 관한 설명이고, 둘째의 것은 流配文學의 原論的 概念 規定이며, 세째의 것은 流配文學 全般의 概念 規定이 아니라, 流配文學 系列에 속하는 流配 詩歌의 概念 規定이다. 그리고 네째의 것은 流配文學을 間接的인 유배문학과 直接的인 유배문학으로 區分하여 概念 規定을 하였고, 다섯째의 것은 유배문학의 成

17) 文燦植 「流配歌辭의 內容의 考察」(全南大學 『語文論集』 5집, 1969, p. 203)

18) 趙成桓 「國文學과 謫所關係」(群山教育大 『論文集』 7집, 1974, p. 133)

19) 李相寶 「韓國歌辭文學의 研究」(대구:螢雪出版社, 1974, p. 17)

20) 尹亨德 『萬言詞研究』(碩論, 檀國大學校 大學院, 1966, p. 172)

「流配文學의 刑律的 考察」(忠州工專大 『論文集』 8집 1호, 1976. p.19)에서 “流刑囚의 流配 經緯로부터 解配에 이르기까지 그 路程과 流配地에서 보고 듣고 느낀 體驗과 感懷를 사실 그대로 또는 假想이나 虛構까지도 文學的으로 꾸민 것을 流配文學이라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21) 秦東赫 「李世輔의 流配時調研究」(檀國大學 『論文集』 第 15輯, 1981, p. 9)

이들 文學 背景의인 측면에서 언급하였으며, 여섯째의 것은 네째를 바탕으로 한 敷衍的 說明이다. 일곱째의 것은 流配文學의 發生 動機와 특히 유배문학을 朝鮮時代의 黨爭의 產物로 본 概念 規定이고, 여덟째의 것은 流配歌辭의 概念이며, 아홉째의 것은 여덟째의 것을 바탕으로 한 敷衍的 說明이다. 열째의 것은 流配文學의 原論的 概念 規定에 따라 유배문학을 純粹 流配文學 작품과 廣義 流配文學 작품으로 兩分하고 있다.

이와 같은 區區한 意見 중에서 筆者는 공통성의 것을 추려서 이미 다음과 같이 定義를 내린 바가 있다.

곧 流配文學이란 流刑囚과 流配地에서 겪은 流配的 事實의 直接體驗과 그 感情的 內容, 그리고 流配의 狀況에 직면한 精神的 狀況을 그대로 文學化한 작품을 流配文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朝鮮朝의 유배문학은 주로 時代的·政治的 狀況인 黨爭에 직면하여 敗北한 者가 政敵에게는 물론 君王에게 忌諱·排斥당해 流刑囚으로서 유배지에서 겪은 유배적 사실의 直接體驗과 그 感情的 內容, 그리고 유배적 狀況에 직면한 精神的 狀況을 文學化한 작품을 말할 수 있다.²²⁾

앞서 말한 바의 筆者의 概念 規定에 따라 濟州流配文學의 概念 規定을 내리고, 本研究을 展開하기로 한다. 濟州流配文學이란 朝鮮朝의 時代的·政治的 狀況으로 말미암아 流刑囚로서 遠惡地인 濟州島에 유배되어 겪은 유배적 사실의 直接體驗과 그 感情的 內容, 그리고 流配的 狀況에 직면한 精神的 狀況을 그대로 文學化한 작품을 濟州流配文學이라고 그 概念을 規定할 수 있다.

第3節 研究의 範圍 및 方法

本研究의 範圍는 朝鮮時代의 流配文學을 濟州島를 중심으로 하여 그 연구를 전개키로 한다. 따라서 時代的으로 朝鮮朝에 국한시키며 地域的으로 朝鮮朝의 流配地인 濟州島와 楸子島로 그 대상을 한정시켰다.

楸子島는 高麗 元宗 12년(1271) 이전까지 候風島라 불리면서 政治力이 좀처럼 미치지 못

22) 拙稿 『朝鮮流配文學研究』(碩論, 高麗大學校 大學院, 1969) pp. 6-7

筆者는 이 流配文學을 純流配文學과 準流配文學으로 나누어 概念 規定을 한 바 있다. 곧 ① 流配作家가 유배작품을 창작한 사실이 확실하고, 그 창작연대도 流配時에 지은 것으로 확실한 것과 ② 流配당한 것이 확실하고 유배작품으로서 그 창작연대가 未詳이나 내용이 流配的인 성격을 띤 작품을 純流配文學으로 그 개념을 규정짓는다.

그리고 ① 作家·창작연대가 未詳이지만 내용이 유배적 性格을 띤 작품인 것과 ② 流配를 겪은 作家의 작품으로서 그 내용이 流配生活이 끝난 직후 세상에 대한 厭世를 일으켜 心的 狀況으로 연속된 流配的 氛圍氣의 性格을 띤 작품으로 창작연대가 확실하거나 未詳인 작품을 準流配文學으로 그 개념을 규정짓는다. (拙稿 「前揭書」 pp. 10-11)

이 筆者의 개념 규정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論文은 池鍾玉님의 「流配文學研究序說」(木浦大 『論文集』 第1輯 1979, p. 40)에서 볼 수 있다.

하고 있었다. 한 때는 全羅南道 靈岩郡에 예속됨으로써 楸子島라 불리게 되었다. 1884 년에 와서는 濟州牧에 移屬되었다.²³⁾ 그러므로 濟州牧에 이속되기 전의 작품이었다고 해도 濟州島 중심의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本 研究의 資料는 文獻 資料를 위주로 하였는데 現存하는 磨崖詩·碑文도 참고하였다. 流配文學 研究의 대상은 詩歌·隨筆 등으로 한정했다.

詩歌 중엔 歌辭(肅宗 때 金春澤의 「別思美人曲」, 英祖 때 李眞儒의 「續思美人曲」, 正祖 때의 安肇煥(?)의 「萬言詞」·「萬言詞答」 등 4 편과 時調(肅宗 때 柳赫然·宋時烈·金春澤, 英祖 때 趙觀彬) 7 수와 漢詩(中宗 때 金淨, 光海君 때 鄭蘊·李瀾, 仁祖 때 光海君, 肅宗 때 宋時烈·金春澤, 景宗 때 申鉉, 英祖 때 任觀周·趙觀彬, 正祖 때 趙貞喆, 憲宗 때 金正喜) 등 90 首, 그리고 隨筆 중엔 中宗 때 金淨의 「濟州風土錄」·仁祖 때 李健의 「濟州風土記」 등 2 편과 憲宗 때 金正喜의 한글 書翰 9 통과 漢文 書翰 21 통 都合 30 통과 英祖 때 尹塾의 「貞敬夫人 李氏祭文」과 憲宗 때 金正喜의 「夫人 禮安李氏 哀逝文」 등 2 편으로, 風土記·書翰·祭文 등 隨筆 都合 34 편이며, 가장 流配的인 性格이 뚜렷하고 文學性이 강한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歌辭는 李相寶·朴魯春 등 4 人編著인 『歌辭文學全集』(서울:精研社, 1961)를 臺本으로 했고, 時調는 沈載完 『歷代時調全書』(서울:世宗出版社, 1971)을 臺本으로 했으며, 漢詩는 각자의 文集, 隨筆 중의 風土記는 개인의 文集, 書翰은 漢文의 경우 『阮堂先生全集』, 한글의 경우 『文學思想』(통권 76, 115)의 발굴자료, 祭文은 『阮堂先生全集』, 金一根님의 발굴자료인 尹塾의 祭文 등등에 의하여 選定하였다.

研究方法은 時代的 背景으로서의 朝鮮朝의 黨爭과 流配刑을 살펴보고, 이러한 時代的 特性和 制度가 作家의 意識構造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작품에 나타난 內容的 特質을 考察하여 그것이 지니는 國文學史的 位置를 設定하고 부수적으로 流配人이 流配地 社會에 끼친 文化的 影響 등을 고찰하기 위하여 歷史的 方法과 文學이 社會 事象으로서의 社會學的方法을 援用하여 展開하기로 한다.

무릇 한 개의 文學이 형성된 그 裏面엔 그 文學을 형성할 만한 精神狀態와 그런 精神狀態를 만들어 냄에 있어, 그 당시의 時代·環境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²⁴⁾ 어떤 文學이 형성된 歷史的 過程과 작품이 탄생하게 된 環境·思潮 등 그 時代의 社會事象을 주로 연구하고 그것을 全體的인 背景의 한 產物로 이해하는 태도는 역사적 方法과 社會學的方法에 속한다²⁵⁾ 하겠다.

그런 뜻에서 한 개의 문학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것을 형성할 만한 精神的 狀況을

23) 禹樂基 『濟州道』(大韓地誌 1, 서울:韓國地理學研究所, 1968.) p. 382

24) H.A.Taine, 『文學史의 方法』(瀨沼茂樹譯 東京:岩波文庫, 昭和 35年 p.59 參照)

25) 朴晟義 『韓國古典文學背景論』(서울:宣明文化社, 1967) p. 16

이해해야 하겠고, 또 나아가선 그 精神的 狀況을 형성함에 있어 그 素因이 된 時代·環境의 諸條件은 어떻게 작용했는가 등 그 背景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要는 한 작품의 全體인 그 작품의 背景이 되어 있는 時代와 社會라는 것을 철저하게 究明하지 않으면 안 된다.²⁶⁾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 時代와 社會를 가져오게 한 歷史를 알아야 하고, 그 歷史를 알려면 그 나라의 民族과 言語·風俗·政治·哲學 등을 알아야 할 것이다.²⁷⁾

濟州島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濟州流配文學 研究에 있어서도 流配文學을 낳은 精神的 狀況과 그런 정신적 狀況을 형성한 時代·環境·社會 事象 등 相互依存 관계이며 有機體로서의 작품의 背景을 理解해야 할 것은 必然的인 方法이라 하겠다.

本 論文의 內容은 크게 4章으로 構成하였다. 第1章에서는 序論으로서 研究의 目的과 流配文學의 概念, 研究의 範圍 및 方法을 서술하였고, 第2章에서는 流配文學의 形成要因인 背景으로 黨爭과 刑律制度를 살피고 유배문학의 概觀을 고찰하였으며, 第3章에서는 濟州流配文學의 分析과 性格을 고찰하는데, 우선 濟州島의 自然的·歷史的인 環境을 살폈고, 流配文學의 分析과 性格을 詩歌(歌辭·時調·漢詩)와 隨筆(風土記·書翰·祭文)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流配文學의 內容의 特質을 밝혔고, 第4章에서는 結論으로 濟州流配文學의 性格과 國文學上的 位置 등을 요약하였다.

26) 『上揭書』 p.17

27) 『上揭書』 p.17

第2章 流配文學의 背景과 概觀

朝鮮時代의 文學은 일반적으로 政治的인 성향을 농후하게 지니고 있다. 士大夫는 벼슬을 해서 정권에 참여하는 것을 삶의 目標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政治人이었다. 벼슬을 해서 政權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 제한되어 있어서 政治人으로 成功할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진출을 할 수 없어서 山林으로 물러나가거나, 시정에서 살아가는 士大夫라 해도 政治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았다.

在野 사람의 上疏文이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가지고 政權 擔當者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었던 것도 선비라면 누구나 예비 政治人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그런데 士大夫는 모두 정치인이면서 또한 文人이었다. 政權에 참여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科擧를 보아야만 했고, 士大夫로서 행세하기 위해서는 글을 지어서 文集을 남겨야만 했다. 政治的인 能力은 文學的인 能力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다.²⁸⁾

政治에의 야욕은 朋黨을 만들어 자기 黨은 大人이요, 다른 黨은 小人이라 단정하여 黨爭이 치열해졌다. 여기서 승리자는 집권하여 政治의 꿈을 펴서, 士大夫로서 행세하게 되고, 패배자는 여지없이 落鄕하거나 流配를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중죄인시하는 자는 遠惡地이거나 僻地·絶島 등지로 流配되어진다. 이리하여 千辛萬苦한 流配生活이 展開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자신의 불운을 달래고, 流配地에서 겪는 流配의 體驗과 感情的 內容, 그리고 流配的 狀況에 직면한 精神的 狀況을 文學化하는 것이다.

朝鮮時代의 流配는 그 발생이 주로 政治的 狀況인 黨爭과 정치에 기인한 것이 지배적이며, 정치를 통해 參政하고 집권한 자가 政治 秩序를 유지하기 위해 취해진 行刑的 所産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流配文學을 論究함에 있어 작품을 分析究明하는 문학의 內的 研究에 앞서 그 文學의 형성, 外的 研究²⁹⁾가 되는 그 背景인 時代的·政治的 狀況인 黨爭과 刑律制度上의 流配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다.

第1節 背 景

1. 黨 爭

太祖가 朝鮮朝를 創建하면서 排佛崇儒를 國策으로 삼아 내세운 朱子學은 統治理念으로서 체제종교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그 독점적인 地步를 다지게 되었으니, 前近代 社會의 權威

28) 趙東一「古典小說과 政治」, 『文學과 政治』 서울: 民音社, 1980. p.117)

29) R.G. Moulton., The Modern Study of Literature, 本多顯彰 譯 『文學의 近代的 研究』 東京: 岩波書店, 昭和 33年) 同書 第5章 ‘文學의 內的及 外的 研究’에서 물뮈튼은 文學研究 方法으로서 外的 研究과 內的 研究를 分離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文學을 文學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作品을 分析하고 純粹한 文學研究일지라도 이와 隣近한 其他의 研究分野를 알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pp.126~130 參照)이라고 했다.

主義의 支配構造는 朝鮮의 開國과 함께 완벽하게 體系化 되면서 四民의 意識 속까지 儒敎文化를 負荷하게 되었다.³⁰⁾ 따라서 全國에 誦經소리가 자자했으며, 漢·唐의 學風을 이어 文章과 政治를 중심으로 宋儒學의 理論이 크게 천명되었다.

이런 朝鮮朝의 國情은 士類와 文運의 隆盛은 물론 士類政治를 가능케 했다. 그러나 이들 士類들이 信奉한 宋儒의 道學은 排他와 名分만을 일삼아 政治를 함에 있어 政治를 위한 道學이 아니라 道學을 위한 政治化에 있었으니 이 폐단이 바로 黨爭의 참극을 낳게 한 것이다.

1) 黨爭의 原因

朝鮮朝에 黨爭이 발생하게 된 原因으로 첫째 儒學派의 新·舊 對立, 둘째 王室 內戚의 內紛, 세째 制度上 缺陷³²⁾, 네째 集團相互間(intra-group)의 連帶意識의 缺如 등등으로 그 遠因을 概觀할 수 있다.

朝鮮의 儒學은 麗末의 鄭夢周를 계승 朝鮮朝에 들어와서 金宗直이 그 學統을 다졌다. 이어 金宏弼·鄭汝昌·金駟孫·趙光祖와 같은 碩學이 배출되어 儒宗을 이루었고 이들의 力量은 은연 중 政界를 席卷하고 있었다.

그리고 成宗朝는 모든 文物制度가 잘 整備되었으며 文運이 隆盛해 갔다. 그러나 무르익어가는 太平盛代의 그늘에 점차로 遊惰와 頹廢의 風이 싹트자 士禍와 黨爭의 素因이 孕胎하기 시작했던 것이다.³³⁾

朝鮮朝는 專制王權·官人支配·階級社會 등을 사회구조의 특징으로 하고, 그리고 身分制度는 兩班·庶民·職人 등의 三階級으로³⁴⁾ 형성된 封建 君主國家였다. 그러기 때문에 社會의 目標은 어떻게 하면 兩班階級으로서 王都中央에 진출하여 권세를 잡고 立身揚名하는 것만이 最高의 목표였다. 그러나 時代的 發展에 따라 兩班 貴族의 수효는 증가했으나 官職의 수는 한정되어 그것을 둘러싼 경쟁·마찰·싸움이 벌어질 수 밖에 없었다.

建國 初의 勳·舊 貴族은 國家로부터 世襲이 許用된 功臣田과 科田을 받아 왔다. 이것이 國庫의 窮乏과 文·武 新從仕者의 증가로 科田이 濫給되고 지급할 土地가 부족해진 難問題가 생겨 現職者에 한하여 지급할 職田法으로 改定되었다.³⁵⁾

그러나 이것도 中宗과 明宗 때에는 餘여할 土地가 없어서 폐지되고 벼슬을 한다해도 國家로부터 아무런 田土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추세로 新進 官僚들의 불만은 新·舊

30) 黃善明 『民衆宗敎와 權威 信仰』(서울:主流, 1982) p. 25

31) 玄相允 教授도 『朝鮮儒學史』(서울:民衆書館, 1949)에서 朱子學의 功罪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功: 君子學勉勵, 人倫道德의 崇尚, 清廉節義의 尊重, 罪: 黨爭, 慕華思想, 家族主義의 弊害, 階級思想, 文弱, 產業能力의 低下, 尙名主義, 復古主義

32) 李弘植 『國史大事典』(서울:知文閣, 1962) p. 377

33) 李相佰 「頹廢의 氣風과 朋黨의 發生」(『人物韓國史』Ⅲ. 서울:博文社, 1965, pp. 18 참조)

34) 李熙鳳 「韓國法制史」(『韓國文化史大系』Ⅱ. (서울: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65, pp. 189~207 參照)

35) 『國朝文科榜目』을 資料로 仕官數를 조사한 결과 太祖 때 30名, 世祖 때 57名, 中宗 때 192名으로 나타났다. 이런 趨勢가 職田法도 폐지하게 되었고 新進 官僚들이 勳舊派에 대한 不滿이 되었다고 본다.

대립을 빚게 되어 마침내 戊午·甲子·己卯·乙巳·丁未 등 燕山君·中宗·明宗 등 三代(1498-1547)에 근 50년에 이르는 五大 士禍로 飛火하였다.

이렇게 악순환이 거듭된 士禍로 말미암아 士類의 意氣는 극히 沮喪되어 歸鄉 退居한 學者를 중심으로 學問을 하고 安分知足과 自然隨順의 생활에 젖게 되었고, 崇儒의 緣故地에 書院을 私設하는 風이 일어나 그것이 후일 士林培義의 溫床에서 당쟁을 助長하는 策源地가 되었고 士禍로 말미암은 分派는 宣祖朝에 와서 黨爭의 素因이 되었다.³⁶⁾

그 直接的 近因은 沈義謙과 金孝元 間의 私感和 반목질시에 있었다. 그 客觀的 要因은 官制 制度의 缺陷 때문이었다. 오랜 士禍로 官職을 갖지 못한 新進 士類들의 心的 狀況은 見機 出世主義的³⁷⁾ 心理로 機會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明宗이 親政하자 外戚 勢力이 斥退됨에 沮喪하던 士類의 意氣는 沈義謙의 士林扶護로 차츰 活氣를 되찾았다. 이런 雰圍氣 속에서 沈·金 두 사람의 私感和 反目嫉視는 드디어 吏曹 銓郎이란 官制를 둘러싸고 대립되었으니 이것은 新·舊 勢力間의 대립으로 宣祖8년(1575)에 마침내 朝鮮朝의 政治史를 支配하는 東西 分黨으로 폭발한 것이다.

2) 黨爭의 樣相

金孝元의 新進勢力을 중심으로 한 東과 沈義謙의 既成勢力을 중심으로 西로 分裂하였다. 東西分黨이 생긴 초기에는 대체로 東人이 득세하여 西人을 압도했다. 東人에는 대체로 李滉과 曹植의 文人이 많았고, 西人에는 李珣와 成渾의 文人이 많아서 黨爭은 學派의 대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栗谷은 東西人의 和解를 周旋했으나 끝내 실패하고, 西人의 巨頭로 指目を 받으며 東人으로부터 專擅慢君이란 罪名으로 彈劾까지 받았다. 西人의 鄭澈은 東人 朴謹元·宋應灑·許篈 등의 시비를 따져 끝내 東人 3人을 流配가게 했는데, 이를 癸未三竄³⁸⁾이라 하고 이는 당쟁에 관련한 政治的 流配의 시초가 된다.³⁹⁾

東人은 宣祖 18년(1585) 癸未年의 보복으로 鄭澈을 論斥하여 鄉里로 放逐하였다. 同王 22년 鄭汝立의 逆變으로 東人은 失勢하여 이에 關聯嫌疑를 받은 자는 죽고 流配를 당하였다.

이런 사건 속에서도 아직도 東人의 李山海·柳成龍 등이 要職에 殘存했는데 同 24년(1591) 鄭澈이 建儲議로 宣祖의 忌諱를 사서 罷黜되자 西人은 실각하고 東人이 再執權케 되었다.

이에 東人은 鄭汝立의 事件 때 無罪한 많은 東人들을 逆獄한 問責을 따져 鄭澈에 대한 強硬派와 隱健派로 分裂케 되었다. 곧 強硬派인 李潑·李山海·洪汝諄·柳永慶 등은 北人으로, 隱健派인 禹性傳·金暉·柳成龍 등은 南人으로 分裂했다.

36) 李丙燾 『韓國史大觀』(서울: 普文閣, 1964.) pp.366~368 參照

37) 『上揭書』 p.371

38) 李建昌 『黨議通略』(李民樹 譯 서울: 乙酉文化社, 1972) p.19

39) 成樂熏 「韓國黨爭史」(『韓國文化史大系』Ⅱ. 서울: 高麗大學 民族文化研究所, 1965. p.353)

國事보다 黨利와 政權爭奪에 주로 血眼이 되어 있었던 士類들은 이를 반대하고 들지 않았다. 그리하여 同王 25년(1592)에 日本의 侵略을 당하는 國難을 겪는다. 國難克服에 舉國的으로 협력하여 나라일에 임해야 할 분위기 속에서도 宣祖가 義州로 파천한 후에도 兩司에서는 東·西로 대립되었다. 곧 “國事蒼黃日 誰能李郭忠 去邠存大計 恢社仗諸公 痛哭關山月 傷心鴨水風 朝臣今日後 寧復各西東”⁴⁰⁾이라는 宣祖의 詩는 이런 情況을 反映한 것이다.

그런데 倭亂 중 柳成龍의 和議 주장으로 南人이 실각하자 平定 후 北人이 집권케 되었다. 이 北人은 大北(南以恭派)와 小北(洪汝淳派)으로 분열되었다가 宣祖 末年에 嗣位 問題로 大·小 兩北의 反目は 극심해졌다. 小北의 柳永慶이 永昌君을 지지하고 나서자 大北의 李山海·李爾瞻·鄭仁弘 등은 光海君을 옹립하여 小北派를 逆賊으로 몰고 政權을 전담했다.

大·小北의 派爭은 光海君 2년(1610)에 大北은 肉北·骨北·中北·淸北 등으로 小北은 淸小北·濁小北 등으로 아무런 理念도 없이 마치 細胞分裂처럼 分裂했다.⁴¹⁾ 오랫동안 野에 있던 西人은 反正으로 光海君을 폐하고 仁祖를 옹립하여 집권한다.

西人은 집권 후 反正에 功이 있는 金堧·李貴 등의 勳西와 金尙憲 등의 淸西로 分裂되고 情況에 따라 金堧의 老西와 李貴의 少西로 分派하였다. 이런 派爭 중에 胡亂을 만나 國恥悲憤에 떨게 된다. 그리고 斥和를 둘러싸고 갈수록 派爭은 극심해지고 仁祖 末年에 勳西는 洛黨·原黨 등으로 淸西는 山黨·漢黨 등으로 分裂하였다.⁴²⁾ 그러다가 孝宗朝(1650-1659)에 山黨人 宋時烈·宋俊吉 등이 등용되면서 西人의 各分派는 그 밑에 통일되었다.

그 동안 오래 野에 있어 집권할 기회를 노리던 南人은 마침내 孝宗의 喪을 당하여 母后 趙大妃의 服喪問題를 들고 일어나서 西人과 싸웠다.⁴³⁾ 西人 宋時烈은 暮年說을 주장하고 南人 尹鐫 등은 3年說을 주장하여 西人政權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무렵 南人 尹善道는 疏를 올려 宋時烈을 반박하다가 三水로 流配를 당했다.

이어 顯宗 15년(1674) 孝宗妃가 죽자 또 趙大妃의 服喪이 거론되어 西人은 大功說로, 南人은 暮年說로 대립하자 이번에는 南人의 주장이 채택되어 西人은 실각하고 宋時烈은 德源으로 流配를 당했다. 服制論 是非로 이긴 南人은 肅宗 5년(1679)에 宋時烈에 대한 극형을 주장한다. 許穆을 중심으로 과격파와 許積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로 갈리어 淸南·濁南으로 分裂되었다.

새로 집권한 南人이 專擅함이 너무 심하여 이에 反感을 품어 肅宗 6년(1680)에 王이 西人 金萬基·申汝哲 등에게 政局換局의 긴급 傳敎를 내린다 이 庚申大黜陟으로 인해 南人의

40) 列聖御製 龍巖書事

41) 李建昌은 朋黨되고 分裂되는 까닭을 『黨議通略』의 〈原論〉에서 첫째 太學의 太重, 둘째 名義의 太嚴, 세째 文詞의 太繁, 네째 刑獄의 太密, 다섯째 臺閣의 太峻, 여섯째 官職의 太淸, 일곱째 閱閱의 太盛, 여덟째 昇平의 太久라 지적했다.

42) 成樂燾 「前揭書」 p. 292 參照

43) 禮論 是非는 政治權力的 투쟁으로 비화하는 당쟁을 낳고 自派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입장을 斯文亂賊으로 위협하여 정통성을 고집하는 전통주의를 더 한층 공고하게 했다.

許積·尹鏞·李元禎 등은 死刑되고 그 밖에 많은 사람이 流配를 당하였다. 그 결과 西人은 再執權하게 되는데, 反對黨을 陰謀로 몰아낸 問題로 老·少論으로 分裂되는데 金益勳·金錫 등이 金煥에게 돈을 주어 謀叛告變케 한 是非로 韓泰東·朴泰維 등이 金益勳의 행위를 탄핵하자 宋時烈은 이를 救命했다.

한편 肅宗 9년(1683)에 尤庵은 孝宗廟를 世室로 하고 太祖에게 昭義正論이란 尊號를 追上하자는 提議에 朴世采·尹拯 등은 少論으로, 宋時烈·金錫胃 등은 老論으로 分裂했다.

肅宗 15(1689)년에 閔妃를 廢黜하고 昭儀張氏 소생의 王子(景宗)를 世子로 冊立하는 문제에 에워싸고 이에 반대하던 西人이 失脚하고 南人은 再執權을 한다. 이에 尤庵은 濟州島에 圍籬安置, 소환 도중 井邑에서 賜死되었다. 한편 肅宗의 閔妃 廢黜에 반대한 西人 吳斗寅 등 80여인은 訊問당하고 少論의 南九萬은 流配, 朴泰輔는 가혹한 형벌 끝에 流配 도중 藥殺을 당한다. 이것이 己巳 換局이다.

肅宗 20년(1694) 西人 金春澤 등이 廢妃 閔氏의 復位運動을 일으키자 南人의 閔黜 등은 政敵을 제거하려 하다가 前非를 누우친 肅宗의 政局變動으로 失脚하고 西人이 執權하게 되는데 이것이 甲戌換局이다.

西人이 집권 후 老·少論間에 爭點이 일어났는데 돈을 써서 閔妃復位를 비밀히 도모한 金春澤·韓重燾 등의 治罪 여부, 張禧嬪의 죄를 世子를 위해 寬大히 하느냐의 問題였다. 그 결과 韓重燾은 死刑, 金春澤은 流配된다. 이以後는 줄곧 西人의 세상이었으나 老·少論間의 싸움은 치열하였다.

한편 世弟(英祖) 冊封問題를 에워싸고 老·少論의 다툼은 少論에 의해 辛壬土禍(1721-22)를 빚어냈다. 곧 老論의 4大臣 金昌集·李頤命·李健命·趙泰采 등이 反逆陰謀罪로 死刑되었고 少論이 執權하였다.

英祖 3년(1727)에 英祖는 黨爭의 慘禍를 통감하여 蕩平策으로⁴⁴⁾ 黨色이 강한 자를 제거했다. 少論의 경우 老論의 金昌集 등을 逆으로 몬 辛丑疏에 聯名한 金一境을 처단하고 李眞儒 등 6인을 流配시켰다. 그리고 老論의 경우 李義淵을 제거하였다.

아울러 色目에 구애됨이 없이 고루 人材를 등용, 나라 일을 是非하는 上疏를 금하게 하고, “無備不黨 王道蕩蕩 無黨無備 王道平平”⁴⁵⁾ 하는데 진력하였다.

正祖도 蕩平에 注力했다. 한 때 思悼世子の 죽음을 동정하는 少論과 南人에 時派, 이를 반대한 老論에 僻派가 생겼다. 純祖 1년(1801)에 僻派는 時派를 제거하기 위한 辛酉邪獄을 꾸렸다. 蕩平運動이 주창된 후 비교적 잔인한 派爭은 없었으나 黨爭이 근절된 것은 아

44) 李建昌 『前揭書』 p.89 蕩平策은 英祖 때부터 實施되었지만 蕩平이란 이름은 肅宗 때 朴世采가 皇極蕩平의 說을 글로 올린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李圭泰 『風物뿌리학』 『조선일보』 1982.9.5 四色の 폐단을 없애기 위한 蕩平思想을 음식에 구현시킨 것으로 蕩平菜(빨간 살코기, 파란 미나리, 검은 김, 노란 녹두)가 등장했다.

45) 震檀學會 『韓國史』(近世後期篇)(서울:乙酉文化社 1959 p.60 參照)

니다. 朝鮮朝 末까지 勢道政治로 四色은 그대로 남는데 그 主導權은 老論이 잡아오다가 高宗의 등극 후 大院君의 黨閥의 積弊 打破·四色平等의 門戶開放·人材登用으로 사실상 黨爭은 衰退하여 버렸다.⁴⁶⁾

3) 黨爭의 影響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黨爭은 政治·社會·文化 등 諸般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政治的으로 黨爭은 부질없이 政爭만을 조성하여 士大夫 兩班 支配階層과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여 人材 등용의 길을 봉쇄하였는가 하면, 黨爭은 國利民福을 도외시하여 背公黨利에만 혈안이 되어 정치적 부패·국력의 약화, 그리고 民生의 塗炭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사회적으로 당쟁은 편협하고 배타적인 생활태도와 고루한 정신에 젖게 하여 협동과 화목한 정신을 말살했고, 국민 간에 이유없는 대립만을 유발시켜 倫常의 질서를 파멸시켰으며 社會階級의 離背를 초래하게 하였다. 아울러 黨爭은 사회생활에 있어 交友와 婚姻의 범위를 좁혀 近親 結婚을 불가피하게 하여 優生學上의 나쁜 영향을 끼쳤는가 하면 黨爭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인간성이 억압되어 사회적인 개혁이나 문화적인 발전을 기할 수 없었다.⁴⁷⁾

이러한 黨爭의 일반적인 영향외에도 精神的으로는 당쟁이 우리 민족에게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발전적 요인을 약화시켜 背面性과 은폐의식을 갖게 하였고, 우리 민족성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분열성향이 극대화하여 단결력을 약화시켰다.

아울러 당쟁은 그 패배자로 하여금 모든 것을 運命論으로 돌리는 諦念意識과 宿命意識을 낳게 하고 당쟁에 몰려 江湖에 묻혀 지내게 됨에 따라서 隱遁思想이 팽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통성에 대한 강한 집착은 전통주의를 이상적인 생활태도로 삼게 되어 創造나 發展보다는 信而好古하는 기풍을 낳게 하여 미래 지향이라기 보다 報本反始의 과거지향의 성격을 띠게 했다.

한편 당쟁에 휘말리고 流配당한 사람들로 하여금 流刑이라는 특수한 外的 條件에서 流配者만이 가지는 독특한 心理狀態에 젖게 하였고 이런 精神的인 不安을 文學으로 表白하는 流配文學 형성의 要因이 되었다.

2. 刑律制度

流刑은 重罪를 범한 자에게 死刑까지는科하지 않고 遠隔地로 流配를 보내어 終身토록 다시 歸還치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⁴⁸⁾ 따라서 일반적 流刑의 본질은 自由刑과 비슷하나 死刑의 換刑으로 대치되는 死刑 완화법으로 이용되는데 있다.⁴⁹⁾ 流刑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분

46) 成樂熏 「前揭書」 pp.381~387 參照

47) 李弘植 『前揭書』 p.380

48) 『大明律直解』 名例律 五刑名義

“流配謂人 犯重罪 刑殺 流法遠方 終法遠方 終身不得回歸”

49) 法文社編 『法律學辭典』(서울:法文社, 1968) p.701

國事犯으로서 役刑 1年 이상의 律에 저촉되는 자에게 과해졌다.

이러한 流刑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史料에 의하면, 流刑이 이미 三國時代부터 있었던 것으로⁵⁰⁾ 추정할 수가 있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三國時代에 流刑은 隋·唐의 制度에 영향을 입었으리라고 추측할 수가 있다.

高麗時代에 와서는 唐律을 모방하여 死·流·徒·杖·笞 등의 五刑을 高麗律로 確定하였다. 高麗朝 流刑의 기준은 流配地의 遠近·距離에 따라 그 輕重을 책정하여 2千里·2千5百里·3千里의 세 등급으로 구분한 바가 있는데 流2千里는 杖17·징역1年·贖銅80斤, 流2千5百里는 杖18·징역1年·贖銅90斤, 流3千里는 杖20·징역1年·贖銅100斤 등등으로⁵¹⁾ 贖刑制를 인정하였다.

朝鮮朝에 와서 太祖가 即位 教書에서 앞으로 서울과 지방의 刑 집행 관원은 무릇 公的·私的인 法은 반드시 大明律에 의거해야 한다고⁵²⁾ 선포하였다. 朝鮮朝는 建國初 高麗律과 같이 五刑을 택하고, 大明律에 준한 刑罰을 행하기 위하여 따로 실정에 알맞게 徒刑·流刑 贖刑 등을 정하였고 明律에 규정된 里數는 朝鮮의 里數로 계산하여 贖錢의 일부를 감하였다.

朝鮮朝의 流刑은 반드시 杖刑을 併科했고, 流1千里·杖1百, 流2千5百里·杖1百, 流3千里·杖1百 등 세등급이 있고 每5百里마다 刑一等이 加減되었다.⁵³⁾ 그런데 이 규정대로 시행하기에는 불합리하여 地理上 流3千里의 刑 執行은 불가능하므로 유형수의 居處를 중심으로 流刑의 等級에 따라 일정한 지방을 指定하여 流配를 보내는 등 실정에 맞도록 처리하였다.⁵⁴⁾

流3千里 등의 刑 規定은 국토가 중국에 비해 좁은 朝鮮朝에서는 이것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世宗 12년(1430) 潤12월에 刑曹의 上奏에 따라 유배지방을 정한 바가 있었다.

京城·京畿 左右道 留後司에서 3千里로 유배할 자는 慶尙·全羅·平安·咸吉道 안에서 30息 밖에 있는 해변의 여러 고을로, 2千5百里는 慶尙·全羅·平安·咸吉道 안에서 25息 밖에 있는 여러 고을로, 2千里는 慶尙, 全羅, 平安, 咸吉道안에 20息 밖에 있는 여러 고을로 유배지방을 정하였다.⁵⁵⁾

50) 『北史』百濟傳 “其刑罰 反逆退軍及 殺人者斬 盜者流”

『三國史記』新羅 本紀 興德王 3年條 “漢山州飄川人妖人 自言有速富之術 衆人頗感之 王聞之曰 執左以或衆左刑之 先王之法也 投畀其人遠島”

51) 『高麗史』卷 38 刑法志 流刑條

52) 『太祖實錄』卷1·元年 壬申 7月 乙巳條 “自令京外刑決官 凡公私罪犯 心該大明律”

53) 『大明律直解』名例律 五刑名義 “自二千里 二千五百里 至三千里 爲三等 每五百里 爲一等加減”

54) 그 밖에 流3千里를 曲行하여 실시한 事例가 있는데 正祖 卽位年 10月6일에 義禁府에서 啓하기를 機長縣으로 流配되는 3千里 流配者 金若行을 3千里 流配의 前例에 따라서 다시 議所를 定하여 曲行토록 下命하였으니 王都에서 機張까지는 970里이고 機張부터 江原道 平海郡까지, 平海郡에 咸鏡道 端川府까지의 距離를 합하면 3千里가 되니 曲行의 過程을 계산하여 端川府로 流配 보내기를 請한 바 王이 이를 允許하고 下教하여 이르기를 900里 땅으로 流配시킨 것은 流3千里의 뜻이 없으므로 曲行케 하여 流刑囚 金若行으로 하여금 朝廷에 流3千里의 流刑이 엄격히 실시하고 있음을 알게 하고 또 曲行할 때에 고통을 받게 함이라고 한 例가 있었다. (『日省錄』 43卷 正宗 卽位年 丙申 10月6日條)

55) 『世宗實錄』卷 50. 12年 庚戌 潤12月11日條 “京城留後司 京畿 三千里 則慶尙·全羅·平安·咸吉道內 三十息外 濱海各官, 二千五百里 則慶尙·全羅·平安·咸吉道內 二十五息外 各官 二千里 則慶尙·全羅·平安·咸吉道內 二十息外 各官”

그 밖에 黃海道·平安道·忠清道·全羅道·慶尙道·咸吉道·江原道 등지에서 각각 3천리·2천 5백리·2천리 등 해당 道를 중심으로 유배지방을 정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大典會通』에 의하면 濟州 三邑人(濟州·大靜·旌義)으로서 流罪를 犯한 자는 三邑 內에서 相互 定配케 하고 濟州 三邑 사람으로서 도망하거나 허가없이 타지방으로 이주한 자는 죄를 주고 原籍에 되돌리는 한편 이런 제주인을 감싸준자는 杖 1百에 3千里 먼 곳으로 流配케 한다⁵⁶⁾는 규정이 있어 濟州人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었는가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流配地의 원칙은 수립했지만 정치범이나 특수 범죄인에 대한 流配地 選定은 王府의 政策的인 배려에 의해 일부 예외가 인정되었다.

조선조의 유배 형기는 원칙적으로 無期終身刑이었다. 그래서 정치범으로 단죄가 된 유배자는 君王의 사면령과 政治 情勢의 변동이 없는 한 한평생 유배지에서 歸鄉할 수 없는 것이 상례다. 조선조의 사면제도는 당파적·세도적 정치에 좌우되어 극도로 情實的·政略的으로 남용되어져 그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치 못하였다.⁵⁷⁾

流刑에는 遷徙·付處·安置 등의 세 가지가 있었다. 遷徙는 “遷離鄉土 一千里外”로서 범죄인을 고향에서 천리나 떨어진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형벌이다. 遷徙는 侵害的 性格을 가진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데 있다. 遷徙에는 全家徙邊이란 것이 있는데 流配者와 함께 멀리 僻地로 강제 移住시키는 가혹한 刑罪이다. 곧 罪는 三族에 미친다는 三族連座刑·家族緣座刑의 일종이어서 中宗 4년(1509)부터 실시되었지만 刑罰이 가중하다 하여 그 후 여러 차례 改定되었다.

付處는 中途付處의 준말인데 이것은 官員에게 과해진 형벌의 일종이다. 유배자에게 그의 정상을 너그럽게 참작하여 一定한 지역을 정하여 지내게 하는 데 유배지 縣官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 措置를 맡긴 형벌이다. 付處는 儒生에게 대해서도 官員에 준하여 적용되었는데 中宗 때 尹衡을 外方에 付處시킨 바 있고⁵⁸⁾ 이 付處의 加重罪로 奴婢가 되기도 한다.⁵⁹⁾

安置에는 本鄉安置·絕島安置·圍籬安置 등의 세 가지가 있다. 本鄉安置란 安置刑에 있어서도 가장 죄질이 가벼운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죄인의 고향에 幽閉시키는 것이다. 太祖 元년(1392) 7월의 教書에서 고려 말기에 徒黨을 결성하여 반란을 모의해서 맨 처음으로 禍端을 일으킨 禹玄寶 등 56명에게 5등급으로 나누어서 형을 내렸는데 그 중 本鄉安置는 가장 경미한 형에 속하는 것이었다.⁶⁰⁾

絕島安置는 流刑 중 가장 가혹한 隔離 措置인데 無人島나 그 밖에 島嶼에 安置시키는 형

56) 『大典會通』 刑典

57) 赦免이 내리면 10惡(① 謀反 ② 謀大逆 ③ 謀背 ④ 惡逆 ⑤ 不道 ⑥ 大不敬 ⑦ 不孝 ⑧ 不睦 ⑨ 不義 ⑩ 內亂)의 범죄와 大罪(① 謀叛 ② 強盜 ③ 殺人 ④ 強姦 ⑤ 脅騙)의 범죄를 제외해서는 全國的으로 既決·未決囚는 모두 석방되어지는 게 慣例였으나 政治的 流配者의 경우는 政略的으로 남용되어져 왔다.

58) 『中宗實錄』 卷11. 5年 庚戌 4月7日條 “上命 尹衡外方付處”

59) 『成宗實錄』 卷246. 21年 庚戌 10月

60) 『太祖實錄』 卷1. 元年 壬申 7月 乙巳條 “五十六人在前朝之季 結黨 謀亂… 各於圍籬安置”

벌이다. 이른바 重罪人에 대한 應懲 措置인데, 극악한 경우 毒蛇·毒虫이 棲息하는 곳에 安置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 예로 安肇煥의 경우 楸子島에서 그런 고초를 겪었음을 [萬言詞]에서 表白하고 있다. 그러므로 絕島安置는 『大典通編』의 刑典에도 絕島에 官守가 없는 곳에는 죄인의 유배지로 편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黑山島와 같은 극악한 지역에는 國王의 특별한 교지가 없으면 유배시켜서는 아니되며 濟州의 三色에는 罪名이 특히 중한 자 이외는 流配시켜선 안 된다 했다.⁶¹⁾

圍籬安置란 죄인이 謫所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幽閉시키는 것인데 重軟禁에 해당하는 형벌로 중죄인에게 내리는 것이었다. 탕자나무가 전라도 지방과 제주 지방에 많았으므로 이 형을 받은 사람은 대개 전라도의 연안 해안의 섬과 濟州島로 많이 갔다. 대체로 유배자는 그의 가족과 함께 동반할 것을 원한다면 허락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圍籬安置만은 大明律에서는 가족과의 同居를 허락하였으나,⁶²⁾ 朝鮮朝에서는 “不可與家屬混處”라고 하여 허락치 않은 점에서 가장 가혹한 유형이었다. 政治的 流配者의 濟州島配는 모두 이 圍籬安置였다.

受刑者의 發配에는 그 관직의 고하에 따라 호송자가 다르다. 金吾存棘罪人과 正二品 이상의 高官이면 都事(義禁府의 從五品官)가 流配地까지 호송을 맡고, 그 이하의 죄인은 堂上書史나 堂下 羅將이 그 호송을 담당했다. 또 刑曹의 죄인으로 徒配 이상의 죄인이면 京驛子가 이를 압송해 가고 다음 驛吏에 인계하며 유배지까지 호송했다. 또 徙·流·付處·安置 등 流配당한 자는 刑曹에 기록하고, 他司 및 外方에 流配당한 자도 刑曹에 기록해 두고 후일 범죄인의 검사 자료로 삼았다.

京外의 죄인이 流配地로 호송되면 관내의 道觀察使는 즉시 그 자의 죄명과 도착 일시를 기록하고 국왕에게 상주했다. 그리하여 流配人의 감시 책임은 관내의 守丞이 맡는다. 당시의 정권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流配된 자의 謫所를 다른 지방으로 옮겨지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 정상 참작으로 流配人이 王都에 가까운 곳으로 옮겨지는 수도 있었다. 前者를 ‘移配’⁶³⁾ 後者를 ‘量移’라고 한다.

流配地로 발배하는 도중 만약 생존시켜 두어서는 후환이 있다고 판정이 되는 자 또는 중죄인 등을 호송관리가 독살 또는 익사시켜 버리기도 했다. 그 예로 당쟁이 치열했을 때 朴泰輔는 流配 도중 죽었다고 하는데 앞의 수법과 같이 독살당한 것으로 보는 게 지배적이다.

조선조의 流配地 선정은 遠流와 島配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島配라고 해서도 어떤 기준이 있어 책정되고 流配地나 謫所가 결정되어진 게 아니라 그때 그때 형편인 정치정세나 죄

61) 『大典通編』 刑典 推斷

62) 『大明律直解』 名例律 五刑名義 “凡犯流者 妻妾從之 父祖子孫欲 隨者聽”

63) 곧 宋時烈이 제주에 유배당한 후 井邑으로 移配된 것과 仁祖 16년(1638) 4월 備邊司로부터 王에게 역적의 자식이 연령 미만이나 연좌형에 처해져 남쪽에 유배되어 있지만 이제는 성장했으므로 제주도에 가까운 珍島·長興 등지의 유배자처럼 다른 섬에 移配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상주하자 왕이 이것을 승인한 바가 있다.(『備邊司謄錄』 仁祖 16年 4月條)

인의 신분차이와 죄상의 경중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제주도에 流配된 流配人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그런 僻地에 流配당한 것보다 島配당한 것이 더 중죄인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은 朝鮮朝의 刑律制度에 缺陷이 있다기 보다 골육상잔의 黨爭에 이용되어진 면이 컸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 유형중에 최악형인 絶島安置란 것은 朝鮮朝 封建國家의 權力的·政治的 秩序의 유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조선조가 遠配보다 島配를 보다 더 중시한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筆者가 『韓國人名大事典』에서 朝鮮朝 시대의 人名 중 700명을 대상자료⁶⁴⁾로 하여 조선조

64) 流配地 및 流配者數 分布

區分 道別	流配者 및 流配者數	流配地計	流配者計
京畿道	南陽3 坡平1 抱川1 廣州1 積成1 楊州1 朔寧1 豐德1 通津1 喬洞1 龍仁1 高陽1 交河1 驪興1 開城1 陰竹1 長湍1 楊根1 利川2 安山1 永平1 陽城1 富平1 良才1 江華島5	25	32
平安北道	嘉山2 博川1 寧邊7 宣川6 江界9 碧潼8 朔州5 涓原1 楚山1 熙川2 義州6 定州2 昌城3 鉄山1 麟山1 龜城2 郭山4 固城4	18	65
平安南道	德川2 合浦1 咸從1 肅川2 順安1 江東1 江西1 孟山2 安州2 陽德2 祥原1 中和4	12	20
濟州島	濟州5 大靜34 楸子島4 旌義4 鹿島2	5	49
慶尙北道	慶山1 龍川2 寧州2 開寧2 醴泉1 長鬐2 慶州1 長沙1 咸昌2 清河1 延日2 高靈1 安東1 永川1 善山5 永陽1 寧海9 迎日1 平海3 尙州1 龍宮2 星州3 義城1 盈德3 順興1 仁同1 興海2 黃澗1 蔚山4 蔚珍2	30	60
慶尙南道	西生浦1 東萊5 巨濟島18 晉州3 金海4 靈山1 淸道1 咸安1 咸陽2 河東2 昌原3 泗川3 密陽1 宣寧1 梁山4 楊山1 機長5 昆陽4 蔚州1 晉陽1 南海15	21	77
忠清北道	錦山3 忠州5 金山2 陰城1 鎮川2 提川1 文義2 槐山1 永同2 淸州3 丹陽2 報恩2 沃川1	13	27
忠清南道	沔川1 恩津1 林川1 牙山5 公州5 稷山4 德山1 唐津1 洪州1 保寧1 結城1 定山1 懷德1 扶余3 尼山1 禮山1 蘿浦1	17	30
咸鏡北道	吉州5 會寧6 鏡城1 茂山2 穩城5 富寧4 慶源11 明川9 鍾城13	9	56
咸鏡南道	三水8 北青3 安邊2 慶興6 端川2 咸興1 德源2 永德1 泗水1 甲山13 洪原6 利城2	12	47
江原道	金城2 淮陽3 杆城2 原州4 江陵1 寧越3 伊川2 通川1 洪川5 春州1 江陰2 春川1 鉄原2 橫城1 狼川1	15	33
黃海道	豐川2 牛峰1 白川2 文化1 平山2 安岳1 鳳山1 兔山1 龍因1 載寧2 延安4 黃州2 平州1 擁津1 嶺南1 新溪1	16	24
全羅北道	興陽5 沃濟2 萬頃2 蝟島3 礪山2 全州3 淳昌1 扶安7 珍山1 益山1 長水1 木川1 金提3 興德1 茂長4 靈光3 任實2 南原2 茂朱3 臨陂1 完山1 古郡山島1 高山1	23	51
全羅南道	順天6 箕佐島1 黑山島15 羅州4 珍島27 綾州1 康津11 薪知島2 珍原1 西島1 光州1 荏子島2 靈岩7 長城1 海南4 長興7 光陽2 巨文島1 求禮1 樂安1 南平1 羅老島1 同福1 務安4 寶城1 智島7 古今島14 金甲3 烏林1	29	129
流配地總計		245	流配者數總計 700

① 朝鮮朝의 流配地 및 流配者數 分布 統計를 作成함에 新丘文化社刊 『韓國人名大事典』에서 朝鮮時代의 人名 4,198명(文臣 3,472, 武臣 580, 僧侶 146) 중 流配者 881명(文臣 810명, 武臣 68명, 僧侶 3명)을 整理하여 流配地가 精確한 700명을 그 對象資料로 삼았다. 이 統計에 나타난 것은 流配者의 一次 流配地만을 基礎로 하여 作成된 것이다. 地名은 現在와 다르거나 없는 곳도 있음.

② 流配地名의 確認은 權老相編 『韓國地名沿革考』를 參考함.

시대의 流配地 및 流配者 수를 조사분석해 본 결과 조선조시대의 流配地는 국내 245개처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곧 王都를 제외한 朝半島 全域의 偏鄙地는 대체로 流配地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도별로 보면 全羅南道가 流配地 29개처에 流配者 수 129명으로 그 순위가 첫째에 속하고 다음 慶尙南道가 流配地 21개처에 流配者數 77명으로 그 순위가 둘째에 속하며 平安北道가 流配地 18개처에 流配者數 65명으로 그 순위가 셋째에 속하며 慶尙北道가 유배지 30개처에 流配者數 60명으로 그 순위가 넷째에 속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을 지역별로 보면 流配地 濟州島의 大靜縣에 流配된 수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이를 근거로 하여 濟州島의 大靜縣은 流配地로서의 대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金錫哲의 狀啓에 따라 정책적 유배지가 되었다.⁶⁵⁾ 이 분포통계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流配地는 북쪽 연방에 三水·甲山·鏡城·明川·穩城·慶源·朔州·江界·碧潼 등지가 남해안 島嶼地方에 南海·珍島·黑山島·古今島·智島·巨濟島·楸子島 등지에 散在되어 있으며, 또 濟州島에 속하는 최남단인 무인도 鹿島가 流配地였음을 알 수 있다.

濟州에 유배된 流配者의 受刑期間은 설정되 있질 않아 流配者의 석방은 오로지 군왕의 관용과 국정환국에 따른 사면이나 量移가 없는 한 流配地에서 流配生活을 종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流配地에 流配者의 후손이 대대로 살고 있는 곳도 있다. 제주도 내 姓氏 가운데 74姓을 중심으로 濟州島 入島狀況을 조사해 본 결과 입도 원인이 유배와 관계가 있는 姓氏가 10姓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⁶⁶⁾

이러한 流刑制度는 建陽元年(1896) 종래의 里程制에 의한 制度上의 未備한 것을 刑期制로 곧 終身 15년·10년·7년·5년의 형기로 개정되었다.

第2節 概 觀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流配는 死刑보다는 가벼운 형벌이다. 그러나 그것이 士大夫의 경우 이제까지 直接的으로 體驗하지 못한 孤獨·絶望·不安·貧窮 등을 동시에 겪게 된다. 그리하여 知性의 고난 가운데 士大夫 知識層을 그들의 社會로부터 斷絶과 孤立시키는 충격에 직면한다. 물론 流配는 최악의 경우 遠惡地 島配·圍籬安置·絶島安置 등이 있는데 이

65) 『中宗實錄』 卷 19·8年 癸酉 12月條 ‘京中犯罪定屬人應入濟州者首屬于此以實殘縣’

66) ① 淸州韓氏, 金海金氏(四尹派·三賢派), 密陽朴氏(糾正公派), 信川·谷山康氏, 古阜李氏, 江陵咸氏, 豐川任氏(海隱公派), 仁同張氏(眞佳派), 陽川許氏, 慶州李氏 등 10姓인.

② 楸子島에 孝子閣의 碑文이 있다. 1967年7月20日 現地 踏査로 流配 子孫이 楸子島에 살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 碑文의 一部는 다음과 같다.

“密陽朴氏 純孝表示文

字應七 其曾祖載春 散賤恤民 自官除戶 祖厚績以續 父罪謫居十年 咸悅聖堂受業…… 其母安氏 生於咸悅聖堂 里嫁于期士 生四男 二女……’

둘째, 流配者는 歸巢志向의인 태도보다 일단 流配地의 現實을 받아들임으로써 諦念과 적응의 태도로서 생활해 나간다. 특히 遠惡地 島配인 濟州島 流配者들은 그들이 더 이상 조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絕島 圍籬安置의 重刑임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그런 경우 流配地의 牧使나 鄉吏의 배려로 유폐되는 일을 겨우 모면할 경우도 없지 않아서 流配地의 젊은 黨人들이나 村人들과의 人間的인 接觸과 交流가 可能했었다.

곧 濟州島에서도 金正喜처럼 大靜縣 圍籬安置가 아니면 대체로 金淨처럼 廬幕이어서 學人·村人 등 사이의 關係가 상례적이었다. 그것은 趙光祖의 道學政治를 동조했던 金淨의 濟州島 生活 1年の 업적과 朝鮮朝 後期 實學派의 실천가이던 金正喜의 大靜縣 生活 9年の 많은 업적 등이 可能했던 理由가 된다. 이런 流配者들은 流配地의 現地 學人들에게 그들의 완숙한 道學이나 經世理論을 「論語」·「孟子」·「通鑑」 등이 고작이었던 邊方 知識 水準에 널리 가르쳐 「四書」·「五經」·「實學」·「書道」·「詞章」 등의 경지를 터득케 했다.⁷⁰⁾ 그들이 流配地의 學人·村人들과의 興學教化의 同化를 통해서 죄수이라기 보다 개인적으로 타향의 見聞을 넓히며 潛心道學하며 人格을 수양하고 再起의 때를 기다리는 삶의 한 실됨으로 教育者 또는 自己 完成者로서 많은 成果를 남겼다.

특히, 40餘日의 濟州島 流配生活을 보낸 宋時烈의 權威와 精力은 교통이 불편하여 社會的으로 聖上의 德化를 고루 미치지 못한 流配地 現地에 그의 種族을 적지 않게 퍼뜨리기도 하였다. 그것은 高麗朝 滅亡 이후 杜門桐 知識人들이 흘러 들어와 여러 姓 반이를 퍼뜨린 것과 함께 濟州島의 氏族 系譜를 多彩롭게 만든 것이다. 이런 流配者들은 流配地 現地야말로 그들이 餘生을 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認識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流配地 現地에 權威的으로 關係하기보다 現地의 사정과 調和하여 同化함으로써 現地 住民들의 知識과 教養 등을 자극하고 交流하면서 流配地 文化圈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째, 流配者들은 流配生活을 그들의 자기 완성을 위한 소중한 創造的 空間으로 만든다. 現實에서 격리되었을 때 그러한 疏外狀態에서 이제까지 體驗하지 못한 여러가지 것들을 把握하게 되고 그러한 모순에 대한 全體的 克服 論理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하여 流配生活을 書齋生活로 바뀌어서 깊은 研究에 沒入하거나 現實을 改革할 理論을 確立하거나, 詩文을 쓰는 創造的 계기를 만들었다. 만약 士大夫들이 流配당하는 일이 없이 官人의 幸福만으로 살았다면 이런 創造的인 文學活動이 機會가 없이 단순한 관리로 그 생애가 끝났을지 모른다. 그러나 流配者들에게 닥쳐온 이러한 政治的·社會的 追放으로 말미암아 流配당한 士大夫 知識人들은 무엇인가를 쓰는 사람이며 本質的으로 政治나 官邊에만 所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體驗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流配文學은 바로 이런 계기에서 형성된다. 康津 謫所의 丁茶山이야말로 그러한 流配生活을 自己克服과 完成의 創造的 空間으로 이용한 代表的

70) 제주도 교육위원회 『濟州教育通史』(제주: 제주도교육위원회, 1974. p.82) 및 金泰能 「秋史 金正喜의 大靜謫居와 그 影響」(『제주도』제 37호 1968) 參照

것이 君王의 특별한 사면에 의해 釋放되는 경우가 있고 流配·安置되었다가 바로 賜死를 당하는 일도 있어, 流配야말로 流配당한 士大夫들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죽음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러나 朝鮮朝의 大部分의 流配者들은 黨爭에 關與한 이유로 政治的 慣習처럼 유배를 갖다 왔다 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므로 朝鮮朝의 流配당한 士大夫들은 그들의 政治生活의 一部分으로서 流配를 받아들이는 일도 없지 않았다고 본다. 出仕하여 流配당하고 隱遁하거나,⁶⁷⁾ 出仕하여 流配당하고 再登用하는 과정 등은 모두 流配하는 동안에 자신의 人生觀과 關連하여 決定되어진다. 流配所에서 놀랄만한 名文 하나로 君王을 感動케 하여 解配·再登用·榮轉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대개의 流配의 경우 그것은 現實의 짐착을 去勢당하고 아무런 希望도 連結되지 못하게 하는 극단의 絶望을 만들어 주어 이제는 죽는 일만이 未來에 있을 뿐이라는 流配者 자신이 自己喪失을 實感하게 되고 流配者의 悲憤慷慨한 絶望·낙백은 그 어떤 것으로 대치할 수 없게 압당한 것이었다.

朝鮮朝의 黨爭에 關與한 士大夫 知識人들의 流配는 刑律의 刑事處分에 따른 配·謫 따위가 아니라, 政權爭奪이나 君王의 忌諱·排斥에 의해서 命해지는 流配인데 王族·士大夫들은 대체로 圍籬安置의 유배가 支配的이었다. 대부분의 流配者들은 이런 政治的 刑罰에 의한 結局 추방으로, 君王의 召命으로 釋放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처음으로 行動半經이 좁혀지거나 박탈당하므로써 流配地 絶島나 邊境을 죽음의 땅으로 생각하여 極限 意識으로 絶望했던 것이다.

이들의 流配生活에는 몇 가지 類型이 있다. 이런 生活이 反映된 것이 流配文學인 것이다.

첫째, 流配者들은 비록 불운하게 유배를 당했다 해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忠念愛君의 忠誠을 吐露한다. 濟州島 朝天의 戀北亭,⁶⁸⁾ 望京樓⁶⁹⁾ 등은 그런 流配者들이 북쪽 王都를 바라보며 向主 一片丹心하는 忠誠의 懷抱를 품던 흔적이다. 이런 忠誠 안에는 반드시 재차 君王의 召命이나 政治的 동료로부터 추천되기를 바라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忠誠의 表示는 儒敎中心 社會의 삶의 準據點이 바로 忠이었기에 비록 流配당했다 해도 당연한 자세였다. 다만 그런 忠誠은 流配者 자신의 억울한 바 悲憤慷慨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바를 詩文으로 昇華시킴으로써 철저하게 疏外당한 자신을 달랠 수가 있는 것이다. 鄭叙의 「鄭瓜亭曲」과 鄭澈의 「思美人曲」, 金春澤의 「別思美人曲」 등에서 보이는 君王에 대한 戀慕는 그가 다시 총애를 받는 행복과 권위에 대한 鄉愁가 깔려 있다. 대부분의 軍소 士大夫들이 이런 流配地에서 상황을 詩文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67) 鄭炳昱 「孤山 尹善道」(『文學思想』 1974년 1월호 pp. 293~300)에서 “우리의 역사상에서 손꼽히는 지성인으로서…… 그들의 생활이 <출사+유배+은둔>이라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드물다”고 했다.

68) 金錫翼 『耽羅紀年』 宣祖 32年條 “重修朝天館 雙碧亭 改題戀北亭”

69) 趙貞喆 『靜軒瀛海廈欽錄』 卷 4, 望京樓條 “在衙內與延曦閣相連 攸使金秀文建”

인 學者이다.

그는 茶山 山亭에서 藏書 1千餘卷에 파문혀서 “某既謫海上 念幼年志學 二十年沈淪世路 不復知先生大道 今得暇矣 遂欣然自慶”⁷¹⁾의 體驗으로 <茶山學>을 大成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流配가 契機였다.

이것은 중국의 蘇東坡가 流配生活로 點綴된 후기를 통해서 그의 詩賦와 여러 名文을 남길 수 있었던 것 이상으로 流配文學의 가장 큰 成果라 하겠다. 古代 中國에 司馬遷이 있었다면 近世 朝鮮朝 後期에 丁茶山이 있었다는 자라는 그들이 다 함께 流配知識人의 苦難을 正面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크나 큰 歷史의 源泉과 實學의 本分을 보여 주었다는 것 이상으로 넓혀져야 한다고 본다.⁷²⁾

이와 함께 流配者들은 그들이 流配地의 學人·村人들을 教化시키고 그들과 함께 사는 일 이외에도 同志 知識人들과의 交流가 주목할 만하다. 金正喜의 경우 許小癡·申緯·權敦仁⁷³⁾ 草衣⁷⁴⁾ 白坡, 그리고 丁若鏞에 대한 침양들로 流配당한 士大夫 知識人의 화려한 交流를 나타냈다. 小癡는 大靜縣까지 건너가서 金正喜와 함께 지내다 돌아올 정도로 그 交流가 잦았다.

이와 같이 流配는 士大夫 또는 士族 知識人에 대한 政治的 除去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에게 엄습해 오는 失意와 싸우면서 流配文學의 決定的인 實現에 온몸을 던진다. 우리는 이런 流配者를 통해서 知識人이 現實로부터 坐折을 理想과 연결시킬 때 비로소 文化的 勝利에 이르는 것임을 깨닫는다. 知識人이 가진 理想이나 未來 志向의인 理論은 現實에 대립되면서 동시에 그 現實에 충동을 준다. 流配者들은 現實을 喪失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바라고 있는 이상의 이론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朝鮮朝 歷代를 지나면서 權力으로 인하여 사나운 운명에 직면한 流配者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流配者들은 유배지에서 自然美에 대한 觀照와 自省과 충절하는 洞察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藝術로 승화될 때 우수한 流配文學은 이루어졌던 것이다.

앞에서 “流配文學이란 流刑囚과 流配地에서 겪은 流配的 事實의 直接體驗과 그 感情的 內容, 그리고 流配의 狀況에 직면한 精神의 狀況을 그대로 文學化 한 작품”을 流配文學이라 규정하였다.

流配文學은 文學의 形態面에서 본 命名이 아니다. 이것은 각종 文學 形態에 비쳐진 文學의 內容으로서의 命名인 것으로 거기에는 流配의 事實이 反映되어 있다. 그것은 流配의 狀

71) 金智勇 二人共譯 『牧民心書·茶山詩文選』(韓國名著大全集, 서울:大洋書齋, 1975.) p.33

72) 前漢의 司馬遷은 흉노에 패하여 노예가 된 李陵의 충절과 무용을 칭찬했다가 武帝의 미움과 노여움을 사서 宮刑에 처해진 후에 『史記』 1백30권을 저술했다면, 茶山은 西學을 수용하기 위해 天主教가 가까웠다 하여 19년간의 유배생활 끝에 『牧民心書』 등 5백여권을 완성했으며 이 땅에 實學의 뿌리를 튼튼히 내렸다.

73) 『阮堂先生全集』 卷3에 權敦仁에게 보낸 서한 「與權敦仁書」에 35통이나 수록되어 있음을 볼 때 敦仁과 秋史와의 交流를 이해할 수 있다.

74) 『前揭書』 卷5에 草衣에게 보낸 서한 「與草衣書」가 38통과 卷9,10에 漢詩「贈草衣禪」 7수가 수록되어 있음을 볼 때 雲水行脚에 나선 草衣와 秋史는 극진한 友誼였음과 그 相互間의 交流를 이해할 수 있다.

況에 直面한 精神的 狀況이 反映되고 人生과 社會·生活과 時代相도 反映되어 있는 文學인 것이다. 그리고 黨派 싸움에서 이리저리 몰리다가 絶海의 孤島이거나 궁색한 山村에서 罪人의 몸으로 千辛萬苦하는 苦役 속에서 몸소 體驗하는 人生의 叙事詩⁷⁵⁾가 反映돼 있는가 하면 憂時戀君에 젖어 잠못 이루며 身上을 自歎하는 人生의 抒情詩가 反映되어 있기도 한다.

國文學上에는 저 新羅 眞平王 때 下舍人 珍提의 참소로 僻地에 流配된 上舍人 實兮가 자신 의로운 충절을 노래한 「實兮歌」를 비롯하여, 高麗時代엔 毅宗 때 鄭叙가 流配地 東萊 鄭瓜亭 냇가에서 君王의 召命을 苦待하며 戀君忠念에 젖어 노래한 詞極悽婉한 「鄭瓜亭曲」과 忠肅王 때 孤島로 流配당해 德陵을 그리며 노래 지었다는 蔡洪哲의 「冬栢歌」가 있고, 朝鮮時代에 들어서면 流配文學은 各種 文學形態를 빌어 나타난다.

곧 歌辭에는 燕山君 때 曹偉가 流配地 順天에서 創作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호소할 길 없는 悲憤을 노래한 歌辭 「萬憤歌」를 비롯하여, 宣祖 때 거둬진 鄉里放逐의 疏外와 流配의 雰圍氣로 昌平에서 노래한 鄭澈의 「思美人曲」·「續美人曲」, 肅宗 때 濟州島에 流配되어 지은 金春澤의 「別思美人曲」, 德源으로 유배당한 宋時烈을 陪行하여 지은 宗疇錫의 「北關曲」, 英祖 때 楸子島로 流配되어 지은 李眞儒의 「續思美人曲」, 甲山으로 유배 가서 지은 李匡明의 「北竄歌」, 正祖 때 楸子島로 流配되어 지은 安肇煥(?)의 「萬言詞」·「萬言詞答」, 慶源流配 때 지은 李基慶의 「尋眞曲」·「浪遊詞」, 哲宗 때 明川에 유배 가서 지은 金鎮衡의 「北遷歌」 등 이른바 流配文學으로서 人生의 長篇 叙事詩의 作品과 叙情詩의 作品, 그리고 紀行의 作品이 있다.

時調엔 光海君 때 流配地 慶源에서 창작한 尹善道의 「遣懷謠」 5 수, 「雨後謠」 1 수, 李恒福·李世輔의 時調를 비롯해 25 여명의 유배당한 高官大爵이 지은 130 여수⁷⁶⁾의 유배 중의 감정이 充溢하면서도 이름조차 밝히기를 충실하지 않았던, 未詳 作家가 지은 20 여수의 時調 속에서 유배적 內容이 짙게 表現되고 있는데, 이는 流配文學으로서 人生의 抒情詩의 작품인 것이다.

또한 肅宗 때 西浦 金萬重이 宣川 流配 때에 母夫人을 위하여 쓴 「九雲夢」은 流配의 性格이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流配生活의 契機가 바로 이것을 창작하게 한 一面이 있다.

그리고 中宗 때 金絳가 지은 別曲體歌인 「花田別曲」도 流配地 南海에서 流配的 心境을 自然에 沒入하여 노래한 것이다.

漢詩文엔 많은 작품들이 있다. 中宗 때 流配地 濟州에서 쓴 金淨의 「海島錄」, 光海君 때 流配地 咸興에서 쓴 許筠의 「識小錄」, 流配地 濟州 大靜縣에서 쓴 鄭蘊의 「德辨錄」, 肅宗 때 濟州牧에 유배 가서 쓴 金春澤의 「囚海錄」, 純祖 때 康津에 유배 가서 쓴 丁若鏞의 「耽津村謠」·「哀絕陽」·「田間紀事」 등을 비롯하여 漢詩文은 朝鮮朝의 士大夫 流配者가 政治人이고 文

75) 柳玭善 「歌辭文學의 作家別 및 內容의 分類」(高麗大 『語文論集』 11집, 1968. p.156)

76) 秦東赫 「李世輔의 流配時調 研究」(檀國大 『論文集』 제 15집, 1981)에서 流配時調를 77수를 紹介한 바 있어, 여기선 130수 속에 包含시킨 것이다.

臣이며 學者이어서, 漢詩文에 능했기 때문에, 流配文學에서 漢文學이 차지하는 比重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流配文學은 各種 文學形態를 빌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도 이런 流配의 內容이 주로 詩歌에 많은 것은 流配의 狀況에 直面한 作家가 表白하고자 한 人間心性의 울분과 自歎이 응결된 感情이요, 직감적 감정이기에 心中의 울분과 自歎을 叙述하기 보다 直說의으로 吐露하며, 表白하여 昇華할 수 있었던 까닭이라 본다.⁷⁷⁾

상당한 流配文學은 바로 朝鮮朝 時代의 政治的·時代的 狀況의 主潮인 黨爭의 反映이었다. 朝鮮朝 519년의 歷史 중 340 년간을 黨爭으로 點綴했다고 볼 때 朝鮮朝 歷史는 피로 물들인 黨爭史였다고 結論지을 수 있다.

그 背景엔 黨爭의 時代的 狀況의 連續과 歷史的 狀況의 連續이 있을 뿐이었다. 이런 時代的 背景으로서 黨쟁이 文學의 內容에 끼친 影響은 결코 過小評價할 수 없다. 이 時代的 文學은 黨爭의 文學이요, 거기서 형성된 것이 이른바 流配文學이었다.

朝鮮朝의 많은 貴族이요, 兩班인 士大夫들이 政治的·時代的 狀況인 黨쟁에 關與하여 不遇하게도 流配당함으로써 창작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流配란 流配당한 當事者로선 個人的인 生涯에 있어 지극히 不運하고 不幸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契機가 되어 그 流配의 事實과 雰圍氣, 그리고 유배당한 心的 상황을 漢詩文과 國文으로 表現할 수 있는 이른바 창작하는 直接的 動因이 되었다는 것은 注目해야 할 일이다.

그 중 豪放한 風流時人 鄭松江과 純粹한 自然詩人인⁷⁸⁾ 國語美 彫琢의 天才 尹孤山을⁷⁹⁾ 비롯한 流配 作家들에 의해 國文學의 文學的 領域이 開拓되고 珠玉 같은 작품이 창작되어 國文學史上에 남겨졌다는 엄연한 事實은 바로 流配文學이 國文學史上의 重要的 位置를 차지한다고 새로이 評價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 朝鮮朝의 流配文學은 貴族·兩班層의 敗北者의 文學으로서 山林學派 文學의 底流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黨爭이란 항상 支配階級間에 벌어진 政權爭奪을 目的으로 하는 싸움이었기에, 政權을 잡자면 삶의 理念의 最高象徵인 君王에게 잘 보여야 했다. 儒敎中心 社會의 倫理意識은 君王에의 一片丹心이요, 忠과 義요, 그것은 朝鮮朝 社會의 삶의 準據點으로, 絶對的인 秩序였고 規範이었다.

그런데 黨爭에 휘말린 사람들은 政治的·時代的 狀況에 主體的으로 관여한 人士들로 당대의 支配階級이요, 上層構造의 知識層이었고, 大義와 名分에 生死를 결단하여 君主에게 忠義를 다하던 貴族·兩班層의 士大夫들이었다.

77) 『上揭書』 pp.9~10에서 筆者의 主張과 같은 內容으로 秦東赫님은 “詩歌는 人間心性의 感情을 직접 端的으로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古典詩歌에서 流配性을 지닌 作品에는 肉聲어린 絶叫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78) 朴晟義 『松江 蘆溪 孤山의 詩歌文學, 韓國 近世 三大詩歌人의 對比的 研究』(서울:玄岩社,1969) p.554

79) 鄭炳昱 『尹孤山論』(『月刊文學』 통권 36호, 1969. 7. p.211)

이들이 朝夕으로 君主를 섬기고 政事를 함께 의논하다가 黨爭으로 인해 權座에서 추방되고 君主의 미움을 사서 罪人으로 遠惡地에 유배당하게 된다는 것은 쓰라린 패배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모두 君主의 총명을 가리는 간신배의 장난이요, 그래서 비록 賜藥을 마시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만이 忠義로 憂國愛君했다는 생각으로 一貫하는 것이었다.

그 쓰라린 敗北意識과 유배를 당한 억울한 처지를 身上歎으로 스스로를 달랬는가 하면 또 流配的 狀況에 직면한 처지이면서도 儒教的 忠君憂國에 悲憤慷慨와 戀君에의 衷情을 표백하여 스스로를 달랬고, 流配地의 自然에 沒入하여 세상 일을 忘却하려 염세적 감정으로 隱遁逃避에 젖기도 하며, 그리고 流配地에서 沒我之境으로 自然愛에 젖는가 하면, 無常과 運命을 叙述하기도 했다. 이러한 思想的 內容은 朝鮮朝 山林學派 文學에서 볼 수 있는데, 곧 朝鮮朝 流配文學은 貴族·兩班層의 敗北者의 文學으로서 朝鮮朝 山林學派 文學의 底流를 차지하는 國文學史의 位置에 있다 할 것이다.

第3章 濟州 流配文學의 分析과 性格

앞에서 流配文學의 背景과 概觀을 考察하였는데, 이제 濟州 流配文學의 分析을 통해 그 性格을 考察하고 究明하는 것이 本研究의 課題이다.

流配文學 研究를 濟州島를 중심으로 研究·展開하기 위하여 濟州島가 朝鮮朝 때 流配地로서 代表的인 地域이었으므로 우선 濟州島의 環境인 自然的 環境과 歷史的 環境을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文學은 선택된 環境을 반영하고 作家는 環境의 선택에 깊은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第1節 濟州島의 環境

1. 自然的 環境

濟州島는 韓半島 西南部 海上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북쪽으로 木浦와의 거리는 88마일, 東北쪽으로 釜山과의 거리는 169마일, 東쪽으로 日本의 對馬島와의 거리는 150마일, 西쪽으로 黃海를 사이에 두고 東中國을 바라보고 있다. 섬의 주위 길이는 254 km, 면적 1,820km² 동서 길이 80 km, 남북 길이 40 km가 된다.

濟州島는 섬의 자연적·지리적 분류에 있어 洋島(Ocean island)에 속하는 火半島로서 韓國의 最南端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本土와는 隔離性을 內包하고 아울러 一種의 孤立性을 띠고 있으며 本島는 8개의 有人島와 34개의 無人島가 本島에 포함된다.⁸⁰⁾ 이른바 絶海上의 環海孤島이다.

濟州島의 地理的 位置가 이러하므로 上代 社會의 原住民은 大陸과 여러 지방에서 流入되어 온 여러 種族으로 構成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곧 이것은 北方系列의 大陸의 要素를 지닌 人種과 南方系列의 海岸島嶼的 要素를 지닌 人種으로 추정되는 것인데 이것이 主流가 되어 本島 原始文化의 性格을 形成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⁸¹⁾

本島는 南北보다 東西가 긴 타원형의 一大 火山島이고 火山形態는 漢拏山의 높이 1,950 m를 主峯으로 극히 緩慢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亞스피데式 火山으로 되어 있다. 섬의 원래 기반은 花崗岩이고, 第3期에 분출한 粗面岩이 이를 덮고 있는 위에, 다시 第4期에 玄武岩을 분출시켜 舊火山體를 뒤덮음으로써, 現在의 火山形態를 나타내고 있다. 그후 다시 玄武岩이 龍岩地帶를 貫入하여 360개의 側火山(오름)이 形成되고 있는 것이다. 『高麗史』에 따르면 穆宗 5년(1002)과 同 10년(1007) 두번에 걸친 火山이 폭발이 있었다는 것이다. <三多>의 하나인 <石多>가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것과 같이 全島가 돌로 덮여 있어 <돌섬>이

80) 『島嶼誌』(內務部, 1973)

81) 『濟州道誌』(濟州道, 1982) p.10

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러한 돌은 겹고 多孔質인 玄武岩인 것으로 家屋의 벽이나 家屋 周邊의 돌 담장은 물론이고 전담과 전담의 경계선⁸²⁾ 基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돌담으로 쌓여 있다.

이 밖에 日常生活에 진요한 <맷돌>·<돌화루>·<연자매>·<연모돌> 등과 部落 守護를 담당하는 <돌하르방> 등의 石器類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쓰여 왔고 신앙화되어 왔으며, 이 全島의 돌은 <風多>의 섬을 눌러 목직한 무게를 더하고 있다. 濟州島의 文化가 섬세하지 못하고 묵중하고 화려하지 못하고 素朴한 것은 玄武岩의 表情인 것⁸³⁾으로 지적되고 있다.

漢拏山을 중심으로 섬의 分水嶺을 이루면서 東西로 뻗어 城板岳·御乘生岳 등에 의하여 南北이 두 斜面으로 나누어지고 그 南과 北의 斜面에 따라 河川도 흐르나 이들 河川은 平常時에는 거의 물이 없는 乾川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飲料水·洗濯用水 등이 넉넉하지 못하다. 中宗 때에 濟州에 流配 온 冲庵 金淨은 島民들이 食水가 없어서 非衛生的인 물을 마시는 것을 개탄하여 우물을 파기를 교도하여 이른바 「判書井」⁸⁴⁾이란 傳說을 남긴 것도 물이 귀한데서 연유한다.

氣候는 漢拏山을 중심으로 南北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 近海는 暖流와 몬순의 影響으로 溫和한 海洋性 氣候를 이루고 있다. 이런 氣候에 따라 住民의 氣質·言語·民俗·文化 등에도 약간씩의 차를 보여 주고 있다.

앞서 말한바 本島의 用水 不足은 衣·食·住에 이르는 모든 文化的 現象에도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韓民族이 白衣民族으로서 특징인 <흰옷>을 本島에서 애용하지 않고, 作業服이면서 日常 나들이 옷으로 <갈옷>을 입었다는 사실은 물과 衣生活과의 관계로써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기타 물과 食生活과의 관계에서 <물허벅>·<물구덕>·<물팡> 등의 日常生活 道具 등도 물과 관계가 깊은 것들이다.

本島의 地穀은 주로 火山 灰土로 農土가 매우 척박하였다. 地力이 나빠서 農事를 지어도 소출이 극도로 적어 島民들은 대대로 영세성에 허덕일 수 밖에 없었다. 島民의 主食은 季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리·조·콩·팥, 근세에 와서 고구마 등의 混食이 많았다. 颱風의 통로인 <風多>로 인해 災害와 凶作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島民의 食生活은 가난의 連續이었다. 배불리 먹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다시피 했다. “밭 한 판을 보태느니 보다 食口한 사람 더는 것이 낫다”는 濟州 俗談은 이러한 가난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⁸⁵⁾

人家의 聚落은 일부 山村을 제외하고는 大部分 海岸線에 가까운 湧泉水의 거점을 중심

82) 高麗 高宗 때 判官 金丘에 의해 耕地策墾이 이루어졌는데 그 效果는 ①防風 ②牛馬侵入의 防止 ③耕作地의 擴大 ④作業能率의 向上 ⑤環境整理 ⑥세력있는 자의 土地 蠶食防止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濟州道誌』 pp. 61~62)

83) 梁重海, 「文化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耽羅精神 探究세미나』 제주: 濟州大學 耽羅問題研究所, 1979. p.151)

84) 『冲庵先生集』 尹鳳撰 「判書井記」 “島地虫延瘴塾 水泉水多嘔泄病人 故先生即其居鑿斯井飲之……示皆知爲判書井 甚矣德之薰人”

85) 『濟州道誌』 p.232

으로 하여 발달하고 있다. 海岸線은 單調로울 뿐만 아니라 곳곳에 玄武岩의 斷崖를 이루고 있는 곳이 많아 天然의인 좋은 항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家屋은 海岸 附近에 있는데 ‘風多’의 고장이어서 가옥 자체가 바람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단단하게 되어 있는 초가는 따로 덮여서 굽직한 밧줄로 바둑판 모양으로 단단히 묶고 있다. 이러한 家屋 構造는 氣候와 關係가 있는 일이다. 이런 家屋에 살고 있는 島民들은 주어진 氣候의 惡條件과 싸워서 극복하는 용기와 슬기를 타고 나면서부터 가지게 되고 있으며, 주어진 環境을 克服해야만 산다는 점에서 濟州島의 文化는 華麗하고 섬세한 것이 아니라 투박하고 견고하고 소박한 끈질긴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本島의 地勢는 조금만 날씨가 가물면 旱氣요, 조금만 비가 내려도 水災를 면치 못했기에, 農事는 凶作이 잦았다. 世宗 10년(1428) 朝廷에서 濟州島의 土地의 稅率을 조정할 때 本島의 三災가 논의되고 本島에 대해서는 免稅할 것을 여러 大臣들이 上奏한 바가 있다. 이 三災란 ‘風多災’·‘水多災’·‘旱多災’인 것이다.⁸⁶⁾ 이것은 나쁜 뜻에서의 ‘濟州三多’이겠으나, 이는 濟州島民들이 옛적부터 氣候의 惡條件과 부단히 싸워왔다는 산 證據가 된다.

濟州島는 光海君 때부터 1910년까지 凶年의 횟수는 근 70회나 있었다. 光海君 2년(1610)에 “大風水年荒人多飢”⁸⁷⁾ 이라 하고 肅宗 37년(1711)에는 “大風雨平地成川 新村里 人家七八區 漂沒”⁸⁸⁾ 이라 하여 大風水害가 있었고, 同王 41년(1715)까지 연달아 強風 및 旱災·豪雨로 인하여 凶年이 들어 百穀이 絕種되어 農民이 生活相은 貧寒에 몹시 찌들었고, 英祖 40년(1764)과 41년(1765)에는 大凶年이 일어나 島民이 萬餘名이나 기근에 아사자가 속출하여 농민의 생활상은 비참이 극에 달했다. 이 가운데도 正祖 18년 甲寅(1794)년 凶年은 소위 “甲寅年 凶年”이라 해서 도민들에 널리 알려져 있어, 凶年하면 반드시 회자하는 民譚이다. 高宗 4년(1867)부터 1906년 까지 凶年이 연속되었고 특히 高宗 23년(1886)에 “夏六月 癘疫大熾 死者數萬人 秋七月大雨平地成川 漂流人家及塚 南水口虹門自毀”⁸⁹⁾ 하는 일이 있었으며 同王 31년(1894)에 큰 가뭄에 재해가 극심하여 島民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다.

濟州는 멀리 大海 가운데 있으며, 그 파도는 다른 바다 가운데도 몹시 사납고 거칠다. 바다는 중요한 생활의 現場이었다. 그 거칠은 바다와 싸워온 島民들은 항상 生命의 위협이 뒤따르고 있었다. 그 예로 世宗 26년(1444)에서 宣祖 9년(1576)간에 23회 270 여명의 島民들이 漂流한 사건을 들 수 있다.⁹⁰⁾

86) 金錫翼 『前揭書』 卷之 2, 世宗 10年條 “時朝議 定本 島稅 總大臣 筵奏曰 此島地勢 山高多風 谷深瀑多水災 土薄多旱災 三災並侵 年必多歉 苦責納稅 民無以生 王從之遂寢”

87) 『上揭書』 卷之 2, 光海君 2年條

88) 『上揭書』 卷之 3, 肅宗 37年 秋 8月條

89) 『上揭書』 卷之 3, 高宗 23年 夏 6月·秋 7月條

90) 『濟州道誌』 pp.167~168 參照. 金尙憲 『南槎錄』 “漂流沈沒 十居五六 州人不死於前 則必死於後 故 境中男 最少”

바다를 둘러싼 濟州島 海女의 生活도 여간 어렵고 괴로운 것이 아니었다. 肅宗 15년(1689)에 83세의 고령으로 流配된 宋時烈은 海女의 괴로움을 “목숨을 무릅쓰고 백길 물 속으로 들어가 무서운 물고기와 전복을 캐는데 이로우면 한 두 개 얻을 수 있거니와 불리하면 빈 손으로 나오게 되며, 더욱 불리하면 영영 바닷물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니, 仁者는 두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⁹¹⁾고 하였다. 濟州島의 <女多>는 남자들은 바다에 나아가 목숨을 잃어 버리는 자가 많은 데서 온 말인 것 같다.⁹²⁾

한편 大小 官員의 서울과의 往來는 물론, 流配者의 流配 海路는 風候不順하고 激浪으로 生死間의 어려움이 있었다. 禾北鎮 浦口에 있었던 海神祠⁹³⁾는 海路의 험난함을 말해주고 있는 遺跡인 것이다.

이제까지 말한 바와 같이 濟州島는 망망대해 중의 孤島이며, 가혹한 환경의 섬이었기 때문에 朝鮮朝의 重罪人을 다스리기 위한 대표적인 流配地가 되었던 것이다.

2. 歷史的 環境

濟州島는 周圍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環海性과 本土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隔絕性과 土地가 협소하다는 狹小性 등의 島嶼의 特性을 가진 地域이다.⁹⁴⁾ 그러기 때문에 本土와 杜絕·孤立 내지는 隔絕性 때문에 自給生活이 강제되어 社會는 停滯하고 傳統의 文化가 강하게 殘存하는 後進性을 나타내기도 한다.

濟州島의 原始社會·古代社會를 밝혀 낼 資料는 없다. 우리는 三姓神話를 비롯한 몇 개의 神話와 傳說, 그리고 土器·石器·支石墓·立石·住居址·洞窟·遺物 등 극히 한정된 자료 밖에는 갖고 있지 못하다. 이들 자료만을 가지고 濟州島의 先民社會의 文化的 樣相을 추정할 수 없다.

三姓神話⁹⁵⁾는 太初에는 人物이 없었고 漢孛山 北麓地 毛興穴에서 三神人이 湧出하니 長은 高乙那요, 次는 良乙那이고 세째는 夫乙那이다. 이들은 皮衣肉食하며 수렵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東海에서 떠오르는 紫泥로 봉한 木函을 발견하고 세 處女를 맞아들어 여러 망아지 및 五穀 種子를 얻고 一都·二都·三都의 肥沃한 土地를 선정하여 五穀을 파종하고 망아지를 양육했다는 濟州島 三姓 先民社會의 農耕文化를 그대로 묘사한 유일한 文獻傳說이다. 이것이 文獻으로 기술되어 정착되어지는 단계에서 상당히 變形되었을 것임은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다.

91) 金尙憲 『上揭書』 宋時烈 序文. 趙觀彬 『悔軒集』 卷3 「歎潛水女」란 詩에서 海女의 비참한 생활을 붙잡고서 여겨 그 情感을 諷刺하였다.

92) 金尙憲 『上揭書』 宋時烈 序文 “是以島民男墓絕少而女墓多 寡妻 而鰥夫夥”.

93) 金錫翼 『前揭書』 卷之4, 純祖 20年條

94) 姜景璿, 「古典的 島嶼性에 대한 考察」(濟州大學 『논문집』 13집, 1981, p.203)

95) 『濼洲誌』(高麗末葉頃), 三姓神話는 地神 族說에 속하고 三神人이 配匹者인 三神女에 관한 說話는 外來說에 속하는 것이다. 三姓神話에 관한 文獻은 약 40 여종이 있다. (『濟州道誌』 pp.33-38)

三姓神話는 定着되었던 당시의 思考方式을 지배했던 儒敎主義 思想이 상당히 많이 反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濟州島의 先民社會가 平和를 애호하고 相助하고 協同하는 濟州島의 傳統인 思想이 反映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애초에 濟州島는 新羅 등 三國과 교류를 할 때 附庸國으로 걸코 어느 治下의 郡·縣이 아니었다. 西紀 10세기 초에 後三國을 통일하여 高麗朝가 창건함에 耽羅의 星主 高自堅이 太子 末老를 高麗朝에 入朝케 하자 高麗 太祖는 新羅의 관례대로 星主·王子의 爵을 내려 濟州島를 한 개의 郡·縣으로 보지 않고 부庸국으로 대접했다.

高麗의 內外政策이 強化·整備됨에 따라 本島는 肅宗 10년(1105)에 高麗에 한 개 郡 곧 耽羅郡으로 편입되어 高麗 治下에 통치되면서부터 政治的으로 늘 억압당하고 皮탈되는 가림주구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島民들은 高麗朝의 忠順한 백성이 되기에 한 때 저항감이 적지 않았다. 濟州島의 이러한 歷史的 事實은 濟州의 歷史的 環境이 自然的 環境 못지 않게 가혹하였던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蒙古의 侵略으로 인해 三別抄가 濟州島에 들어 온 것을 계기로 蒙古의 耽羅 지배가 百餘年間이 있었거니와 이 1世紀 동안 耽羅는 高麗朝와 蒙古에 二重의 壓迫을 강요당하였던 것이며, 島民들은 이 이중적인 수탈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三別抄가 平定된 후 蒙古는 日本 정벌의 중요 병참기지로서 本島를 강점하고, 達魯花赤로서 直轄 統治케 하였다. 蒙古는 島民의 抗蒙을 危險視하여 島民을 本土로 추방하는가 하면,⁹⁶⁾ 忠烈王 元년(1275)에 濟州逃漏人物推刷都監이란 관직을 두고, 元(몽고)이 강제 출륙시킨 島民들을 찾아 도로 섬에 돌려 보내는 일을 했다. 이렇게 島民들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취급을 당하였다.

元帝는 本島에 牧場을 두고 말을 飼育했고 여기에 元의 重罪人을 流配보냈다. 本島가 다른 民族의 流配地로 되는 것은 바로 이 무렵부터이다.⁹⁷⁾ 元의 占領期에 상당수의 元나라 사람들이 濟州島에 移住하였는데, 아직도 本島에 蒙古의 風俗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러한 歷史的 狀況 때문이었고, 濟州島의 風俗이 本土와는 異色의으로 보인다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元은 濟州島를 高麗에 한 개 郡·縣으로 보지 않고 한 개의 섬나라로 보고 있었다.⁹⁸⁾ 元의 東征 計劃에 島民들이 酷使당하고 유린당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苦難을 겪었는데, 그것이 失敗하고 本島가 忠烈王 때에 高麗朝에 返還되고 비로소 島名을 濟州로 고쳐졌다. 이에 濟州島는 高麗에 郡·縣으로서 稅賦를 부담하고 또 元의 朝貢國으로서 그 貢物을 운반하게 되었다. 이렇게 麗·元 兩國의 틈바구니에서 二重·三重으로 억압당하고 착취당해 왔다. 그리고 元의 牧場 설치 후의 牧胡의 탄압도 적잖았다.

96) 『東史綱目』 “自逆賊之亂 元令島民陸居 而耽羅別屬於元”

『高麗史』 世家 卷 27 元宗 14年 2月條 “平三別抄後 濟州人物勿令出陸 依舊安業”

97) 註 1) 參照

98) 『元史』 耽羅傳 “耽羅高麗與國也”

濟州 風俗에는 男子 15세 이상은 콩 15말을 세공으로 바치고, 衙吏는 말 한 마리를 세공하면 副使와 判官이 나누어 갖는다는 폐습마저 있었는데 高宗 46년(1259)에 副使인 金之錫이 이를 革破한 바 있었다.⁹⁹⁾ 이는 바로 가림주구가 얼마나 가혹했던가를 말해 준다 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毅宗 時代에 있어서의 農民 봉기와 明宗 16년(1186)의 반란, 神宗 5년(1200)의 煩石·煩守 등의 반란은 島民들의 必然的인 몸부림의 한 단면이었다. 한편 倭寇의 侵犯도 島民을 괴롭혀 왔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忠惠王 3년(1342)에 7백餘艘를 침입한 사건이었다.¹⁰⁰⁾

朝鮮朝에 들어와서 官弊도 후심하였다. 世宗 때 金爲民·高得宗, 睿宗 때 金勿, 中宗 때 金錫哲·李耘 등의 狀啓와 上疏들은 이것을 뒷받침해 준다.¹⁰¹⁾

宣祖 34년(1601) 御使로 濟州에 왔던 金尙憲이 儒生 한 사람에게 이 곳 사정을 묻자 그 儒生이 “封送馬之弊”¹⁰²⁾ 등을 지적한 바가 있다. 島民의 고통을 現地에서 들은 淸陰은 “何時死去待負此苦”라는 표현으로 濟州島民의 어려움을 表白하였다. 淸陰은 濟州島에 파견되는 守令에는 武官들이 많고 그들이 자신의 弊端을 王府에 가서 알린다고 여겨 儒生들이 出陸을 갖은 手段으로 막았다¹⁰³⁾고 기록하기도 했다.

朝鮮朝는 國役 등 부담자의 동태를 把握하기 위하여 戶籍·號牌法 등을 실시하여 賦役을 피하기 위하여 戶口의 登錄없이 移徙·流離하는 것이 禁止되어 있었다. 그런데 世宗 17년 耕作地가 一萬結 미만인데 人口는 6만명이 넘어 飢饉現象이 자주 생기게 되므로 無田業良人和 私賤의 出陸을 허용하고 있었다.¹⁰⁴⁾

그러나 成宗 초(1470)부터 仁祖 때(1642)까지 약 150년간 本島의 굶주린 자가 島外 各處에 옮겨갔기 때문에 濟州 三邑의 人口는 격감하고 따라서 朝廷에서는 이런 事態를 중시하여, 難民들의 島外 出陸과 離散을 防止하기 위하여 積極策을 수립하여 실시하였으나 굶주린 島民들의 出陸의 수요는 증가하기만 했다. 成宗 때에 泗川에 濟州島民들이 200餘名이 살고 있어 朝廷에서 論議가 된 것도 그 한 예다.

이렇게 本土 各地로 移住·逃亡하는 자가 속출하자 島內에서 倭寇 防衛와 貢物 獻納 등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朝廷에선 드디어 光海君 12년(1620)에서 憲宗 2년(1836)에 이르는 무려 200년간 出陸禁止令으로 島民들을 묶어 놓기까지 했다. 그 出陸 원인은 ① 食糧難, ② 軍役義務의 過重, ③ 倭寇들의 侵犯에 대한 不安, ④ 土豪 및 官吏의 橫暴, ⑤ 身貢의

99) 李元鎮 『耽羅志』 名官條, 金之錫: “高宗朝 爲副使 州俗 男年十五以上 歲貢豆一斛 衙吏歲貢馬一匹 副使判官分受之, 之錫到州 日即蠲之 政清如水 民懷其德 州人曰 前有世封 後有之錫.”

100) 金錫翼 『前揭書』 忠惠王 2년條 “二年倭寇南鄙 明年以七百餘艘來侵”

101) 『濟州道誌』 pp.191~204 參照

102) 金尙憲 『前揭書』 卷之 4, 宣祖 34年 11月 18日條

103) 『上揭書』 卷之 2, 宣祖 34年 9月 29日條

104) 『世宗實錄』 卷 70, 17年 乙卯 12月 己酉條, “濟州人多地窄民 聊生往哉恤 俾安基業…… 戶九千九百二十五 人口六萬三千九十三, 田則九千六百十三結四十八 地利有限 食之者衆 救荒之弊 無歲無之 無田業良人 各從自願 徙居陸地 私賤亦從 本主自願出陸”

過重 ⑥ 朝廷으로부터의 虐待¹⁰⁵ 등으로 고찰할 수 있다.

특히 本島 女性의 出陸과 本土人과의 通婚은 禁止되어 있었다. 流配 중인 仁城君의 子息인 海平·海安·海寧 등 三兄弟가 仁祖 22년(1644)에 王命으로 出陸케 하라는 下敎가 내려졌으나 朝廷은 “濟州人物 出陸之禁 乃赤宗金石之典”¹⁰⁶이라 하여 그 王孫들이 濟州 女와 通婚하고 있었기 때문에 出陸禁止된 例가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 宣祖 때 이래 光武年까지 10차례의 民亂이 일어나 官의 民弊와 島民의 生活權에 대해 抵抗한 것이었다.

濟州島는 約 200년 동안 朝鮮朝의 特殊 政策과 그리고 絕海孤島란 自然的 條件과 隨伴하여 傳統的인 習俗과 古風이 俗化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保存되고 있는 것이다. 또 島民의 氣質과 性格面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 島民은 오랫동안 本土民과의 人的 交流가 斷絶되어 있었기 때문에 大陸의 性格과 調和할 수 있는 機會가 없었으며 나면서부터 섬이란 限定된 空間에서 閉鎖의 生活로 인한 偏狹과 短氣, 心理的으로는 異俗의인 生活樣式으로부터 오는 孤獨感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¹⁰⁷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克服하여 야만 삶이 이어지는 것이므로 이런 不敗의 精神은 바로 耽羅精神의 原型인 것이다. 이러한 濟州島의 역사적 상황은 朝鮮朝에 들어와 黨爭으로 인한 流配라는 政治的 狀況과 결부되어 더욱 복잡해졌다. 朝鮮朝의 濟州島의 歷史的 狀況은 유배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特徵的이었다.

朝鮮朝의 政治的 狀況으로 濟州島에 流配된 人士들 중엔 中宗 때 己卯土禍로 流配된 金淨을 들수 있고, 그는 流配 중 主君의 命에 따라 自盡하였다. 戊午·甲子·己卯·乙巳·丁未 등 五大 土禍에 關聯하여 閔粹·金舜孫·洪裕孫·洪常·柳軒·李世蕃·柳希春·孫弘積 등이 流配되었다.

이 宣祖 以後 東西分黨으로 黨爭이 치열하게 되자, 壬亂 때 宣祖가 義州로 파천한 후에도 東·西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李弘老는 濟州에 流配되고 賜死되었다.

大·小 北의 分裂로 말미암은 光海君의 난정으로 癸丑獄事와 仁穆大妃의 西官 幽閉事件이 일어나자 이에 반대하여 鄭蘊·李瀆·金膺洙·宋象仁·趙稷 등이 濟州島 大靜縣에 유배되었고, 大妃의 친정 어머니 盧氏 夫人이 濟州牧에 安置되었다. 仁祖反正으로 光海君은 濟州牧으로 圍籬安置되고 濟州에서 죽는다.

한편 仁穆大妃의 廢黜을 주장한 徐兢·仁城君·李健, 그리고 反正 후 主君으로 추대된 혐의로 李德仁과 光海君의 측근이었다는 이유로 朴承祖도 濟州에 유배되었다.

西人이 집권한 후 丙子胡亂을 겪게 되었는데, 洪茂績은 胡亂 후 姜嬪獄事에 반대 직언하여 제주도 정의현에 유배되고, 李敬輿은 鳳林大君의 군왕책봉에 반대하여 濟州로 유배당하

105) 金宗業 「歷史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耽羅精神 探究세미나』 제주: 濟州大學 耽羅問題 研究所 1979. p.14)

106) 『仁祖實錄』 卷13. 22년 甲申 4月 癸酉條

107) 金宗業 「前揭書」 pp.16-17

였다. 肅宗 때 와서 당쟁은 禮論問題와 결부되어 정치권력의 투쟁으로 비화하는 당쟁을 낳게 되었다. 이에 오래 집권한 西人이 실각하고 南人이 집권하는데, 南人의 專壇에 심증을 느낀 肅宗의 傳敎로 庚申大黜陟이 일어나 西人이 재 집권케 되고, 柳赫然은 大靜縣에 유배되었다. 그러다가 己巳換局으로 西人이 실각하고, 宋時烈은 濟州島에 위리안치되고, 肅宗의 閔妃 廢黜에 반대하여 金禮寶·金鎭龜 등이 濟州에 유배되고, 金春澤은 世子(景宗) 謀害의 혐의로 濟州에 유배되었다.

世弟(英祖) 책봉문제를 에워싸고 일어난 辛壬士禍에 關聯하여 趙昇彬·趙聖復·趙聖集·柳星樞·金壽天·李時弼·李壽民·李顯章·徐宗夏·尹志·李巨源·金堯鏡 등이 大靜縣·旌義縣 등지에 유배되었다. 그리고 申絃은 少論의 囹圄에 항의하다가 84세의 高령인데도 大靜縣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英祖는 蕩平策을 써서 辛丑疏에 聯名한 少論의 李眞儒를 楸子島에 유배시켰고, 이 蕩平策에 위배한 任徵夏·金有慶·趙觀彬·李存中·趙重明·崔鶴令·任觀周·權震應 등은 大靜縣에 유배되었다. 正祖도 蕩平策에 주력했으나 세도가 閥閥政治로 심화되어 이 朝鮮朝 말기의 세도정치의 영향으로 趙貞喆·金正喜·李夏銓·李明赫 등이 大靜縣에 유배되었다.

곧 濟州島의 역사적 환경은 濟州島의 원주민이 이룩한 독자적인 것 이외에 1세기 동안의 蒙古의 점령과 朝鮮朝의 유배라는 정치적 상황으로 형성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朝鮮朝의 특수 정책하에 濟州島가 완전히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流配人들은 자신의 불우한 流配生活을 창작적 계기로 삼아 국문학상 주옥같은 流配文學을 형성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그들의 영향은 濟州島에 새로운 자각을 불러 일으켰다.

第 2 節 詩 歌

1. 歌 辭

앞에서 濟州島의 環境을 고찰했다. 여기에서는 政治的·時代的 狀況인 黨爭과 그 밖의 要因으로 인해 유배적 상황에 직면하여 창작되어진 실제 작품을 분석 고찰하기 위하여 文學的 內的 研究¹⁰⁸⁾를 전개기로 한다.

濟州島에 流配되어 창작되어진 流配詩歌¹⁰⁹⁾는 歌辭 4편·時調 7수 등으로 調査되며, 漢詩는 상당수가 있으나 本 研究에서는 90수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제 歌辭의 경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8) 前揭 註29) pp.126 ~130 參照

109) 本 研究에서의 流配詩歌란 流配의 性格이 分명한 詩歌로서 類別없이 歌辭·時調를 비롯해서 漢詩까지를 包含한 命名이다.

流配地와 作家·作品

區分 順序	年代	作家	流配地	作 品	事 件	色目,派	出 典
1	燕山君	曹 偉	順 天	萬 憤 歌	戊午士禍	士林派	雜同散異
2	中 宗	李 緒	潭 陽	樂 志 歌	謀叛한다는 誣告	未 詳	夢漢零稿
3	宣 祖	鄭 澈	昌 平	思美人曲	兩司의 論斥	西 人	松江歌辭
4	"	"	"	續美人曲	"	"	"
5	肅 宗	金春澤	濟州島	別思美人曲	世子 謀害嫌疑	老 論	筆寫本
6	"	宋疇錫	德 源	北 關 曲	服制論是非	"	恩譜輯略
7	英 祖	李眞儒	楸子島	續思美人曲	辛丑疏聯名の 禍	少 論	李匡師所藏歌辭
8	"	李匡明	甲 山	北 窠 歌	李眞儒의 逆律緣座	"	贈參議公謫所詩歌
9	正 祖	安肇煥	楸子島	萬 言 詞	破廉恥罪·會計失手	未 詳	筆寫本
10	"	"	"	萬言詞答	"	"	"
11	"	李基慶	慶 源	尋 眞 曲	天主教彈壓의 微溫	南 人	"
12	"	"	"	浪 遊 詞	의 態度論斥	"	"
13	哲 宗	金鎮衡	明 川	北 遷 歌	背公黨利論斥의 禍	"	晴簑遺稿

이중 ⑤·⑦·⑨·⑩ 등 4편이 濟州島에 유배당하여 창작된 流配歌辭이다.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流配者가 京畿道와 忠淸道를 除外하고는 거의 전국이 流配地로 쓰여 졌지만 작품 창작지로는 북쪽의 極邊과 남쪽의 絕海孤島인 濟州島·楸子島로 생활조건이 極惡하고 불편한 곳에서 창작되었음은 특기할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極惡한 流配의 狀況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심정을 글로써 표현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처한 외로움·千辛萬苦의 쓰라림·哀訴·自歎 등을 달랠 수 없었다. 글은 昇華의 脫出口, 곧 欲求充足이 된다.¹¹⁰⁾ 실로 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絶對的인 絶叫에서 써지는 것이다.

黨爭 계보로 보면 流配作家 10명 중 西人系列 5명(老·少 포함)·南人系列 2명, 未詳 2명, 士林派 1명으로 나타나 西人들의 당쟁 關係가 한층 더 높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연대를 보면 宣祖 이후가 13편의 작품 중 11편이어서 流配歌辭가 바로 宣祖 때부터 시작한 당쟁과 정치에 關係한 자나 그 영향으로 인해 유배를 당하여 유배적 狀況에 직면하여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 작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 중 濟州島와 楸子島에서 창작된 肅宗 때 金春澤의 「別思美人曲」, 英祖 때 李眞儒의 「續思美人曲」, 그리고 正祖 때 安肇煥의 「萬言詞」·「萬言詞答」 등은 流配文學의 特性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國文學史的 意義가 있다.

110) 尹弘老 『韓國文學의 解釋學의 研究』(서울:一志社, 1976) pp.13~14. “昇華(카타르시스)란 語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詩學』에 사용한 그리스 語인데, 文學의 機能과 關聯지어 보면 情緒의 壓迫에서 解放되는 일이다.” 고 언급하고 있다.

流配歌辭의 題目이 美人으로 象徵되고 王·主君·님은 相思와 戀慕¹¹¹⁾의 共通的 對象이 되었다면, 曹偉의 「萬憤歌」를 비롯해서 鄭澈의 「思美人曲」·「續美人曲」을 지나 金春澤의 「別思美人曲」과 李眞儒의 「續思美人曲」에 와서 美人系 流配歌辭가 그 계보와 함께 그 완성을 봤다는 것과 流配地 濟州島와 그 島嶼 地域이 그 美人系 流配歌辭의 창작의 前提로서 그 背景이 되어 있다는 데 그 意義를 높이 사야 할 것이다.

同一 環境의 생활에서도 生活 體驗의 결정은 개인의 精神構造에 따라서 다르게 마련이다. 이것은 곧 작가에게 있어서 文學의 창작의 力量이라 하겠다. 李眞儒의 「續思美人曲」과 安肇煥의 「萬言詞」·「萬言詞答」은 실제 同一한 環境인 絶海孤島인 楸子島에서 창작되어진 流配歌辭인데 兩極을 보여준다. 流配生活에 직면한 작가가 流配地의 환경과 접촉할 때 결코 그 環境 전체에 反應하지 않고 선택된 일부에 反應하며 그 선택에 작가의 관심(興味)의 組織化에 따라서 결정된다¹¹²⁾고 볼 때, 流配歌辭의 兩極¹¹³⁾의 背景이 바로 濟州島와 그 島嶼 地域이 되었다는 데 그 意義를 찾아야 할 것이다.

儒敎中心 社會의 倫理意識은 忠에 있었으므로 流配당하여 流配地에서 戀君忠念해 하는 것은 삶의 準據點에 전혀 변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오로지 忠君愛國하게 마련이었다. 그러므로 流配地에서 君王의 召命을 바라는 뜻에서 阿諛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는 잘못이다. 그것은 阿諛가 아니라 삶의 正當한 表現이었을 것이다. 朝鮮社會에서 忠은 어떤 環境에서도 絶對的인 秩序요, 規範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流配歌辭인 肅宗 때 金春澤의 「別思美人曲」과 英祖 때 李眞儒의 「續思美人曲」과 正祖 때 (?) 安肇煥의 「萬言詞」·「萬言詞答」 등을 중심으로 여기에 나타난 思想·生活相을 살펴 보기로 하자.

1) 歌辭에 나타난 思想

文學은 그 本質上 感情과 感性을 통하는 想象과 直觀에 呼訴할 수밖에 없는 限界를 지니고 있으므로 文學이 思想일 수 있고 思想이 文學일 수 있는 그리고 形象으로 言語가 그 形象을 통한 情緒感覺이 바로 思想과 理念·精神과 意識의 言語的 肉化임을 알게 된다.¹¹⁴⁾

이것은 앞서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詩學』(Arte Poetica)에 나오는 淨化·昇華와도 同一視하며 文學 본래의 機能이 淨化作用, 곧 讀者로 하여금 그 작품에 반영된 作家의 思想에 힘입어..자신의 마음을 純化하며 마음 속에 응어리진 것을 解消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文學的 効用論에 있음을 볼 때 文學의 思想에 대한 고찰은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111) 丁益燮 「美人歌辭考」(全南大 『湖南文化研究』 1집, 1963. p.61)

李相寶 『韓國歌辭文學의 研究』(서울: 螢雪出版社, 1974) p.17

李家源 『大學漢文新選』(서울: 民衆書館, 1962) p.221, 「思美人」 參照

112) 崔載瑞 『文學原論』(서울: 春潮社, 1962) pp.182~183 參照

113) 尹貴燮 「流配歌辭의 兩極」(同德女大 『同大論叢』 제2집, 1971. pp.47~64)

114) 朴斗鎭 「文學을 통한 意識構造의 改造」(延世大敎大院 『연세대학교교육과 학』 제11집, 1977. p.21)

사실 歌辭를 접하여 보면 그 內容의 限界가 모호하리 만큼 多様な 意味를 품고 있다. 가령 鄭澈의 「關東別曲」에서 보면,

- 江湖에 病이 깊퍼 竹林의 누엇더니(隱逸)
- 어와 聖恩이야 가디록 罔極하다(忠君)
- 弓王大關터희 鳥雀이 저저괴니 千古興亡을 아는다 물오는다(叙事)
- 꿈에 혼사름이 날드려 닐은말이 그디를 날모르라 上界에 眞仙이라(夢遊)

이와 같이 歌辭는 한 작품에도 다양한 意味의 內容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어느 文學에도 있는 것이고 다만 小說·戲曲 등과 같이 長篇이 아닌 歌辭에는 그 主流的 內容에 根幹을 두고 內容 規定을 해야 할 것이다.¹¹⁵⁾ 곧 主 主題와 副主題가 한 작품에 나타날 때 그 主流的 內容은 主主題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流配歌辭에 반영된 思想을 그 작품의 주된 內容을 통하여 고찰하여 봄으로써 流配者의 意識構造를 이해하고자 한다.

먼저 流配歌辭의 思想을 그 類型別로 분류하면 곧 流配당한 처지이면서도 儒敎中心 社會의 삶의 準據點인 忠을 노래한 ① ‘憂時戀君에의 衷情’과 君王의 忌諱·排斥을 당하면서도 그것은 奸臣輩의 장난으로 인한 억울함을 自歎한 ② ‘身上歎’ 또는 자기의 지은 죄를 솔직이 是認하고 後悔하는 ③ ‘贖罪와 悔改’ 등으로 分類해 볼 수가 있다.

(1) 憂時戀君에의 衷情

流配歌辭는 思美人의 歌辭라 한마디로 斷定할 수 있을 만큼 戀君에의 衷情이 切切하게 表白되고 있다. 이런 流配歌辭는 燕山君 때 曹偉의 「萬憤歌」를 비롯하여 宣祖 때 鄭澈의 「思美人曲」·「續美人曲」 등 兩詞를 거쳐 肅宗 때 金春澤의 「別思美人曲」에 이르러 美人系 歌辭의 완성은 저 北方의 極邊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最南端의 絕海孤島인 바로 濟州島와 그 島嶼 地域(楸子島)에 流配당하여 창작된 金春澤의 「別思美人曲」과 李眞儒의 「續思美人曲」에 의해서였다는 文學史的 意義를 내릴 수 있다. 아울러 美人系 歌辭가 南方에서 그 主體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女性的이라¹¹⁶⁾ 생각할 수 있다. 美人系 流配歌辭가 女性的이라면 여기에 나타나는 ‘戀慕’·‘哀訴’·‘悔改’·‘諦念’·‘自歎’ 등은 女性的 氛圍氣의 內容이 길다는 假定이 可能할 것이다.

黨爭에 關與한 流配者들은 비록 流配의 不運을 당할 망정 그 어느 누구 보다도 忠念愛君의 忠誠을 表現하였다. 아무리 君王의 미움을 사서 排斥되어 流配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政敵이나 奸臣輩의 모함이요, 장난으로 王寵을 흐리게 한 것이라 여겨 流配地에서 변함없이 憂時憂國하고 戀君丹忠하는 衷情을 謳歌하여 疏遠해진 聖寵을 회복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流配生活의 첫째 類型에서 보듯이 美人系 流配

115) 朴性哲 『歌辭文學의 內容의 分類에 대한 研究』 (建國大學 碩論, 1976) pp.27~28

116) 濟州島에서는 民間信仰으로 漢拏山 神들을 女性으로 불리어지고 있음을 볼 때 美人系 歌辭의 그 主體 形成이 南方이고 女性的이었다는 假說은 可能할 것이다.

歌辭 全篇에 貫流하는 思想이다.

특히 濟州島와 그 島嶼 地域에 流配당하여 창작된 金春澤의 「別思美人曲」과 李眞儒의 「續思美人曲」에는 이 憂時戀君과 忠念의 思想이 曲盡하게 表現되어 있다. 松江의 「前後思美人曲」이 兩司의 論斥을 받고 昌平으로 鄉里 放逐당했을 때 宣祖를 戀慕하는 애절한 忠貞을 告白한 것이라면 北軒의 「別思美人曲」은 肅宗 27년(1701)에 巫蠱獄事 후 同王 32년(1706)世子(景宗) 살해혐의로 濟州島에 流配되어¹¹⁷⁾ 流配地에서 自己의 結백한 心정과 忠誠心을 호소하여 멀어진 君王의 寵애를 회복하고자 창작한 것이다.¹¹⁸⁾ 北軒은 한 생애 동안 5차에 걸쳐 流配당하고, 3차나 獄苦를 치루니 斥逐流離로 무려 17년간(1694-1710)을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다.

北軒의 「別思美人曲」의 第2·5·6·7 段¹¹⁹⁾에서 보면,

엇인지 님향흔 혼조각 이 마음을
하르리 섬기시고 성현이 가리치서
덩학 알퍼잇고 부월이 두ହି이서
일백번 죽고죽어 썩가 길니된
후즈도 님향흔 이마음이 변홀손가 <第2段>

鄭夢周의 丹心歌流의 이미지와 같은 詩想으로 向主 一片丹心하는 忠誠만은 어떠한 逆境에서도 변치 않음을 표백하고 있다. 이어

누어도 싱각이오 안즈도 싱각이라
아마도 이 싱각은 일각을 못이즐최
치운밤 더운낮과 죽도반 조석던디
님의 소식 듯즈하니 뉘라서 전홀손가
꽃피거든 뉘바오면 님싱각 더욱만히 <第5段>

곧 一刻 如三秋로 님의 消息을 듣고 싶어하는가 하면 그리운 唇의 安否를 너무도 안타깝게 궁금해 하며, 꽃이라도 바라보면 더욱 간절한 님 생각에 눈물짓곤 하는 것이다. 이어

어려서 이러흔가 미쳐서 이러흔가
마음이 전노나니 뉘라서 금홀손고

117) 李建昌 『黨讖通略』 “初 張希載在謫 聞其妻與春澤通奸 書與諸張 有云春澤欲殺我 并不利東宮 諸張之鞠其辭 發於囚其供 金昌集主其獄 匿不以聞 至是儒生林溥·李潛相繼流論其事 潛南人也 溥以少論稱 潛疏尤深刻 … 上乃逮問張獄時治事諸臣 年久死亡無可問者 上罷昌集而流春澤於濟州”

『肅宗實錄』 卷 44 32年 丙戌 8月 丁未條 “上曰以濟州地定配可也” 同卷 48 36年 庚寅 6月 條 “上命出陸 118) 종래 『北軒集』 卷 4 論詩文條에 “余來濟州 又以謫作別思美人曲 追和松江兩詞”가 실렸다고 인용한 朴魯春 4人共編 『歌辭文學全集』(서울: 精研社, 1961) p.153, 林基中 『朝鮮朝의 歌辭』(서울: 成文閣, 1979) p.171, 徐元燮 『歌辭文學研究』(대구: 螢雪出版社, 1979) p.188 등은 『北軒集』 卷 4, 論詩文을 『北軒集』 卷 16 論詩文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임.

119) 全 79節 158句 1114字가 되는 이 歌辭와 「別思美人曲」의 段落 區分은 筆者의 의견과 同感인 徐元燮님의 『歌辭文學研究』(대구: 螢雪出版社, 1979) pp.191~195에 의거 8段落으로 區分하였다.

외서서 이러헝기 각시님 갖도던들
 서름이 이러헝며 생각인들 이러홀가
 초성이 이러커든 후침을 어이알고 <第6段>

그리워 생각하는 것은 임뿐이다. 이는 年少한 탓인가. 그렇지 않으면 미쳤기에 이러한 일
 인가 하고 절절한 戀君에의 衷情을 표출하고 있다. 이어

츠라리 식어져 구름이느 되어이서
 상광오색이 넘계신디 덩헝고저
 그도 막소헌면 바람이느 되어이서
 헝일 청음의 넘계신디 부러고저

 그도 막소헌면 시즘심 되어나서
 티박이 상님원의 노일며 즐기고저
 그도 막소헌면 씨글이나 되어나서 <第7段>

一片丹心으로 戀君을 위해선 어떤 희생, 어떤 變身이 되어서도 가까이에서 임을 모시고
 싶어하는 忠念의 意志를 노래하고 있다. 곧 차라리 시어져 ① ‘구름’·② ‘바람’·③ ‘一
 輪明月’·④ ‘名山大川’·⑤ ‘千尋老木’·⑥ ‘芝草’·⑦ ‘금옥명주’·⑧ ‘오현금’ ⑨
 ‘화류마’·⑩ ‘새짐승’·⑪ ‘띠끌’ 등의 變身이 되어 後生에까지 임을 모시고 싶어하는
 意志, 곧 戀君에의 衷情을 노래하고 있다. 이처럼 어떤 變身이 되어서 最後에 所望하고 있
 는 것은 「別思美人曲」에서 11개로, 다른 流配歌辭인 鄭澈의 「思美人曲」에 1개, 「續思美人曲」
 2개, 李眞儒의 「續思美人曲」에 전혀 나타나지 않으나 北軒은 이 점이 특이하다.¹²⁰⁾ 北軒의
 ③ ‘一輪明月’의 달과 松江의 ‘落月’의 달을 同一視할 수 있으나, 前者가 滿月이면 後者
 는 그믐달의 차이가 있다.

北谷 李眞儒가 楸子島에 流配가서 지은 「續思美人曲」 第 4·6·7·8 段¹²¹⁾ 에서도,

고신 원누를 한수의 ㄱ득쁘려

120) 여기서 특기할 것은 北軒이 ‘띠끌’에 자신을 비유한 점이다. “그도 막소헌면 씨글이나 되어이
 서 넘드니는 길우히 ㄴ뵈기며 다니고저” 戀君해 하는 情을 ‘띠끌’을 통해 표현한 것은 자기
 부족을 自己卑下라는 側面에서 볼 수 있는 意識의 한 부분이다. 主君 때문에 생긴 병 차라리 죽
 어져서 띠끌같은 것이 되어 넘어 다니는 길 우에 나부끼어 다녀서 님에게 밝혔으면 하는 哀訴이
 다. 이는 자기를 부정하는 경지를 지나서 인격체가 없는 띠끌로까지 卑下시켰고, 님을 위해선 하
 잘 것 없는 띠끌이라도 되어 희생하고 싶다는 의지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를테면 戀人이나 아
 내가 사라지면 投射 對象體를 상실한 리비도(libido)가 방향함으로써 당장에는 못살 것 같지만
 그 리비도는 다른 대상체인 藝術이나 文學이나 信仰이나 趣味 등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流配者들은 모두 依存의 支柱로서의 君王을 이별하고 리비도의 投射 對象體로서 文學을
 택한 것이다. 北軒의 경우 變身所望이 강렬하게 나타난 것은 리비도가 컸기 때문에 불행이나 좌
 절의 크기는 곧 그것을 발판으로 한 비약의 크기에 반비례 하는 이론적 근거에 비추어 볼 때 당
 연한 표현이었다.

121) 「續美人曲」의 段落은 8段落으로 區分하였다.

1段落: 1句~10句 2段落: 11句~44句 3段落: 45句~76句 4段落: 77句~122句
 5段落: 123句~182句 6段落: 183句~306句 7段落: 300句~344句 8段落: 345句~끝

님향훈 일편정을 참고춤 따나가니
 내 마음 이리홀제 님이신들 니즐손가
 호남길 더위잡아 노령이 올라쉬여
 북으로 도라보고 두세번 탄식하니
 부운이 폐일하야 경국을 못볼노다 <第3段>

라고 나타나 있다. 北谷은 景宗 때 辛壬士禍(1721~22) 때 老少論 싸움에 처음에 少論派 領首인 金一鏡과 會同하여 이른바 6人疏의 第1人者였다. 景宗 때 高官을 지냈다가 英祖가 등극한 후(1727) 辛丑疏에 聯名한 禍로 淸의 使臣으로 가서 歸國 중 北谷이 그 渦中에 浮沈하여 羅州 및 楸子島에 圍籬安置를 당하였다.¹²²⁾ 流配囚로서 流配地를 출발하여 가는 도중 孤臣怨淚를 漢江水에 뿌리고 湖南 땅에 접어들어 盧嶺에서 北向하니 浮雲으로 해가 가려 王都가 보지 않아 歎息하여 戀君에의 衷情을 表白하였다. 이어

거처도 과분하고 의식도 넘너업다
 망나의 벗기신몸 이곳의 언식하니
 가지록 님의 은혜 도처의 망극하다 <第4段>

流配 가는 도중 樂土에서 길이 누워 쉬게 된 것을 생각하니 이것이 모두 君王의 恩寵임을 새삼스레 느껴 그 到處에 미친 망극한 聖恩에 감사하는 戀君에의 忠念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한 忠念은 같은 段落에서 다음과 같이 表出되고 있다.

무어술 취하시며 무어술 등허녀여
 언언이 장허하며 스스의 두호하샤
 비박홀 이혼몸을 다칠가 넘하시니
 엇그제 만난님이 정외는 너듯서듯
 님의뜻 나모르고 내뜻도 님모르며
 무슨일 이대도록 전권하미 꼭진홀고
 빅년을 히로홀들 이에서 더홀손가
 님의 은혜 이러스록 괴질홀은 더심홀의 <第4段>

老論들이 그에게 辛壬士禍를 일으킨 죄를 물어 死刑시키고자 사태가 위급하므로 임이 그를 살릴 생각으로 楸子島에 絕島梲棘으로 衆怨를 막았다고 여겨 그 성충이 뼈에 사무치도록 감사하면서 戀君에의 衷情을 表白하고 있다. 이어

122) 安鍾和 『國朝人物志』(Ⅲ)p.231. “辛丑疏頭 金一鏡 李眞儒 朴明誼…世稱疏下六賊,李眞儒字士珍 完山人…肅宗己卯進士 丁亥文科 選入史局 歷史曹參議 大司成 辛丑與一鏡上疏言代理之不可語極 慘官至副提學庚戌拿鞠拷死 乙亥追施逆律” 『英祖實錄』卷3 元年乙巳正月辛丑條 “李眞儒……削奪官職門外黜送” 同3年丁未7月丁巳條 “李眞儒雖參鏡疏 厥後與鏡崖異之狀 世所共知 梲棘三年 罰已行矣” 同10月戊子條 “李眞儒 海島窺棘治滿三年矣” 이 기록을 보면 流配島名이 不明이나 ‘3年海島’의 기록과 歌辭序頭의 ‘3年을 님을 떠나 해도의 뉴락하니’와 내용이 부합되므로 楸子島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감군은 삼조를 벽상의 대서하고
 망미헌 편익은 도동의 뉘모르리
 종일 폐호하고 주서를 피열하니 <第6段>

‘感君恩’ 3字를 벽위에 大書하여 생활하는 자세는 바로 愛君忠念인 것이다.

천디간 독납하야 스밤을 들너보니
 우리님 아니시면 놀을다시 의지홀고
 시운이 불헝하야 친니의 썬나시니

 우직하기 본성이오 광망홀도 내죄오나
 근본을 심간하니 님위흔 정성일식 <第7段>

자신의 행동은 오로지 님을 위한 忠誠에 있으며 때문에 스스로가 의지하는 것은 임뿐이 며, 비록 내가 어리석고 아주 망녕되게 죄가 많으나 근본을 생각하면 모두 님을 위한 臣下의 정성 그것이었다고 戀君에의 衷情을 노래하였는가 하면,

옥누 높은곳의 야야의 님을 뵈서

 우리님 옥음은 이변의 완연하고
 우리님 어로향이 의슈의 품여계라 <第8段>

라고 계속하여 戀君一念을 나타내고 있다.

「萬言詞」는 黨爭에 관여하지 않은 流配歌辭이나 그 年代와 作者가 아직 확실한 考證이 되어 있지 않다.¹²³⁾ 작품 속에 표출된 작자를 보면 瀕死狀態로 태어나 一週日만에 생기를 얻었고, 11세에 모친상을 당하여 10년간 外家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 무렵 繼母를 맞이함에 東史古文·西書·三經·唐音長篇·宋明史를 숙독하여 才童으로 지적받았다. 20세에 結婚하여 淸歌妙舞로 소일 방탕하고 御樂院의 호사한 생활을 지내다가 私利行脚으로 7일 감옥살이 중 聖慰를 입어복직되나 富貴功名을 탐하다가 25斤의 칼을 쓰고 34세에 楸子島에 流配된다. 「萬言詞」는 楸子島에서의 艱難辛苦의 流配生活을 寫實的으로 그려낸 長篇 流配歌辭로, 自歎 呼訴調로 一貫하고 있는 일종의 신세타령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123) 『萬言詞』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정리해 보면

張德順 『前揭書』 p.374. 尹貴燮 『前揭書』 p.47. 丁益燮 『前揭書』 pp.531~555. 朴晟義 『前揭書』 p.58. 李相寶 『前揭書』 p.77. 文璨植 『前揭書』 p.208. 李弘植 『前揭書』 p.461. 金亨奎 등 3人 『國文學概論』(서울: 一成堂, 1956) p.179. 李相寶·朴魯春 등 4人 編著 『歌辭文學全集』(서울: 精研社, 1961) p.391. 文元閣 『韓國文學大事典』(서울: 文元閣, 1973) p.830. 鄭寅承·梁柱東 등 6人 『韓國語大辭典』(서울: 玄文社, 1976) p.536. 李崇寧 外 7人 『國語國文學事典』(서울: 新丘文化社, 1973) p.212. 許雄 등 2人 『國語國文學事典』(서울: 一志社, 1973) p.86. 崔常壽 『國文學辭典』(서울: 東星社, 1953) p.93. 金一根 『안도은가』(서울: 관훈동 고서점에서 발굴된 자료, 1980). 『順興安氏族譜』 『正祖實錄』 등 17개의 자료를 통해 봤으나 아직도 年代·作家도 확실히 考證되지 못하였음.

「萬言詞」의 第7段¹²⁴⁾에서 보면 가이 없고 過分한 天恩에 감사하며, 戀君에의 衷情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새벽서리 치는 날에 외기러기 슬피우니
 孤客이 먼저 듣고 님생각이 새로와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님의얼굴 보고지고
 나래돌힌 鶴이 되고 날아가서 보고지고
 萬里長天 구름되어 떠나가서 보고지고
 落落長松 바람되어 불어가서 보고지고
 梧桐秋夜 달이되어 비추여나 보고지고 <第7段>

임을 그리는 애타는 心情은 ① ‘鶴’·② ‘구름’·③ ‘바람’·⑤ ‘細雨’ 등이 되어서도 가까이에서 임을 보고 싶어하는 戀慕의 불꽃을 가슴에 불태운다. 「萬言詞」에 나타난 所願은 앞서 말한 北軒의 變身하여 所願하고 있는 ① ‘구름’·② ‘바람’·③ ‘새짐승’ 과 同一하며 鄭松江의 ‘긋은 비’는 「萬言詞」의 ‘細雨’와 同一視된다.

그토록 自身을 變身하여 자신의 眞實을 임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作家의 感情이 메타모르포세스에 의한 임과의 교섭을 낳았고, 이는 怨恨에 가까운 戀慕라 해도 좋다. 곧 이러한 자신의 變身은 君王에게서 疏外된 孤獨感을 달래기 위해 울어나온 抽象的인 戀君에의 曲盡한 戀慕의 感情을 具體的인 事物로 바꿈으로써 카타르시스의 效果를 노렸다고 할 수 있다.¹²⁵⁾ 같은 段落에서,

임 그리는 마음이야 변할길이 잇을소나
 내이리 그리운줄 아오시나 모르시나
 내 아니 잇었거든 이미 혈마 잇었으라

 하로도 열두時 몇번을 기다린고
 설움 모여 病이되니 백가지 病 한대난다

 술로도는 病이오면 술을 먹고 고치오며
 임으로 든 病이오면 임을만나 고치나니 <第7段>

임금을 그리는 마음은 변함이 없음을 절절하게 나타내고, 하루도 열 두 때 백가지 病이 되어 破酒로도 달랠 수 없음을 표백한다. 이어,

124) 「萬言詞」는 10段落으로 구분하였다.
 1段落: 1句~50句, 2段落: 51句~230句, 3段落: 231句~384句, 4段落: 385句~476句,
 5段落: 477句~634句, 6段落: 635句~776句, 7段落: 777句~1028句, 8段落: 1029句~1326句
 9段落: 1327句~1442句, 10段落: 1443句~끝
 「萬言詞答」은 4段落으로 구분하였다.
 1段落: 1句~48句, 2段落: 49句~178句, 3段落: 179句~270句, 4段落: 271句~끝
 125) 李御寧 『韓國과 韓國人(2)』(서울:三省出版社, 1966,) pp.363~364 參照

萬頃滄派 바람불제 壯觀함도 天恩이오
 나아가도 天恩이오 물러가도 天恩이라
 손님몹 죽으시면 큰 罪가 돌이로세
 父母를 잊으시니 不孝도 되려니와
 天恩을 또 잊으니 不忠이 아니런가 <第2段>

「萬言詞」가 家庭을 상대로 하여 쓰인 작품이라 하지만 聖恩이나 天恩에 陳情하고 感謝하는 忠君戀主的 要素가 句句節節에 나타나 있다. 天恩의 망극함을 생각하여 節義忠念으로 聖恩에 보답해야 하고, 父母奉養을 위해서 竭忠報國에 힘써야 된다는 精神을 나타내고 있다.

문노라 童男童女 不老草 캐었느냐
 있는데 나도가서 한포기 캐어다가
 九重宮闕에 우리님께 드리옵고 <第3段>

釋放되고 歸家하는 날 聖恩에 報答하기 위해 不老草를 캐고 님께 드리고 싶다는 忠念을 表示하였다. 이와 같이 流配歌辭 4편 30段落에 ‘憂時戀君에의 衷情’이 12개소나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身上歎(哀訴·諦念·潔白)

哀訴와 諦念, 自身の 潔白을 주장한 身上歎은 流配歌辭의 到處에서 나타나며 流配文學의 思想的 主流를 이루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流配者가 政敵이나 奸臣들이 자기가 君王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을 시기질투하여 君王의 忌諱를 사계 참조하자 억울하게 流配당한 것이라 여겨 流配地에서 자기의 무죄를 哀訴하거나 潔白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신상을 自歎하는 것이다. 北軒의 「別思美人曲」에서 보면,

이보소 저각시님 설운말씀 그만호오
 말씀을 드러호니 설운줄 다모를시
 인년인들 혼가지며 니별인들 갓달손가
 광한전 빅옥경의 님을피셔 즐기더니
 나리틀 호엿거니 지암인들 업술손가
 한다 저문날의 가눈줄 설위마소 <第1段>

廣寒殿 白玉京에 님과 함께 同樂하던 것이 일시적인 내침으로 夕陽에 떠나가는 것을 슬퍼말라 하고 스스로를 위로 哀訴하고 있다. 이어

조물 식거훈가 귀신이 회즈온가
 님팔조 그만호니 시름을 원망홀가
 내몸의 지은죄를 모르니 기더죄라 <第3段>

자신은 潔白하기에, 나에게 罪가 있다면 무슨 罪인지조차 모른다는 그 자체가 罪인지도

모른다. 자신의 無罪와 潔白함을 은연중에 역설하고 있다. 이어

넘계신티 생각하니 꿈인들 어이갈고
인간 천손의 버리고 나라거니
천축의 불상홀손 한시절 왕소군이
.....

만니 변성의 무슴허라 가단말고 <第4段>

漢나라 王昭君의 故事를 引據하며 流配된 자신의 처지에 비겨 自歎하고 있다. 이어

어와 이작시님 그러도 그러허가
팔즈를 어이허며 천눈인들 도망홀가
더허거니 덜허거니 분별허여 무어스허며
구람이느 브람이느 되여논들 무엇홀고
각시님 잔가득 부으시고 혼시름 이즈소서 <第8段>

破酒 한 잔이나 부으면서 시름을 잊겠다는 諦念을 나타내었다. 이어 北谷의「續思美人曲」에서 보면,

내 언제 무심허여 님의게 득죄허가
님이 언제 박정허여 날대질 소허허가
내얼골 곱뎠던지 질투홀산 중너로다 <第1段>

三年間 楸子島에 流配케 된 것은 自身에 罪를 지은 것도 아니고 또한 임의 薄情한 탓이 아니라 오로지 衆女(奸臣)들이 自己가 임의 총애를 받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탓이라 하여 자신의 潔白을 暗示하고 있다. 이러한 感情的인 表白은 松江의 「思美人曲」에서도 보이듯이 임에게 怨望을 돌리지 않으면서 은연 중 自己의 無罪를 哀訴하는 것이다. 이어

봉황성 다드르며 고국쇼식 경심허다
참언이 망국허니 님이신들 어이홀고
.....

근귀압송은 고금의 초견이오
지굴제직은 이은도 도침허다
.....

너관 잔등의 피눈물이 절노난다 <第2段>

使臣으로 갔다가 그리운 故國으로 돌아오는 도중 鳳凰城(奉天)에 故國의 소식을 듣고 참소당한 것을 自歎하면서 王都가 있는 近畿에 이르러 護送당하면서 旅窓의 殘燈밑에서 앞으로의 처지를 생각하면 自歎하고 있다.

두야의 들니느니 히도와 밍둥이오
도모의 섯두느니 당무와 만우로다
서식을 미명허여 낭질을 니별할서

당부의일촌강장 낭항누를 금 흘 소나

.....
압송관 비별호야 님계신대 도라가니
경경훈 일단심이 다시금 새로와라 <第 5 段>

陪行한 兩姪과 압송관을 이별하며 창자를 예이는 듯한 悽愴에 젖어 自歎하고 있다. 이어 「萬言詞」에서 보면,

벌어온 人生이 꿈의 몸가지고서
男兒의 하을일을 漚漚히 다하여도
풀끝에 이슬이라 오히려 덧업거든
어와 내일이야 光陰을 해여보니
半生이 채못되어 六六에 돌이업네
.....
아모리 내일이나 내亦是 내몰래라
長吁短歎 절로나니 島中傷感뿐이로다 <1 段>

絶島 楸子島에 流配를 당하여 長吁短歎으로 傷感에 젖을 뿐이라고 身上을 自歎하고 있다.

마디마디 淸涼하다 謫客心懷 어찌할고
回首長安 돌아보니 浮雲蔽日 아니빈다
나가는길 어인길고 무삼일로 가는길고 <第 3 段>

流配 길에 長安을 돌아보니 구름에 해가 가려 볼 수 없어 가는 길을 自歎하고 있다. 이어

눈물로 밤을새와 아침에 조반드니
.....
여름날 긴긴날에 배고파 어려워라
衣服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난다 <第 5 段>

이것은 유배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自歎하고 있는 것이고,

동냥도 한번이지 빌긴들 매양하라
平生에 처음이요 다시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정 이노릇은 못하리라 <第 6 段>

이것은 流配地에서 동냥하다가 지친 자신을 自歎했다. 손가락질 당한 ‘귀향다리’·‘구름다리’·‘징검다리’·‘열두다리’·‘웃다리’·‘아래다리’·‘석은다리’·‘헛다리’·‘板子다리’·‘廣通다리’·‘水標다리’·‘孝經다리’·‘馬 다리’·‘갯다리’·‘中學다리’·‘항다리’·‘찢다리’·‘학다리’·‘수각다리’ 등등으로 戲化하면서 마지막에 ‘귀향다리’는 ‘病身다리’¹²⁶⁾로 넘두리

126) 제주 방언에서도 ‘다리’를 접미사로 하여 ‘광질다리’·‘요망다리’·‘고집다리’·‘병신다리’ 등을 비롯한 말들이 현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처럼 궁상을 떨고 있다. 士大夫·兩班들의 점잖음이라든가 의연한 태도·위엄 등을 엿볼 수 없다.

北海上 기러기는 上林苑에 날아나니
내 家信 어이하여 이다지 막혔는고
꿈에나 魂이가서 故鄉을 보려마는
怨讐이 잠이 올제 꿈인들 아니꾸라
흐르나니 눈물이오 지어나니 한숨이라
눈물인들 限이 있고 한숨인들 끝이있지
내 눈물이 모였으면 楸子섬이 생겼으며
이 한숨이 쌓였으면 漢攀山을 덮었으니 <第8段>

思 歸鄉의 慕情이 常套的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自歎의 눈물과 한숨은 限이 있는지 왜 끝이 없는 것일까. 눈물이 모아져 楸子島가 생긴다면 한숨이 쌓아져 漢攀山을 덮을 것이라는 誇張엔 實感이 덜했지만 身上歎의 절정을 읽을 수가 있다.

실같은 이 殘命을 끊음죽도 하다마는
아마도 모진목숨 내목숨 뿐이로다
人命이 至重함을 이제와 알리로다
누구서 이르기를 歲月이 藥이라도
내설움 오랏사록 火藥이나 아니될가 <第9段>

流配生活이 길면 길수록 거기에 직면한 내 설움은 크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이 殘命은 끊게 될 위험도 있음을 自歎하고 있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설은 望情비나이다
冊曆도 해묵으면 고쳐쓰지 아니하고
노호염도 밤이자면 풀어져서 버리나니
.....
千事萬事 蕩滌하고 그만저만 叙用하사
끊쳐진 옛 因緣을 고쳐있게 하옵소서 <第10段>

放釋을 哀訴하고 있다. 兩班답지 않은 哀訴가 바로 그의 身分이 平民임을 말해 준다. 「萬言詞」의 도처에 11개나 감탄사가 사용하고 있어 그만큼 이 가사의 詩風이 自歎·呼訴에 있음을 알게 한다. 이어 「萬言詞答」에서 보면,

이 苦生 다지내고 손님뿐이 아니어늘
그대도록 설워하며 저대도록 애를 썩여
귀양살이 애쓰나니 快히 죽어 모르자니
望海投死하라는가 不食餓死하라는가
自刎而死하라는가 飲毒而死하라는가
실은사람 다죽으면 朝鮮사람 半이되고
귀양가서 다죽으면 島中謫客 뉘잇을고 <第1段>

隣人の 和答形式으로 되어 있는 이 歌辭의 內容은 作家에게 너무 상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도록 慰勞와 激勵을 하고 있다. 이 위로의 內面엔 作家的 自歎이 內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苦生 이 설음을 잊지 말고 외왕다가
羞잡고 웃으면서 옛말씀 하오실제
그때내말 생각하고 上品올라 하오시리 <第4段>

어서 속히 放釋되어 그 千辛萬苦한 流配生活, 가슴 아픈 설음 등을 옛얘기할 수 있도록 哀訴하고 있다.

이와 같이 流配歌辭 4편 30段落에 流配된 자신이 無罪이고 潔白함을 주장하여 哀訴하는 心情을 表白하는 한편 流配된 자신의 신상을 자탄한 ‘身上歎’이 16개나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신상을 자탄하였지만 「萬憤歌」·「北關曲」·「北遷歌」 등의 流配歌辭처럼 直接的인 怨望하는 辭가 나타나지 않음이 性格上的 特徵이라 하겠다.

(3) 贖罪와 悔改

流配당한 자가 자기의 지은 罪를 솔직히 시인하고, 贖罪하고 悔改하는 내용이 「萬言詞」에서 밖에 찾아 볼 수 없다. 黨爭에 關與한 政治的 流配의 경우는 자신이 지은 罪가 있어서 流配에 처해진 것이 아니라, 奸臣輩의 참소로 말미암아 君王의 미움을 사게 되고, 政敵에게 배척당한 것이므로, 無罪이며 贖罪나 悔改할 대상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해서 大部分의 流配者가 뚜렷한 名分이 없이 政敵에 몰려 流配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다만 「萬言詞」의 경우, 破廉恥罪로 楸子島에 流配당한 安肇煥의 意識에서만 자신의 得罪에 대한 贖罪와 後悔의 一面을 엿볼 수 있으니, 朝鮮朝 刑律制度上的 流刑이 정당하고 공정한 실사되었다면, 流配者가 반드시 悔改와 後悔가 있어야 당연할 것이다. 여기에서 朝鮮朝 行刑制度의 모순과 黨爭의 有關한 流配歌辭의 特異性이 있다 하겠다. 「萬言詞」에서 보면,

如不勝衣 弱한 몸에 二十五斤 칼을 쓰고
手鎖足鎖 하온 後에 司獄中에 드단말가
나의 罪를 헤아리니 如山如海 하것고나
.....
한번 일을 그릇하고 不忠不孝 다되것다
悔逝者而莫及이라 누우친들 무삼하리
燈臺불 치는 나비 저 죽을 줄 알았으면
어디서 食祿之臣이 罪 짓자 하라마는
大厄이 當前하니 누조차 어둡고나
마른 섬흘 등에 지고 烈火에 들미로다 <第2段>

死刑囚와 같은 重罪人으로 취급되어 25斤의 큰 갈(枷)¹²⁷⁾ 와 手鎖¹²⁸⁾·足鎖¹²⁹⁾가 채워져 遠惡地에 流配된 것을 悔改하고 있다. 이어

어제는 옳던 일이 오늘이야 원줄아니
뉘우쳐 하는 마음 업다야 하라마는
범몰릴 줄 알았으면 깊은 피에 들어가
떨어질 줄 알았으면 남에 올랐으랴
天動할 줄 알았으면 잠간 樓에 올랐으랴
破船할 줄 알았으면 전세대동 살었으랴
失手할 줄 알았으면 내가 장기 벌렸으랴
罪지은 줄 알았으면 功名貪차 하였으랴
.....

먹기에 貪心나서 荆棘에 걸리었다 <第5段>

無謀했던 자신과 자신이 지은 罪에 대해서 悔改하고 있는데 그 形式은 마치 民謠나 판소리系の 反復句나 同一語句 등이 各句의 같은 位置에 反復되고 있음을 본다. 곧 反復句의 羅列은 「萬言詞」의 特色이자 庶民文學의 文章上의 特色이 歌辭에 浸透한 예라고 할 수 있다.¹³⁰⁾ 反復句를 쓰다 보니까 無意識 중에 押韻이 作用되고, 辭說을 길게 하다 보니까 敘事性도 가지게 되어 現實의 괴로움에 執着한 赤裸裸한 表現은 비교적 直叙의이고, 直觀的·直截的이라 하겠다. 「萬言詞」와는 對照的인 兩班歌辭를 보면 對句의 形式에 의한 표현으로 되어 있음을 본다.

楚客의 後身인가 傷心도 마이업고
賈太傅 녀시런가 한숨은 무스일고 <萬憤歌>

“楚客과 賈太傅”·“傷心과 한숨” 등이 對를 이루고 있고

天上 南樓의 笙笛을 울리시며
地下 北風의 死命을 벗기실가 <前揭書>

“天上과 地下”·“南樓와 北風” 등이 그 對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어

人生은 有限한디 사람도 그지업다
무심흔 歲日은 물흐르듯 하느고야 <思美人曲>

127) 徐亨教 『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研究』(서울:韓國法令編纂會, 1968)p.160, “枷의 法定 規定은 長 5尺5寸, 頭濶 1尺5寸이다. 死刑囚는 25斤, 徒·流刑囚는 20斤, 杖罪人은 15斤, 正祖 2년(1778)에 死刑囚는 22斤, 徒·流刑囚는 18斤, 杖罪人은 14斤으로 개정, 여자 사형수는, 枷를 쓰지 못하게 함.”(『大典條例』卷之 9, 刑典 刑曹 刑具條)

128) 『上揭書』p.161. “紐는 流刑以上の 죄를 지은 男子의 채우는 수감”(『大典條例』卷之 9, 刑具條)

129) 『上揭書』p.162, “鐵索은 長 1丈의 쇠줄을 만들어 罪囚에게 足鎖로 施用”(『大明律直解』獄具之圖)

130) 尹貴燮 「前揭書」p.51

춘풍 도리화야 못보다 관계하라
가을이 다 다투록 국화랄 못 보거든 <續思美人曲>

“人生과 歲月”·“시름과 물” 등이 對를 이루고, 이어 “春風과 가을”·“桃李花와 菊花” 등이 對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兩班歌辭는 對句意識이 강하다. 이러한 對句의 形式보다 反復句의 形式과 辭說이 「萬言詞」에 나타나고, 一切의 서정은 모두 苦生談과 이에 따른 絶望感·生活 속에서의 수치감으로 直叙되어 서정으로서의 여운은 남아있지 않다.¹³¹⁾

流配歌辭 4편 30段落에 潔白의 주장이나 암시도 없이 ‘贖罪와 悔改’는 유독 「萬言詞」에서만 2개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黨爭에 關與한 流配歌辭에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特異性으로 지적할 수 있다.

以上 考察한 流配歌辭에 나타난 思想은 ‘憂時戀君에의 衷情’과 ‘身上歎’·‘贖罪와 悔改’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流配歌辭 4편 30段落에서 ‘憂時戀君에의 衷情’이 12개 ‘身上歎’이 16개, ‘贖罪와 悔改’가 2개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빈도가 큰 것으로 ‘身上歎’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화려한 出仕에 이어 王寵을 잃고 奸臣輩들의 거짓 참소로 말미암아 流配당하고 보니, 流配의 狀況에 直面한 자신의 潔白과 무죄임을 哀訴하는 한편 자기가 처한 身上에 自歎하게 된 것인데, 遠惡地 島配인 濟州島 流配者의 경우 그들이 더 이상 조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絶島 團籬安置의 重刑임을 알고 身上歎을 深化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流配歌辭에서 볼 수 있는 怨望의 辭가 전혀 찾아 볼 수 없음이 特徵的이다.

그 다음으로 ‘憂時戀君에의 衷情’임을 들 수 있는데, 이는 美人系 流配歌辭의 경우 戀君과 忠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그것을 충분히 反映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朝鮮朝의 儒敎中心主義의 倫理意識은 바로 忠이었고 戀君衷情 이었다. 그것이 어떤 逆境 속에서 삶의 準據點 이었기 때문에 生活의 반영으로 流配文學에 反映되었음은 당연한 귀결이다.

‘贖罪와 悔改’는 黨爭에 關與한 流配者의 경우는 비록 流配당한다 해도 그것은 奸臣輩의 참소로 君王의 미움을 사게 한 것이니, 贖罪하고 悔改할 罪를 지었다고 생각치 않는 데 名分이 있고, 大義가 있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때 자신이 王寵을 독차지하던 것이 시기 질투로 참소를 당해 君王의 총애를 잃게 된 것이니 無罪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美人系 流配歌辭의 特殊性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것으로 믿어진다.

그 밖에 美人系 流配歌辭에서 ‘님’의 用語가 北軒의 「別思美人曲」에 21개·北谷의 「續思美人曲」에 24개·「萬言詞」에 6개·「萬言詞答」에 2개 등 到處에 表出하여 孤臣戀主의 情을 表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萬言詞」 「萬言詞答」의 경우 天恩이 많이 表出되어 있는데, 이는 자신을 悔改하고 모든 것을 天恩에 돌렸고 「萬言詞答」에 天恩이 많이 表出된 것은 放釋을 기대하며 天恩을 表白한 것이다.

131) 安廷煥 『謫所歌辭研究』(仁荷大 碩論, 1981) p.65

變身哀願은 「續思美人曲」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別思美人曲」에선 11개가 나타나고 「萬言詞」에선 5개 나타나 있음을 본다. 前者는 忠貞의 表白이었다면, 後者는 그리움의 情恨으로 表白되어 있다. 鄉里放逐하여 지은 松江의 「思美人曲」·「續思美人曲」에서는 刑具의 용어를 사용한 곳이 없는 데 비해서 遠惡地에 島配를 反映한 流配歌辭에는 刑具가 세 作品에 足鎖 등 7개나 사용되고 있어 그 만큼 島配는 流配 중 重刑이었음을 말해준다 할 것이다.

2) 歌辭에 나타난 生活相

濟州島는 地理的으로 絕海의 孤島이다. 척박한 땅과 모진 바람, 비가 많은 기후와 바다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지척도 알 수 없다.¹³²⁾ 더구나 中央官吏들의 착취와 왜구들의 침탈, 안과 밖에서 당해야 했던 수난은 극심한 것이었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濟州島의 地勢는 조금만 가물면 旱災, 비만 와도 水災, 바람만 불어도 風災로 農事는 凶作이 잦았다.

世宗 10年(1428) 朝廷에서 濟州島의 稅를 조정할 때 本島의 三災를 지적하고 本島에 대해서는 免稅할 것을 여러 大臣이 上奏할 정도였다.¹³³⁾ 그 三災란 風多災·水多災·旱多災인 것인데, 이는 氣候가 “雲霧恒陰翳 少開雨齊 盲風恣雨 發作無時 蒸濕沸騰¹³⁴⁾”하여 나뻐왔다는 증거가 된다. 朝鮮朝 中期에 土豪와 官吏의 橫暴·軍役義務의 過重·朝廷으로부터의 虐待 食糧難 등으로 濟州島民들은 出陸하는 일이 빈번해져 이로 인해 出陸禁止 政策이 실시되기도 했다.¹³⁵⁾ 光海朝로부터 1910년까지 凶年の 回數가 근 70회에 달할 정도로¹³⁶⁾ 실로 濟州島는 척박한 땅이었다.

楸子島는 濟州島·木浦間의 郡島로서 木浦에서 약 60里, 濟川에서 약 30里의 海협에 位置하고 있는 絕海孤島로 上楸子島·下楸子島를 통칭하는 이름이다. 이 섬 周圍에는 靑島·水德島·外蘆島·華島 등 大小 28個 섬이 모여 楸子島를 이루고 있다. 이 섬은 둘레가 30里가 된다. 무릇 濟州에 가는 者가 羅州를 떠나면 務安·大崙浦·靈岩·火無只瓦島·海南·於蘭梁을 거쳐 이 섬에 이르고 海南에서 떠나면 三千浦로 좇아 巨要梁·三內島를 거치고 康津에서 떠나면 軍營浦로 좇아 高子黃伊露瑟島, 三內島를 거치는데 모두 3週를 걸러 이 섬에 이른다. 여기를 經由하여 斜鼠島·大火脫島·小火脫島를 지나 朝村館에 이르거나,¹³⁷⁾ 濟州禾

132) 金錫翼 『前揭書』 卷 2, 世宗 10年條

133) 『上揭書』

134) 『冲庵先生文集』 卷 7, 「濟州風土錄」

135) 食糧難으로 本島의 飢民들이 出陸이 許可되어 1470년부터 1624년까지 약 150년간에 걸쳐 島民들이 빈번한 出陸으로 濟州三邑의 人口가 세종 때 6만 3천여명이던 것이 2만 5천여명으로 激減하였다. 이에 1630년대로부터 1820년대까지 약 200년간 出陸禁止 令이 내려졌었다. (金宗業 「前揭書」 pp.15~16)

136) 앞의 註 75) 참조.

137) 李衍 등 『新增東國輿地勝覽』 (서울:民族文化推進會, 1971), 『世界大百科事典』 卷 5, (서울:學園社, 1965) p. 900, 楸子島는 北濟州郡의 濟州海峽에 있는 郡島로 面積 7.56km², 大小 30개의 島嶼와 巖礁로 되어 있다. 1km 이상의 것은 下楸子島(4.7km²)와 上楸子島(1.8km²)의 두 섬 뿐이며, 其他 1km 이하는 靑島·水德島·外蘆島·華島·海岩嶼·牛島·蟾島·廉島·禮島·水嶺島·樂生伊島·秋浦島 梧桐島·羅劍島·望島·厚島·床島·穴島·甌島·加仁嶼·納德島·空嶼·直龜島·橫干島·蘆嶼·門嶼·鹿嶼 등임.

北鎮 浦口에 이른다.

濟州島와 그 島嶼 地域은 絶海孤島이므로 朝鮮朝 때 代表的인 流配地여서, 여기에 流配은 사람들은 例擧키 어려울 정도이다. 政治的 유배를 당한다는 이유가 아니면 絶海孤島인 濟州島·楸子島에 까지와서 日常的인 生活이 아닌 특수한 環境에 適應하거나 異香이 짙은 風物과 三神山의 하나인 漢拏靈峰 등 濟州의 자연을 가까이 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 그네들이 화려한 정계에서 일신상의 영달만을 누렸더라면 嶺南의 자연미는 맛볼 수 없었고, 竹杖芒鞋로 穿陟하며 輕舟短棹로 江上에 나아가 往來遊賞하며 실제로 친하지 않았다면 자연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¹³⁸⁾ 濟州島의 流配가 비록 竹杖芒鞋로 穿陟하며 輕舟短棹로 江上에 나아가 往來遊賞하며 자연을 벗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도 濟州島가 流配人에 의해 文學的 소재가 되어졌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

文學은 생활을 반영한다. 문학이 생활의 표현이라고 하면 國文學 소재 전체가 생활이 아닌 것이 없을 것이다. 濟州島가 流配人에 의해 文學적 소재가 되고, 거기에 어떻게 생활을 반영했는가 살펴 볼 필요를 느낀다. 과연 流配歌辭에는 어떻게 生活相이 反映되어 있는가 「萬言詞」·「續思美人曲」을 통해서 考察하기로 한다.

「萬言詞」와 「續思美人曲」은 楸子島 流配를 素材로 하여 創作된 流配歌辭이나 특히 여기서 문제될 것은 「萬言詞」가 非政治的 不正으로 말미암은 流配인데 반하여 「續思美人曲」은 辛壬士禍의 6人疏에 聯名한 政治的 流配라는 事實이다. 同一 環境의 流配生活에서도 生活體驗의 決定은 個人的 精神構造에 따라서 다르게¹³⁹⁾ 마련이다. 그것은 作家의 觀照에 따라서 다르다. 가령 폐쇄적인 자연인가, 개방적인 자연인가의 태도도 그런 例이다.

朝鮮朝의 流刑執行의 方法은 陸地에 流配하는 것과 섬에 流配하는 것이 있고 또 섬에도 落島·孤島·絶島·無人島 등의 구별이 있었다. 流配地에 와서도 謫所에 배치된 流刑囚의 有罪·輕重 여하에 따라 拘束 與否가 달리 決定되었다. 그 方法에 몇가지 있었으니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安置·圍籬安置·絶島安置·充軍 등이 있다. 흔한 方法은 謫所에 보내면 그냥 그 곳에 放置해 두고 따로 一定한 場所에 구속하는 것 같은 일은 없으나 安置되었을 경우 謫所에 따로 場所를 指定하여 유폐시키는데 이른바 閉門인 것이다.

이와 같은 安置에 해당하는 者는 대개가 王族이든가 高位顯官에 한한 것으로 이 安置에도 重刑者는 絶島安置에 처하고 輕刑者는 本郷安置에 처하는 것이니, 政治的 流配者는 圍籬安置에다 絶島安置를 겸한 絶島 圍籬安置이었다. 濟州島에 流配된 자는 어김없이 이 絶島 圍籬安置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萬言詞」의 作家 安肇煥은 楸子島로 流配되었으니, 그가 25斤의 칼을 썼다는 점에서 政治的 流配와 같은 重刑이었음을 注目해야 할 것

138) 趙成桓 「國文學과 謫所關係」(郡山教大 『論文集』 7집, 1974 . p.133)

139) 尹貴燮 『前掲書』 p.47

이다. 楸子島의 謫所는 絕島安置와 같이 文字 그대로 絕海孤島에 幽閉되는 것으로서 氣候가 사납고 猛獸·毒蛇·毒虫이 우글거리며 食產物이 不足하여 生活의 餘裕가 없으니, 섬의人心과 風俗은 거친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環境의 反映이 바로 生活相이었다.

(1) 食糧難

보이나니 바다하요 들리나니 물소리라
 碧海桑田 갈린 後에 모래모여 섬이되니
 楸子섬 생길제는 天作地獄이로다 <「萬言詞」第5段>

楸子島는 기후, 풍토를 비롯한 諸般條件이 나빠 농사도 잘 안 되는 모래 섬이다. 이른바 하늘이 창조한 地獄으로 여길 만큼 궁핍한 곳이다. 이어

히도도 하고한대 원악디를 골라내어
 빅년형극을 휴즈도의 처음여니 <「續思美人曲」第5段>

楸子島가 遠惡地요, 絕海孤島로 百年荆棘의 流配地로서는 代表的인 곳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流配당한 사람은 無人島에 流配당한 것과 같은 어려운 流配生活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食糧難이다. 楸子島의 生業은 주로 漁業이고 보니 食糧을 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닌 상심다.

앞뒤에 田畚업고 물속으로 生涯하여
 앞언덕 고기낙아 웃녁에 장사가니
 상망언어 보리섬이 믿을것이 아니로세
 身兼妻子 세 식구의 糊口하기 어렵거든
 糧食업는 나그네는 무엇먹고 살려는고 <「萬言詞」第4段>

楸子島는 田畚이 없고 주된 生業이 漁業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보리는 고기낙아 장사하여 구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糊口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여기에 流配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갈 것인가. 生計를 헤아리기 어려운 처지이다.

일힘이 귀갈 혼들 무어스로 구홀 손고
 힝 탁을 떨어내니 수두미 썬이로다
 빅죽을 뿌어내여 둘러안자 노기 항고 <「續思美人曲」第6段>

食糧問題는 北谷의 경우 여행 주머니에 남은 얼마 안되는 쌀이라도 있어 죽을 쑤어 입에 풀칠할 수 있었으나 安肇煥의 경우 섬사람들도 糊口하기 어려운 食糧難의 환경인데도 동남 行脚에 나섰다. 겨울이 되면 內陸과의 交通 斷絶로 食糧難은 더욱 加增하게 마련이었다.

엄동이 깃혀지고 늑디는 못통헌니
 낭식도 뽕절거든 반찬이야 의논헌며
 엄장을 못먹거든 어육이야 必랄소나 <「續思美人曲」第6段>

食糧難은 田畚이 없고 생활기반을 물에 의지하는, 그것도 보잘 것도 없는 고기 낚기가 生業이기 때문이다.

석가의 벉를 먹고 도통의 드러가니
촌낙이 쇼쵸호야 수신히 어가로드 <「續思美人曲」 第6段>

쓸쓸하게 數10戶의 漁家가 있는 村落은 楸子島의 생활을 상징하고 있다. 결국,

눈물로 밤을 새와 아침에 조반드니
덜뜨린 보리밥에 무자명이 한종자라
한술을 떠서보고 큰덩이 내어놓고
그도저도 아조업서 굴물적이 간간이라
여름날 긴긴날에 배고파 어려워라 <「萬言詞」 第4段>

“덜 뜨린 보리밥”과 “무자명이 한 종자”도 없어 긴긴 여름날 虛飢차서 괴롭고 고된 생활이 말이 아닌 것이다. 나쁜 환경 속에 기함과 싸우는 生活은 楸子島 流配生活의 전부라 할 것이다. 바로 流配者로 하여금 食糧難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했다. 食糧難으로 流配者에게 온갖 雜役을 다 시켜 하루도 공밥 먹이는 일이 없을 정도다.

(2) 住居難

楸子島는 食糧難에 이어 住居하기가 어려운 곳이다.

이집가서 依持하자 家難하다 핑계하고
저집애가 主人하자 緣故이다 칭탈하네
이집저집 아모덴들 謫客主人 뉘종달고 <「萬言詞」 第4段>

流配者에게 謫所를 쉽사리 제공해 줄 만한 섬사람들의 人心은 없다. 그 만큼 섬사람들의 住居生活이 극심하게 貧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풍우를 무릅쓰고 와실을 좇즈드니
모조는 다날리고 독창의 무지훈대
상상옥누는 마른때 전혀업다
말만흔 좁은방의 조슬도 만홀시고
팔척당신이 구버들고 구버나며
다리 툄 서려누워 긴밤을 새와나니
쥬등의 적신의복 어늬불의 물뉘오며 <「續思美人曲」 第6段>

謫所라고 찾아든 곳은 마치 蝸室같은 住居處다. 茅茨는 다 날리고 종이도 아니 바른 竹窓에 지붕은 비가 새고 벉룩과 이가 많은 곳이다.

집이라고 서볼손가 기어들며 기어나며
房한간에 主人들고 나그네는 잘데업네 <「萬言詞」 第4段>

그것도 방 한칸인데 主人이 들어 있으니 謫客이 잘 수도 없을 정도로 不便하다. 이런 나쁜 환경도 酷寒이 되어 방 한칸을 의지하게 되나 그것은 말이 방이지 방이 아니다.

主人의 筋力빌어 房半間 依持하니
흙바람 발랐은들 조희맛 아올손가

.....
대를엮어 門을하고 현자리로 가리오니
적은바람 가리온들 큰바람 어찌하리 <「萬言詞」 第 7 段>

그 방은 큰 바람도 막을 수 없는 짐승의 소굴이다. 그만큼 楸子島는 住居難이 극심하였다.

용술간옥을 초창하를 경영홀시
도등의 모든 빅성 단심하여 원역하니
번타운와하던 창화현 풍속일다
제도논 추억하니 거처논 소취하다 <「續思美人曲」 第 6 段>

住居難은 결국은 流配者의 경우 스스로 隱居處를 만들어 나가는 수도 있다. 이른바 圍籬安置된 가시울타리 안에 수간집을 지어 그런대로 습하긴 하지만 깨끗한 거처를 만든다. 섬사람들의 盡心完役하고 番土運瓦하는 생활태도를 볼 수 있다. 流配地의 現地 住民들은 政治的 流配者에게는 비교적 好意的이었다. 반면에 安肇煥의 경우 政治的 流配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流配地 所民들의 冷待는 더욱 심했던 것으로 매우 對照的이다.

(3) 謫所의 環境

楸子島는 絶海孤島요 無人島에 가깝게 취급되어져 와서 絶島安置·圍籬安置·重刑者의 流配地이다. 그러나 一定한 謫所가 設定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安肇煥의 경우를 보면,

이집에가 依持하자 家難하다 핑계하고
저집에가 主人하자 緣故있다 칭탈하네
이집저집 아모넨들 謫客主人 누중달고
官力으로 逼迫하고 勢不得已 말았으니 <「萬言詞」 第 4 段>

그때 그때 형편대로 官의 힘에 의해 勢不得已 謫所가 정해지는 것이다. 그것도 어느 집의 처마 밑이 謫所로 정해진다.

뛰자리 한잎주어 簷下에 居處하니
冷地에 淚濕하고 증생도 하도할샤
발남은 구렁배암 뺨남은 청진의라
左右를 돌렸으니 무섭고도 증그럽다 <「萬言詞」 第 4 段>

그것도 冷地이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환경이다.

主人의 筋力 빌어 房半間 依持하니
 흙바람 발랐은들 조희맛 아물손가
 벽마다 틈이벌어 틈마다 벌레로다
 구렁지네 섞여있어 썩구버레 지히하라
 굶은벌레 주어내고 작은벌레 던져주네
 대를업어 門을하고 헌자리로 가리오니
 적은바람 가리온들 큰바람 어찌하리 <〔萬言詞〕 第7段>

酷寒이 되어 謫所로 방 한칸 중 반을 쓰게 되었으나 그 謫所의 방은 큰 바람을 막을 수 없는 ‘구렁지네’·‘굶은 벌레’·‘작은 벌레’의 소굴이다. 이와는 달리 北谷의 경우를 보면,

십장형니를 스면의 둘러치고
 북편의 궁글두어 물길홀 겨유내니
 구만니 당뎡을 덩등에 브라보듯
 듀야의 들니느니 히도와 빙풍이오
 도묘의 섯두느니 당무와 만우로다 <〔續思美人曲〕 第6段>

이른바 北谷은 絶島 圍籬安置로 楸子島에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荒涼한 謫所의 환경이 잘 나타나 있다. 가시 울타리를 사방에 둘러치고 流配生活을 한다는 것은 살아서 다시는 王寵을 회복하거나 歸鄉하기가 힘든다는 것을 상징한다. 밤낮으로 들리는 파도소리·사나운 바람·아침 저녁으로 일어나는 독한 안개·거치른 비 등은 絶世隔離로 죽음의 비참한 유배환경인 것이다.

승예문뎡은 빅가지로 썩지지고
 샤갈오공은 스벽의 종횡 하니
 혼일도 흥황업고 빅악만 구비하다
 상인 히물홀것 세상의 하도할샤 <〔續思美人曲〕 第6段>

이와 같이 謫所의 環境은 나쁘다. 그 주변은 한 가지도 이로움이 없고 백가지 악만 갖추어 사람에게 해를 주는 파리·모기·등애·뱀·전갈·지네 등이 들끓는 나쁜 환경이다.

(4) 日常生活

衣服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난다
 南方炎天 찌는날에 빠지못한 누비바지
 땀이배고 때가올라 굴뚝막은 덕석인가
 덥고검기 다버리고 내암새를 어이하리 <〔萬言詞〕 第4段>

流配生活은 生活 중에 독특한 생활이다. 日常的인 생활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流配者들은 이러한 특수한 경험을 日常化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땀이 배고 때가 올라 냄새나는, 그리고 빨지도 못한 낡은 누비바지를 炎天·酷暑에 입고 다니는 乞人같은 비참한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어 갖은 辱說과 冷待를 받아가며,

고기뎡기 하자하니 물허리를 어찌 하고
나무베기 하자하니 힘모자라 어찌 하며
자리치기 신삼기는 모르거든 어찌하리 <〔萬言詞〕 第5段>

고기뎡기·나무베기·자리치기·신삼기 등을 하려 궁리 끝에 “어와 할일 업다 동냥이나 하여보자”고 결심하여 구차한 乞人行御에 나서야 할 정도로 日常生活의 하나하나가 다 不便하다.

무삼일을 하잔말고 신삼기나 하자하고
짚한단 추려다가 신날부터 꼬아보니
조희노도 모르거니 샷기꼬기 어이알리 <〔萬言詞〕 第6段>

갖은 屢說 들으며 동냥하던 일을 다시는 않겠다고 ‘신삼기’를 결심하나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가

게을리 일어앉아 굽은다리 퍼올적에
삭다리를 조기는듯 마디마디 소리난다
돌담벧대 앞난초를 쇠똥불에 부쳐들고
陽地를 따라앉아 옷에 이 주어낼제 <〔萬言詞〕 第7段>

‘쇠똥불’이 유일한 불씨인데, 담배를 쇠똥불에 부쳐 들고 양지 바른 곳에서 이를 잡는 궁상맞은 생활을 일상적으로 하게 되었으나,

아침이면 마당쓸기 저녁이면 불매히기
별이나면 쇠똥치기 비가오면 도랑치기
들어가면 집지키기 보리명석 새날리기 <〔萬言詞〕 第8段>

‘마당쓸기’·‘불매주기’·‘쇠똥치기’·‘도랑치기’·‘집지키기’·‘새날리기’ 등 온갖 雜役을 일상적 經驗이 없어 힘든데도 그 어려운 생활을 하여 가며,

내生涯 내벌어서 苟且를 免차하니
처음에 못하던일 나중은 다배흔다.
자리치기 먼저하자 틀을꽂아 내려놓고
바늘대를 뽑내면서 바디를 드놓을제
두어깨 무어지고 팔과목이 부러진다.
명석한잎 겨러내니 보리덧말 手工이오
도래방석 틀었으니 돈五分이 값이로다.
弱한筋力 强作하여 부지런을 내자하니
손뿌리에 피가나서 조희골모 일리로다
이렇고도 사자하니 사자하는 내그르다
실같은 이殘命을 끊음죽도 하다마는
아마도 모진목숨 내목숨 뿐이로다
人命이 至重함을 이제와 알리로다 <〔萬言詞〕 第9段>

‘자리치기’·‘멍석질기’·‘도래방석 만들기’ 등의 雜役을 하면서 실같은 殘命을 끊으려고 생각하나, 人命이 귀중함과 살아서 가족 相逢하고자 하는 歸巢意識으로 해서 형극의 어려운 유배생활을 日常化 하면서 超克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 流配歌辭에 나타난 生活相을 食糧難·住居難·어려운 謫所의 環境·어려운 日常生活 등으로 살펴보면, 楸子島는 絕海孤島이므로 食糧이 不足하고 住居가 어렵고 거기다가 謫所의 環境은 ‘뱀’·‘진갈’·‘지네’·‘와리’·‘등애’ 등 毒虫·毒蛇가 징그럽게 들끓는 最惡의 條件이고 어려운 流配生活을 日常化하기엔 온갖 雜役을 치루어 살아 가야만 하는 극심한 生活苦를 겪게 하였다. 섬인 경우엔 環海性·隔絶性·狹小性 등으로 濟州島를 비롯해 楸子島나 黑山島 같은 데는 원채 빈한한 섬이 되어 생활의 처참은 극에 달했다.¹⁴⁰⁾

한마디로 濟州島와 그 島嶼 地域에서의 유배생활은 三旬九食의 飢寒과 싸우는 처량한 생활이었다. 달리 「北遷歌」에서 나타난 金鎭衡처럼 好衣好食과 美姬까지 희롱하고 호사했던 流配生活이란 상상도 못하는 艱難辛苦의 생활 그것이었다.¹⁴¹⁾ 이는 그만큼 絕島流配가 이른바 天作地獄이요, 형극의 비참한 생활임을 단적으로 例證해 준다 하겠다.

2. 時 調

濟州島에 유배된 文臣·武人으로 時調를 남긴 사람은 光海君 때 桐溪 鄭蘊, 肅宗 때 野堂 柳赫然·尤庵 宋時烈·北軒 金春澤, 英祖 때 悔軒 趙觀彬 등 다섯 사람으로 나타난다.¹⁴²⁾ 이 중에 鄭蘊의 경우 濟州 大靜縣에 유배된 사실은 있었지만 時調를 남기지 않았기에 이를 제외하고 보면, 野堂의 시조 1수·尤庵의 시조 2수·北軒의 시조 2수·悔軒의 시조 2수 등 도합 7수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대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이들 時調를 考察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流配된 사실은 입증은 되지만 그 작품의 創作 年代가 未詳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概念 規定(2)에 의거 곧 유배당한 것이 확실하고 流配 作品으로서 그 창작 연대가 미상이나 그 내용이 流配의인 性格을 띤 작품을 流配文學 작품으로 그 概念 規定한 것에 따라 전개하기로 한다.

140) 張德順 『前掲書』 p.368 “江華나 濟州 같은 비교적 부유한 곳은 그렇지 않아도 楸子島나 黑山島 같은 데는 원채 貧寒한 섬이 되어 生活의 처참은 극에 달하였던 것이다.” 고 言及하고 있는데 앞에서 「濟州島의 自然的·歷史的 環境」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그렇게 濟州島는 부유한 곳이 못되었음을 確認할 수 있다.

141) 張德順 『韓國文學史』(서울: 同和文化社, 1977) pp.278~279 參照.
尹孤山이 慶源에 流配되었을 때에는 洪獻妓 趙娘이 하루 저녁에 세 차례씩 來訪하여 위로하였고, 또 孤山이 74세 때 三水에 流配되었을 때에는 洪獻 趙妓의 두 딸 禮順과 勝禮의 誠意를 받았고, 光海君 때 北靑에 流配된 李恒福도 이 洪獻 趙妓의 厚待를 받았던 것이다.

142) 沈載完 『歷代時調全書』(서울: 世宗文化社, 1972) pp.1274~1285
作家索引을 중심으로 流配者를 調査한 결과 27人으로 확인하였는데 이 중에 濟州에 流配된 사람은 5人으로 나타난다. 流配者 27人은 燕山君 때 金宏弼·李摠·鄭希良·成世昌, 中宗 때 趙光祖·金絳·洪暹·宋麟壽, 明宗 때 柳希齡·許磁, 宣祖 때 鄭澈, 光海君 때 趙憲·權韓·鄭蘊·申欽·李恒福·尹善道, 仁祖 때 張晚·鄭忠信, 肅宗 때 趙明履·柳赫然·宋時烈·南九萬·金春澤, 景宗 때 金昌業·張鵬翼, 英祖 때 趙觀彬 등임.

돛돈물 서서 늙고 드는칼 보되거다
 無情 歲月은 白髮을 지축하니
 聖主의 累世鴻恩을 못가플가 하노라 < 珍靑 204 >

野堂의 流配文學의 時調다. 그는 光海君 8년(1616)에서 肅宗 6년(1680)까지 산 武臣으로 丙子亂(1636)에 부친이 安州에서 전사하자 출전하여 南漢山城이 함락, 淸과 講和한 소식에 悲憤하여 歸鄉하였다.

孝宗 4년(1653) 黃海道 兵馬節度使를 거쳐 三道水軍統制使·訓練大將·右捕盜大將, 刑判 등을 역임하며 南人으로 孝宗의 복벌계획을 도왔다. 肅宗 6년(1680) 服制論의 是非로 西人이 실각하자 집권한 南人의 專政과 너무 熾盛한 세력에 싫증과 반감을 품은 肅宗이 政局을 換局케 한 庚申大黜陟에 연좌되어 寧海로 유배 즉시 大靜縣으로 移配 후 賜死되었다.¹⁴³⁾

위의 時調는 流配生活에서 그 언제면 放還될 것인지 기약없는 유배생활로 인해 聖主에게서 입은 累世鴻恩을 못갚을까 염려하여 신상을 自歎하고 있음을 본다.

武臣에게 駿馬와 같은 필수적이다. 자신이 준마처럼 달려야 하는 처지요, 능력은 드는 갈 처럼 민완해야 할 것인데도 군왕을 진심으로 모시려던 일이 유배당한 몸이 되고 보니 어찌 할 것인가. 이 自歎의 내면에 戀君에의 戀慕의 불꽃 속에 忠念의 불꽃을 갈아 가슴에 불 태운다. 한 때 君王의 信任을 받고 權座에서 화려하게 지내던 자신이 당쟁으로 인해 쫓기고 끝내는 君王의 미움을 사서 大靜縣에 유배당한 처지면서도 聖主鴻恩을 못 갚을까 丹忠으로 다짐하며 자신의 불우를 달래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肅宗 15년(1689)에 肅宗은 閔妃를 廢黜하고 昭儀張氏 소생인 아들(景宗)을 세자로 삼으려 했다. 이 元子冊立問題에 반대한 宋時烈 등 老論이 이를 지지한 南人에 의해 실각하니 이것이 己巳換局이다. 肅宗의 진노를 산 尤庵은 濟州로 유배되고 再鞫問을 받기 위해 상경 도중 井邑에서 사사당했다.¹⁴⁴⁾

한 때 孝宗의 師傅를 지내고, 孝宗 2년(1651) ‘長陵詩文’에 淸國 年號를 사용치 않았다는 이유로 淸의 압력으로 落鄉하기도 한다. 同王 9년(1658) 그는 吏判으로서 孝宗이 國恥의 斷腸의 恨을 씻고자 계획한 北伐計劃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한 老論의 巨木이요, 福學의 碩儒이었다. 그러나 肅宗 1년(1675) 服制論 是非로 慶源에 流配 熊川·巨濟島로 移配되었다가 同王 6년(1680) 庚申大黜陟으로 南人이 실각하자 叙用되고 奉朝賀가 되었다.

出仕 중에 肅宗을 맞이하고 유배당하고 또 복직되고 유배당하고 賜死당하는 파란 많은 생애를 살았다. 濟州에 五賢¹⁴⁵⁾의 한 사람으로 配享되었다.

143) 安鍾和 『國朝人物志』(II) p.198 “官至刑曹判書訓練大將…… 庚申謫海移配大靜賜死”

144) 『上揭書』(III) p.145. “顯宗朝 拜右相至左議政…… 甲寅尹鐫借禮論構禍遂至化謫卒及幽囚於海島禍益急而毅然…… 肅宗己巳謫于濟州 拿到井邑賜死”

145) 權震應(英祖 때 士大夫) “冲庵金淨 圭庵宋麟壽 桐溪鄭蘊 淸陰金尙憲 尤庵宋時烈 五先生碑文’ 등 五先生을 五賢이라 하고 그 壇을 五賢壇이라고 한다. 이 五賢精神은 濟州 流配文化의 象徴이라고 볼 수 있다.

높고 병든몸이 北向하야 우니노라
 北向한 尺음을 누안 두리마는
 돌밖고 밤긴절이면 나 隼인가 호노라 <가람본 靑丘永言 188>

尤庵의 時調다. 濟州에 유배 당했을 때, 그는 83세의 고령인 높고 병든 몸이었다. 그러면서도 임이 계신 王都, 北向하여 戀君에의 忠念을 노래했다. 그는 비록 유배의 비운을 당할 망정 임에 대한 충성을 표현했다. 유배지 朝天館의 戀北亭·望京樓¹⁴⁶⁾ 등은 그를 비롯한 많은 流配人들이 변함없는 충성의 회포를 풀던 곳이기도 하다.

삶의 격정적인 순간은 죽음으로 연결되고, 다시 달로 輪廻의 생을 갖기를 熱願한다.¹⁴⁷⁾ 달 자체도 哀傷의인데 그것이 流配地에서 보는 달이고 보면 그것이 落月처럼 더욱 애처로울 것이다. 이러한 슬프고 연약한 哀傷의 分身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임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은 마음 때문이라 생각할 때, 긴긴 달 밤은 애처럽고 처량한 이미지로 느껴지게 마련인 것이다.

靑山도 절노절노 緣水 | 라도 절노절노
 山절노절노 水절노절노 山水間에 나도 절노절노
 그 中에 절노즈린 몸이 늣기도 절노절노 늣으리라 <瓶歌 1013>

작자 자신과 自然과의 調和를 내용으로 한 哲學的 경지를 노래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경지를 出仕 동안에는 체험할 수 없는 哲理인 것이다. 곧 流配生活를 통한 自然에의 몰입에서 오는 自然愛와 조화에서 가능하였을 것이다.

소곰수릭에 메여시니 千里馬 | 줄 제뉘알며
 돌속에 싹혀시니 天寶 | 줄 제뉘알니
 두어라 알니알지니 恨흔줄니 이시라 <詩歌 215>

北軒의 時調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北軒은 景宗 謀害嫌疑로 肅宗 32년(1706)에서 36년(1710) 사이 濟州에 流配당한 바 있다. 北軒은 己巳換局 때 濟州牧으로 유배된 生父 鎭龜가 謫所로 사용하던 州妓 吳眞의 집을 謫所로 정하여 유배생활을 하였고, 그의 妻는 정의현에 별도로 유배당하였다.¹⁴⁸⁾

위 時調에서 北軒은 자신을 ‘千里馬’와 ‘天寶’로 비유하고 있다. 그런데 ‘千里馬’가 제구실을 못하고 ‘天寶’가 제값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새삼 자기를 알아 줄 것을 哀訴하고 있다. 유배당한 처지가 되고 보면 ‘千里馬’도 ‘소곰수레’를 끄는 신세로, ‘天寶’도 ‘돌속’에 쌓여진 신세가 된 運命, 그러나 나의 처지를 임만은 알아 줄 것이니 恨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146) 前掲 註 64)·65) 參照

147) 鄭在皓 『歌辭文學에 나타난 自然觀研究』(高麗大 博士論文, 1977) p.54

148) 朴用厚 『濟州島誌』(서울: 白映社, 1976) p.171 參照

이러한 奸臣輩들의 거짓 꾸며진 참소로 인해 유배당하게 된 억울한 처지의 哀訴를 다음과 같이 표백한다.

大川바다 한가운데 뿔휘업는 남기서니
柯枝는 열들이오 입흔三百 예순넉피로라
그남게 열음이 열여섯되 둘이열여더라 < 詩歌 214 >

初章과 비슷한 發想으로 表現된 것은 時調集에서도 산견된다. 가령 “大川바다 한가운데 中針細針 싸지거다”·“大川 한바다 속의 헌넉튼 저 사공아” 등이 그것인데 事實無根임을 忠諫하고 임에게 변명 비슷한 책임을 추궁하므로써 자기는 억울하게 간신들의 참소와 모함으로 군주에게 忌諱되어 유배당하게 된 것임을 哀訴하고 오직 자기의 결백을 암시하는 한편 군주의 省察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田園 남은興을 전나귀게 모도시고
溪山 닉은길노 흥치며 드러가니
아희야 琴書를 다스려라 送餘年 ㅎ리라 < 瓶歌 695 >

梅軒의 時調다. 그는 肅宗 17년(1691)에서 英祖 33년(1757)때의 文臣이다. 그는 英祖의 蕩平策을 거역했다는 죄목으로 大靜縣에 유배당하였다. 辛壬士禍(1721-22)로 소론에 의해 희생된 趙泰采의 아들이다. 景宗이 즉위하자 건강이 나빠 世弟(英祖)에게 代理聽政토록 한 老論의 4大臣인 金昌集·李頤命·李健命·趙泰采 등이 上奏한 것이 逆謀에 몰리어 金一境 등 少論에 의해 숙청당했다. 이에 연좌되어 趙昇彬은 濟州 大靜縣으로 觀彬은 羅老島로 謙彬은 巨濟島로 昇彬의 妻는 黑山島로 유배당했다.

英祖가 즉위하자 모두 석방되어 梅軒은 관직에 재등용, 英祖 7년(1729) 蕩平策을 시비하여 少論을 탄핵하다가 大靜縣으로 유배당하는 것이다.¹⁴⁹⁾

浮沈이 많고 宦海風波에서 벼슬아치들이라면 누구라도 거의 한두 번 이상은 겪어야 했던 유배, 거둬진 유배생활에서 자연에의 몰입된 감정으로 은둔도피의 陶淵明의인 功名 斷念의 심정도 엿보인다. 茫然히 田園과 溪山에 마음을 두고, 琴書를 벗하여 유배생활 동안 나머지 세월을 보내겠다는 것은 당쟁에서 벗어나 明哲保身하려는 소망일 것이다. 자연에 묻히어 강호를 사랑한 그의 본래의 마음¹⁵⁰⁾ 가운데 자기 수양의 꿈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金壇에 豪貴하고 黃閣이 尊重하디
功業이 蕭條하여 富貴만 ㅎ랑하면
츠라리 靑山綠水에 逸民이나 되오리라 < 詩歌 237 >

149) 『英祖實錄』卷 30. 7年 辛亥 10月 丁巳條 “教曰趙觀彬初疏 已示微意 及其再疏 露出黨心 噫今之恢蕩 欲扶將亡之國勢 則渠雖急於私讐 獨不念公乎 況今之此舉…… 中略…… 其職則都憲也 其所參酌 惜其職也 其贏于大靜縣”

150) 鄭在皓 『前揭書』 p.123

現世는 亂世요, 濁世이다. 유배당한 몸으로 世事와 政事를 생각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듣는 말, 보는 일, 성한 입이 있다 해도 귀먹은 소경처럼 현세의 일체에서 도피해 버리려는 심정만이 남는다. 생각해 보면 自然에의 은둔도피는 정계에 있을 때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유배당하자 처음으로 유배지의 자연과 벗하게 되어 차츰 自然美의 발견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차라리 靑山綠水에 逸民이나 되고 싶다”는 심정은 바로 是非利害가 많은 世事를 망각해 버리려는 정신적 자세의 표현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流配時調는 작품 수가 불과 7수밖에 찾아 볼 수 없어 자료로선 영성하기 짝이 없어 아쉬움이 있으나, 戀君에의 忠念 2수·自然愛 1수·哀訴 2수·隱遁逃避 2수 등으로 그 主潮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漢 詩

濟州流配文學 가운데서 가장 주류를 이루는 것은 漢詩라 하겠다. 이것은 유배당한 계층이 바로 士大夫였다는 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國字의 제정으로 인하여 口傳되던 우리 말 詩歌文學이 차츰 文獻에 정착되었고 歌辭와 같은 긴 형태를 지닌 시가문학이 우리 말로 지어져서 훌륭한 文學的 香氣와 정서를 담은 채 記錄文學으로 남게 된 것 등 순수한 우리 말 노래를 표기한 문학에서만 우리 글이 그 표기 수단이 되었을 뿐, 대체로 문학표현은 漢文으로 이루어져서 漢文學이 문학적 표현의 중심으로 여겨졌다. 그것은 國字의 제정 이후에도 별로 변화가 없었던 시대·사회의 의식과 인습, 그리고 政治 및 制度에 그 까닭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社會의 教育制度라든가 科擧制度에서 그리고 국가의 모든 공문서 등은 漢文이 그 시행의 대상이 되었거나 표현수단이 되었다는 現實에 漢文學 중심의 文學이 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개는 漢詩 중심이었다.¹⁵¹⁾ 士大夫 계층은 科擧를 통해 官職에 등용되고, 科擧는 漢詩가 중심이었기에 黨爭과 政治에 관여하여 유배당한 士大夫들이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과 그리고 유배지에서 겪은 유배적 사실의 직접체험과 그 감정적 내용을 익숙하게 익혀온 漢詩를 빌어 표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士大夫는 모두 政治人이면서 또한 文人이었다. 특히 漢詩는 士大夫의 教養이었고, 士大夫로서 행세하기 위해선 글을 지어서 文集을 남겨야만 했다. 士大夫의 政治的 能力은 文學的 能力을 통해서 평가되었고¹⁵²⁾ 流配는 創作의 契機가 되었던 것이다. 이제 流配漢詩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지니고 있는 主流的 內容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가장 流配的 性格이 짙은 金淨의 漢詩 11수·鄭蘊의 漢詩 13수·李瀾의 漢詩 3수·光海君의 漢詩 2수·宋時烈的 漢詩 3수·金春澤의 漢詩 11수·申鉉의 漢詩 1수·趙

151) 鄭堯一 4人共著「前掲書」p.19

152) 趙東一「古代小說과 政治」(『文學과 政治』서울:민음社, 1980 p.117 參照)

觀彬의 漢詩 8수·任觀周의 漢詩 3수·趙貞喆의 漢詩 20수·金正喜의 漢詩 15수 등 각 시대에 따라 流配된 11명의 流配人의 漢詩 90수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전개키로 한다.

流配漢詩를 主題的 內容을 중심으로 分類해 보면,

1. 身上歎 2. 戀君 3. 隱遁逃避
4. 自然愛 5. 哀訴 6. 慨世
7. 樂天 8. 憐憫 9. 懷古
10. 懷鄉 11. 無常 12. 別恨·痛恨
13. 風流

등으로 區分해 볼 수 있다. 이 13個로 分類되는 것을

1. 自歎·哀訴와 憂時戀君
2. 隱遁逃避와 自然愛
3. 情恨·憐憫과 懷古·懷鄉 ……
4. 慨世·無常과 風流·樂天

등으로 大別하여 作品을 分析 考察키로 한다.

1) 自歎·哀訴와 憂時戀君

流配地에서 自己의 不遇한 處地를 생각하며 身上을 自歎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漢詩를 例舉할 수 있다.

夢

溟浪千里隔 蓬山一夢傳
 思君不可見 知我者其天 <『冲庵先生集』卷3 「海島錄」>

雨

落木荒城雨 空堂獨坐時
 遙懷在千里 誰與寄雲涯 <前揭書>

遣懷

海國恒陰翳 荒村盡日風
 知春花自發 入夜月臨空
 鄉思千里外 殘生絕島中
 蒼天應有定 何用哭道窮 <前揭書>

絕國

絕國無相問 孤身棘室園
 夢如關塞近 僮作弟兄依
 憂病工侵髮 風霜未授衣

思心若明月 天夫寄遙輝 <前揭書>

山 雨

蕭蕭山下茅庵 秋老荒海城晚酣
故國山川魂自往 不知身在海天南 <前揭書>

臨 絕 辭

投絕國兮作孤魂 遺慈母兮隔天倫
遺斯世兮隕餘命 乘雲氣兮歷帝閭
從屈原兮高逍遙 長夜冥冥兮何時朝
耿炯丹衷兮埋華萊 堂堂壯志兮中道摧
嗚呼千秋萬歲兮應我哀 <『冲庵先生集』卷4 >

冲庵 金淨은 成宗·中宗·兩朝(1486-1521)를 산 文臣이다. 己卯土禍로 인해 錦山에 杖配되고 珍島로 移配, 濟州에 安置 후 賜死되었다.¹⁵³⁾ 그는 5言絶句「夢」에서 꿈마다 임에게 전하고자 하나, 바다로 천리가 가로 막혀 그리운 입을 볼 수 없음을 自歎하고 있다. 그만큼 濟州島는 罪地요, 꿈마저도 단절당하는 遠惡地인 것이다. 이러한 自歎은 그의 5言絶句「雨」에서 “千里”로 表現되어 있어 時空이 자꾸만 王都에서 멀어져 가고 있음을 느낀다. 쓸쓸히 비오는 황성 옛터에서 孤島처럼 혼자서 천리에 있음을 생각하노라면 지난 날의 回想에 젖으며 自歎하게 된다.

이어 그의 5言律詩「遺懷」에서 流配의 狀況에 직면한 精神的 狀況 및 流刑囚로서의 身上을 自歎한 情感이 잘 표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存囹罪人으로 느낀 바다와 바람은 “山高積雪經春在 海瀾長風盡日吹”에서 처럼 浪漫의 情感과는 달리 언제나 그늘져 있는 바다요, 온 종일 거친 촌 마을에 부는 바람 그것이였다. 그러면서 流刑囚로서의 自歎은 絶海孤島에서 殘命이 이어질 때까지 深化하는 것이다. 이러한 自歎은 그의 5言律詩「絶國」에서도 쉬 찾아 볼 수 있다. “孤身棘室圍 夢如關塞近 憂病工侵髮”은 바로 流配의 狀況에 직면한 冲庵의 처지다. 이러한 自歎은 그의 7言絶句「山雨」에서도 잘 표백되어 있다.

流配당한 처지이면서 늘 마음은 사랑하는 妻子들이 있는 故園이 너리에 떠오르지만 黑潮로 씻겨가는 濟州 海邊에서 大海原을 바라보면 이 大海를 언제면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하며 바다를 향해 마음 속으로 울부짖었을 것이다. 그리고 비오는 날이면 술을 기울이고 故鄉을 그리는 愁心이 濟州 바다보다 깊어만 갔던 것이다. “故國山川 魂自往 不知身在海天南”에서 자기의 限界를 깨달으며 自歎한다.

이러한 心情은 끝내는 悲痛한 楚辭風의 臨絶辭를 써서 千秋의 恨과 怨을 남긴다. 곧

153) 『中宗實錄』卷 38: 15年 庚辰正月 “移配珍島... 命滅死安置 濟州, 辛巳十月 戊申命賜自盡”
『冲庵先生年譜(乾)』“14年 11月 乙巳 南袞 等 密告 下獄杖配錦山... 安置濟州, 16年 辛巳 10月 戊申 命賜自盡”

冲庵은 36歲의 젊은 나이로 뜻이 꺾이고 賜死 받게되자 「臨絶辭」를 남기고 自盡하였다. 이 비장한 冲庵의 「臨絶辭」는 自歎에 一貫한 젊은 36세를 최후로 하는 朝鮮朝의 楚辭라 할 수 있다. 그가 편협한 士大夫·儒學者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中國 古代 楚의 自決者 屈三閭에 그 자신의 불운한 운명을 탁하여 楚辭風의 辭世絶命詩를 남긴 것은 그의 悲劇 외에도 큰 충격이 된다¹⁵⁴⁾고 하겠다. 그것은 모든 流配者들의 心境을 승화시키고 集約하였다. 그의 「臨絶辭」는 그러한 점에서 값있다 하겠다.

在園籬中吟

本是同根何大薄 理宜相愛亦相哀
緣何脫此樊籠去 緣水青山任去來¹⁵⁵⁾

濟州謫中

風吹飛雨過城頭 瘴氣薰陰百尺樓
滄海怒濤來薄暮 碧山愁色帶清秋
歸心默見王孫草 客夢頻驚帝子洲
故國存亡消息斷 烟波江上卧孤舟¹⁵⁶⁾

光海君의 7言詩다. 宣祖 39년(1605) 繼妃 仁穆大妃에게서 永昌君이 탄생하자 小北은 永昌君을 옹립하고 大北은 光海君을 지지하여 王位繼承 문제가 당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大北의 승리로 光海君이 즉위(在位 1608-23)하게 되었다. 同王 5년(1613) 大北派가 朴應犀·徐羊甲 등의 사건을 조작하여 仁穆大妃의 친정 부친인 金悌男을 賜死, 永昌君을 庶人으로 강등, 江華로 流配·賜死한 癸丑獄事와 同王 10년(1618) 大妃의 西宮 幽閉事件을 일으켰다. 이에 仁祖反正으로 光海君은 실각 교동에 安置, 도감별장의 호위 아래 濟州로 移配되었다.¹⁵⁷⁾

위의 7言絶句 「在園籬中吟」에서는 人倫에 哀訴하는 身上歎의 詩의 雰圍氣가 감돌고 있다. 한 때 君王이던 身分에서 君으로 강봉되고 園籬安置되고 나자 자신에의 省察·懷恨으로 內省化한다. 오랜 旅毒을 피로하기도 전에 食飲을 폐지하고 누워서 멀리 또는 가까이 들리는 파도소리를 따라서 자기 자신의 孤獨과 絶望을 붙들고 자기 認識의 苦悶을 하게 된다.

이어 7言律詩 「濟州謫中」에서도 環海孤島에서의 유배생활에 직면한 精神의 狀況 중 絶望과 孤獨한 內心을 표출하여 自歎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詩는 「癸丑日記」에 의하

154) 文癡圭 『韓國漢文學史』(서울:正音社, 1961) p.223에서 이 詩에 대하여 “作詩餘興에 의한 作業의 産物에 不過” 하다고 하였는데 죽음의 직전에 詩를 쓴다는 것은 作詩餘興이 아니라 절실한 자기 욕구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 있다.

155) 黃秉國 『李朝名人詩選』(서울:乙酉文化社, 1969) pp.79~80. 『濟州道誌』(上) p.185

156) 『仁祖實錄』卷 42. 19年 辛巳 7月條

157) 『仁祖實錄』卷 1. 元年 癸亥條

鄭炳昱 『癸亥反正錄』(『文學思想』3호, 1972. pp.473~493) “仁祖反正에 의하여 光海君은 도감 별장의 호위 아래 배 위에 포장을 겹겹이 말아 사면을 보지 못하게 하여 바닷길로 배를 띄워 수개월만에 도착하기도 하였다”고 言及하고 있다.

면 漢文을 몰라 公事에도 많은 불편을 면하지 못하였다는 君主가 이런 漢詩를 지을 수 있었는가 자못 의심된다고¹⁵⁸⁾ 하여 是非가 있으나 筆者는 이 流配漢詩를 光海君이 지은 것으로 믿는다.¹⁵⁹⁾

籬中九日

三三八王府 九九在圍籬
辜負佳辰盡 長嗟命數奇 <『桐溪先生續集』卷1>

記 夢

殘魂飛越到門閭 喜聽雙兒讀古書
仍遇岳君陪話穩 覺來衰淚滿衣裾 <前揭書>

風 亂

海近多風浪 城低接瘴霾
美人天北極 孤影地南涯
橘頌吟來久 尊羹想政佳
平生獨住地 今日閉籠懷 <前揭書>

村女杵歌

士俗無春鑿 村娥抱杵歌
高低如有調 斷續似相和
欲解須憑譯 頻問慚不歌
清涼曉月下 遠客餐先睡 <『桐溪集』卷1>

望 歸 雲

奔雲渡海向神京 五色凝祥繞帝城
萬里羈臣隨不得 數行衰淚寄將行 <前揭書>

三月晦偶吟 二首

窮囚元來不出圍籬 春去春來渾莫和
偶見村人問消息 野花落盡綠盈枝
絕域孤囚又送春 跳九日月不饒人
母恩君德何時報 鏡裡羞看髮似銀 <前揭書>

158) 張德順 『前揭書』 p.369

159) 金用淑 『李朝의 女流文學』 (春秋文庫, 서울: 한국일보사, 1975) p.53에 의하면 “宮女가 쓴 「癸丑日記」가 作品의 입지적 조건이 첫째 작자가 인목대비 편이라는 점, 둘째 성립연대가 仁祖反正 후라는 점, 셋째 이 작품의 고대소설적인 성격 즉 선과 악의 극단적인 대조의 효과라든가 과장같은 점 등을 감안해서 생각한다면 이 작품의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平海君의 인물묘사에 흡사 「홍부전」의 놀부나 「장화홍련전」의 계모의 묘사 같은 과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축일기」는 감정에 치우친 과장성과 그 어떤 경향성을 면치 못할 것이라 본다”는 代目이 있는데 이에 同感이 가는 바 있다.

客舍東軒

大靜東門有弊廬 十年曾是逐臣居
 寒松四箇應盈尺 脩竹千竿想蔽除
 世事浮沈俱是夢 人間榮辱本來虛
 瀛洲一曲留殘域 試命歌兒唱酒餘 < 前揭書 >

副司直 鄭蘊은 光海君 10년(1517)에 大北이 光海君을 응립하고 永昌을 庶人으로 강등, 江華로 流配·賜死한 일이 不忠임과 永昌을 죽인 鄭沆을 죄줄 것과 永昌을 大君의 예로서 葬事지내고 死後이니 追贈하는 은혜를 내릴 것을 상소하여, 光海君에게 미움을 사서 大靜縣에 圍籬安置되었다.¹⁶⁰⁾ 그는 憂國表情에 一貫한 士大夫로서 丙子亂 때는 斥和로 自盡을 기도하기도 한 儒臣이다.

위의 5言絶句「籬中九日」은 그의 自歎을 가장 대표적으로 表白하고 있다. 王府에 있던 몸으로 流配당하여 자신의 사나운 운명과 그 不運을 長嘆하고 있다. 이어 7言絶句「記夢」은 꿈 속에서 그리운 임과 가족을 만났으나 깨고 나니 그 허망함에 눈물만 가득 옷자락을 적시고, 「望歸雲」은 구름따라 바다 건너 王都로 향하나 뜻을 이루지 못해 눈물뿌려 自歎하였다. 5言律詩「風亂」은 世上事가 어지러운데 입을 북쪽 王都에 두고, 자신은 외롭게 남쪽 流配地에 있어 장 속에 갇혀 시름하고 있음을 表出하고 있다.

이어 5言律詩「村女杵歌」는 大靜縣에 流配당한 桐溪가 異香 짙은 섬생활의 일면을 노래했다. 濟州島 民謠의 質量은 勞動謠에 있다면 이 「村女杵歌」는 그러한 勞動謠를 듣고 느낀 情感을 표백하였다고 본다. 새벽날까지 맷돌방아를 쪼는 그 구슬픈 소리를 들어 잠 못 이루면서 달빛아래 자신의 귀밀 털이 희여짐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처해진 限界에 대해서 自歎해 본다.

이어 7言絶句「三月晦偶吟」二首에서는 자기에게 처해진 流配生活에서 虛送하는 스스로를 깨달으며 그 언제면 主君의 德과 어미의 은혜를 갚을 것인가 自問하면서 嘆老해지는 心情을 표백하였다. 그리고 7言絶句「客舍東軒」은 流配生活 10년을 돌이켜 보면서 人間事의 浮沈과 世間事의 榮辱이 허무하였음을 自歎하고 있다.

耽羅舟中

逐客孤舟去 鯨波萬里深
 平生仗忠義 虞廟不須尋 < 『宋子大全』卷2 >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肅宗 15년(1689)에 己巳換局으로 老論의 巨儒인 尤庵 宋時烈은 張嬭嬭·所生을世子로 책봉하려는 것을 반대하다가 濟州에 流配당하는데, 顯宗 15年 (1674)에도 禮訟 是非로 德源으로 流配된 일도 있었다. 그는 한 때 孝宗의 신임을 얻어 出仕한 후

160) 『光海君日記』 卷 11. 6年甲寅 2月 丙午條 “兩司語鄭蘊極邊安置” 『西宮日記』 卷之下 8卷, pp. 7-17

分裂된 西人을 통합한 西人의 中心의 人物이었다. 그러한 尤庵도 결국 主君의 忌諱를 사서 己巳年(1689)에 濟州로 流配당한 것이다.

流配囚의 濟州島 流配 海路에는 반드시 楸子島를 경유한다. 楸子島에서 濟州島까지는 500餘里, 楸子島 이북엔 드문드문 섬이 있어 비록 배가 漂流하더라도 楸子島에 와 닿을 수 있으니 이남은 絕海 島嶼로 漂流하면 中原이나 倭國에 닿는 외에는 茫茫積水뿐으로 舟行者는 楸子島로써 남쪽 경계를 삼는다고 한다.¹⁶¹⁾

이른바 濟州島는 四面의 바다로 둘러싸인 環海天險의 섬으로 立地的·自然的 條件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平常人의 濟州島 入島는 生死間의 문제이었을 것이다. 위의 5言絕句 [耽羅舟中]은 평생 忠義로 主君을 섬겼으나 流配당하여 험난한 濟州島에의 流配 海路上에서 不安해 하는가 하면 自歎한 情感을 표백하고 있다. 이어

耽羅舟中 其二

孔聖思浮海 滄翁灑預時
千秋相感意 今日有誰知 <前揭書>

尤庵은 流配된 자신의 처지를 孔子가 “乘桴浮于海” 하던 일과 宋의 詩人 黃庭堅이 四川省 奉節縣의 灑預에 있었던 故事에 比喻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처지를 누가 알아줄 것인가 自歎하고 있다.

書 懷

客裡頻驚節序催 居然三載大荒隈
鏡添白髮迎春在 座有青燈守歲回
南海風濤無日了 故國花柳爲誰開
橋林才子鷄林李 舊感新愁共一杯 <『北軒集』卷2「囚海錄」>

濟州雜詩 其十二

疾病三秋劇 流遷二載強
海山富座近 霜髮共秋長
幽蟄同蚯蚓 飛騰愧騶驪
焉能乘逸興 杖屨入青蒼 <前揭書>

北軒 金春澤의 漢詩다. 그는 聰明強記하여 爲文에 操筆立就하되 辭理俱到하여 汪洋典雅하고 詩 또한 意象이 초월하고 變化無窮하여 세상에 大家라 칭하였다.¹⁶²⁾ 世子(景宗) 謀害 혐의로 濟州에 流配당한 北軒은 5言律詩 「濟州雜詩」其十二에서 3년간 “幽蟄同蚯蚓”하는

161) 林悌 『南溟小乘』 “濟州至此水程可五百餘里 而楸子以北則往往有島嶼 故雖漂風而勢可依泊楸子 以南則絕無島嶼西漂則或可至中原 東漂則或可倭國 而其外則浩浩茫茫積水而已 故舟行者以楸子 以南爲戒矣”

162) 徐元燮 『前揭書』 p.187

流配生活 가운데 깊어가는 가을이면 늙고 병약해져서 언제면 석방이 되어 이 푸른제주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까 하고 자신의 신상을 自歎하고 있다. 이어 7言律詩「書懷」에서도 3년간 유배 생활을 한 우울한 심정과 자기의 처지를 自歎하는 身上歎의 詩의 雰圍氣가 감돌고 있다. 이어

偶 吟

殘生寂寞帶蠻村 每倚孤城望海門
落木寒潮愁絕處 秋來未有可招魂 <前揭書>

暮春漫吟

桃花飛散濟州城 正值挈山曉雨晴
不識賓鴻何意緒 北歸猶作斷腸聲
看盡花開又鳥飛 大杯未足解愁圍
寄言春色堂堂去 何事爾歸吾不歸 <前揭書 卷3,「囚海錄」>

北軒의 7言詩「偶吟」, 「暮春漫吟」 등도 季節이 바뀔에 따라 느껴지는 流配生活의 不安·絶望·孤獨으로 인해 失意에 젖은 自歎의 情感을 표백하고 있다. 北軒의 「囚海錄」의 작품에 이러한 自歎의 情感을 표백한 것이 많다.

趙貞喆은 英祖 27년(1751)에서 純祖 31년(1831)까지 在世한 大臣으로 그의 號는 靜軒이다. 英祖 51년(1775) 庭試文科에 급제 官職은 刑判까지 지냈다. 正祖 1년(1777) 洪國榮의 세도와 姜龍輝 등이 正祖를 弑害하려고 한 사건에 연류되어 그 해 9월 11일 濟州에 流配되었다.¹⁶³⁾ 그 때 그는 父親喪을 당해 아직 脫喪도 하기 전이었으므로 喪服한 몸으로 流配地에 끌려 왔다. 濟州島內의 곳곳에 移配¹⁶⁴⁾ 당하면서 純祖 5년(1805) 4月 羅州로 量移,¹⁶⁵⁾ 同王 10年(1810)에 放釋되기까지 流配史上 가장 긴 33년간, 그 중 28년간이나 濟州에서 絶島 流配의 恨을 남긴 士大夫이다.

北 水 閣

危檻憑孤堞 巖峽勢欲浮
瞻天星北拱 觀海水東流
百代逐臣恨 千秋漂子愁
登臨何處是 人說竹西樓 <『靜軒羸海處坎錄』 卷4>

누각에 올라가 하늘을 우러르고 바다를 보며 “百代逐臣恨 千秋漂子愁” 하는 자탄은 유배

163) 『正祖實錄』 卷4. 元年丁酉8月甲辰條 “龍輝輩… 謀逆是實… 亦往來於趙貞喆家矣 結案後…… 趙貞喆減死絶島安置”

164) 『上揭書』 卷13. 6年壬寅正月條 “移配 貞喆於旌義縣”

165) 『純祖實錄』 卷7. 5年乙丑4月條 “羅州牧量移罪人趙貞喆”

인이면 어느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 하겠지만 靜軒의 경우 28년간 濟州島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다. 한 인간이 이 같은 생활 속에서 그것도 28년간 긴장하면서 삶을 누릴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日常的이고 平面的인 방법으로 사는 일은 더 더욱 아니었을 것이다. 오랜 유배생활에서 겪는 絶望의 낭떠러지에서 극복하려 생각할 때, 失意의 深淵은 심화되고 자탄은 東流하는 海水처럼 토로되어진다. 이어 靜軒은 오랜 유배생활을 겪은 자탄을 다음의 시로서 昇華시킨다.

自 歎

逸矣彈丸島 徒然樗櫟材
 難霑雨露澤 易被斧斤災
 瘴有三時暗 心無一日開
 孤臣長側滄 永夜獨徘徊 〈前掲書〉

自悼書其二

兇賊驅我死 聖主迺垂仁
 曰汝非惡逆 投之大瀛濱 〈前掲書 卷1〉

自悼書其八

我是無罪者 王又好生天
 仁恩恐莫報 北望淚泫然 〈前掲書〉

枕 上

睡何遲也夜何長 天際寒鴻聲斷腸
 萬事如今空白髮 逐臣清淚更千行 〈前掲書 卷2〉

客 恨

離騷欲讀酒盈觴 獨倚欄干客恨長
 千古湘江不盡感 更聽山鬼泣幽篁 〈前掲書 卷1〉

賦 一 絕

五更殘夢覺凄然 爲近先朝舊法筵
 未死孤臣今絕海 鬢邊雙淚瀉如泉 〈前掲書 卷2〉

靜軒은 自歎에 一貫한 詩로 자신의 身上을 表白하고 있다. 5言律詩「自歎」은 詩題에서 보여 주듯 流配의 狀況에 직면한 精神的 狀況을 노래하였고, 5言詩「自悼書」其二, 其八은 兇賊들의 참소로 억울하게 流配당하여 자신의 無罪가 主君과 하늘만이 다 알고 있으며, 聖恩을 갚을 길 없이 流配당한 자신을 自歎하였다.

7言絶句「枕上」에선 깊은 밤, 잠 못 이루는 밤에 기러기 우는 소리가 애끓는 듯 들릴 때 孤臣怨淚를 뿌리며 자탄한 情感을 표출하였고, 7言絶句「客恨」에선 ‘離騷’와 ‘湘江’ 등의

中國詞華 引用으로 屈原의 忠節을 기리며 自歎하고 있다. 7言絶句 「賦一絶」은 五更에 꿈에 깨어 지난 일을 생각하며 유배당한 자신의 身上을 자탄하고 있다. 하나 하나 천착하지 않아도 風浪 거센 宦路에서 玉石을 分別할 힘도 없이 억울한 流配生活을 장장 33년간이나 지낸 靜軒의 恨과 心情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그러나 5言詩 「自悼書」에 나타난 ‘凶賊’이란 詩語의 사용은 切迫한 心情을 直說의으로 표현했을 것으로 보이나 詩는 感情의 표현인 동시에 感情의 純化에 있다면 너무 生硬하게 느껴진다.

又陵釣臺

垂竿何人無意來 晚風落葉何颼颼
了無得失動微念 况有興亡生遠哀

純祖 30년(1830) 8월 前台官이던 尹尙度가 戶判 朴宗勳을 상대로 한 상소가 무고였는데, 그것이 魯敬이 뒤에서 조정한 것으로 지목되어 반대로 古今島로 유배되었다. 이 尹尙度獄事가 憲宗 6년(1840) 대사헌에 의해 재론되어 尹尙度父子는 楸子島 유배에서 소환되어 처형되었다. 秋史 金正喜는 이에 연좌되어 사형 받게 된 것을 趙寅永의 구명 탄원으로 동년 9월 大靜縣에 圍籬安置를 당하였다.¹⁶⁶⁾ 이리하여 同王 14년(1848)까지 9년간 유배생활을 하였다.

도민들은 그에게서 학문·회화·서도 등을 비롯해 그밖에 정신생활에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유배생활 동안에 書簡과 저술을 통해서 濟州島의 異香질은 풍경·도민의 생활 풍습·진귀한 花鳥 등이 내외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 그는 濟州島에 유배된 많은 인사들 중 濟州島에 크게 공헌한 한 사람이다.¹⁶⁷⁾

당쟁으로 인해 梟圍罪人이 되어 絕島에 유배당하자 隱遁逃避하는 심정에서 自然에의 沒入에 젓다가도 제 나름대로 出仕·流配·隱遁·復權 등등 得失을 생각하게 마련인 것이다.¹⁶⁸⁾ 秋史의 경우 7言絶句 「又陵釣臺」에서 圍籬安置라는 상황이 너무도 기막힌 死路와도 같은 험난한 일이었기에 이른바 “了無得失動微念” 이었고, “况有興亡生遠哀”의 心情 그것이었다. 起·結句는 雙關을 지어 流配의 狀況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인 自歎을 선명하게 표출하고 있다.

水仙花

碧海青天一解顏 仙緣到底未終緣
鋤頭棄擲尋常物 供養窓明几淨間 <『阮堂先生全集』卷 10>

166) 『憲宗實錄』卷 7, 6年庚子 9月 辛卯條 “鞫囚罪人正喜大靜縣 圍籬安置”

167) 前掲 註 70) 參照

168) 崔珍源님은 「江湖歌道研究」(『國文學과 自然』서울: 成均大 出版部, 1977. p.26)에서 “李祖 兩班의 本心이 兼善의 任官에 있는 것이지 退而自守의 歸去來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儒學은 經國濟民의 兼善을 理念으로 삼기 때문이다”고 언급 했는데 流配된 士大夫의 자세도 이와 같다.

水仙花는 濟州 섬 곳곳에 많이 자란다. 골짜기와 발마다에 무성하게 자라는데 島民들은 이것을 잡초로 여겨 보리같이 무렵 호미로 베어 버린다. 秋史는 5言詩 「水仙花」에서 濟州의 도처에 피고 지는 수선화를 賞讚하면서도 그 內面엔 水仙花의 高孤한 眞價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自歎하고, 바로 자신의 流配的 狀況에 직면한 불운한 처지를 水仙花에다 比喩하고 있음을 쉬 짐작케 한다. 그리고 山野를 뒤덮어 구름같이 피어나는 白雪같은 水仙花의 꽃향기에 취하고 머리통 만한 줄기를 자르면 甘露樹의 시원한 樹液으로 목을 축이면서 지나긴 유배생활을 깨끗하게 이겨내었다.

이어 秋史는 다음의 7言詩 「年前禁水仙花」에서 水仙花를 賞讚한 끝에 유배당한 자신의 처지를 水仙花에 比喩하여 가슴 아프게 자탄하였다.

年前禁水仙花

靑斷曾未到神山 王立亭亭識舊顏
一切天葩元不染 世間亦復歷千艱 <前揭書>

水仙花는 원래 하늘에서 태어난 꽃으로 전혀 世俗에 물들지 않은 날씬하고 맵시있는 꽃이다. 그런데 세간의 路邊에서 숫한 고생을 겪고 있다. 그것은 王都에서 임을 가까이 모시던 秋史가 유배당하여 千辛萬苦의 고역을 겪고 있음과 같은 비유이다. 7言絶句 「年前禁水仙花」에서 水仙花의 본성대로 자라지 못하고 푸대접 받고 있는 濟州에 있어서의 水仙花를 통해 자신의 신상을 자탄한 이 시적 비유는 상당한 함축성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이런 身上歎과는 달리 流配地에서 자신의 처지를 哀訴한 心情을 표백한 것으로 桐溪의 다음의 7言絶句인 「偶吟」을 들 수 있다.

偶吟

瀛洲遠在海中天 秦漢曾浮採藥舡
聖主却憐危命促 許令歸伴紫霞仙 <『桐溪集』卷1>

옛적 중국의 秦漢 임금은 濟州에 藥草캐러 사람을 보냈는데, 우리 聖王은 도리어 나에게 병을 주시니 바라건대 병도 말고 紫霞神仙 부르시도록, 자기는 억울하게 奸臣들의 참소와 모함으로 主君에게 忌諱되어 流配당하게 된 것이니, 끝내 主君의 省察을 哀訴하고 있다.

黨爭으로 인해, 王寵을 잃은 仕官의 處地로서 流配地에서 못내 戀君에의 衷情을 노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漢詩가 있다.

謾成

園中日月過飄然 已遍知非伯玉年
忠孝俱虧猶不死 聖恩如海又如天 <『桐溪集』卷1>

桐溪의 7言詩다. 忠과 孝를 다하지 않고서 죽을 수 없다고 忠念을 다짐하며 聖恩이 바다와 같고 하늘 같음을 노래했는데, 이어

濟州雜詩其九

聖朝恩及遠 擘岳比應低
 移粟霑紅腐 領綸降紫泥
 九防分險阻 三邑列東西
 萬世期酬答 絃歌與鼓鼙 <『北軒集』卷2 「囚海錄」>

北軒도 聖恩이 이 不毛의 땅에 고루 미치길 謳歌하였고, 靜軒의 5言律詩 「漢拏山」에서
 도 戀君에 의 衷情을 노래하였다.

漢拏山

魯聖乘桴意 秦皇採藥愁
 那會窺是海 猶夫到斯洲
 遠謫倦緣重 相看俗事休
 君恩隨處大 且莫恨長流 <『靜軒瀛海處坎錄』卷4>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靜軒은 28년간이나 絶海孤島인 濟州島에서 流配生活을 했다. 임
 금의 사랑을 받다가 내침을 당했을 때 느끼는 담담하고 안타까운 심경, 임금에게 버림을 받
 고도 聖恩에 망극해 한다. 이 7言律詩 「漢拏山」은 戀君에 의 衷情과 자신의 처지를 自歎한
 내용이다.

橘柚品題其二

嘉樹生南國 芳心死不移
 有誰知此意 包貢上丹墀 <前掲書 卷3>

이 濟州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귤, 죽어도 변함없는 그 꽃다운 마음은 靜軒의 向主一片
 丹心인 그 마음에 비유했고, 세상에 누가 있어 靜軒의 단심을 알아줄 것인가고 자탄했으며, 結
 句에 귤을 고이 고이 싸가지고 임에게 올리고 싶다는 戀君에 의 衷情을 표백하고 있다. 이
 어 7言詩 「謫中有感」에서 보면,

謫中有感

君恩容我忠臣孫 生死人間敢自諉
 萬里窮溟還善地 從茲日月摠君恩
 君恩知我至冤存 瀛海投來善地云
 不殺端由天地大 悲歌中夜泣君恩 <前掲書 卷2>

이는 遠惡地 鳥配를 당한 처지인데도 아직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君恩에
 있음을 노래한 謫中에서의 有感이다. 불과 2편밖에 아니되는 7絶에서 ‘君恩’이라는 단어
 가 4개나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진심으로 君恩에 감사하고 있다. 이어

倚 杖

倚杖紫門更北望 天容海色共蒼蒼
中原此去惟千里 遙挹靈星祝聖王 <前掲書 卷2>

그의 7言詩「倚杖」에서도 멀리 北向하여 聖王을 비는 臣下로서의 忠念을 나타내고 있다. 景宗 即位(1721) 후 老論派 4大臣의 한 사람으로 趙泰采는 世弟(英祖)의 대리청정 문제로 少論派와 싸우다가 小論의 領首 金一鏡 등의 策略에 의해 失脚하자 그 禍로 많은 老論이 숙청당한다. 이른바 辛壬土禍다.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禍로 인하여 悔軒 趙觀彬은 羅老島로, 長兄 昇彬은 大靜縣으로, 아우 謙彬은 巨濟島로, 형수는 黑山島로 流配당하는 실로 黨爭史上 가장 慘酷한 狀況에 직면하고 英祖 1년(1725)에 放釋되었다. 同王 7년(1731) 11월에 悔軒은 大司諫으로서 辛壬土禍의 진말을 물어 少論의 李光佐를 탄핵하여 英祖의 蕩平策을 비판하자 英祖의 忌諱를 사서 大靜縣에 流配되었다.

그는 同年 11월 20일경 王都를 출발 慶津 경유, 同年 12월 29일 濟州 禾北鎮 別刀浦로入島, 大靜縣 邑城 北門 밖의 金蒿의 집을 謫所로 정해 流配生活을 하다가 英祖 8년(1732) 6월에 放還되고 官에 재등용 되었다. 絶島流配 恨과 生活을 素材로 한 詩文이 그의 『悔軒集』에 수록되어 있다.

感君恩 其一

君恩知我苦心存 覽疏當時促召勤
慷慨一封餘意在 許令畢說是君恩 <『悔軒集』卷4>

感君恩 其二

君恩罪我豈深文 欲慰時人薄竄云
大海一帆風色好 瀛洲勝觀是君恩 <前掲書>

感君恩 其三

君恩憂我瘴蒸熏 善地移來聳聽聞
雖謫便同田里臥 弟兄相近是君恩 <前掲書>

感君恩 其四

君恩天大報無門 回首蓬萊隔五雲
殉國初心今白髮 悲歌惟唱感君恩 <前掲書>

7言詩「感君恩」4수의 詩題가 象徵하듯이 悔軒의 感君恩하는 丹心이 切切히 표백되고 있다. 主君의 사랑을 받다가 내침을 당했을 때 느끼는 담담하고 안타까운 심경 속에서도 “君恩이 망극하다”하고 “亦君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朝鮮朝 士大夫의 意識構造이다. 悔軒은 7絶 4首에 “君恩”이 8회나 표현될 정도로 그의 忠念의 불꽃 속에 戀君에의 變慕의 情을 갈아 가슴에 불태운다. 이어

關之忱

孤臣戀闕倍新年 一夢分明近法筵
 暮色蒼茫思美嶽 寒聲嗚咽感恩川
 莫言尺地雷霆震 須看遙天日月懸
 北應不來滄海潤 終南消息幾時傳 <『悔軒集』·卷4>

7言律詩「關之忱」은 戀君에의 忠念으로 忠臣戀主之情을 표백하고 있다. 松江·北軒 등의 「美人曲」의 詩的 雰圍氣를 느끼게 하는 性情이다.

瀛洲禾北鎮途中

村裡兒童聚見那 逐臣面目可憎多
 終然百折千磨處 南極恩光海不波 <『阮堂先生全集』·卷10>

秋史는 絕海孤島인 유배지 濟州島에 入島하여 濟州 禾北鎮에 첫 발을 들여 놓고 流配의 狀況에 직면한 감회를 위 7言絶句「瀛洲禾北鎮途中」에서 나타냈는데 그의 “荒寒寂寞之濱”¹⁶⁹⁾에서의 유배생활은 이처럼 시작하여 9년간 流刑囚로서 形言難測의 千辛萬苦의 苦役을 겪게 되었다. 이 7言絶句는 그 承·轉句에선 流配의 狀況에 직면한 身上的 自歎을, 結句에선 戀君에의 衷情을 표출하고 있다.

濟州로 가는 鬢길에서 秋史는 자신의 의연한 眞面目을 유감없이 보여 준다. 당시의 정경을 전해 주는 門人 閔奎鎬(1836-1878)의 표현을 빌면, 生死를 예측할 수 없어 鬢길이 사나운 바다와 바람으로 위험하여 모두 닳을 잃어 울부짖으며 아담인데도 秋史는 鬢머리에 앉아 詩를 지어 태연자약하였다.¹⁷⁰⁾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며 험난한 濟州島에의 流配 海路를 지나 무사히 入島한다는 것은 그만큼 流刑囚의 처지이면서도 무한히 임금의 은혜를 입었다고 여긴다. 이러한 感君恩해 하는 심정을 바로 結句에서 表白한 것이다. 이어 秋史는 7言絶句 「元宵述懷」에서,

元宵述懷

北地家家蜜飯紅 兒童斷送紙鳶風
 瓊樓玉宇團團月 分得恩光到海中 <前揭書>

임이 계신 九重宮闕에 비치는 달빛이 海島인 濟州에 까지 고루 비쳐주는 것은 오직 主君의 德化로 여겨 聖恩에 感謝하며 內在的으로 戀君에의 衷情을 노래하고 있다.

169) 『阮堂先生全集』卷4, 書牘, 與沈桐庵(11)

170) 『阮堂先生全集』卷首「阮堂金公小傳」“濟古耽羅也 瀛海 在其間其鉅 又多風 人涉恒計旬月 公方涉也 大風濤中 作霹靂 死生俄忍, 舟中人皆喪魄抱號 篙師亦股栗不敢前公擬然坐柁頭 有詩高詠 聲與風濤 相上下 因舉手指某所曰 篙師力挽柁向此 舟乃疾 朝發多至濟 濟之人 大驚以謂飛渡也”

2) 隱遁逃避와 自然愛

流配당한 몸으로 現世의 一切에서 隱遁逃避하려는 심정을 표백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漢詩를 例舉할 수 있다.

萬 興

迢迢雲影小窓陰 虛室無人伴獨斟
唯有隔林禽鳥樂 提壺終日弄春音 <『沖庵先生集』·卷3 [海島錄]>

次淸風亭韻

一髮耽羅望漸開 長風送我日邊來
南中風味如相問 橘柚清香入酒杯 <前揭書·卷3>

宦海風波에 시달려 流配당하고 보니 저절로 俗世를 逸脫하여 山水를 벗삼고자 은둔도파 하려 들게 마련이다. 沖庵의 7言絶句「萬興」은 그러한 逃避의·隱逸의인 情趣가 풍기는 詩的 感情을 표백하였고 또한 「次淸風亭韻」은 유배생활에서 脫俗의 경지에 깊이를 더해가는 逃避의·隱逸의 情趣가 높게 풍기는 詩的 感情을 토로하고 있다.

沖庵의 漢詩는 높고 빛을 번쩍인다고 지적 받은 바가 있다. 漢詩는 中宗 때에 와서 크게 이루어졌고, 그 중에 沖庵은 朴詳과 申光漢·鄭士龍 등과 함께 천고에 홀륭하게 빛났다.¹⁷¹⁾ 이른바 己卯士禍는 趙光祖를 비롯한 道學派와 南袞을 비롯한 詞章派의 대립으로 漢詩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¹⁷²⁾ 하는데, 沖庵은 道學派였는데도 詞藻의 才가 詞章派 이상인 것으로 생각한다.

漢 拏 山

出門避塵囂 望山新面目
歸雲亦有知 使我藏踪跡¹⁷³⁾

光海君 7년(1615)에 正言이던 艮翁 李瀾은 大北派 李爾瞻 등이 永昌君을 江華에서 죽게 한 것을 極言極練하여 상소를 올려 光海君의 노여움을 사서 大靜縣에 圍籬安置되었다.¹⁷⁴⁾ 위 5言絶句「漢拏山」은 濟州에서 자신에 대한 主君의 忌諱를 마음으로 달래며 亂世와 政事를 잊고 物慾없는 선비의 자세로 隱遁해 하는 詩心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어

漢 拏 山

瀛洲山上石 醉臥日欲暮

171) 許筠;『樞叟詩話·鶴山樵談』허경진 『許筠의 詩話』(서울: 民音社, 1982) p.191 參照

172) 趙潤濟 『韓國文學史』(서울: 探求堂, 1979) pp.189-202 參照

173) 『耽羅星主遺事』(耽羅星主遺事編纂會 1979) pp.407-408

174) 『光海君日記』卷134. 10年 戊午 11月 辛丑條 “李瀾 太阿倒持之說 不可不鞫問 而係是言官滅死濟州圍籬安置”

老人星可摘 無等山猶蹴
浩浩一長歌 氣激海天窄
塵世不可居 吾將駕白鹿¹⁷⁵⁾

위의 5言律詩「漢拏山」은 忠言得罪한 悔恨의 情感에 젖으면서도 그것을 克服하기 위해 漢拏山에 올라 그 정상에서 滿醜되어 自然에 파묻히고 싶어한다. 이는 마치 蘇軾의 赤壁賦에 “夫天地之間 物各有主 苟非吾之所有 雖一毫而莫取 惟江上之清風 與山間之明月 耳得而爲聲 目寓之而成色 取之無禁 同之不竭” 이라고 한 대목처럼 亂倫으로 人倫이 땅에 떨어진 塵世에서 살 뜻이 전혀 없어 차라리 白鹿을 타고 仙境에 살고 싶다는 脫俗隱遁의 淡淡한 心情을 나타낸 것이다.

獨立瀛洲第一峯 觀天觀海渺難容
恍遊聖域瞻前後 方信登東小魯封¹⁷⁶⁾

위의 7言絶句도 그런 脫俗隱遁의 心情을 노래하고 있다. 李瀾은 金直哉事件으로 流配된 宋象仁, 癸丑獄事로 流配된 鄭蘊과 함께 詩文唱酬하여 고독을 달래기도 하였다. 또 도민들에게 訓學과 예법도 가르쳤고¹⁷⁷⁾ 濟州의 獻馬功臣 金萬縉의 딸을 小室로 삼고 살았다.

靜中吟

大靜城東影伴身 梅枝竹色爭無塵
傍人莫笑生涯靜 欲向靜中求主人 <『桐溪集』·卷1>

得竹實甲

何山竹實大如斯 高鳳雙飛共啄之
霜甲落來浮碧海 瀛洲島上遇相知 <前揭書>

桐溪의 7言絶句「靜中吟」에서도 脫俗隱逸의 心情이 표백되어 있음을 본다. 宦路世波에서 떠나 다시는 그 불안한 渦中에도 동요하지 않는 不亂한 ‘靜’의 세계로 沒入하는 그의 心志가 보인다. 이어 7言絶句「得竹實甲」에서도 塵世에서는 맞볼 수 없는 脫俗隱遁의 情感을 표백하였다. 이어

書懷

避世何妨此島間 百年萬覺一身閒
胸中尚有崢嶸氣 欲壓瀛洲萬丈山 <『梅軒集』·卷4>

175) 朴用厚 『元大靜郡誌』(제주: 博文出版社, 1968) p.31

176) 『上揭書』p.31

177) 『濟州道誌』(上) p.183 “李瀾은 流配 중에서도 地方子弟들에게 訓學을 하여 그의 門下에는 金晉鎔 高弘進 등 이름있는 선비들이 輩出되었다. 그는 濟州에서 小室을 두었는데 그의 曾孫인 李重發과 그의 高孫 李壽根은 庭試에 급제했다. 舊韓末 제주지방의 유학자 李基溫 및 그의 아들 李膺鎬는 모두 李瀾의 후예다”고 서술되고 있는데 李瀾은 慶州李氏의 入島始祖가 되고 金晉鎔은 明道庵이라 號를 하여 그의 號가 部落名으로 定着하였다.

悔軒의 7言絶句「書懷」에서도 避世에 沒入하여 높고 높은 기개로 漢攀山과 同化하고자 하는 心志를 表白하였다. 이어

江村讀書

鯉魚風急鴈烟斜 數柳橫遮四五家
底事枯蛙燈火底 漁歌也小讀聲多 <『阮堂先生全集』·卷10>

秋史의 7言絶句「江村讀書」에서도 脫俗의 淡淡함을 표백하고 있다. 기러기 나는 江村 謫所에서 등잔불 아래 讀書하는데 漁夫歌가 귓전에 들려오는 光景, 自然에의 沒入에서 自己의 守分을 생각하여 修養하고 있는 秋史의 모습이 선명히 떠오를 것이다. 流配라는 限界에서 守分을 깨쳐 讀書하므로 克己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江湖엔 피비린 내 나는 中상모락의 목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漁夫의 노랫 소리가 있어 실로 脫俗隱遁의 세계인 것이다. 이어 그의 7言絶句「商山四皓」에서

商山四皓

憶昔采芝有園綺 猶被雷侯迫之起
莫將名聲落人間 隨此橫圖卷秋水 <前揭書>

中國의 故事를 引據하면서 流配의 狀況에 직면한 자신의 安分과 守分을 통해서 知足을 넘어선 脫俗隱逸의 悠悠自適의 경지를 표백하고 있다.

起句에선 자신을 지초 캐던 漢의 商皓 중의 東園公·綺面季 두 사람으로 비유하였고 承句에선 政敵 모함을 漢代 張子房의 譬박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어 轉句에선 당쟁으로 인하여 政敵에게 갖은 모함과 미움을 사서 流配당한 처지가 되고 보니, 士大夫로서 그토록 지키고 믿었던 正名·王道·德治·禮治 등의 名分과 大義도 마치 헌신짝처럼 땅에 떨어진 느낌에 짓게 마련, 그래서 다시는 “莫將名聲落人間”이라 守分을 다짐한다. 結句에선 轉句의 守分避世의 哲理 속에서 스스로 高踏을 추구해 나간다. 現實과 名利에 관심을 갖기 보다 隱遁逃避로 江湖를 즐겨 莊子의 「秋水篇」을 벗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不運한 流配生活 속에서 自適하는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이어 그의 7言詩「無題」에서도

無 題

詩味如禪馱濁腥 燈南香北道心明
半生識字頭顱白 九死看山骨髓青
引履徘徊歌酒頌 閉門寂寞注華經
朝來夢覺人何在 雨後杜鵑開滿庭¹⁷⁸⁾ <雪昆醍醐>

寂靜한 詩情에 젖어 世俗을 멀리한 隱遁逃避의 情感을 잘 表白하고 있다.

178) 『阮堂先生全集』과 別個의 『秋史文集』 拙者가 82년 9월 金一根님에게서 구하여 影印함.

流配의 狀況에 직면하여 激甚한 黨爭으로 인한 傷處와 疏外된 自身을 달래기 위해 自然에의 沒入으로 自然愛를 노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漢詩가 있다.

牛島歌

瀛洲東頭鰲擘傾	千年閃影涵重溟
群仙山訴攝五精	鳳鼎一夜轟雷霆
雲開霧廓忽湧出	瑞山新畫飛王庭
溟濤崩洶噬山腹	谿衍洞天深雲扃
稜層鑲壁錦纈股	扶桑日照光晶燄
繁珠凝露濺輕濕	壺中瑤碧躡列星
瓊宮淵底不可見	有時隱隱窺窓櫺
軒轅奏樂馮夷舞	玉簫窸窣來青冥
完虹飲海垂長尾	鸞鵬戲鶴飄翹翎
曉珠明定塵區黑	燭龍爛燐雙眼青
膠蚪踏躡多娉婷	天吳九首行玲瓏
幽沈水府囚百靈	太陰之窟玄機停
仇池禹穴傳神蹟	惜許絕境訛圖經
蘭橈擊舳雙神形	鐵笛吹裂老恠聽
水湧雲溟悄愁人	歸來 恍兮夢未醒
嗟我 只道隔門限	安得 列隻乘風冷

〈『冲庵先生集』·卷3〉

위 7言排律 「牛島歌」는 牛島를 보고난 느낌을 아득하고 황홀하게 숨어들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며 시적 재능을 다해 표현하였다.¹⁷⁹⁾ 유배생활에서 자연에의 沒入에 젖어보는 심정을 일관성있게 토로하다가 結句에 와서 유배된 자신을 자탄해 하고 있다.

如出荆門日	先尋枕下川
蒼岩三曲立	短瀑晚楓邊 ¹⁸⁰⁾ 丁亥秋 任觀周
茫茫滄海濶	上舉漢擎浮
自鹿仙人待	今登上之頭 ¹⁸¹⁾ 丁亥秋 任觀周

英祖 43년(1767) 司諫院 正言인 任觀周가 三相을 論斥하는 상소를 올렸다. 英祖가 蕩平策을 펴던 시기였으므로 몹시 王의 忌諱를 사서 동년 6월 大靜縣에 流配되고¹⁸²⁾ 安德倉口 川 民家에 謫所를 마련 流配生活을 하였다. 동년 9월에 放釋되었는데 5言絶句의 磨崖詩를 남겼다.

前者의 磨崖詩는 流配生活에서 自然愛에 젖은 그의 詩心을 표백하고 있다 하겠다. 곧 가시문 밖을 출입 못했던 그에게 밤마다 벼개 밑에 들려오던 시냇물 소리가 무척 그리운 것

179) 前掲 註 171) p. 191 參照

180) 南濟州郡 安德面 倉川里 倉川溪谷 岩壁 現存

181) 漢擎山 白鹿潭 東壁 現存

182) 『英祖實錄』 卷109, 43年 6月條

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골짜기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감격어린 詩를 짓고 그 글을 시내 가 흐르는 溪谷 바위에 새겨 놓은 것이다. 이 「磨崖詩」는 210餘年の 風化 속에 그 획이 희미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능히 가누어 볼 수가 있어, 이 溪谷을 찾는 이들에게 그날의 回憶에 젖게 한다.

後者の 것은 白鹿潭 동쪽 암벽에 새겨진 磨崖詩로서 物欲없는 선비의 자세로 自然愛의 沒入을 노래한 것이다. 流配生活은 개인적으로는 不遇한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 겪은 直接體驗은 소중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저 白鹿과 仙人이 기다리는 靈峰 漢拏의 上上峰에 올라서 넓고 넓은 창해와 그 위에 떠있는 漢拏山에 자리하여 우람스런 大自然에 파묻힌 작자의 孤高한 모습이 눈에 어른거리는 仙味마저 풍긴다.

望京樓

耽羅三百里 形勝最玆樓
極目惟天水 遊心白鷺鷗
逍遙無箇事 來去有孤舟
誰復知斯趣 紅塵爾也愁 <『靜軒瀛海處坎錄』·卷4>

靜軒의 5言詩 「望京樓」는 유배생활에서 오는 隱遁逃避로 인한 자연에의 몰입을 노래하고 있다. 자연에 안겨들어 자연의 미에 도취하여 老之將至를 잊으려 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그는 세상사를 잊어버리고 오직 자연의 벗이 되어 자연을 응시하여 자연과 더불어 相浮相沈하였고 그 생활을 시가에 읊었다.¹⁸³⁾ 濟州의 自然은 이른바 江湖歌道の 소재로선 훌륭한 것이나 그것이 濟州民에 의해서 보다 流配人에 의해서 내외로 소개되었고 文學化되었던 것임을 숨길 순 없다. 이어 自然에의 몰입은 자연을 사랑하고 거기에 동화되는 심경에 까지 이르는데 다음의 5言詩 「橘柚品題」는,

橘柚品題 其四

素英元窈窕 貞質更幽閉
一見心如醉 孤懷每自寬 <前揭書·卷3>

自然에의 沒入에서 자신의 처지를 自足해 보려 한 심경이 표백됨을 본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통분과 赤貧의 가난과 허약한 병고의 몸을 이끌어가면서도 계속된 유배생활을 너그러운 심정으로 극복하려 할 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바로 脫俗한 自然愛의 경지에서 가능한 것이다.

山

我坐此山中 山於我何有
無頭一穹窿 知在後峰後 <『北軒集』·卷2「囚海錄」>

183) 趙潤濟, 前揭註 172) pp.162-168 參照

北軒의 5言絶句 「山」은 濟州島의 오름(山)의 特性을 잘 表現한 것인데, 이러한 自然을 어떻게 수용 융화하느냐는 것은 流配地에 와서야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내’가 ‘자연’이고 ‘자연’이 ‘나’이며, ‘내’ 속에 ‘자연’이 있고 ‘자연’ 속에 ‘내’가 있어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렇게 하자면 一切의 主觀, 사람의 욕심은 끼어들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自然에의 沒入에 젖게 되고 自然을 사랑하게 되며, 비록 流配生活에 직면한 불안한 정신적 상황이었다고 해도 和靜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水仙花

一點多心朵朵圓 品於幽澹冷雋邊
梅高猶未離庭砌 清水眞看解脫仙 < 阮堂先生文集·卷 10 >

당쟁으로 인한 官海風波로 官府에서 쫓겨 絶海孤島로 유배당한 많은 유배인사들에게 世事를 떠난 隱遁逃避에서 오는 自然에의 沒入에 젖는다. 이와 같은 경향이 있었듯이 秋史도 유배생활 동안 異域 他關인 濟州의 자연을 즐겼고, 그것을 통하여 유배생활의 千辛萬苦를 이겨낼 수가 있었으니, 실로 濟州의 자연을 사랑한 바가 되었고 漢拏山의 靈氣는 실로 耽羅의 초목에만 묻쳐서 부러워하기도 했던 것이다.¹⁸⁴⁾ 그중에서도 秋史는 7言詩 「水仙花」에서 보여주듯이 濟州의 水仙花에 賞讚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無 題
赤藤扶我上天臺 萬朵仙雲手撥開
洞裡桃花長不落 何因流出碧溪來¹⁸⁵⁾

신선 구름 송이송이 손 들어 헤치고 仙境의 복사꽃 이내 지지 않는 곳, 여기에 시냇물이 따라 흘러오는 그런 自然에 沒入하는 孤高한 모습을 쉬 상상할 수가 있다.

3) 情恨·憐憫과 懷古·懷鄉

流配生活을 통하여 겪은 別恨·痛恨을 노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漢詩가 있다.

送情友詩

草色青青映別衣 勞歌一曲送君歸
臨兮莫問佳期處 他日雲山共採薇¹⁸⁶⁾

申鉉은 仁祖 15년 (1637) 에서 英祖 元年 (1725) 까지 在世한 사람인데, 그의 호는 寒竹堂, 色目은 老論이다. 景宗이 즉위했으나 후사가 없어 老論에서는 延祔君(英祖)을 王世弟로 봉하여 대리청정토록 주청했다. 少論派 金一鏡 등은 老論들이 無君不德한 짓을 하였으니 극형에 처하고 대리청정령을 철회토록 하여 老論派 金昌集·李頤命·李健命·趙泰采

184) 『阮堂先生全集』 卷 3, 與權敦仁(5) “漢拏靈異磅軋之氣 鍾在草木而已耶”

185) 「秋史詩抄」(『文學思想』(119)1982.9. p.253)

186) 白大鎮: 「名詩漢詩選」(『現代文學』(69).1960.9. p.307)

등 4 대신과 關聯者 60 여명을 사형 혹은 流配시켰다.

이 辛壬土禍로 무고한 사람들이 모락에 희생되는 것을 보고 申鉉은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도리어 大靜縣으로 유배되었다.¹⁸⁷⁾ 景宗 2년(1722) 5월에 84세의 노령으로 柑山村에 도착하여 謫居하였는데 放還 후 歸鄉도중 海南縣 城南에서 英祖 元年(1725) 3월 25일 客死하고 말았다.

위의 7言絶句「送情友詩」는 流配地까지 찾아와 준 友情을 보냄에 있어서 자기의 内心을 표현한 送友人詩라 하겠다. 生涯의 마지막에 유배당한 선비의 自歎과 隱遁한 雰圍氣가 감도는 詩의 情緒가 짙게 깔려있음을 본다. 政爭의 나날들, 두고 온 가족, 그리운 妾室의 아름다움, 朋黨들의 회포 따위가 흐르는 물결처럼 流刑囚의 心像 앞을 지나간다. 그러한 것이 지나가면 곧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진 자기 자신의 외로움은 무엇인가 따위를 곰곰이 따져 본다.

이럴 때 流配地까지 찾아와 준 友情이란 그 깊이를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일까.「離別歌」한 곡조로 友情을 나누며 나뉘에 있어 다시 만날 곳을 묻지 말자”고 다짐하는 情感이야말로 전혀 과장에 물든 표현없이 王維의 「陽關曲」보다 別恨을 曲盡하게 표현하고 있다.

配所輓妻喪

那將月姥訟冥司· 來世夫妻易地爲
我死君生千里外 使君知我此心悲 <『阮堂先生全集』·卷9>

來世에 부부가 서로 바꿔 태어나서 내가 죽고 그대가 살아서 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가 한번 겪어야 비로소 짐작하리라고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안타까와 하는 情感을 노래한 秋史의 7言絶句「配所輓妻喪」이다. 9년이라는 기나긴 유배생활을 뒷막만 한 한 간방에 갇힌 채 보내야 하는 그 忍苦의 생활은 筆舌로 다할 수 없는 괴로움이 따랐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모질기로 자부하던 秋史로 하여금 땅을 치고 痛哭하게 한 큰 슬픔은 夫人 禮安李氏의 죽음이였다.

유배생활 3년 만에 곧 憲宗 8년(1842) 11월 乙巳朔 13일 丁巳에 부인이 他界했다는 슬픈 訃告를 받는다. 곧 亡妻의 임종을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없었고, 梟圍罪人이기에 한 지아비로서 亡妻의 葬禮도 치루지 못한 괴롭고 슬픈 痛恨을 表白하였다. 秋史의 7言絶句「配所輓妻喪」은 挽歌·挽歌詩를 대신하는 悼亡詩로서 그 심각미와 절실미가 斯界의 上乘이라 할 수 있다.

流配生活을 통해 流配地 住民들의 生活苦를 보고 憐憫의 情을 노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漢詩가 있다.

187) 『景宗實錄』卷7. 2年壬寅 4月乙卯條 “申鉉疏略無驚動於 謀弑之亂 乃以逆豎亂供 欲爲擠陷朝紳 沮敗獄事之計 噫凶徒黨 無非渠之黨與 則唯恐端緒之畢露 欲 緩市朝顯戮 陰藉賊供 力沮大獄 欲絕按治三路顯有和應之跡 上自大臣 下至三司 一筆句斷 必欲空國 乃已 苟究其心 使一自望忘君黨逆之罪 … 申鉉滅死絕島圍籬安置”

貧女吟

縞衣貧女不爲容 燈下持針事補縫
夜久假眠衣不鮮 明朝貸粟又孤舂 <『桐溪集』·卷1>

桐溪의 7言絶句다. 濟州島의 한 여인이 밤새도록 눈부칠새 없이 바느질하고 새벽녘에
빌려 온 조를 혼자서 방아질는 모습을 연민의 정으로 표백하고 있다. 이어

濟州所見

青木線裙短布襖 癸田閨氏淚潛吞
朝朝約伴雙筐公 採得畦頭首耨根 <『北軒集』·卷3>

北軒의 七言詩 「濟州所見」에서도 濟州島의 아낙네들이 가난하게 생활하는 모습, 못 입고
못 먹어서 돌 뿌리를 캐어 연명하는 비참한 생활상을 표백하여 憐憫해 하고 있다. 이어

濟州雜詩其十八

或有宦遊客 留連不憶歸
醇醪添氣象 紅粉倍光輝
良馬常多取 潛珠亦暗飛
島恨何所望 御史有霜威 <前掲書>

北軒은 濟州牧에서의 유배생활 중에서도 濟州島民의 “良馬常多取 潛珠亦暗飛”하는 官
弊에 괴로움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폭로하기도 한다. 여기엔 제주도민의 뼈저린 아픔을 함
께 하는 北軒의 역사의식의 일면을 보여 준다 하겠다. 朝鮮朝의 유배인사 중에 丁茶山은 유
배지 康津 사람들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폭로 고발하여 처참하게 고생하며 유배지 現地人
들과 함께 하는 역사의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北軒의 경우 丁茶山보다 앞서 官의 不正을 폭
로하고 憐憫하는 역사의식의 소유자였다. 이어

濟州雜詩其十九

彈丸孤島內 民事自艱難
不料秋蝗作 還承夏雨乾
逐臣江水遠 葛履晚霜寒
向者祈穰苦 村村謾築壇 <前掲書>

그러한 제주도민에 대한 憐憫은 傍觀者의이 아니라 主體的인 관심에서 우리나라 眞情으
로 표백되고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濟州島는 척박한 땅으로 농사도 제대로 아니되
어 도민들이 식량난으로 本土로 出陸하자 이것을 금하기도 하였지만 출륙의 현상은 오래
지속되었다. 여기에 官弊에 시달리고 나니 제주도민은 실로 행정 부재의 상황 속에서 善政
과 豐年을 바라고 祭壇을 쌓아 왔다. 이런 어려움을 함께 하는 위정자는 없어도 流配人이
있었다는 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었다. 다음의 7言絶句 「絶糧漫吟」에서도,

絶糧漫吟

悠悠萬事任天公 五載窮溷困殺農
更向室人相笑罷 孟光無粟可親舂 <『北軒集』·卷3 [囚海錄]>

바로 絶糧으로 해서 어려운 濟州島의 情況을 노래한 것으로서 內在的으로 憐憫하는 情感이 표백되고 있다. 濟州島는 交通이 불편할 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거리가 먼 곳이기 때문에 어떤 不正과 貪虐을 저질러도 어느 程度 그 官弊가 감추어질 수 있었고, 또 武人 守畝의 경우 武術에는 뛰어났을 망정 학술적으로는 知識이 不足하였기 때문에 治民善政 보다는 貪欲에만 일삼은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¹⁸⁸⁾ 金爲民¹⁸⁹⁾ 高得宗¹⁹⁰⁾ 金勿¹⁹¹⁾ 金錫哲¹⁹²⁾ 李耕云¹⁹³⁾ 등이 올린 弊癘狀은 당시의 守畝와 土豪들에 의한 民瘼을 여실히 例證해 주는 것으로 믿어진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濟州의 땅이 원래 火山灰土質임으로 農土가 매우 척박하고 環海孤島로 颶風의 통로인 관계로 해마다 災害와 凶作이 계속하여 항상 飢饉과 싸워야 하는 生·死의 문제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詩를 통해서 表出되어졌다는 것은 流配된 士大夫의 마지막 良心의 호소에 의해서였을 것이다.

耽羅雜詠 其十四

村女露身裾不成 遠泉汲處負瓶行
兩妻一家生涯苦 日暮杵歌多怨聲 『悔軒集』卷4>

한편 濟州島는 乾川이어서 食水難이 심하다. 아침 저녁 이슬을 맞으며 허벅(제주도에서 물길어 등짐으로 운반하는 도구)을 지고 물길어 와서 방아로 쌀 찧어 밥 짓는게 일과의 시작이다. 濟州의 여성들은 부지런하다고 하나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삶을 누릴 수 없기에 숙명적일지도 모른다. 방아를 찧게 되면 반드시 노래를 한다. 맷돌방아 노래가 그 음조가 애달프게 들리고 방아질 역시 괴로워 그것이 원성처럼 느껴지도 모른다.

邑誌의 風俗에도 “杵歌聲苦 女人作隊 擣舂必發 杵歌音調甚苦 旋磨亦然”이라 한 것을 보면 悔軒의 七言詩「耽羅雜詠」은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다. 위의 7言詩는 제주 아낙들의 어려운 생활상을 표현하여 內在的으로 憐憫해 하고 있다. 이어 靜軒도 다음의 7言詩「耽羅雜詠」其十九에서 濟州島 해녀의 고역과 進上 부담의 고난을 노래하고 내재적으로 憐憫해 하고 있다.

188) 秦東赫「李世輔의 哲宗朝 現實批判時調考」(『東方學志』제 30집, 연세대학교, 1982. p.219)
189) 『世宗實錄』卷 36, 9年 6月丁卯條
190) 『世宗實錄』卷 90, 22年 8月己卯條
191) 『成宗實錄』卷 247, 21年 11月癸未條
192) 『中宗實錄』卷 19, 8年 12月庚申條
193) 『中宗實錄』卷 41, 16年 3月壬戌條

耽羅雜詠 其十七

潛女衣裳一尺短 赤身滅沒萬傾波
邇來役重魚難得 鞭扑尋常幾處衙 <『靜軒瀛海處坎錄』卷4>

곧 해녀에게 과하여진 진상용 어물의 지정된 숫자를 상납하지 못할 때 관에 불리어 추궁 당한 끝에 비참하게 채찍매를 맞아야 했던 해녀의 어려운 생활과 관의 학정을 폭로하고 있다. 靜軒의 詩에서도 전술한 北軒의 詩처럼 유배지의 사람들의 생활고와 관패를 지적하여 憐憫해 하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한편 靜軒은 5言律詩「歎島俗」에 한편으론 도민들의 게으름을 지적하고 또 한편으로는 濟州島의 여자들이 일에 과중과로 하고 있음을 동정하여 聖恩이 이들에게까지 고루 미치지길 기대하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歎島俗

從古耽羅國 居民自懶慵
大都趨末利 余事視三農
婦女惟耕穫 晨昏且日春
蠻風誰一變 聖德今時雍 <前揭書·卷4>

濟州의 三多 중의 女多는 여자가 남자보다 그 숫자가 많다는 관점에서 보다 여자가 주로 밭일을 하기 때문에 보여 준 특성이라 생각한다.

流配生活을 통하여 懷鄉·懷古를 노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漢詩가 있다.

重陽日有作

海國風烟浩不收 離人腸斷故山秋
清樽黃菊重陽節 何處高丘憶遠遊 <『冲庵先生集』卷3「海島錄」>

이 冲庵의 7言絶句「重陽日有作」은 그가 流配地에서 피붙이·살붙이로 맺어진 고향의 가족들을 그리는 懷鄉의 情을 表白한 것으로 그리움을 腸斷으로 느낄 정도다.

春 暮

愁思縈遊架 隨風過海門
心情縣素月 流景照鄉園
永日扁幽戶 清宵倚短垣
不堪頻北望 春暮且傾樽 <前揭書>

이어 7言律詩「春暮」에서도 冲庵은 懷鄉의 情에 못건디게 참을 수 없어 저무는 어느 봄날에 破酒로 스스로를 달래 보기도 한다. 그럴수록 마음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고향의 처자식들인 것이다.

歸 意

不是風波阻 思歸亦未歸
夢余乘白鶴 遠向峽天飛 <『悔軒集』·卷4>

悔軒도 5言絶句 「歸意」에서 꿈 속에 白鶴을 타고 멀리 날고 싶어하는 懷郷의 情에 젖은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유배된 자는 살아서 다시 歸郷할 수 있다는 것은 예측하기가 힘든 일이나 마음으로는 언제나 歸意에 젖게 마련인 것이다. 이어 懷古의 情을 노래한 것으로

大靜村舍

綠簪丹木紫牛皮 朱墨紛紛批抹之
工庫文書生色甚 背糊村壁當看詩 <『阮堂先生全集』·卷10>

大靜縣은 대표적인 流配地이다. 濟州島가 絶海孤島로 遠惡地 유배의 象徴적이고 대표적인 유배지인데 그 중에서도 大靜縣은 중죄인시하는 자만 유배되던 곳이다.¹⁹⁴⁾ 大靜縣에는 모슬포가 있는데 流配者들의 出入이 많아 속칭 ‘모슬포’를 ‘못살포’라 불리어 왔다는 구전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한 大靜縣에 유배당한 秋史가 대정의 村舍를 보고 느낀 바를 표출한 것인데 위 7言詩 「大靜村舍」는 村舍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도배한 시골 집에서 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流配者들의 왕래가 많았음을 암시해 주고 懷古의 情에 젖고 있다.

4) 慨世·無常과 風情·樂天

流配生活을 통해 지난 날 거센 風浪처럼 政敵 숙청만을 일삼던 黨爭의 극악상을 慨世한 것으로 秋史의 7言絶句 「蠅」을 들 수 있다.

蠅

太末蟲飛沸若雷 幾時大火聚邊回
憐渠浮世多情甚 抵死驅之低死來 <『阮堂先生全集』·卷10>

秋史는 黨爭의 極惡相을 파리를 빌어 비유하여 慨世의 정감을 표백하고 있다. 黨爭의 극악상을 일일이 예거할 필요가 없다. 당쟁의 참여자들을 날아다니는 파리떼로 비유하고 結句에서 당쟁의 극악, 거기에 따른 피비린내 나는 희생을 토로하고 있다. 流配된 자는 당쟁에 참여하여 저항하고, 죽이고, 쫓기고, 또 저항하고 죽이고 하여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부지하여 流配된 자들이다. 당쟁에서 실각하면 파리의 신세처럼 도랑에 날아다니고 파묻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당쟁의 극악상을 보고 慨世하고 있다. 이 7言詩 「蠅」은 당쟁으로 말미암아 流配된 자가 慨世를 노래한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詩라 하겠다.

194) 前掲 註 64)·65) 參照

다음 無常을 노래한 漢詩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題洪娘墓

瘞玉埋香奄幾年 誰將爾怨訴蒼天
黃泉路遠歸何賴 碧血藏深死亦緣
千古芳名蘅杜烈 一門高節弟兄賢
烏頭雙關今難作 青草應生馬鬣前¹⁹⁵⁾ <『靜軒瀛海處坎錄』·卷4 >

위의 靜軒의 7言詩「題洪娘墓」는 한 女人의 殉節을 소재로한 것이다. 이것이 33년 간의 오랜 유배생활이 끝난 후에 지어진 것이니 세상에 대한 염세를 일으켜 심적 상황으로 연속된 유배적 분위기의 성격을 띤 작품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이처럼 33년만에 한 여인의 무덤을 만들어 殉節을 기리고 마음 속에 회상하며 無常과 염세의 느낌에 젖기도 하였던 것이다. 임백호가 황진이의 무덤 앞에서 술을 권하여 인생의 허무를 노래한 그의 시조는 유명하다. 그러나 靜軒의 경우는 그 사연이 前者의 것보다 더한 맛이 날 것이다. 이것이 이제까지는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으나 이 기회에 이러한 浪漫的인 사실과 그에 관련한 漢詩가 있음을 공개한다.

靜軒이 濟州에 유배된 지 5년만에 正祖 5년(1781) 3월에 金蒼者가 제주 목사로 부임하였다. 그는 辛壬士禍 때 노론 4대신을 탄핵하고 무고로 처형하여 역모환국으로 英祖 즉위 후 처형당한 少論派의 金一鏡의 계보였다. 그는 제주 목사의 직권을 이용하여 노론 4대신 趙泰采의 증손인 靜軒을 제거하려 했었다. 그리하여 그는 판관 黃鱗采와 공모하여 靜軒의 유배 후의 새로운 죄목을 캐기에 혈안이 되었다.¹⁹⁶⁾

그런데 靜軒을 연모하여 그의 유배생활을 돕고 있던 鄉吏의 딸 洪娘 允愛란 남자가 있었다. 그녀가 바로 그 공모의 덫에 걸려 들었다. 목사는 流刑囚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 임금이나 조정 대신들에 대한 비방 등 갖가지 울가미를 씌워 杖 70을 내리쳐 추궁했다. 그러나 관가의 갖은 고문에도 불구하고 꾸며진 일체의 죄목을 부인하여 끝내는 순절하였는데 동년 윤 5월 15일이었다.¹⁹⁷⁾

이와는 달리 濟州 故老의 所傳에 의하면 5월에 목사에게 감사의 밀사가 와서 靜軒을 적당한 죄명으로 杖殺토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관에 불리어 무서운 매를 맞아 거의 死骸가 되어 나왔다. 이때 洪娘이 달려 와서 매로 죽기 직전 靜軒을 집에 데리고 간병을 하여 목숨을 구해냈다. 당시의 법은 죄인이 杖殺하도록 매를 때렸는 데도 살았다면 다시는 죽이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靜軒은 목숨을 지탱했고 洪娘은 중죄인으로 絞殺당했다고 한다. 靜軒은 放釋된 후 純祖 11년(1811) 6월에 全羅道 防禦使 겸 濟州牧使가 되어 濟州流配때 자기 때문에 희생된 洪娘의 무덤을 만들어 주고 墓碑銘을 세워 悲願을 달랜 바가 있다. 「洪

195) 「題洪娘墓」는 『靜軒瀛海處坎錄』卷4에 수록되어 있고 그 碑文은 濟州道 涯月邑 今德里 木塚旨에 現存하고 있다.

196) 『上揭書』卷3, “牧使金蒼者判官黃鱗采… 煽謀撲殺無辜 疑余罔測之科”

197) 『上揭書』卷3, “洪娘名允愛毒楚之下氣絕而口猶稱冤禍色尤急雉懸而死”

義女之墓」라고 새긴 비석을 세우고 이면에는 洪娘에 바치는 애절한 시를 새겨 놓았으며, 그 끝에는 「濟州牧使兼 全羅道 防禦使 趙貞喆」이라고 새겼다. 이 「題洪娘墓」는 靜軒의 人間性과 제주 여인 洪娘의 節操를 되새기게 하는 바가 있다.

이어 秋史는 7言絶句 「毛羅」에서 충렬왕 때 三別抄를 討伐한 후 元에서 濟州島에 達魯花赤를 두고 통치했는데 그의 위세는 하늘을 치솟았으나 이제와서 그 유적을 찾을 수 없음에 無常함을 표백하였다.

毛 羅

聘牽於古亦耽浮 儒李城空波海頭
要足九韓風土志 魯花遺蹟苦爲求 <『阮堂先生全集』 卷 10>

곧 達魯花赤의 유적을 懷古하려 詩心을 가다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유적을 찾을 수 없음을 無常感에 젖고 있다고 하겠다. 곧 유배적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중에서 가장 짙게 그림자 지어지는 것은 지난 날의 화려한 權座에서 君王의 忌諱와 政敵의 모함으로 失勢를 하여 유배당하므로써 느껴지는 虛無感인 것이다. 이러한 虛無感을 達魯花赤의 遺蹟을 빌어 秋史는 자신이 虛無感을 표백하였을 것이다.

다음 유배생활을 통하여 風情과 樂天을 노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漢詩가 있다.

天帝淵開大瀑流 移來叢石瀉深湫
空中負箭獨人步 第一奇觀此射候¹⁹⁸⁾<丁亥秋 任觀周>

天帝淵 서쪽 암벽에 남아있는 磨崖詩이다. 중문의 삼단 폭포를 관람하여 그 自然의 풍물을 賞讚하면서 노래한 것이다. 流配生活은 他關의 見聞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이러한 中文의 風物도 詩로서 賞讚하게 되었다.

耽羅雜詠 其十六

耽羅遙在海之中 男少女多今古同
牧子哇丁蔀屋下 一妻一妾自成風 <『靜軒瀛海處坎錄』· 卷 4 >

耽羅雜詠 其十八

旌城少女值朱炎 下不爲裳上不衫
十字街頭闐闐地 負瓶汲水語喃喃 <前揭書>

靜軒의 「耽羅雜詠」其十六은 濟州의 三多에 女多·風多·石多가 있는데 그중 女多로 해서 남자들이 一妻一妾을 거느리고 있는 風俗을 노래했고, 同 其十八은 물길는 少女들의 風情을 노래하고 있다.

198) 西歸浦市 中文 天帝淵 西峯 岩壁 現存

耽羅雜詠 其二十一

海中壤土自浮燥 耕不爲深時不早
播穀仍教牛馬踏 磽田處處平和掃 <前掲書>

濟州島의 특수한 풍속인 牛馬로 밭 밟는 것을 소재로 하여 노래한 7言詩이다. 濟州島의 토양은 거칠고 건조하기 때문에 밭을 갈고 씨뿌릴 때는 牛馬를 몰고 밭을 밟는다. 流配生活을 통해 인생과 자연을 진지하게 관조해 보기도 하고 異國의 情緒·風習·見聞 등을 소재로 하여 流配者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심리와 정서의 가미로 노래하게 마련인데 이것은 後者의 것을 노래한 것이라 하겠다.

馬 磨

人十能之馬一之 三家村裡詭神奇
大機大用元如此 還笑宗風老古維 <『阮堂先生全集』·卷 10>

濟州島 風俗인 말방아를 노래한 것이다. 濟州島가 本土와는 그 地理的·自然的 環境이 다르기에 異香 짙은 風俗이 많은데 이것이 詩의 素材로 표출된 것은 流配人들에 의해서 많이 취재되어졌다. 濟州 섬에서만 볼 수 있는 風情을 詩化하였다. 이어 尤庵은 謫所에서 자신의 생활심경을 樂天的으로 다음과 같이 5言詩로 표백하였다.

耽羅謫所

弟兄孫子姪 天外喜同堂
自首何丘首 他鄉似故鄉 <『宋子大全』·卷 2>

위의 5言絶句 「耽羅謫所」는 謫舍에 全家族이 함께 同居하고 있으므로 故鄉에서의 生活과 별로 다르게 없음을 述懷하고 있다. 絶島·園籬安置의 경우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은 것이 黨爭 社會의 참상이다. 그런데도 尤庵의 경우 全家族이 함께 尤庵따라 流配地에 온 것으로 特殊한 예라 하겠다. 尤庵이 慶源流配 때에도 조카 宋疇錫이 陪行하여 「北關曲」을 시은 적이 있다.

尤庵의 一族의 濟州 流配生活은 불과 40여일에 지나지 않았지만 濟州島民들에 끼친 思想的 影響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믿어진다.¹⁹⁹⁾ 짧은 流配生活 동안에 「問疑通攷」를 지을 정도였다. 流配漢詩에 나타난 主題的 內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 당시 濟州島의 儒生들은 肅宗 21년(1695)에 尤庵을 橋林書院에 祭享하였고 尤庵이 流配되고 이 후부터 教育振興을 목표로 各地에 書堂·書院이 建立되어졌다. 濟州城內에 橋林書院·鄉賢堂·三泉書堂·藏修堂 등을 비롯해 明月城內에 月溪精舍·右學堂 涯月上加里에 西學堂 旌義縣에 月溪精舍 등의 教育機關이 세워졌다.

流配漢詩에 나타난 主題的 內容

年 代	作 家	流 配 地	事 件	色 目	內 容 作 品 類	戀身	自隱	慨憐	樂風	痛別	懷懷	無無	哀						
						君歎	然愛	遁逃	世憫	天情	恨恨	鄉古	常訴						
中宗	金淨	濟州牧	己卯士禍	道學派	11	6	1	2			2								
光海君	鄭蘊	大靜縣	癸丑獄事	東人	13	1	8	2	1				1						
"	李溪	"	仁穆大妃廢黜	"	3			3											
仁祖	光海君	濟州牧	仁祖反正		2	2													
肅宗	宋時烈	大靜縣	己巳換局	老論	3	2			1										
"	金春澤	濟州牧	世子謀害嫌疑	"	11	1	5	1		4									
景宗	申鉉	大靜縣	辛壬士禍彈劾	"	1						1								
英祖	趙觀彬	"	蕩平策違背	"	8	5		1	1			1							
"	任觀周	"	"	"	3		2		1										
正祖	趙貞喆	"	正祖弑害嫌疑	"	20	5	7	2	2	3			1						
憲宗	金正喜	"	尹尙度獄事	僻派	15	2	3	2	3	1	1	1	1						
計					90	14	33	8	11	1	8	1	5	1	1	3	1	2	1

이상에서 流配漢詩 90수에 나타난 主題的 內容을 分析 考察한 結果를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身上歎, 둘째 戀君, 세째 隱遁逃避, 네째 自然愛·憐憫, 다섯째 風情(俗), 여섯째 懷鄉, 일곱째 無常·慨世·樂天·痛恨·別恨·懷古·哀訴 등의 順으로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바로 流配漢詩의 思想的 內容의 特質로 要約할 수 있다. 그 중 支配的인 內容은 政治的·時代的 狀況인 當쟁으로 인해 王寵을 잃고 政敵의 모함으로 尤배를 당하게 된 不遇하고 억울한 자신의 처지를 自歎·哀訴한 身上歎이었다. 그 다음 비록 尤배적 상황에 직면한 처지이면서도 儒教的인 忠君愛國의 정신으로 변함없이 戀君에의 忠念·聖恩을 노래한 戀主思想이 나타난 것은 朝鮮朝 儒敎社會의 時代潮流요, 그 反映이었다.

동시에 격심한 當쟁으로 인해 流配당하므로써 亂世의 不安보다 脫俗隱逸에 젖어 世事를 잊어버리려는 隱遁逃避가 나타나 있으며, 아울러 이런 隱遁逃避의 感情에 기인한 自然愛도 內容의 特質로 나타나고 있음을 본다. 特記할 것은 流配漢詩에 나타난 憐憫에의 情이다. 遠惡地 濟州島로 尤배가서 그 尤배지의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 官院의 폐단 등을 여실히 詩를 통해 폭로하고 있음을 그들이 士大夫의 階層이었음에도 住民과 함께 호흡한 歷史意識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사야한다고 믿는다.

그밖에 濟州島만이 갖는 風情(俗)을 노래한 것도 주목해야 할 일이다. 濟州島에 流配되어 온 士大夫들이 關係한 政治적인 黨의 色目은 11명 중 老論이 7명이나 되어 流配作家의 特性은 當쟁에 關係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黨勢가 강했던 西人系列의 老論이었음을 確인할 수가 있다.

第3節 隨 筆

1. 風 土 記

수필은 붓가는 대로 자유롭게 見聞·體驗·感想·小論등을 적어 모은 것이다²⁰⁰⁾ 『櫟翁稗說』의 “至正 壬午 夏雨連月 杜門無登音 悶不可祛 持硯承簷溜 聯友朋往還折簡 遇所記書諸紙背 題其端²⁰¹⁾”이란 심정으로 쓴 글이 바로 수필이다.

白鐵님은 古代文學에선 소설이 본격적으로 발전되지 못한 대신에 필수적인 문학형식이 잡다하게 발전되었다면서 ① 漢文으로 된 漢文隨筆 ② 國文으로 된 古代隨筆 ③ 新文學 이후의 現代隨筆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²⁰²⁾ 隨筆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씌어지고 그 양이 많은 것은 漢文隨筆이다.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주로 士大夫·兩班들에 의해서 씌어져 그 형식이 다양하므로 상당수의 隨筆類가 있다.

그 가운데 淸의 姚鼎가 『古文辭類纂』에서 과거의 文章분류를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한 論辨·序跋·奏議·書說·贈序·詔分·傳狀·碑誌·雜記·箴銘·頌贊·辭賦·哀祭 등 13종 중 書說·贈序·雜記·頌贊·辭賦 등은 수필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 論辨·奏議·箴銘도 주관적인 면을 강조한 것은 수필로 볼 수 있다.²⁰³⁾

그 명칭에는 集·說·記·錄·話·談·聞·筆·編·草·案의 글자가 붙어 있고 이에 尹元鎬²⁰⁴⁾ 張德順²⁰⁵⁾ 金東旭²⁰⁶⁾ 文璇奎²⁰⁷⁾ 崔勝範²⁰⁸⁾ 님들은 수필 작품을 예로 들었고 이들을 정리하여 볼 때 李相寶 님이²⁰⁹⁾ 말한 바와 같이

記：雜記·冗話·漫記·野記·筆記·別記

錄：野錄·雜錄·叢錄·秘錄·瑣錄·漫錄

聞：新聞·前聞·纂聞·紀聞·野聞

話：叢話·夜話·餘話·情話·詩話

談：瑣談·筆談·野談·奇談·劇談·偶談·軟談·冷談

筆：隨筆·漫筆·贅筆·暇筆

200) 學園社刊 『文藝大辭典』(서울:學園社, 1962) pp.546-547

201) 李 齋 賢 『櫟翁稗說』序文

202) 白 鐵 『文學概論』(서울:新丘文化社, 1957) pp.365-366

203) 文 璇 奎 『韓國漢文學史』(서울:正音社, 1961) pp.41-44

204) 尹 元 鎬 『韓國隨筆의 片貌』(『李熙昇先生頌寺紀念論叢』1957, p.387)

205) 張 德 順 『國文學通論』(서울:新丘文化社, 1960) pp.211-268

206) 金 東 旭 『國文學概論』(서울:民衆書館, 1961) pp.124-125

『國文學概說』(서울:民衆書館, 1962) pp.141-142

207) 文 璇 奎 『前揭書』 pp.269-274

208) 崔 勝 範 『隨筆文學』(대구:螢雪出版社, 1965) pp.131-140

209) 李 相 寶 『韓國의 古代隨筆』(『隨筆文藝』第3輯 서울:隨筆文藝學會, pp.107-109)

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혹은 雜存·委譚·雜談·漫抄·異纂·贅言·聞略·筆談·剩言漫志·遷譚·雜言·類說·小說 등 漢文隨筆의 형식이 다양하다.

이러한 형식의 한문수필은 창작적인 수필을 써야 하겠다는 태도에서가 아니고, 그저 가벼운 기분으로 써 내려간 것, 말하자면 견문 그대로를 흥미 있는 대로 자유로이 썼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좀 확대되어도 수필로 볼 수 있는 것이 많다.

여기에서는 風土記·書翰·祭文 등을 國文·漢文으로 類別하지 않고 한데 묶어 流配隨筆이라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1) 金淨의 濟州風土錄

本稿를 展開하기에 앞서 風土(Climate)란 무엇이며, 風土錄 또는 風土記란 무엇인가의 그 概念을 우선 고찰하기로 한다.

어느 한 민족의 民族의 性格은 그 민족이 주어진 환경에 合理的으로 대응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한 민족 성원의 공동 양식의 심리적 측면이다. 한 민족에게 주어진 환경이 역사적,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연적·지리적·조건도 작용하였으리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前提에서 볼 때 絕海孤島라는 濟州島의 자연적·지리적 조건은 濟州島民의 性格을 형성하는 데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곧 風土란 사람들에 의해 가꾸어져 變化되어 가는 自然을 말한다. 그것은 단순한 自然이 아니라 人間의 存在를 前提로 해서 그 활동의 기초가 되는 自然環境을 뜻한다.

따라서 그것은 國家에 따라 地域에 따라 갖가지 특색을 갖는다. 雪國의 風土·地中海의 風土·沙漠의 風土 등이 바로 그 예가 된다. 그러므로 風土記는 地誌의 일종이며 風土産業은 鄉土의 특색을 살린 산업을 뜻하며, 風土順化는 移民의 새로운 自然과 社會에의 順應을 뜻한다²¹⁰⁾ 하겠다. 우리의 것은 地誌의 성격을 벗어난 유배생활을 통하여 濟州島의 風土 및 유배에 직면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수필적 성격의 문장이라는 점에서 그 특성이 있다.

東洋에 있어서 風土記 또는 風土錄이란 명칭은 中國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지방의 사정을 기술한 文書를 뜻한다. 古代에는 『晉書』周處傳·『隋書』經籍志·『文選』李善注에 周處撰의 風土記란 書名이 있다.

中國이나 日本에서도 風土記라 이름한 文書는 許多했지만, 日本에 있어서 上代 文化史에서 다루는 風土記는 日本의 上代에 있어서 官命에 의해 撰進되어진 風土記를 뜻한다.²¹¹⁾ 원래 風土記 또는 風土錄에는 체계적인 神話·傳說 등과는 달리 소박하게 한 지방에 전해진 傳承記事·口承文藝 또는 한 지방의 遊覽 및 그 感興 등이 風土記 또는 風土錄의 文

210) 日本平凡社刊『世界大百科事典(24)』(東京:平凡社, 1950) p.421

211) 大久保正『上代日本文學概説』(東京:秀英出版社 昭和51年) p.133

藝로서 중요한 主題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한편 상부의 地誌 편찬이라는 律令, 政治의 性格에서 나온 지방을 지배 또는 장악을 보다 강화하려는 官의 의도에 따라 저술되는 경우가 있다.²¹²⁾

그런데 冲庵의 「濟州風土錄」 葵窓의 「濟州風土記」 등이 지방의 사정을 기술한 점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風土記와 공통이 있으나 그것이 개인의 처지에서 쓰여졌다는 점에서, 官命에 의해 撰進되어진 日本의 上代 風土記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冲庵 金淨은 中宗 때 趙光祖와 더불어 至治主議·道學政治²¹³⁾의 행동과 士類로 미신타파·향약의 전국적 시행등 업적을 남겼다. 中宗 14年(1519) 己卯 士禍 때 洪景舟·南袞·沈貞 등의 모략으로 趙光祖 등 18인과 함께 禍를 입었다가 中宗 15年(1520) 8월에 遠惡地 島配로 濟州島에 安置되었다. 그는 濟州城 등문밖 金剛寺 옛 절터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濟州風土錄」을 저술하였다.

冲庵의 「濟州風土錄」은 中宗 15年(1520) 8월에 유배되어 東王 16年(1521) 10월 賜死될 때까지 유배생활 동안에 쓴 濟州島의 地域 風土誌로 최초의 것이다. 이것에는 濟州島 地域의 風土 및 文化一般에 관하여 기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濟州島의 특수한 기후 조건과 그것에 따른 家屋構造·風俗, 특히 蛇神과 巫堂의 피해·官員의 橫暴·토지경작의 양상과 濟州島의 동물과 鳥類, 土産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자신의 流配生活의 精神的 狀況을 수록하였다. 著述年代는 1520-1521年間으로 16세기 초엽이 되며, 이것은 1500년대의 濟州島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하겠다. 아울러 冲庵의 「濟州風土錄(1521)」은 1600년대의 李健의 「濟州風土記」와 그 接脈關係가 있음과 風土誌系의 漢文隨筆의 系譜를 明示해 준다 할 것이다. 이 「濟州風土錄」은 대체로 第15段落으로 分析考察해 볼 수 있다. 第1段은 濟州島의 특수한 氣候를 설명해 주고 있다.

氣候 冬或溫 夏或涼 變錯無恒 風氣似暄 而着人甚尖利 人衣食難節故 易於生疾 加以雲霧恒陰 翳少開霽盲風怪雨 發作無時 蒸濕沸鬱 < 金淨 「濟州風土錄」 >

海洋性 氣候인 濟州島의 기후를 적절하게 描寫한 대목이다. 濟州島는 우리 나라 最南端에 위치하여 있고, 近海로 暖流인 大韓 海流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제일 따뜻하고 海洋性 氣候가 뚜렷한 곳이다.

8월의 平均 氣溫은 26℃로 本土와 大差없이, 여름이 더울 것 같으나 바람으로 말미암아 시원하며 本土처럼 무덥지 않다.²¹⁴⁾ 그러면서도 대체로 여름철 기후는 “蒸鬱濕熱(葵窓의 「濟州風土記」)” 하거나 “蒸濕沸鬱(冲庵의 「濟州風土錄」)” 하다고 했고, 겨울

大久保正 『前掲書』 pp.146-148 參照

金炯孝 「靜庵思想의 哲學的 研究」 및 琴章泰 「趙靜庵과 朝鮮의 선비精神」 『韓國學報』(10)서울: 一志社, 1978. 參照

214)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編, 總論 p.14

기후는 “冬不甚寒（葵窓의 「濟州風土記」）” 하거나 “冬或溫（冲庵의 「濟州風土錄」）” 하다고 지적하였다.

第2段은 濟州島의 固有家屋인 초가집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人居皆 茅茨 不編鋪積屋上 而以長木橫結壓之 瓦屋絕少 如兩縣官舍 亦茅蓋也 村屋之制 深廣幽深 各梗榘 不相連屬 號士官人外 無溫 埃堀地爲坎墳之以石 其上以土泥之如坎狀既乾寢處其上。
〈前掲「濟州風土錄」〉

1500년대만 해도 環海天險의 섬인 濟州島의 초가집은 오늘의 초가집처럼 그 지붕이 바둑판 모양 줄로 매어진게 아니라 띠를 지붕에 나란히 펴서 쌓고 긴 나무로 가로 눌러 맺은 것이니, 이것이 濟州島 초가지붕이 原形이었음을 推論할 수 있다. 濟州島의 固有家屋은 점차 변모해 가고 있다.²¹⁵⁾

특히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돌로 메워 그 위에 흙으로 발라서 온돌 모양 같이 하고 말린 후에 그 위에서 잤다는 점에서 濟州島 방 구조의 일면을 이해케 한다. 이런 방 구조는 濟州島의 기후와도 연관이 있다고²¹⁶⁾ 본 견해는 타당하다 하겠다.

第3段은 濟州島의 巫堂의 폐단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

酷崇祠鬼 男巫甚多 嚇人災禍 取財如土 名日朔望七七日（初七，十七，二十七）必殺牲爲淫祠 淫祠幾至三百餘所 歲增月加妖訛屢騰 人疾病甚畏服藥 謂爲鬼怒至死不悟。〈前掲「濟州風土錄」〉

俗尙淫祠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 가지 迷信이 橫行하였음을 지적하였는데, 濟州島 巫俗에 따르면 “할망”²¹⁷⁾ 이 많아서 심방은 男巫보다 女巫가 많음이 支配的인데도 1500년대에 “男巫甚多”했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그리고 巫堂의 폐단과 神祠가 百餘所에 이르렀다는 것은 至治主義를 구현하려고 했고, 迷信打破에 앞장선 冲庵으로선 당연한 批評이었다 하겠으나, 반면에 濟州島에는 堂 5百, 절 5百이 있다는 俗言처럼 島內 이르는 곳마다에 神堂이 많이 散在했었다는 例證이 된다.

第4段은 濟州島의 土俗의 信仰인 蛇神에 대해 설명하였다.

俗甚忌蛇 奉以爲神 見卽呪酒 不敢驅殺 吾則遠見必殺土人始而大駭 久而慣見 以爲彼異土人 能如是耳 終 不悟蛇之當殺 惑甚可笑。〈前掲「濟州風土錄」〉

215) 1976년 9월 濟州道에서는 1930년대를 설정하여 당시의 村落構造와 慣習, 그리고 傳統의 生活樣式 및 民俗村風景이 保存되고 있는 民家群으로 北濟州郡 翰林邑 明月里와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등을 民俗村으로 指定 對象했는데, 76년도 草家保存狀態 (金榮敦 「民俗村 指定 保存에 따른 指定對象 村落概要 및 保存方案」1976)를 보면 前者에는 草家 50동, 스테트 17동 기와집 3동, 後者에는 草家 50동, 스테트 2동·합석 1동으로 나타났는데 78년 8월 筆者가 상위 調査書를 근거로 하여 再調査한 결과 前者의 경우는 초가 64동이 개량되어 스테트 집이 81동 초가가 36동으로서 불과 1년 7개월 사이에 엄청난 변모를 하였음을 알았고 後者의 경우 초가가 2동이 헐리었을 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216) 金淨 「濟州風土錄」 “吾意地多風濕 喘欬惡疾之類 多緣此也”

217) 張壽根 「韓國의 鄉土信仰」 (서울: 乙酉文化社, 1975) pp. 72-73에 백주 할망은 濟州島 堂神의 祖宗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으로 1500 년대의 濟州島의 風俗의 일면을 여실히 反映해 주었다. 1600 년대의 葵窓의 「濟州風土記」에도 “島人則 勿論蟒蛇見之 輒謂之府君神靈 必以精米淨水洒 而祈之 切不殺害”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濟州島에서는 本土와는 달리 蛇神을 믿었다²¹⁸⁾ 는 그 根據가 16~17 세기 경의 風土記에 반영되어 있어서 이것은 濟州島 特有的 土俗信仰을 考察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겠다.²¹⁹⁾

第5段은 濟州島의 言語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으로 國語學 研究에 補助가 될 것이다.

土人語音 細高如針刺 且多不可曉 居之既久 自能通之 古云兒童解蠻語者此也. 〈前揭書〉

濟州島 方言은 國語學 研究에 절대적인 價値가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濟州島 方言은 그 方言的 差異가 尤甚하여 本土人들은 듣고서 쉽사리 解得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는 그만큼 濟州島 方言이 特性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이 가늘고 마치 침으로 찌르는 것 같다”는 것은 音聲學的인 견지에서 볼 수 있는 濟州島 方言의 특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흥미있는 대목인 성싶다.

第6段은 濟州島 風俗의 갖가지와 島民의 未開相 및 官員들의 橫暴를 설명하여 주고 있다.

負而不戴 有曰無脊 搗衣無砧 以手鼓打 冶鑪無踏踏. 〈前揭書〉

濟州島民들은 “風多”라는 조건 때문인지 알 수 없어도 本土처럼 물건을 머리 위에 이 지 않고 등에 지고 운반한다. 이것은 濟州島民과 本土人과의 활동상의 差異이기도 하다.²²⁰⁾

그런데 1500년대의 冲庵의 風土錄엔 濟州島에 방아가 없다고 했는데, 1600 년대의 葵窓의 風土記엔 방아가 있었던 것으로 記錄²²¹⁾ 되어 있음을 본다. 그렇다면 濟州島의 民具인 방아가 생긴 것은 1500년대 후반기~1600년대 전반기였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한편, 島民의 未開相과 官員의 橫暴의 일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土人生員金良弼外 識文者絕少 人心 鹵莽 自品官下至微者 皆結交朝貴 (無人無傾佛者) 其豪右求爲鎮撫 (土人自星主以來遺風已然不足怪也) 次者旅師. 次者書員 此以下非品官 持印貢生 皆平民等鄉吏 日各以漁利爲事 毫縷細故 皆有賄賂 不知廉義爲何事 以強制弱 以暴恣幼仁 不下 君示. 以故 官員貪如陸闕 不以爲怪. 有廉義者嗔恨 懷其惠 而此輩笑其迂 若不教以學文 以開其心則永無移風之期 蓋其心深喻於利 不知其他 有云廉善則 以爲不利而深厭之矣. 若有高僧 辨口抗以天堂地獄 似亦不爲無助而土之僧徒 皆畜妻村居 頑如木石 若如巫鬼者 嚇人餅酒 亦利之歸耳. 〈前揭書〉

218) 「上揭書」“但 蛇多陸土 而已意 亦土人崇奉之過耳”. 뱀을 지나치게 숭배하여 받들었기에 번성하게 되어서인지 濟州島 民謠에도 “큰칼갈라 작은칼갈라 뒷집하르방 칼갈앙암져” (北濟州郡 翰京面 高山里)라는 童謠가 있을 정도다..

219) 蛇神: 이 神은 蛇神 ‘칠성’과 달리 南濟州郡 表善面 鬼山里에서 發源되었다고 神話되는 堂神으로 全島의 蛇神이다. ‘칠성’은 蛇神이면서 富를 가져다 주는 神이니 이 神은 致祭를 잘 받으면 福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疾病을 주고 괴롭힌다고 믿고 있다. 이 蛇神을 모신 堂을 여드랫당 (八日堂)이라 한다.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編, 巫俗 p.102)

220) 李健 「濟州風土記」는 “島中女人汲水者 不戴於頭而負於背”라고 하여 金淨보다 濟州島女人들의 짐 운반상황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221) 「上揭書」“女人有砧杵之役 群聚並力 齊發杵歌 數斛之穀 頃刻舂之 而歌聲悲涼 不可聞也”

1500년대의 濟州島의 사회상은 “識文者絶少”했고, 賣官하러 드는 자들이 뇌물을 주고받는 “不知廉義爲何事 以強制弱 以暴却仁”했던 이른바 “聖恩이 고루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冲庵은 이 지역의 興學教化에 힘썼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그리고 “無人無傾佛者”란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의 상황이 男巫甚多”했다는 巫俗과 佛敎가 混合된 상태였기에 이렇게 佛道에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冲庵 자신이 관찰한 것으로 봐 진다. 僧徒들이 帶妻했었다는 대목은 바로 그러한 상황의 예증으로 해석 할 수 있다.²²²⁾ 金良弼은 冲庵의 流配生活 동안 冲庵에게서 배운 現地 學人이다. 第7 단은 濟州島의 地形 및 地質과 流配의 狀況에 직면한 精神的 狀況을 서술하고 있다.

然若登漢拏絕頂 四顧滄溟俯觀南極老人(老人星大如明星 在天南極之軸 不出地上 若現則仁壽之祥 唯登漢拏及中原南嶽則皆見此星) 指點月出无等諸山可盡奇胸 如太白所云 雲垂大鵬翻 波動巨鯨沒者 唯此可以當之 惜吾羈囚勢不能耳 然男兒落地 橫截巨溟 足踏此異區 見此異俗 亦世間奇壯事 盖有欲來不得 欲止不免者似 亦冥數前定 何足與焉。
 <前掲書>

冲庵은 大海를 건너 색다른 지역을 밟고 異香질은 風俗을 실제로 보게 된 것을 장쾌하다고 표백하였으나 絶海孤島에 일부러 오려 해도 오지 못하는 수도 있고, 오지 않으려 해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운명이란 미리 정해져 있는 듯하다고 유배된 자신을 자탄하였다. 冲庵은 流配의 狀況에 直面한 精神的 狀況을 다음의 五言詩로 述懷²²³⁾ 하고 있다.

遣	懷
海國恒陰翳	荒村盡日風
知春花自發	入野月臨空
鄉思千山外	殘生絶島中
蒼天應有定	何用哭途窮

한편, 流刑囚로 어찌 漢拏山의 정상에 올라가 볼 수 있겠는가하는 한 대목이 보이는데, 실제로 백록담 동쪽 벽 높이 4~5m, 길이 20m 정도의 병풍형 바위 한 구석에 冲庵의 磨崖銘이 刻名되어 있는 것을 볼 때, 冲庵의 漢拏山에의 志向을 읽을 수 있다.²²⁴⁾ 요컨대, 第7段의 후반은 流配의 狀況에 直面한 作家의 精神的 狀況을 表白하였는데 逸品이라 아니할 수 없다.

第8段은 濟州島의 물 사정을 說明하고 있다.

漢拏及州邑地 泉井絶少 村民或汲水於五里 則謂之近水 或有終日一汲二汲 而多鹹泉 汲必以木桶負行 凡什物多女負行 取多汲也. <前掲書>

222) 玄 容駿님도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濟州道編·佛敎民俗 p.160에서 “濟州島의 佛敎는 李朝時代까지 巫俗과 分別의 不分明한 상태로 土俗性을 띠고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223) 『冲庵先生集』卷3. 『海島錄』

濟州島의 給水 事情은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까지 “물허벅”이란 것으로 아낙네가 등에 지고 물을 길었는데, 1500 년대에 “汲必以木桶 如蜂桶之狀 汲水負行” (葵窓「濟州風土記」) 했다는 점에서 이 “물허벅”이란 民具가 오래된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다.

第9段은 濟州島의 土產物·動物·鳥類·山蔬·魚類·砂器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중 土產物은 매우 적고 砂器, 陶器·鍮器 등은 전혀 나지 않으며, 짐승은 노루·사슴·돼지·오소리 등이 많고, 여우·토끼·호랑이·곰 등은 전혀 없다고 하였다. 鳥類는 꿩·까마귀·솔개·참새 등이 있고, 황새·까치 등이 없으며, 산나물은 멀·고사리 등이 많고 취(香蔬), 출(朮), 인삼·당귀·질경 등은 도무지 없다고 하였다. 海菜는 미역·우무청각 이외에는 해태·감태·황각 등은 없고, 민물고기는 銀口 종류가 있을 뿐, 바다고기로는 전복, 오징어, 옥도미, 갈치, 고등어 등 數種이 있고, 이밖에는 낙지·굴·조개·새우·청어·참조기·은어 등과 여러 천한 잡종은 모두 없다고 하였다.

第10段은 濟州島에 있어서 淸酒와 食鹽이 어렵고, 쇠고기 맛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而稻絶少 土豪買陸地而食 力不足者 食田穀 所以淸酒絶貴 多夏勿論用燒酒. 牛畜則多有價不過三四丁 而味不及陸地者 皆山野不食穀物故也. 最可笑者 地環巨海 而鹽不產 (欲煮田鹽 如西海則無鹽可耕 以取汲 欲煮鹽如東海南則水淡 功百倍而所得絶少) 必買於珍島海南等處 故民間極貴. <前掲書>

濟州島에는 亂石이 많으며 본시 논은 없고, 다만 밭에서는 보리·팥·조가 생산된다.²²⁵⁾ 淸酒대신 燒酒를 제조하여 썼다는 사실은 바로 濟州島의 地殼이 火山灰土로 덮였으므로 農土는 메마를 수 밖에 없고, 논밭이 거의 없으므로 米穀 生産이 적어 代用한 것이다. 최근까지도 切甘을 酒精原料로 사용하여 燒酒를 제조한 바가 있다. 이렇게 米穀이 어려우므로 좁쌀로 淸酒를 제조하여 마시는데, 지금도 三姓穴의 春祭(4월10일)·秋祭(10월10일)·穴祭(12월10일)때, 좁쌀로 된 淸酒를 祭酒로 쓰고 파제 끝에 마시는 慣例가 있다. 쇠고기 맛이 本土의 것 보다 맛이 없다는 1500년대의 지적은 지금도 支配的 衆論인 것 같다. 牧草가 不良한 데서 그럴 것이라는 연구보고가 있다.

第11段은 濟州島의 여러가지 特產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惟土產香蕈(俗名藁古)最多 而五味子亦多 而實深黑而大 如濃熟山 葡萄不可辨 味又濃甘 考本草 產朝鮮者良 又云 味甘者爲上 吾知我國產者 實紫少味多酸 猶見重於本草意 此土產者 必高於天下无疑矣. 前此人皆不知 但充杯盤之用 吾始乾之 滋潤異常. 今年則邑宰及吾皆多取 作乾矣 意欲雖少送去令君知之也 時未畢乾也. <前掲書>

224) 金淨의 「淨」字가 刻名되어 거의 磨滅되어 희미해졌지만 아직도 알아 볼 수 있을 정도이다. (확인 년월일, 1979년 8월 22일)

225) 李元鎮 「耽羅志」 風俗條 “聚石築垣：東文鑑 地多亂石 素無水田 唯麩麥豆粟 生之厥田”

비록 작은 뜻이나마 “五味子”를 조금 보내어 임으로 하여금 알게끔 하고 싶다는 冲庵의 바람 속에 그의 임에게의 丹心과 衷情을 읽을 수가 있다. 그 밖에 표고도 特産物로서 많고, 山果에 멧(末應)이 있으며, 濟州島에 보배로운 것은 橘類·치자·비자·무환자·선유자·三年木·無灰木·鸚鵡·소라·야자·加時栗·亦栗·良馬 등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第12段은 1500년대 濟州島에서 생산된 橘²²⁶⁾ 9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橘 종류에는 金橘·乳柑·洞庭橘·青橘·山橘·柑子·柚子·唐柚子·倭橘²²⁷⁾ 등의 9 종류가 있다고 하여 그 특성을 마치 柑橘事典을 펼치듯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²²⁸⁾

第13段은 冲庵이 圍籬安置된 곳과 流配的 狀況에 직면한 精神的 狀況을 서술하고 있다.

在州城東門外半里 金剛社舊寺基 無四隣 地頗幽僻立草屋數楹制依北土 頗明敞內 有少溫房一房 外有末樓²²⁹⁾ 軒簷下有老柿樹一株 厚葉成陰常坐此軒 而此樹近可捫也 屋圍而石牆以醜石累積高丈餘 上施鹿角木牆去簷僅半丈高 而圍狹奉國法也 然石牆高狹 土俗皆然 以防盲風襲雪 況吾居既孤寇盜亦可慮 使吾自計不得不爾 但稍寬則有矣 牆既礙眼無好狀雖栽植似亦無趣 且吾時日不能 自保無久遠心 不暇以植栽、〈前揭書〉

윗 대목에서 冲庵이 濟州城東門 金剛社 옛 절터에 있는 초라한 巨老里廬幕에 安置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圍籬安置의 장소가 寫實的으로 잘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雖栽植似亦無趣 且吾時日不能自保無久遠心 不暇以植栽”이란 대목에서 流配的 狀況에 직면한 作家的 精神的 狀況의 一端을 엿볼 수 있다. 한편, “屋圍而牆以石素積高丈餘”란 대목이 있는데, 이 濟州島의 風土的 狀況이 바람과 돌이 많아 防風을 위해 石牆을 하게 되었을 터인데, 이는 聚石築垣²²⁹⁾ 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500년대에 있어서 石牆을 했다는 점은 濟州島의 家屋構造 및 울타리를 이해하는데 좋은 資料가 된다.

第14段은 冲庵의 謫居地의 주변사정을 서술하였다.

然地勢高遠 則北望滄海(海去亭一里許) 椒子諸島歷歷眼底 稍遠則西望 城中村烟官柳 及城南果園 (在內城之南外城之內 前泉之源乃官植橘柚之園 外城爲泉重窠里餘 使泉在城內此園 去吾亭半里呼聲不遠) …限以石牆 然有小竹逕可適時 得逍遙其下 玉葉金實 青黃橘爛劈之香 ．〈前揭書〉

謫居地 주변의 사정이 잘 그려져 있다. “限以石牆 然有小竹逕可適時 得逍遙其下 玉葉金實 青黃橘爛劈之香 ”한 가운데 冲庵은 유배생활을 보낸 것이다. 이어

惡地斯享有少賴焉 又吾居幸近泉發源 城南果園之東隅源發即大 可如福泉洞水 流出東城底 以資吾汲用 汲處僅四十步許 冷冽如水 地本無水賴此泉滌 又州夏日水內于此 但下流汚不可弄翫〈前揭書〉

226) 濟州島의 柑橘은 進上用으로 生産되었다. 柑橘進에 대한 가장 오랜 記錄은 『高麗史』에 “三司奇耽羅國歲貢橘子 改定一百包子 永爲定制從之”(世家 卷7, 文宗6年3月, 壬申條)란 것이 있다.

227) 李崇寧님도 「濟州島柑橘考」18집.(『學術院論文集1979 pp 35-67) 에 글을 日本橘로 보고 있다.

228) 趙貞喆 『靜軒瀛海處欽錄』卷3에서 보면 「橘柚品題」에서 ①乳柑 ②別橘 ③大橘 ④唐金橘 ⑤用 洞庭橘 ⑥小橘 ⑦唐柚子 ⑧柑子 ⑨金橘 ⑩柚子 ⑪山橘 ⑫青橘 ⑬枳橘 ⑭橙子橘 ⑮石金橘 등 15종의 橘을 소재로 하여 시를 지은 것을 볼 수 있다.

229) 李元鎮 「前揭書」 「聚石築垣：古無彌畔 强暴之家日以蠶食百姓苦之 金坵 爲判官 聞民疾苦 聚石築垣爲界民多便之)

그가 謫居地 주변에서 샘물이 나기에 우물을 만들어 위생적인 물을 마시게 하여 지금도 시범의 우물인 ‘判書井’이 남아 있다 함은 위의 대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는 유배생활 중이면서도 島民들의 興學教化에 힘썼던 것이다.

第 15 段은 結尾로서 流配의 狀況에 직면한 작가의 精神的 苦惱를 그려주었다.

海釣則又風浪淘蹙 絕少安帖之日 尤無淡雅之味且所偕非士人 卽方生 生名舜賢判官之妻甥 學儒於吾輩事頗聞風指意 足多符可談話 而染俗之 雅於江湖無入處 然海外遇斯人豈非幸甚哉 豈足發吾興 既無意中人可共如君所言 略無心悅 且國法可畏故 其出甚稀一朔不過一或二 或踰朔不出梨亭 亦不甚數出 橘園尤稀性踽々獨步 祇增索寞耳 骨肉隔絕 親知悠緬 昔時遊從 凋喪已多 天外孤身 幾嘗世故 尋常處心 固未嘗不怡 然順理而忽念到 亦未嘗不悵然以感也。 <前掲「濟州風土錄」>

現實을 逃避하고 自然에 沒入하려 江湖主人이 되어 消日하려 하는 作家의 一面과 骨肉과 骨肉이 멀리 隔離되고 親知의 소식도 아득한데, 외로운 流刑囚로서 세방변고를 그 얼마나 더 겪을지 모르는, 流配의 狀況에 直面한 作家의 精神的 苦惱를 表白하고 있다.

2) 李健의 濟州風土記

李健은 光海君 6년에서 顯宗 3년에서 仁祖 19년(1614 - 1662)까지 在世한 王族이다. 그의 字는 子強이며, 號는 葵窓이고 또한 宣祖의 第 7男인 仁城君의 세째 아들이다. 仁祖 6년(1628) 正月에 柳孝立등의 光海君 復位 謀議에 仁城君이 가담하였다 하여 仁城君은 爵位를 삭탈당하고 全羅道 珍島에 유배되었다가 濟州島로 移配, 同王 5월에 41歲의 나이로 賜死되었다.

仁城君의 죄에 연좌되어 그의 妻子를 비롯한 한 가족들이 濟州島로 유배당하였는데 가족으로는 夫人 尹氏와 아들 3형제·딸 하나이었다. 葵窓은 그중 막내로서 그때 불과 15歲이었다. 그는 8歲 때 이미 「小學」과 「大學」을 읽었고, 형제들 중에서 詩·書畫등에 뛰어나 三絶이라 일컬어졌다. 평소에 그림에 있어서는 松竹과 翎毛에 능했으며 杜甫의 詩를 즐겼다. 葵窓은 8년간이나 濟州島에서 流配生活을 하였는데 父親 仁城君이 賜死되어 귀양살이 가운데 喪祭를 儀禮대로 치루었다. 이것을 본 濟州島民들은 감탄했다고 한다. 仁祖 13년(1635) 鄭蘊의 상소에 의하여 仁城君이 무죄로 伸寃됨에 그 가족들도 8년간의 流配生活에서 放釋되었다. 孝宗(1657) 때 葵窓은 海原君에 봉해졌다. 諡號는 忠節이다.²³⁰⁾

이 「濟州風土記」는 葵窓의 「葵窓集」 卷 5에 수록돼 있는 것으로 그 內容은 濟州島의 地理的 位置, 島內 風俗의 하나인 甁信仰·濟州島의 氣候와 官의 橫暴·牧畜 狀況과 牧子의 고통, 농사의 耕作狀況, 濟州島 女人의 風俗·濟州產 橘 종류에 대한 설명·潛女의 風

230) 李家源 『李朝名人列傳』 (서울; 乙酉文化社, 1965.p.746, 『仁祖實錄』 卷 28 11年 癸酉 7月 “下教曰 仁城一家 上來時令所經名邑給馬供饋聞感歎”

俗과 官員들의 橫暴·神堂과 神祠·濟州島의 動植物·三姓穴의 神話·金萬鎰의 屯馬와 官員들의 橫暴·流配生活에서 겪은 作家 자신의 精神的 狀況 등등을 그내용으로 하고 있다.

葵窓의 「濟州風土記」의 內容은 대체로 15 文段으로 區分하여 考察해 볼 수 있다.

第1段은 序頭로서 濟州島의 地理的 位置와 潮流를 이용한 濟州島 往來의 狀況을 그려 주고 있다.

耽羅一島 正在湖南之東 嶺南之南 隔海數千里. 南與日本 琉球同其海. 其入也必以西北風 其出也必東南風. 若得順風 一片孤帆 朝發夕渡 不得順風 雖有鷹鷂之翼 星霜之變 無以可渡 而海波東南低 西北高 入去時則勢如順流 而下舟行頗易 出來時則勢若逆流 而上舟行甚難 故出來之難 有俗於入去時云
〈李健 「濟州風土記」〉

제주도 부근은 언제나 風勢가 심하고, 風候不順한 날이 잦아 파도가 험악하여 舟行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난과 표류도 예사다²³¹⁾ 그리고 濟州島는 四面이 바다로 둘러싸인 環海天險의 섬으로 입지적 자연적 조건이 불리하다. 그 뿐만 아니라 無依海中으로 흘러 파도를 따라 濟州로 입도한다는 것은 平常人의 濟州島 往來도 至難한 일이거늘 유배자들의 濟州島行은 생사간의 문제였을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世宗 26년(1444)에서 宣祖 9년(1576)에 23 회 270여명의 濟州島民들이 표류한 사실들과 禾北浦口에 있는 海神祠는 海路의 험난함을 말해주고 있는 遺跡으로 그만큼 流配海路는 死生間의 문제였었다.

第2段은 濟州島內 到處에 散在한 뱀에 대한 두려움과 濟州島 風俗의 하나인 뱀信仰의 一面을 그려 주었다.

島中 可畏者 無過於蟒蛇 無論冬夏 到處有之 至於夏日 草長瘴濕之時 閨房屋簷 床底 席下無不穿入 若是夜黑 睡牢之時則 雖欲謹避 勢不可得 此是第一可畏者也 島人則 勿論蟒蛇見之 輒謂之府君神靈必以精米淨水酒 而祈之切不殺害 若或殺之 其人必有殃 不旋踵死云
〈前揭書〉

이것으로 17世紀頃의 濟州島의 風俗의 一面을 如實히 反映해 주었다. 뱀 구령이를 府君神靈²³²⁾이라 하여 쌀과 정수를 뿌리면서 빌었다는 民間信仰은 濟州島 特有的 風俗이라 하겠다.

第3段은 濟州島의 氣候와 三庚의 무더위에도 民丁을 징발하여 漢拏山 山峰에가서 열음을 캐오게 한 官의 民弊를 그려 주었다.

島中 瘴氣蒸鬱 土地濕熱 多不甚寒 川澤不冰 不得藏冰 如蔓菁 靈草 葱蒜之屬 雖深冬 置之田中 朝夕採用 而至於漢拏山上峯則 三庚大熱亦有氷雪 每年夏月 發民丁輪日 上山取水 一日一負來 繼用於官家之供 其取水上山者 雖囊重裘 亦不勝其寒 可想其山之峻高而靈也
〈前揭書〉

231) 高柄翹 『成宗朝 崔溥의 漂流와 漂海錄』(『韓國의 선비 文化』 서울; 國際文化財團, 1982 p. 107 參照)

232) 金淨, 「濟州風土錄」 “俗甚忌蛇奉以爲神 見卽呪酒 不敢驅殺”

앞서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濟州島는 우리 나라 最南端에 위치하여 있고, 近海로 暖流인 大韓 海流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제일 따뜻하고, 海洋性 氣候가 뚜렷한 곳이다.

8월의 平均 氣溫은 26℃로 本土와 大差 없애, 여름이 더울것 같으나 바람으로 인해서 시원하며 本土처럼 무덥지 않다. 그러면서 여름철 氣候는 찌는듯 덥고 가슴이 답답하고 토지는 습열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第4段은 牧畜狀況과 牧子의 어려움을 그려 주었다.

島中國馬 發牧於諸處 而兩縣亦然 馬屯甚多以天地玄黃 排字屯名 一屯之馬 少不下百餘匹 而牧子之數 多不過二三人 所謂牧子者 卽授馬而爲之牧之者也 夏秋 草長之時則 馬無殞斃之患 而如隆冬 春初草枯之時則 馬之飢餓而死者 不可勝紀
 <前揭書>

朝鮮時代に 養馬 牧畜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理由가 있다. ① 戰馬로 國土防衛에 使用, ② 農業耕作 手段으로 使用 ③ 交通手段인 驛馬로서 使用, ④ 私的 交通手段(乘馬)으로 使用, ⑤ 馬肉이 食用으로서 使用, ⑥ 祭祀用으로 使用, ⑦ 馬皮, 馬骨의 使用, ⑧ 馬毛의 利用, ⑨ 狩獵用으로 使用, ⑩ 擊毬用으로 使用, ⑪ 禮物로서 使用, ⑫ 賞賜用으로 使用, ⑬ 貿易用으로 使用, ⑭ 外交贈與物로서 使用²³³⁾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濟州島에 있어서 養馬牧畜은 ②, ⑤의 理由가 支配的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곧, 濟州島는 땅이 물러 種子를 뿌린 후, 馬匹을 사용하여 우선 땅을 단단히 밟은 뒤 肥料를 가하여 농사를 하였고,²³⁴⁾ 國王이 馬肉을 食用으로 하고 있었고,²³⁵⁾ 이러한 乾馬肉이 서울까지 보내져 兩班 支配者들에게 提供되어 濟州島民이 馬匹 喂養이란 부담 외에 乾馬肉 進上이란 責任을 다하기 위해 馬匹을 屠殺하는 풍조가 성하자, 馬匹數의 감소를 염려해서 몇 번이고 禁令이 示達되었다.²³⁶⁾

한편, 牧馬가 致死할 경우, 馬籍에 기재된 가죽과 대조하여 毛色이 相符하여야 가죽을 봉납케 되나, 失馬한 것이 載籍한 것과 맞추어 보아 착오가 있거나 하면 그 말을 牧子에게 徵하게 된다. 대체로 牧子는 極貧者인 만큼 변상할 말을 사는데는 힘이 부족하므로 農土와 農牛를 담매하고 또 부족하면 술과 농기구 등까지도 팔지 않을 수 없다. 이를 買納한 후에도 또 말이 죽을 때에는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徵馬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牧子의 役을 하는 것은 심히 고통스러운 일로서 한번만 이 役을 지냈다고 하면 敗家치 않은 자가 없고, 그 원통함을 부르짖는 愁歎의 形狀은 차마 볼 수 없다는 것

233) 南都泳 「朝鮮時代の 馬政研究」 『韓國學研究』 제 1집), 東國大韓國學研究所, 1976년, pp. 185-194 參照.

234) 『太宗實錄』 卷22 太宗 11年 7月 丙戌條 “濟州牧使金廷衡上 其土事宜上言……今觀土性虛淨 凡播穀者 必聚馬牛 以踏堅硬 然後播種 公私牛馬 因此困疲”

235) 『燕山君日記』 卷 48 燕山 9年 2月 乙巳條 “傳曰索白馬老無病者 送內需司 白馬肉能益陽”

236) 『太祖實錄』 卷 8 太祖 4年 7月 壬辰條 “禁濟州歲貢乾馬肉濟州俗每於臘月 殺牝馬作脯 都安撫使黃君瑞 回自濟州 白龍之”

이다. 이런 까닭에 填抗仆谷의 死者가 있게 되고 그 죽어가는 자는 그 徵馬에 견딜 수가 없으므로 牧子를 죽여 이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자도 간혹있게 마련이었다. 이처럼 牧子의 어려움은 대단한 것이었다.

第5-6段은 濟州島의 農耕狀況과 糧穀을 그려놓았는데, 여기서 濟州島가 本土와는 달리 不毛地이기에 이 地域에 알맞는 농사법을 행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島中土地 皆是砂磧 田畝甚瘠 黃豆如小豆之狀 而其色皆黑 小豆如菘豆之大 而其色皆白如黃豆 赤豆絕無焉 牟麥不實 如稗稗之狀 畚則元無故 島中所貴者最是大米也 自官家 年年買米 於兩湖之境 船運以來只用於官供 謫客放料 亦或以田米給之甚苦者此也大靜縣 間或有水田云 島中 饒富之人則 種山稻於田以代米用 而山稻所種之田則 經年糞田 再三翻耕然後 乃可播種 而鋤草之功 亦倍爲之甚苦
〈前掲書〉

濟州島의 地表는 물이 고이지 않고 논밭이 드물며 밭과논의 비율은 약 50대 1이기 때문에 자연히 쌀 생산보다 보리가 主穀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糞田之道로 보리를 경작하여 온 것이 濟州島의 보리 농사의 支配的인 방법이었다.

30餘年前만 해도 島內 到處에서는 牛馬의 糞을 받아서 재삼 翻耕한 후에 山稻를 파종한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濟州島 土地는 砂磧이므로 보리, 山稻외에 黃豆가 경작이 되었는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濟州風俗에는 男子15歲이상은 콩 15말을 세공으로 바치면 副使와 判官이 나누어 가졌다는 弊習이 있었는데 高宗 때에 와서 副使인 金之錫이 이를 폐지한 바가 있다.²³⁷⁾

第7段은 濟州島 女人의 風俗을 그려 주었다.

島中 女人之汲水者 不戴於頭 而負於背 作一長桶如蜂桶之狀 汲水負行 見之甚怪 不惟汲水 凡可以戴行之物 皆負而行如男丁之負柴 女人有砧杵之役 群聚並力 齊發杵歌 數斛之穀 頃刻舂之 而歌聲 悲涼不可聞也
〈前掲書〉

여기서 濟州島 女人과 本土 女人과의 生活相의 차이가 드러난다. 濟州島 여인은 風多라는 조건 때문인지 알 순 없어도 본토에서처럼 물건을 머리 위에 이지 않고 등에 지고 운반한다. 그리고 통나무를 파 桶을 만들어 지고 다니며 물을 길고 여항간에 물을 길고 나무하는 자는 모두 아낙네였다.²³⁸⁾ 그리고 방아를 저을때, 群聚하고 힘을 합하여 절구공이 노래를 제창하고 쪼었다. 濟州島民謠가 지배적으로 勞動謠가 많다는 것은 時空的 惡條件으로 말미암아 일해야 살지, 일 았다가는 죽는다는 哲理가 島民의 信念으로 굳어졌다는 사실이다.²³⁹⁾ 濟州島民謠의 형식이 4.5 調라는 律調가 주된 것은 3人 群聚 3拍子로 방아 쪼는 상태를 반영하게 된 일면도 있다 하겠다.

237) 前掲註 99 參照.

238) 前掲, 「南溟小乘」 “鑿全木爲桶 負而沒水 閭巷之間負薪水者皆婦人也”

239) 金榮教 「濟州島 民謠에 드러난 生活觀」 (『知愚邊時敏博士 回甲記念論文集』) 1978.p.15)

第 8 段은 濟州産 橘 종류와 橘 진헌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柑子種名甚多 有柑子 柚子 洞庭橘 金橘 唐金橘 黃橘 山橘 乳柑 唐柚子 青橘 不可盡知。本島城中兩處 有果園以種柑橘 發民爲直 名曰果園直 以爲進獻之用 閭家亦多有之 而秋成結子之初 自官家摘奸 等其顆數而成籍 待熟摘取 而進供其數 若縮則 徵於其主故 其主有同過客 不敢下手云
〈前揭書〉

世宗實錄 地理志에 살린 濟州牧의 土貢品만 보더라도 橘은 進獻된 사실이 있다. 島民들이 貢賦에 얼마나 시달렸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玳瑁·葉膏·牛毛·柑子·榧子·柚子·乳柑·洞庭橘·金橘·山橘·金鮑·槌鮑·鳥賊魚·玉頭魚·昆布·山柚子木·二年木·榧子木·良馬·藥材·陳皮·山藥·石薺·草薺·川練子·白芷·八角·零陵香·五倍子·梔子香·附子·木瓜·紫胡·青皮·白扁豆·草烏頭·海東皮·厚朴·烏魚骨·杜冲·蔓荊子·石決明·半夏·黃菊·鹿茸·舶上·茴香·枳殼”과 같은 것들을 貢賦하기위해 島民들은 宗主가 바뀔 때마다 시달려 왔으며 歲歲年年 다달이 부대겨 왔었다.²⁴⁰⁾

이렇게 柑橘進上의 歷史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음을 이해할 수 있다.

第 9 ~ 10 段은 海山物과 潛女의 風俗과 官員들의 갖가지 橫暴를 그려 주었다.

海産只有生鱧 鳥賊魚 粉薑 玉頭魚等數種 又有名不知數種外 更無他魚 其中 所賤者薑也 採薑之女 謂之潛女. 自二月以後至五月以前 入海採薑 其採薑之時則 所謂潛女 赤身露體 遍滿海汀 持鎌浮海 倒入海低 採薑曳出 男女相雜 不以爲恥 所見可駭 生鱧之捉亦如之
〈前揭書〉

濟州島의 海産物 소개에 이어 濟州 海女의 生態를 잘 묘사한 대목이라 하겠다. 곧 미역을 캐낼 때, 海女가 발가벗은 알몸으로 작업하여 미역을 끌어올리는데 男女가 相雜한다는 지적은 濟州島 海女의 生態의 일면을 反映한 것인데, 이 記錄에 앞서 女子는 치마도 입지 않고 다만 노를 꼬아 허리에 두르고 형질을 그 앞뒤에 달아 陰部를 가리었다.²⁴¹⁾ 는 林白湖의 지적도 엇볼 수가 있어, 이는 濟州島의 民俗資料로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하겠다.

이 地球上에 海女가 있는 곳은 韓國과 日本인데, 韓國 海女의 거의가 濟州島 海女이다.²⁴²⁾ 오늘날은 濟州 海女를 勤勞의 象徴으로 昇華시켜 보는 觀點이 있지만 17世紀頃만 해도, 그들은 전복을 잡아가다 官家 所徵의 役に 응하고 나머지를 팔아서 衣食을 해결해 왔다.

그러므로 그 生活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더구나 貪汚之心이 많은 不廉의 官員을 만나면, 교묘한 名目下에 徵色당하기를 수 없이 하므로 소위 海女들은 거지가 되어 빌어 먹으러 돌아 다닌다고 한다. 이어 官家의 橫暴는 海女에게 뿐만 아니라 銀口魚

240) 「世宗實錄 地理志」

241) 前揭, 「南溟小乘」* 無裙但用麻索腰以尺希縫於索之前後掩其陰而已*

242) 金榮敦 「前揭書」 p.17 參照

를 잘 낚는 銀魚장을 시켜 이를 잡아다가 전부 官家에 상납케 한 바도 있다.

第11段은 濟州島 風俗중의 神堂과 神祠에 대해서 그러 놓았다.

島中之人 事鬼神甚勤故 所謂神堂 處處有之 而南門外 有城隍堂在焉 一名廣壤堂 島人 凡有禍福 無不祈禱於此 頗有其靈云 又有神祠 在於南門外 叢薄之間 名曰閼氏堂 其神亦頗靈異 島人 必以每月朔望來祀於此 以占將來之吉凶 其人若無災厄 而神享其祀則別無所驗 其人若將有災厄 或不謹設祀 神不享之則有鼠數輩 大於鼠 而少於獾 其色甚黃 自巖石間出來見人不避盡取所祀酒果 而食之往來不已 所主巫人 知其有將來之災患 擲杯玆而言吉凶 累有其驗云 (前揭書)

濟州島에는 “堂5百, 절5백이 있다”는 俗言처럼 神堂이 島內 到處에 散在했었다. 그 중에 本鄉堂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마을 守護神을 뜻한다. 松堂 本鄉堂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松堂里에는 웃송당과 알송당의 두 마을이 있다. 웃송당에는 여기 송당의 주신 백주할망, 알송당에는 그 夫神 西路 西天國이 각각 座定해 있다. 한편 그 많은 아들들은 濟州島 전도내 각 마을에 유명한 큰당의 堂神들로 座定하고 있어서 이 백주할망은 濟州島 堂神의 祖宗으로 여겨지고 있다.²⁴³⁾

이 第11段의 대목은 濟州島의 民間信仰의 一面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第12段은 濟州島의 동·식물의 현황을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濟州島에 있는 동·식물은 소·말·麋鹿·닭·꿩·까마귀·제비등의 동물과 양하·죽순·마늘·고사리·향소·버섯·서진과·서과·순무 등의 식물이 있고, 곰·호랑이·승냥이·이리 등의 惡獸가 없고, 토끼·여우·까치 등의 동물은 없으며, 식물중엔 생강이 전혀 없다고 했다.

第13段은 耽羅開國 神話인 高·梁·夫 三姓神話を 설명하여 주었다.

耽羅 初無人畜 有神人自地中湧出者三 曰高乙那·良乙那·夫乙那 此三人者 漁獵至海 忽有神女三人 自海浮來 各娶其一女 仍產子女傳至於今 而其湧出之穴 在於南門外 三穴鼎對 尙未蔽塞 見之深可尺許 築牆成壇 自官家春秋祀之所見甚異 是以島人太半 是高梁夫三姓也 (前揭書)

三姓神話は 建國神話로서의 자격은 상실하고 始祖神話와 다름이 없다. 堂神 본풀이들은 이 三姓始祖神話의 모태이며 이미 『高麗史』에 文獻神話로서의 三姓神話を 산출해 놓고 있었다.²⁴⁴⁾

三姓神話は 본래 巫歌였던 것인데, 이 神話가 始祖神 崇拜面에 편중되자 儒敎的 祖上崇拜 道德의 영향을 받아 傳官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 祭儀도 儒式化한 것이며 한편 그 神話는 高·良·夫 3氏族의 세력에 힘입어 開國神話 始祖神話로 변모해 간 것이라고 보고 있다.²⁴⁵⁾

243) 張壽根 『韓國의 郷土信仰』 (서울; 乙酉文化 1975) pp. 72-73.

244) 『上揭書』 p. 82.

245) 玄容駿 「堂子の 儒式化와 三姓神話」 (『제주도』 14호 1964 pp. 132-133)

그렇다면 三姓神話는 언제부터 儒式化가 되었는가 “自官家春秋祀之”라는 대목을 보면, 당시에 벌써 三姓祠가 儒家式으로 祭祀가 거행되어졌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현재도 高粱·夫 三姓의 후손에 의해서 春祭(4월 10일) 秋祭(10월 10일) 穴祭(12월 10일) 등 년 3회 행하여지고 있다.

第14段은 金萬鎰의 屯馬에 관한 얘기를 기술하고 있다.

金萬鎰之馬多 至數千匹不可紀數 每新官之入去也 首徵遞任進上馬 於萬鎰三年喂養習才 而臨遞時 進獻萬鎰之馬雖多或乏 進上可合者則 自官家 囚家僅徵索如是而不得則 鞭扑隨之 以至於囚其妻杖其子 無所不至 若有貪汚之官則 憑藉進上徵之無數 悉爲私用馬之 稍駿者輒爲三邑 倅之所爭 奪未有所遺 萬鎰恐其絕種 擇駿馬可以取種者 或盲其目 或割其皮與耳 然後乃能保存 而取種 <前揭書>

金萬鎰이 駿馬를 種馬로 길러낸 숨은 얘기에 흥미가 있겠으나 탐관오리의 횡포가 여기에도 있었음을 생각해 한다.

第15段은 結尾로서 작자가 環海天險의 섬, 濟州島에서의 流配的 狀況에 직면한 精神的 苦惱를 언급하고 있다.

耽羅一島 遊在大海之中 瘴癘所鍾 海毒所蒸 無論冬夏 不風則必雨 不雨則必嵐 晴明之日極少 至於颶風 掀天之時 人多感傷 不堪其苦 而島人則 別無所傷 最苦者栗飯也 最長者蛇蝎也 最悲者波聲也 以至於 日下之消息 鄉關之音信 付之夢魂之外 無路可聞 疾病之來 只自束待死 無以施鍼藥之方 此實通國久罪地 人所不堪之處 國家所以放逐 有罪人於此地 深得其宜也

耽羅 通國之罪地 而流竄邦家之重典也 十年歲月之最久 而不佞人中之最弱也 以人中最弱之身 蒙流竄之重典 謫耽羅之罪地 經最久之歲月 而終免魚腹之葬 生還輦轂之下 重廁宗班之後 坐度太平之世 此無非聖朝生成之恩 祖先積善之慶 中夜言念感淚時零 凡我子孫體念于此 世世代代 益懋忠孝之節 是余所望也 <前揭書>

濟州島는 通國의 罪地요, 流刑은 국가의 重典이다. 여기서 10년에 가까운 8년의 流配生活을 직접 겪은 바 있는 王孫 李健으로서는 유배생활에서 放釋된다는 것은 실로 聖朝生成의 恩惠요, 祖上의 積善之慶이라 느껴 기쁨으로 中夜에도 홀로 減淚를 뿌렸을 것이다. 貴族·王孫으로서 流配的 狀況에 직면한 작자 자신의 직접 겪은 체험과 精神的 狀況을 비록 漢文형식을 빌었다고는 해도 절실히 작품화 한데 높이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이상 金淨의 「濟州風土錄」과 李健의 「濟州風土記」에 관하여 그 내용을 분석 고찰하여 봤다. 이것을 對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整理해 볼 수 있다.

風土錄과 風土記의 對比

事 項		濟 州 風 土 錄	濟 州 風 土 記
記 述 年 代		1521	1628 - 1635
流 配 期 間		14 個月	8 年
濟州島의 狀況 (A)	位 置		正在湖南東 嶺南之南 南與日本 琉球同其海
	氣 候 地 形 · 地 質 神 話 巫 俗 信 仰 家 屋 石 牆	(여름) 蒸濕沸騰 (겨울) 冬或溫 積石 山峯之頭必凹如鑊 男巫甚多 淫祠 奉以爲神 瓦屋絕少茅茨 屋圍而石牆以醜石素積高丈餘	(여름) 蒸鬱濕熱 (겨울) 冬不其寒 砂磧 三姓神話 神堂 神祠 廣壤堂 閻氏堂 府君神靈
濟州島의 狀況 (B)	言 語	語音細高如針刺	
	食 水 汲 水 往 來 農 事 法 精 米 機 具 海 女 米, 酒, 鹽 牧 畜	馘 泉 汲必以木桶負行 有白無春 田穀 麥 燒酒 食鹽(珍島 海南) 구매	汲水負行 入西北風 出東南風 翻耕然後播種 有 砧 杵 赤身採蠶男女相雜 田米 山稻粟 牧子之役 填抗仆谷의 死者 金萬鎰의 逸話
濟州島의 狀況 (C)	柑 橘	金橘·乳柑·洞庭橘·青橘·山橘·柑子·柚子·唐柚子·倭橘 9 種	柑子·柚子·洞庭橘·金橘·唐金橘·黃橘·青橘·山橘·乳柑·唐柚子 10 種
	海 產 物 動 物 類 鳥 植 物 土 產 物	전복·소라·오징어·황옥돔·갈치·고등어·미역·한천·청자 노루·사슴·산돼지·오소리·소 평·까마귀·솔개·참새·앵무새 좁쌀·고사리 표고·오미자·치자·멧·비자·무환자·선유자·三年木·無灰木·야자·加時栗 赤栗·良馬	진북·오징어·새끼미역(제주방언으로 미역새)·황옥돔·미역 소·말·고라니·사슴 까마귀·제비·평·닭 양하·죽순·마늘·참취·고사리순무 수박 버섯
民 弊		①皆有贈賂 ②以強制弱	①貪污 憑藉 進上徵之無數 ②進供其數 若縮 則徵於其主故
流 配 的 狀 況		① 盖有欲來不得 欲止 不免者似 亦冥數前定 ② 雖栽植似亦無趣且吾時日不能 自保 無久遠心 不暇以植栽 ③ 天外孤身 幾營世故	耽羅通國之罪也 而流竄邦家之重典也 十年歲月 之最久

공, 記述年代・流配期間・濟州島의 狀況 (A)・(B)・(C)와 民弊・작가가 직면한 流配의 狀況으로 분석・대비해 본 결과 26개 사항이 되는데 濟州島 狀況(A)에선 後者가 前者보다 濟州島의 위치와 신화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前者는 後者보다 濟州島의 家屋과 石牆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濟州島의 狀況 (A)에선 前者가 後者보다 言語와 食水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後者는 前者보다 濟州島와 本土와의 왕래와 海女와 牧畜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濟州島의 狀況 (C)에선 兩者가 柑橘・海産物・動物・鳥類・植物・土産物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다음 官이 濟州島民에게 끼치는 民弊는 兩者가 2 회씩 批評하고 있고, 작가가 직면한 流配의 狀況은 葵窓의 1회에 비해 冲庵의 경우가 3 회나 있어 그의 心的 苦惱의 深度를 헤아릴 수 있다.

이상의 두 風土記의 考察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冲庵의 「濟州風土錄」은 1500년대의 濟州島의 狀況과 風土를 기술한 漢文隨筆로 濟州島의 地域 風土誌로서는 최초의 것으로 그 가치가 지대한 것으로 믿어지며, 葵窓의 「濟州風土記」는 1600년대의 濟州島의 狀況과 風土를 기술한 漢文隨筆로 冲庵의 「濟州風土錄」에 발표된 당시의 민속과 風土를 대비하는데 兩者가 貴重한 자료가 되며, 이것은 유배에 관련한 漢文隨筆로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冲庵의 「濟州風土錄」은 葵窓의 「濟州風土記」와 그 접맥관계가 있음과 그 風土誌系에서 漢文隨筆의 系譜를 明示해 주고 있다고 믿어지며, 이 두 風土記는 地方의 사정을 기술한 점에서 中國과 日本의 風土記와 공통성이 있으나 그것이 기술가가 王孫이었거나 士大夫였거나간에 개인의 처지에서 쓰여졌다는 점에서 官命에 의해 撰進되어진 日本의 上代風土記와는 그 작가적 태도가 다르다고 하겠다.

한 地域의 風土는 그 지역의 사람과 風俗・生活・文化 등을 형성한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風土記는 流配가 계기가 되어 他關의 見聞을 보고 듣고 느낀대로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濟州島地域에 사람과 風俗・生活・文化 등을 그대로 반영하여 주었음은 물론 極惡한 死地에 유배된 정신적 苦惱도 표백하여 유배문학의 내용을 다양하게 하여 주었다는데 그 比重을 크게 두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2. 書 翰

濟州에 流配되어 서한을 남긴 것으로 憲宗때 秋史 金正喜의 書翰이 있는데, 한글서한은 9 통밖에 없고, 한문서한은 상당한 분량이 있는데, 본연구에서는 가족관계 만으로 국한하여 21 통만을 중심으로²⁴⁶⁾ 考察하기로 한다.

246) 『阮堂先生全集』 卷 2, 3, 4, 5 書牘에 수록되어 있는 漢文書翰을 보면 草衣(38 통)・權敦仁(35 통)・沈熙淳(27 통)・張寅植(20 통)・吳進士(9 통)・曹匡振(8 통)・李尙迪・興善大院君(各各 7 통)・南秉哲(5 통)・金錫準・吳慶錫・洪顯普・趙冕鎬(各各 4 통)・金黃山姜浩・金敬淵・金炳學(各各 4 통)・양대원(2 통) 그밖에 丁茶山・白坡 등을 비롯해 謫地에서 쓴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것만으로 국한한 것이다.

1) 金正喜의 한글書翰

秋史의 한글 書翰이 21통이 金一根님에 의해서 발굴되어 소개된 바가 있다.²⁴⁷⁾ 곧 1차에 10통과 2차에 11통 도합 21통이 되는데, 이 중 秋史가 유배지 大靜縣에서 夫人 禮安李氏에게 書狀한 것으로는 9 통이다.

1次發表를 A로 2次發表를 B로 設定하면 ²⁴⁸⁾ <A-6>, <A-7>, <A-8>, <A-9>, <A-10>信과 <B-18>, <B-19>, <B-20>, <B-21> 信으로 정리되는데 이것을 발신년기순으로 再構하며 바로잡으면 第1信 <B-18>, 第2信 <B-19>, 第3信<A-6>, 第4信<B-20>, 第5信<A-7>, 第6信<A-8>, 第7信<A-9>, 第8信<B-21>, 第9信<A-10> 등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9 통의 한글서한의 표기체는 原典대로 밝혔고, 띄어쓰기는 필자가 하였다.

서간이란 일상적으로 상호간에 音信을 통하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이런 상호간의 音信을 통하는 私文書에는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다. 書狀·書札·書翰·尺牘·尺素·手簡·消息·玉章·玉梓·書契·雁書·雁札²⁴⁹⁾ 書簡·書牘·書字·札翰·片楮·手札·信書·竿牘²⁵⁰⁾ 등이 그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書簡의 개념은 갑오경장 이전에 쓰여진 國文專用 및 漢字 混用の 書簡 一切를 지칭하는 것이며, 狹義的으로는 개인 및 集團間的 書簡이고, 廣義的으로는 公的 性格을 띤 傳教·懿旨·呈狀·所志·白活 등 古文書의 일부영역에서 속하는 것과 遺書 怨文까지 包括되는 것이라 규정한다.²⁵¹⁾ 요컨대 文學이란 작자와 독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 비록 독자가 특정한 것이 아니라도 문학의 내용이 작자의 호소인 만큼 독자라는 대상이 반드시 전제 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文學은 書翰文의 性格을 더욱 농후하게 띠는 것이며 따라서 文學 문장의 원형은 書翰文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간이 文學의 淵源 및 胎盤이며, 문학의 생성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당연한 귀결이다.²⁵²⁾ 서간이란, 직접 대화 형식으로 자기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하지 못하는 境遇에 쓰인다.²⁵³⁾ 곧 자신이 어떤 특정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직접 면대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 써서 보내는 것이다.

247) 金一根校注「秋史의 한글편지」(『文學思想』(76) 1979.1 pp.322-340)에 10통과 「秋史家의 한글편지들(下)」(『文學思想』(115), 1982.5. pp.363-382)에 11통 도합 21통이 발표되었다. 이 중 秋史가 유배지 大靜縣에서 夫人 禮安李氏에게 쓴 한글 書翰이 9통이 되는데 이것은 秋史가 유배되고 夫人이 他界하기까지 2년간 두달에 한 통씩 쓴 셈이다.

248) 1979년 1월에 발표된 것을 1次發表(A)로 1982년 5월에 발표된 것을 2次發表(B)로 設定하는데 이것은 大靜縣에서 쓴 流配生活 동안의 한글 書翰만을 대상으로 한 設定이다.

249) 平凡社刊『世界大百科事典(20)』東京;平凡社. 1963. p.118

250) 李御寧編『世界文章大百科事典(4)』서울;삼중당 1971. p.220

251) 金一根「詔簡의 綜合的 研究」『省谷論叢』(5집). 1974. p.9)

252) 『上揭書』 pp.12-13 參照

253) 白鐵外 1人『文章教室』(서울;日新社, 1961) p.241.

개인의 書翰은 때로는, 한 때 說教가 그러했던 것처럼 藝術의 한 형식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선 장르의 混淆에 반대하는 현대의 傾向에 應하여 美的 機能의 狹小化, 藝術의 순수성에 관한 특별한 강조, 19C 후반의 미학으로 해서 표명된 汎美主義(pan-aestheticism)와 그 주장에 반대한 반동등이 나타났다. 그러나 美的 機能의 優位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만을 文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지만 동시에 文體·構成과 같은 따위의 美的 要素가 科學論文·哲學論文·政治 pamphlet·설교와 같은 따위와 전혀 이와는 별종의 非美的 목적을 가진 작품들 중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²⁵⁴⁾

그러한 점에서 秋史의 한글書翰은 넓은 의미에서 文學性이 있는 작품으로 다루고자 한다. “家書抵萬金”이란 말이 있듯이 秋史는 유배생활을 소상하게 夫人에게 雁書를 썼고 家書가 올것을 기대했다. 여행 중에 집안 사람으로부터 서신을 받으면 그 기쁨이 만금을 얻는다고 한다면 사정을 떠난 유배지에서 집안 사람에게서 서신을 받는 기쁨이란 형용키 어려울 것이다.

즉금으로오니 이만스다 집사람이 평인들하고, 게셔도 더욱 몸을 도라보와 전보다 더 보전하야 이천리 대히박기 잇난 마음을 위로홀거시니, 미양 목전의 일만 싹각마오시고 날이 싹각하고 크게 마음을 먹어 아모쪼록 편안이 지내게 하옵.

秋史가 대정현 유배 중 부인에게 쓴 第1信²⁵⁵⁾의 한 대목이다. 부인 예안이씨의 병환을 걱정하였다. 2千里 大海밖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뜻에서도 크게 마음을 먹어 아무쪼록 편히 지내줄 것을 비는 秋史의 부인에 대한 至情이 절절하다.

나는 천니를 무스이오와 또 천니 대히을 거월 이십칠일의 하로 내의 슈이 건너오니 무비왕녕이 오나 선동사름 다 슈질하야 정신을 일허 종일들 굴며 지내오되 나혼자 슈질아니하고 선상의 동일 당풍하야 안저 의전이 밤도 잘 먹고 그전에 년하야 물마리를 먹고 오더니 선상의셔 되인밤을 평시와 갖치 먹스오니 그도 아니 고이하압.

大靜縣으로 유배되어 온 경로를 얘기했다. 그 유배 경로가 사실적으로 잘 표현되고 있다. 날씨가 風候不順하여 풍량이 험악하기 때문에 항해가 수일이 걸리는 데도 당하루에 무사히 濟州禾北鎮에 입도하여 도민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평상인의 濟州島 당래도 至難한 일이거늘 유배자들의 濟州島 舟行 입도는 생사간의 문제였을 것이다.

이 第1信은 年紀가 미상이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秋史가 尹尙度의 獄事再論으로 대정현에 유배당하게 된 것은 憲宗6년(1840) 9월 2일 이었는데 이 날, 王都를 떠나 海南으로 가서 동년 9월 27일 舟行으로 出發하여 당일 하루만에 濟州禾北鎮 別刀浦에 입도하였다는 내용이다.

254) R. Welbeck & A. Warren 『文學의 理論』白鐵, 金秉喆 共譯(서울; 新丘文化社, 1965)p.29

255) 前掲 註)248(B) pp.371~372

초일일 대정 비소의 오오니 집은 넉넉히 용친호을 만흔디을 어더 혼간 방의 마로 잇고 집이 정
호야 별노 도비홀것 업시 드러스오니 오히려 과호은 듯 호읍.

먹음셔도 아직은 가지고 온 반찬이 잇스오니 엇지 견디여 가을겨시오. 성복이 쇼산이오니 글노
또 견디듯 호읍.

쇠고기논 절귀호오나 흑가다가 어더먹을 도리가 잇습난가 보읍.

10월 1일 大靜縣 配所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에 의거한다면 이 서한에 年紀가 없다해도
大靜縣에 도착한 10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쓴 것으로 확신한다. 그것은 秋史가 아우숨
喜와 친구 權敦仁에게 보낸 書翰의 內容으로도 바로 그것을 立證할 수 있다.²⁵⁶⁾

謫所에서의 생활을 얘기했다. 초일일“大靜縣 配所에 오오니”란 대목에서 配所가 불명
하나 秋史는 宋啓淳의 집이 謫所로 정해졌다가 후일 姜道淳의 집으로 移謫하여 倉川村으
로 옮겼다.²⁵⁷⁾성복이 나오고 쇠고기가 절귀하다는 점에서 謫所가 山間에 아니라 海村 부근
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편후 또 근 이십일이나 되오니 대되 일양들 지내오시옵고 거셔도 년호야 관겨치 아니하시옵. 나
왔도다호여 겨오시나 나오실 이가 잇읍. 진정 나오시면 원외외셔 ㅁ음이 위로되오랑마는 그러홀
이가 없스을 듯 호오이다.

강동의 요통은 엇더호읍. 일가에 따로혀나앗 가을난가 넘너 동동호오며, 녁유는 그 스이와셔
지내다 호오니 오히어 ○○ 호오시라 멀니셔 경결호을 썬이읍.

秋史가 大靜縣에 유배중 부인에게 쓴 上狀으로서 第2信의²⁵⁸⁾ 한 대목이다. 大靜縣에 유
배당한 이듬해 윤 3월의 한글書翰이다. 부인의 건강을 묻고 舍仲弟 命喜의 병세와 舍季弟
相喜 등을 비롯하여 頃向에 있는 일가들을 생각하면 슬픔이 복받쳐 말이 아니 나온다고
하며 자탄한다.

이번의 보내신 저고리와 장육 건포 슈디을 자시 박자와습 장육이 상치도 아니호고 오릭두어도
관겨치도 아니호개사오니, 후의도 그쳐론 아조 말쳐여 보내오면 관겨치 아니호올가 보읍.

갑쇠논 와스오니 무쇠 분녀호읍기는 다룬 하인보다 낮즈을 듯호오니 대행이오니 엇지 그리 갖
개호야 지내개습.

집에서 보내준 저고리 장육 건포 수대 등을 받았다는 얘기다. 장육이 傷하지 아니호고
오래 두어도 관계치 않으니 앞으로 그처럼 마련해서 부쳐달라는 당부다. 반찬까지 본가
에서 마련하여 바다 건너 謫所에 부쳐 준 성의를 쉬 짐작할 수가 있다.

지난날 회일 제사 지나오시니, 철천철디호 망국지통 더욱 원통순박호야 죽지의 죽어 모르고 시
브오니, 고금 천하의 이런 샤툼의 정니 광경이 어디 잇사올잇가.

256) 『阮堂先生全集』卷2 與舍仲命喜 (1) 과 同卷3 與權敦仁 (4) 信 參照

258) 前掲 註) 248 (B) pp.373-374

257) 朴用厚『南濟州郡誌』(서울; 상조사, 1978.) p.103

秋史가 大靜縣에 流配 중 夫人에게 쓴 第3信의 上狀이다.²⁵⁹⁾ 末尾 部分이 缺帳이된 한글 書翰이다. 그러나 “지난 달 회일 제사 지내오시니”라는 내용으로 봐서 곧 父 魯敬의 祭祀日, 亡日은 丁酉年(1841) 또는 壬寅年(1842) 4월 초순경에 쓴 것으로 단정되는데 이는 인편 양재완이 辛丑年에 濟州에서 서울에 往來를 자주한 것으로 第2信과 第4信에 나타나 例證됨과 辛丑年 4월 20일의 한글 書翰의 출현으로 4월 초순경에 쓴 것으로 단정된다.

生父 魯敬의 祭祀日을 맞이하여 安東金門에 의한 세도 싸움에 희생이된 父子間의 腸斷의 怨恨을 되짚은 얘기다. 곧 生父 魯敬이 丁酉年(1837) 3월 타개하였음에도 庚子年(1840) 7월 10일 尹尙度 獄事의 再論으로 死後에 追削당하는 徹天徹地한 罔極之痛을 겪었으며, 秋史는 趙寅永의 營救로 滅死되어 死地인 濟州 大靜縣에 유배된 것이니 그 얼마나 切愈하였겠는가.

일것하야 보낸 찬물은 바른 것 외의는 다 상하야 먹을 길이 업습. 약식 인절미가 앓갑습. 슈이와도 성히 오기 어려운디 일곱달만의도 오고쉬워야 두어달만의 오암는 거시 엇지 성히 올라보옵. 서울서 보낸 침채난 워낙 염을 과히 훈 거시라. 변미는 하야시나 그러도 침채의 쥬린 입이라 견디어 먹어습. 시오젓만 변미하고 조귀젓과 장복기가 변미 그리 아니하오니 이상하옵. 미어와 산포난 관겨치 아니하옵. 어란 갖튼 거시나 그 즈음서 엇기 쉽거든 어더 보내옵. 산채는 더러 잇나본디 너커 사름은 순전 먹지 아니하오니 고이훈 풍습이옵. 고사리 쇼로장이와 두릅은 엇기 혹 어더 먹습.

도모지 저지와 장이 업소오니 범거시 미리가 업소오니 이셔도 모르고 어더 먹기가 어렵습…(중략) … 즉금 입는 저고리가 마치 하나을 가지고 입소오니 과히 더럽고 더러 하여져 입기 어려오나 다른 야로젓 박고아 입기 어렵고 조금 어려오나 아니 견디옵. 가을 미쳐나 하나 하야 보내게 하옵. 그은 미리 부쳐야 썬의 미쳐 입지 그러치 못하면 심동될 넘너가 잇습. 썬입는 긴팔동거리도 하나 하야 보닌게 하옵 밀이(이하결장).

유배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夫人이 부쳐 준 찬물은 다상하였음을 알리고, 가을옷을 부쳐 달라는 당부를 한 내용이다. “슈이와도 성히 오기 어려운디 일곱달만에 오고 쉬워야 두어달만에 오암난 거시엇지 성히 올라 보옵”이란 대목에서 경향과 濟州間의 往來는 얼마나 어렵고, 그만큼 절해고도 었음을 단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서울서 보낸 침채난 워낙 염을 과히 훈거시라 변미는 하야시나 그러도 침채의 쥬린 입이라 견디어 먹어 습”이라는 대목과 “저재와 장이 업사오니”이란 대목에 大靜縣의 생활상의 일면을 엇 볼 수 있다. 곧 당시 大靜縣에는 ‘김치’와 ‘시장’이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나는 아직 전과 가치 지내오다 슈일 담체로 거북하더니 쇼도도하고 조금 낫습.

명월의 부친 강경이 비가 이달 초팔의야 드러와야 보내오신 찬물은 자시 박자와스오나 자연이

259) 前掲 註) 248(A) pp.329-330

변미야 엇지 아니하야개습. 그러하되 못먹지 아니하게 되오니 힘어습.

인절미는 모도 석어버려습. 그는 흘길어업는 거시니 후의난 부질업는 것 슈고 드러 포진 청물을 어이 하올가 보습. 장으로 만든 거슨 그리 관겨치 아니하나 외장과는 관겨치 아니하고 무우장과는 또 변미하야습. 젓무우는 조금 되여시나 먹개습. 겨울의 비듯 옷을 올려 보내오니 진작 또 고쳐 보내셔야 되개습.

여러는 겨울 거슬 여름의 유의하야 되개습. 바지는 무명 것 고쳐 보내고 명지 바지는 보내지 마음…(중략)… 두루막이나 둘 다 고쳐 보내습. 무명 두루막이가 험롭지 아니하오니 삼랑하야 하습.

秋史가 大靜縣에 流配 중 夫人에게 쓴 第4信의²⁶⁰⁾ 한 대목이다.

正月에 부친 饑物을 받았다는 것과 겨울옷과 두루마기를 보내니 고쳐 보내달라는 당부 속에서 秋史의 流配生活의 적응을 엿볼 수 있다. “인절미는 모도 석어 버려습”이란 대목에서 夫人의 정성을 엿볼 수 있는 한편 이것을 3개월여에 걸쳐 받은 것으로 봐 京鄕과 濟州間의 왕래가 死生間의 문제로 힘든 것으로 재확인하게 한다. 이어

차동 회갑의 옷은 엇지하야 보내습. 막연이 싱각썸이오니 덩니 견디기 어렵습. 회갑날 도반이나 하야 잡습게 돈냥을 또 어더 보내야 할 거시니 엇지 요랑하습.

다쇼간 의논들 하야 하게 하습.

인편 총총 대강 덕습.

신축 소월 이십일 상장.

秋史는 流配 중이라도 종가집의 의무감에서 모든 家門凡節을 자상하게 유념하고 있다. 從兄 教喜의 회갑연에 어떻게 인사를 치렀는지를 염려할 정도로 그는 용의주도하였다.

니천턱의서 요스이더 빼복하야 지니오시고 회갑이 머지아니하야 겨오시니 경축하온 둥 잇쩍 아니라도 당신 신세 미령하오신되, 더고나 흐튼 일을 당하올수록 심회 더욱 덩치 못하오시라 이리 외오서 일커좁고, 집안 어른이 혼자 규연이 남아 겨오신디, 덩니들을 퍼올길이 업소오니 스스 더욱 한심 여색하오니다. 의복지절은 엇지나 하야 보내오시고 그날도 변이라하야 잡소울 도리을 거껴만 말고, 너괴셔도 서로 의논하야 결연치 아니하게 지니게 하습. 차동셔는 발셔 장사까지 지내온가 보오니 첩첩히 녀일이 되여 천니 맞괴셔 통확비원 하습기 엇지 형용하야 이르올잇가. 그민직 장형님 모냥 참아 불상하습…(중략)…

며나리는 산월이 되여실 듯하오니 그 스이 무어슬 나아습. 첫 힌산은 아니나 무스히 순산하습고 탈이나 업스논가 넘어오며 경쇠턱도 티중이라 하오니 니집 손조란 말우습고 신괴하습. 온양셔는 총화의 상스 놀랍고 참혹하습. 인괴도 그만하니 맛갑고 그 문중의 어른이라 하리 아조 업셔 저리 쇠체하야 가옵논일 불상하습.

秋史가 大靜縣 流配 중 夫人에게 쓴 第5信의²⁶¹⁾ 한 대목이다.

秋史는 流配生活중인 流刑囚의 처지이면서도 慶州金門의 宗孫된 입장에서 모든 집안일을 걱정한 내용이다.

260) 前揭 註) 248(B) pp.374-375

261) 前揭 註) 248(A) pp.330-331

夫人의 건강을 비롯해 舍仲弟 命喜, 舍季弟 相喜 故從兄 閔致三의 喪妻 李氏家에 출가한 妹氏 溫陽의 妻族 등 온통 連袂威堂間의 安否를 걱정하는 한편 子婦의 해산을 걱정함과 門中의 가장 高齡者인 從兄 教喜가 回甲을 맞이함에 측근에서 받들지 못함을 恨하면서 回甲宴을 소홀히 말도록 당부하였다.

나는 요사이야 조금 낮게 지내옵고 음식먹기도 저기 입맛시 부쳐 여상이 먹고, 찬도범절도 너름 보단 낮잡고 혹가다가 고기맛도 보오니 그만하면 또 아니 지내야 가을 듯하며 이번의 보내오신 반찬은 다 무스이 와 개위를 빼히 하오니 다행이오나 오히려 분수의 과분하온 듯하와 먹음이 도로혀 궁구하오며, 장맛도 이번은 도흐니 병집이 별로 업습고 쇼쇼 병집있다 하아도 못먹게 갖지 아니하면 먹을 일이지 엇지 구비하게 하야먹습. 민어가 좋시 알나 먹기 어렵소니 여 께는 업소를 썩 아니라 찬도의는 관긴하온디 좋시 삭지 아니하야 견경하오니 병든 너의 심을 길 어려워 민망하옵. 의복도 다 자시 받자와 입게습. 명저 바지 좋시 먹음의 켜니더니 무명것 입소오니 편하옵고 도초 또 덕습기 이틀히는 그만 그치옵.

신축 십월 초일일 상장.

大靜縣에서의 竄島凡節을 얘기하였다. “나난 요사이야 조금낮게 지내옵고 음식먹기도 저기 입맛시 부쳐 여상이 먹고 찬도범절도 너름보다 낮잡고 혹가다가 고기맛도 보오니 그만하면 또 아니 지내야 가을듯하며…… 명저바지 좋시 마음에 켜니더니 무명것 입소오니 편안하옵고” 라고 하여 유배생활의 한 단면을 엿보여 주는가 하면 분수에 과분한 유배생활에 삼가 두려워 한다. 이 귀절은 朝鮮朝의 선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천리 밖에서 보내준 반찬이 상하지 않았고 의복을 받았음을 서술하여 그 夫人의 용의주도함에 놀라움을 보여 주었다.

부디게 혼몸으로만 아지 마오시고 이천니 외의 인는 먹음을 생각하오서 심분 신첩하야 가오시기 바라오며, 강동도 그리 장성치 못하오니 동동흔 녀너 노히이지 아니하옵. 아히는 두고 불스룩 샅툼되오미 가장 귀특하온가 보오니 일문에 다행하옵고 게셔가 만니의 효양을 바드랴 그러하온가 이리 축슈하오며 부자간 잇새가지 못보오니 인정의 덩 어렵소나 오히려 둘째의 일이오며 제가 와서 보랴 후다 하오니 정니에 고히치 아니하오나 너을 엇지 경경이 올라보옵. 즉금 우리가 빅슈 지년에 겨요 저를 어더 노코 천금만금 가치 어로고 고이논디. 저을 엇지여켜 드러보내며 엇지 드러오게 하옵게습. 저 혼놈이 또 중난하키 우리 두샤룸만 가지고 하올 주식이올가 보옵. 조상의 둥하온 거슬 제 몸이 시러노코 잇소오니 아모히 부즈지의가 통하와도 조상의 둥하온 것파 비교 못하옵는 거시 예부터 성현이 질정하야 만세의 범을 드리오신 거시오니 더고나 혼일만 생각하옵고 그리 하올가 보옵. 놈이 만하야도 오지 못하옵게 하올 거슬 엇지 저을 경이히 오게 하올가 보옵. 놈이 만하야도 오지 못하옵게 하올 거슬 엇지저을 경이히 오게 하올가 보옵.

게셔라도 잠고 말너 이런 도리를 개유하야 이르게 하옵. 나는 봄이 점점 깊퍼 가오나 별노 그리 심히 달논디 업시 먹고 자기 혼가지오니 완인하오니 녀너 과히 마옵.

秋史가 大靜縣에 유배중 夫人에게 쓴 第6信의²⁶² 한 대목이다.

養子·商懋가 秋史를 相面하려고 濟州로 오는 것을 만류한 얘기다. 秋史에게 庶子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유배당한 다음 해 (1841)에 10 寸尺 泰喜의 아들 商戀를 입양시켰는데 그 양자가 養父인 秋史에게 인사하러 大靜縣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극구 만류하였다. 이는 그만큼 당시 遠惡地의 濟州島 往來는 生死間의 危險한 일인 까닭에 도중의 만일의 일을 심히 염려하여 이를 중지시킨 것이다. 이어

이번에도 보내오신 찬품은 자시 바다 도히 먹고 개위가 되오니 먹을적마다 다투어 과한 듯
 흡.

머나리를 또 슈이다려오나 보오니 외오서 이리 넘뿐이옵. 범절이야 그러치 아니한온가 보옵. 게
 서 혼자 심너호으신것 이리 더욱 넘너오며 다려온 후 집안 거시 제것시오니 차차 하여 주어가
 는 거시 험롭지 아니 호오니 목견 굼굽흔 것시나 흡고 가면서 하게 흡. 제일제사 차리는 범
 백을 굼히 가리치게 호고 제사 통호온 거슬 알게 흡. 방사를 변통하나 보오니 그스이 엇지 호
 아습는지 성조가 빼히 되여 어니기로 다려오옵. …………… (중략)…………

임인 삼월 초사일 상장

자신의 유배생활이 무고함과 보내준 饌品을 받았다는 얘기와 머느리에게 제일먼저 제
 사지내는 일을 가르치도록 당부하였다. 子婦를 들이는데 방이 없어서 새로 변통해야 하는
 궁핍하고 구차한 일면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秋史가 罪人으로 몰린 후 壯洞의 月城尉翁
 이 安東金門에게 몰수 당하고 龍山 지경으로 옮긴데 起因한 것이라 하겠다.²⁶³⁾

나동 니집 꾸긴 일은 그 어인 일이며 어인 말이옵. 통곡하 참절경통 호오니 어울러 말이 나지
 아니호옵. 강동의 정니를 생각호오면 살이 어이고 뼈가 사라지는 듯 엇더하다 호을 길이 업습.

이런 참경 아니라도 이희의 오면 그 쇠뿔흔 모양 오작지 아니호대 또 역니지척을 보고 엇지견
 티여 나옵논고. 그 쫄 하나이 무어시 과하야 저 지경을 보오니 천니 인니가 엇지 이티도록 호온고
 아모려도 알길이 업습. 유근 아히는 삼십오년 인성이 참혹호오니 오허려 제 신세의는 호연홀가호
 오나 그러도 하 불상흔 인생이기 제 아비 만경의 이척이나 아니 식일가 호엿더니 이씨의 이 모양
 을 호야 보니 도물이 다 그리 만들고 돕는 듯호야 어히 업시 말이나지 아니호옵. … (중략)…

이런일 저런일 호야 심스 지정치 못호오실 듯호오니 싸로혀 신상이 엇지 편하게 습. 넘넘히 노
 허일길 업습. 강동은 것한 저문 아히를 업지 아니하나 뉘가 그러도 위로호야 마음을 누껴가옵논
 고. 심각호을스룩 뼈가 어이논 듯 호옵.

秋史가 大靜縣에 유배중 夫人에게 쓴 第7 信의²⁶⁴⁾ 한 대목이다.

用談의 첫째는 秋史가 舍仲弟 命喜의 無男獨女가 35 세에 夭死했다는 불운한 소식을
 듣고 “그 딸 하나이 무어시 과하야저 지경을 보오니 천니 인니가 엇지 이티도록 호온고
 아모려도 알길이업습 유근 아히는 삼십오년 인성이 참혹 참혹호오니……하 불상흔 인
 성이기 제 아비 만경이 이척이나 아니 식일가 호엿더니 이씨의 이 모양을 호야 보니 도
 물이다 그리 만들고 돕는 듯호야 어히 없이 말이 나지 아니하옵” 이라고 통곡끝에 慘切
 驚痛한 나머지 逆理의 悲運을 당한 동생의 신변을 진심으로 걱정한 얘기다.

263) 前揭 註) 248(A) pp.333-335

264) 前揭 註) 248(A) pp.333-334

무슨 약이나 머그며 식보부치나 하옵는가 가지가지 생각뿐이옵. 며느리는 그 사이 다려와소를
 듯하오니 집모양 조곰 일워 의뢰가 췌히 되옵는가 이리 축슈하올 썩이오며 범빅을 보오니 과연
 더하옵. 도무지 인도하야 가르치기의 잇소오니 거셔 혼자 추슈러 가시는 일 오작 심녁이 쓰이옵.
 도모지 문운이런이와 인녁을 엇지 아니 드리울가보옵. 산삭이 갓가왔다 하옵더니 그스이 엇지
 하야습는고 넘너브리지 못하옵. 나는 아직 별탈업시 지내며 가옵고 이리 것들도 감취 알코
 나오후는 아직 무양들 하오나 용리가 췌히 건정치 아니하야 이리동동하옵.

夫人에게 약과 食補를 걱정하고 새며느리를 잘 인도하고 가르치는데 진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庶子婦의 産月이 가까왔다고 듣고 염려한 얘기다.

그리고 자기 안부와 下人들의 안부를 얘기했다. 이 서한을 근거로 한다면 유배지에서
 直接 秋史의 유배생활을 돕고 있는 下人 ‘한’·‘갑쇠’·‘용래’·‘강경’ 등이 나
 타난다. 이들 下人은 濟州 大靜縣과 서울을 往來하는 일을 주로 했겠지만 유배자의 陪
 行者的인 구실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 증이 들면 이적이 어렵소나 이 동안 가감동정이 엇더하오시고 벌써 석달이 너머소나 원
 리 범절이 오작 피하와 겨오시라. 이리외오셔 동동 넘려 엇더타하올 길이 업소으며 침식범백은
 엇더하옵. 이 동안은 무슨 약을 자시며 아조 위석하야 지내옵. 간절흔 심려 갈수록 지정치 못하게
 습. 감동은 도슈 엇더하오며 한절을 당하야 숙증이 의구이 빈빈발작하올 듯 하오니 종종 넘려
 곁하옵고 〽손들은 벌고나 다시업습.

秋史가 유배지 大靜縣에서 夫人에게 쓴 第8信의²⁶⁵⁾ 한 대목이다. 夫人의 병환을 심
 히 걱정했고, 舍仲弟命喜의 宿症을 염려했다.

이 한글 書翰은 壬寅 至月 14 日에 쓴 것이나 이 한글 書翰을 쓰기 하루전에 이미 夫
 人 禮安李氏는 大靜縣에 유배중인 남편의 放釋과 再會를 영영 못보고서 타계하였던 것이
 다. 곧 夫人 禮安李氏는 憲宗 8 年(1842) 11 月 乙巳朔 13 日 丁巳에 他界한다.²⁶⁶⁾ 그런
 데 이 한글 書翰은 夫人이 죽은 것도 전혀 모르고 夫人의 병환을 걱정한 형용기 어려울
 정도로 心慮焦折한 심정을 표백하고 있다.

나는 아직 흔 모양이오나 피풍으로 소양이 지금 다시 낫지 못하야 밤을 미양 새와 나오니 갖득
 변번치 아니흔 잠을 더고나 못차고 실느 어렵소나 식음빅은 별노 못하지 아니하오니 아니 견디
 여 가옵.

게셔 병환으로 兪쇼의 동동하야 쇼식의 섭섭듯지 못하오니 더고나 痘민흔 작하자 못견디들
 하옵... (중략)

그 스이 경초선 편으로 응당 무어시나 부쳐겨실 듯하오나 병환등 심너되어 겨실 일 이리 넘어오
 며 서울셔들은 엇지들 지내고 미동셔 동절을 당하야 오작 하오시라. 이 치일 길이업습.

비통은 일양 〽득하와 겨요 니러 그리옵.

임이 지월 십사일 상장.

265) 前揭 註) 248(B) pp.375-376

266) 『夫人禮安李氏哀逝文』에 引據하면 夫人의 訃告가 癸卯(1843) 正月 15 日에 大靜縣에 도착함.

秋史 自身이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과 夫人의 병환소식없어 궁급하다는 것과 추신으로 “생진이 지격하오오니 아해들하고 한가지로 지내오실일요요하서 생각뿐이압” 이라고 夫人의 생일에 아이들과 함께 지내도록 당부하였다.

사실상 이 第8信中에서 夫人의 병세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秋史는 깨닫고 있었음을 암시받는다. 이러한 불길한 예감은 이어 4일후인 壬寅 至月 18 일에도 書翰을 띄우게 된다.

書簡文의 形式인 副文으로서의 ‘追伸’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다.

전편 편지 부치운 것이 인편의 활가지로 갈 듯함으며 그 사이 시본관 오는 편의 녁뉴의 편지 보 오니 이 사이 언하야 병환을 제지 못함오시고 일양 진퇴함시나 보오니 발서 여러달을 미류함으며 근년 범백이 오작함와 겨오시게습. 우특정을 자시나보오니 그 약이나 쾌히 동당이 겨시을 지 원외 서 심너초절 함습기 형용 못함게 습. 나는 전편 모양이오며 그져 쇼양으로 못견디게습.²⁶⁷⁾ 감쇠을 아니 보내올 길 업서 이리보내오나 그 가는 모양 참촉함오니 각동의 쏘 일층 심회를 편치 못함게 습. 급히 썸나 보내기 다른 스연 길게 못함습.

임인지월 십팔일 상장

秋史가 大靜縣 유배중 夫人에게 쓴 第9信의 全文이다.²⁶⁸⁾

用談은 夫人의 병환을 걱정하고 자신의 피부병으로 고생됨을 얘기하였는데 夫人의 병환을 걱정한 형용기 어려운 정도로 心慮焦折한 심정을 표백하고 있다. 이후 鰥寡孤獨에 젖게 된다.

이 書翰의 봉투에 「龍山」이라고 지명이 표시되어 있어 壯洞의 月城尉宮이 安東金門에 의해 물수 당했다는 뒷바침이 된다.

요컨대 秋史의 流配 한글書翰 9 통은 그 문장이 순국어로 되어 있어 秋史가 珠玉같은 국어를 愛重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사야하며 그것은 다 일상적 경험이 아니라 유배라는 특수한 경험에서 유배 생활의 진상과 당시의 濟州島의 습속 등을 반영하여 流配文學의 극치라 하겠고, 그가 朝鮮朝後期의 실학자로서 한글 文章을 쓴 것은 그의 실사구시학이 바로 국적이 분명한 것으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본다.

朝鮮朝 後期의 閥閥政治인 세도정치에 의한 사회상과 그 희생으로 몰락된 秋史家의 생활상을 이해 할 수 있고 秋史의 大靜縣에서의 유배생활의 진상을 사실적으로 그려주었고 당시의 大靜縣의 풍습 중 ‘김치’도 없고 ‘산채’도 먹지 않았고 ‘저자’ 없었다는 점에서 민속학상의 研究資料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 秋史의 한글 書翰은 단순한 個人의 用談과 감정뿐이 아니라 夫人의 병세에 대한 걱정 9 회 舍仲弟 命喜의 건강에 대한

267) 『阮堂先生全集』 卷2 舍季相喜에게 준 書翰속에 “無非瘴濕爲祟”이란 대목이 있는데 독기 있고 습한 기후 風土의 화근으로 播瘴에 시달렸다고 믿어진다. 이 피부병 곧 가려움증은 『阮堂先生全集』 卷2 從兄教喜에게 보낸 書翰속에 “從弟……忽患皮風之症 遍體鱗斑斑 不勝搔癢 夜不能交睫並雨時之眠 亦不得爲之”라고 대목이 있다.

268) 前揭 註) 248(A) p.335

염려를 비롯한 혈육의 私情 8회, 流配人으로서 聖恩에 感謝 1회, 流配人으로서 流配生活에서의 갖가지 8회 등을 보여주고 그 섬세함과 特秀性을 함께 하는 人間의 보편성을 考察할 수 있다.

秋史의 한글 書翰 9 통중 결장 1 통을 제외하고 8 통 모두가 서명 “정희” 대신에 “상장”이라고 하여 夫婦間의 往來文에 전형을 보여 주었으며 書翰 受信者에 대한 여성 人稱代名詞가 “게서” “거서” “겨서” “거기서” 등 16 個나 處所代名詞로 표기되어 있어 夫婦間의 對稱이 없었던 당시에 이렇게 活用했다는 것은 매우 독창적이며, 주목할 만한 일이다.

秋史의 한글 書翰 9 통의 전체 문장은 162 개가 되는데 文章의 끝은 敬양보조어간을 마무리 형식으로 “호오시옵” “호옵” “일컷습” “그치옵” 등 종결어미 축약형이 154 개나 되며 “잇가” 등의 종결어미가 4 개 “이라” “호오이다” 등 서울종결어미가 4 개를 나타나 夫婦間에 있어 夫人에게 上狀하는 한글 書翰은 종결어미가 축약되었는데 이는 書翰을 연속적으로 써야 하기에 축약되었던 것과 그리고 敬양보조어간을 쓴 것은 일반 文章에서 보다 書翰 文章에서 夫婦間의 서로 존대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金正喜의 漢文 書翰

秋史가 유배지 大靜縣에서 漢文 書翰 중 家族關係 것만을 대상²⁶⁹⁾으로 하여 考察기로 한다

(1) 동생들에게 주는 書翰

去二十七登船時 略付數字於鳳儻 使之先歸……………仲季形貌 驚黑瘦削 必有生病之慮間 或有勝而努力加飡 努力試藥 使此海外一念懸懸者 得以小紓 千萬心祝

〈『阮堂先生全集』卷2 與舍仲命喜(1)〉

秋史가 舍仲弟 命喜에게 보낸 書翰 第1 信의 緒頭이다. 그는 前述한 바와 같이 憲宗 6 年(1840) 尹尙度 獄事의 再論으로 濟州島 大靜縣에 圍籬安置의 流刑을 받아 同 年 9월 27 日 海南에서 승선당일에 禾北鎮 浦口로 入島하게 되었다. 승선하며 下人 鳳에게 書狀을 써서 부쳤다는 내용과 그 舍仲弟 命喜, 舍季弟 相喜의 건강을 걱정한 友愛가 표백되어 있다. 이어

吾行其日……………午後風勢頗猛利 波濤湧起, 船隨以低仰, 船中之初行諸人, 自金吾郎以下, 至於吾之一行, 無不暈眩眞倒景色其間 而吾則幸無暈症 鎮日在船頭 獨自喫飯, 與舵工水師輩 同甘分苦 有乘風破浪之意, 願此壓累人 何敢白有實 惟王靈脩暨而穹蒼 亦似有憐而垂睨矣 夕陽時 直抵 濟城之禾北鎮下

〈前揭書〉

269) 여기서는 큰 동생 命喜에게 4 통, 둘째 동생 相喜에게 9 통, 양자 商懋에게 3 통, 庶子 商佑에게 1 통, 從兄 教喜에게 2 통, 從姪 商默에게 1 통, 商一에게 1 통 등 도합 21 통을 대상으로 한다.

風勢가 나빠 激浪이 심하여 舟行이 심히 어려워 죽을 고비였는데도 27일 당일 禾北 鎮에 도착, 入島케 되었는데 이것이 모두 天祐神助함과 聖恩에 있음을 감사하였다. 이러한 심정은 앞에서 본 그의 七言詩 「濟州禾北鎮途中」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어

大靜在州城西八十里 其翌大風 無以 前進 又其翌即初一日也 風止故 遂與金吾郎登程 半程即純 是石路人馬雖難着足 半程以後稍平 而又從密林茂穢中行 屢通一線天光皆是嘉樹美木 而冬青不凋 間 有楓林 如靛紅 又異於內地楓葉 甚可愛翫 而嚴程蒼皇 有何趣況舉 <前揭書>

곧 流配地 大靜縣으로 가는 歷程을 쓴 한 대목이다. 아름다운 濟州島의 大自然이 매우 사랑스러워 구경할 만 했으나 流刑囚로서 갈 길이 엄하고 바쁘니 무슨 흥취가 있겠으며, 하물며 어떻게 흥취를 돋을 수가 있겠느냐고 표백한 雲圍氣에서 秋史의 流配의 狀況에 直面한 精神의 狀況의 一面을 考察할 수가 있다.

得宋校啓純家住處, 而此家果於邑抵之稍勝 而亦頗精迥 埃則爲一間 南向有眉退 東有小厨 自小厨北 有二間厨 又有庫舍一間 此則外舍 而又有內舍之如此者, 內舍則使主人 依舊入處只既外舍割半分界 足以容接, 小厨行將改埃 則客僦輩 又可以入處 此則不難變通云矣 籬圍邊家形址爲之 庭階之間 亦 可以行飯所處 則於分過矣 <前揭書>

10월 1일 大靜縣에 도착, 宋啓純의 집이 謫所로 정해졌는데, 그 집을 리얼하게 묘사 하였는데 逸品이다. 당시의 大靜縣의 가옥구조를 이해하는데 근거가 되는 좋은 대목이다. 前述한 한글 서한²⁷⁰⁾에서도 “집은 넉넉히 용신하올 만한대를 어떠한 간방에 마로잇고 집이 평하야 별노 도배도 할 것이 업시 드러사오니 오히려 과하온 듯 하얏”이란 대목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夫人과 仲弟에게 알린 것이다. 秋史는 宋啓純의 집에서 謫居, 後日에 姜道淳의 집으로 移謫하여 倉川村으로 옮겼다.²⁷¹⁾

第1信은 禾北鎮으로 입도 大靜縣으로 가는 歷程, 정해진 謫所의 환경등을 서술하였는데 무사히 입도케 된 것을 聖恩에 돌리고 謫所에서 불편없이 지내게 된 分手가 지나치다 여겨 본 것이다.

第2信은 舍仲弟 命喜가 “而冷痺之症 終不快餌”를 듣고 걱정하며 자신의 처지가 「遠外 憧憧懸念 無以一刻暫馬也…… 愴缺轉無以形喻」하다고 자탄하고 있다. 이어

兄婦之順婉 舉丈夫子 是宗桃初有之慶 祖宗眷佑家運將回 其先之以嘉兒耶 至若在抱之樂 年迫 六十豈不欣喜 此兒非吾所得而私之也 兒生聞在臘晦 其日卽爲天恩上吉也 仰符於先親生辰 亦不偶然 且吾輩之日日願祝 在於天恩而兒以是天恩日生者 尤豈不奇且異耶 兒名仍以 天恩二字命之 甚好… <中略> …………… 念切念切 『阮堂先生全集』 卷2 與舍仲命喜(2) 〉.

270) 秋史의 한글書翰 第1信 參照 『阮堂先生全集』 卷3 與權敦仁 第4信은 똑같은 내용의 書翰임을 확인할 수 있다.

271) 前揭 『南濟州郡誌』 參照

倉川村은 180년전부터 “물밭동네”라고 俗稱되어 왔다. (진성기 『南國의 地名由來』 濟州; 濟州民俗研究所, 1975. p.136) 『文學思想』 (119). 1982.9 「秋史詩抄」 p.206 에 「섬마을 아동들에게 보이다」 속에 ‘流水村’과 ‘姜生’이 나오는데 이 “流水村”은 倉川村 俗稱 ‘물밭동네’이고 ‘姜生’은 “姜道淳”으로 믿어진다. 『阮堂先生全集』 卷2 與舍季相喜 ‘姜生非徒所存草草人品絕佳’라 대목이 이것을 뒷받침한다.

子婦가 先親의 생신과 같은 날인 天恩日에 得男했음을 진심으로 기뻐한 내용이다. 流刑囚로서 家運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여 “且吾輩之日 日顯祝 在於天恩”에 있다고 함은 君主에게 忌諱당한 처지이면서도 오히려 [亦君恩이 샀다]고 戀君해 하는 朝鮮朝의 선비의 意識構造의 일면이라 하겠다. 이어

吾舌瘡鼻瘻 尙此作苦 彌延五六朔 雖係醫藥之無以爲之 而寧有如許支離難堪者, 食物轉難嚥下 下者又滯隔不消 實不知何以爲好 若一縷苟延 則與之消息而已 亦奈何臂疼與痒症 又一以並肆.

〈前揭書〉

秋史가 유배지에서 瘧病과 위장병, 피부병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고, 養子 商懋가 養母인 禮安李氏를 여희어 한해 만에 생모를 여희자 그 참혹함에 憐憫해 하고 있다.

而亡姉氏諱音 竟此承聆 痛哭痛哭…………… 雖知患候之萬分危重 而豈料此大海之外 又承此姉氏赴車也 慟矣慟矣 以長逝之逝七十年險 阻艱難 無不備經脫然若懸解者 便復浩然 無少留憂於此世 顧此崎窮 白首淪落 邈若行路 死生存亡 無一關涉 此何人斯 念於冥冥之中 猶有不能忘 於海外不肖無狀之身 到底慟裂 生者尤可悲也…………… 〈中略〉…………… 北望生吁 有淚無從而己

〈前揭書 『卷2 與舍仲命喜(3)』〉

秋史가 舍仲 命喜에게 보낸 書翰 第3信的 한 대목이다. 그는 누님의 訶音을 듣고 血淚를 뿌리며, 流刑囚로서 [顧此崎窮 白首淪落, 邈若行路 死生存亡 無一關涉 此何人斯] 하며 自歎하고 있다. 그는 妹氏의 타계에 앞서 3年前 壬寅年 (1842)에 夫人 禮安李氏마저도 他界하는 悲劇을 겪은 바가 있어 이른바 悲劇의 連續 그것이었다. 이어 庶母, 舍仲弟 命喜, 舍季弟 相喜, 仲嫂, 두 妹氏 등의 건강문안과 庶子 商佑가 喪妻당한 일에 심려와 자신의 신병 상태 (瘧病, 풍치병, 위장병)를 얘기하였다.

去念後英吉利船 來泊於旌義之牛島 距此爲二百里 而彼船則別無他事 只是一過去船 而一鳥騷擾 不能底定 州城如經一亂 此中屢能開諭 幸不至如州矣

〈前揭書〉

憲宗 11年 (1845) 5월 22일 英國軍艦인 Samarang 號가 Edward Beleher 艦長 인솔하여 測量任務를 띠고 濟州島 旌義縣 止滿浦 牛島에 정박했던 사실이 기술되어 있어 당시 濟州島의 狀況을 이해케 한다.

秋史는 24세 때 (純祖 9, 1809) 冬至兼謝恩使 副使가 된 生父 魯敬을 따라 燕行하여 淸國을 통해 서양사정을 터득한 바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개인적인 西歐에의 간접적 경험은 영국군함의 牛島정박에도 大靜縣의 민심동요를 막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영국 표기를 漢字語로 발음나는 대로 “英吉利”로 표기한²⁷²⁾ 것은 外來語 표기에도 선각적이었다고 하겠다.

272) 外來語 表記는 開化期 以後 日本式 外來語 表記가 流入하였다고 주장되나 여기서는 秋史가 淸나라를 다녀온 것으로 보아 中國式 外來語 表記를 수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序屬三秋 仲之壽甲載屈 吾輩孤露之餘…… 又況此時也…… (中略)……大斗之祝 又何以過其情也 亦有所俯以就之 顧此海外漠然無與之相關涉者 抑何情理 無或以茱萸少一 有所致缺於家室歡⁷¹ 亦反復爲我地 天涯一室 何異乎此身之日左右 惟願宜兄宜弟 令德壽 豈永享無疆…… (中略)……吾比近來 眼花益添 阻食之證轉甚 對案輒欲嘔 全無所下喉者神氣隨以漸頓 收拾不得」

〈前揭書 卷2 與舍仲命喜(2)〉

秋史가 舍仲弟命喜에게 보낸 書翰 第4 信중의 한 대목이다. 舍仲弟命喜가 회갑을 맞는데 진심으로 祝賀하는 내용, 그 형제의 우애가 깊음을 서술했고 流配地에서 아우의 回甲宴을 함께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王維의 “遙知兄弟登高處 遍搜 茱萸 少一人”의 詩想을 빌어 表白했으며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舟梁大慶 入域抃祝 此中最後承聞日子 又於慶禮後消息始得承聞於今便 是豈一天之下 所同者耶 詹望聯結之私 尤無以爲言」

〈前揭書〉

秋史가 舍季弟 相喜에게 보낸 서한 第1 信중의 한 대목이다.²⁷³⁾ 유배지에서 國婚의 경사를 듣고서 신하로서 진심으로 임 가까이에서 기쁨을 함께 할 수 없는 답답한 심정을 표백하고 있다. 國婚의 경사를 함께 하려는 마음에 戀君에의 충념이 내재되어 있는가 하면, 유배당한 신분으로 이런 경사를 함께 기뻐하지 못한 자신을 자탄한 감정도 깔려 있다. 이어

來示一一領悉 千萬思量 不知何以爲計也 一縷之苟延於至今者 竟又何所俟 而噉眠如無故人耶 且此見伏 萬無支存之道 惟願速死而已…… 但此瘴江之骨收拾無人 亦復何所計較於此也 使戊金舍之 甲金舉銘 亦豈非不忍處耶

〈前揭書 卷2 與舍季相喜(1)〉

유배생활의 어려움을 죽음에 비유해 표백할 정도로 심각한 일면을 서술한 대목이다. 그런 가운데도 歲船편에 부친 김치 향아리는 사고없이 받았고 몇해만에 처음으로 김치 맛을 보니 심히 입맛이 상쾌하여 입에 지나친 듯하다고 했다.

洪吏使書種 無訛收入 而以本草 詩醇律髓之種 而留置未及來者 此中人 又醜錢專人矣 遂無阜白極可怪也 前後所及 如干書種 幸圖速便付送 甚幸 而君又見病 無以隨卽竟出 雖此些少事 凡關涉於此身 而不順成 皆如是耶

〈前揭書 卷2 與舍季相喜(2)〉

舍季弟 相喜에게 보낸 書翰 第2 信의 한 대목이다. 집에서 부쳐온 책들을 무사히 받았는데, 그 중 「本草」, 「詩醇」, 「律髓」 등 서책은 받지 못했다는 내용인데 大靜縣의 사람들이 돈을 거두어서 사람을 보내어 그 서책을 입수코자 한 집에서 추사와 濟州島民과의 交流의 일면을 보여 주는 한편 그가 유배지 大靜縣에 끼친 문화적영향의 단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73) 『前揭書』 卷2 與舍季相喜 (1), 이것은 원래 第3 信으로 文集에 수록되어 있으나 “舟梁大慶”이란 文脈이 憲宗 10년(1844)는 國婚 慶事를 뜻해 相喜에게 주는 書翰 中에서 第1 信으로 바로잡아 보았다. (3) 信은 (1) 信으로, (1) 信은 (2) 信으로, (2) 信은 (3) 信으로, (4) 信은 (4) 信으로, (7) 信은 (5) 信으로, (5) 信은 (6) 信으로, (8) 信은 (7) 信으로, (6) 信은 (8) 信으로, (9) 信은 (9) 信 等등 으로 발신 차례를 바로잡았음.

「其中書畫譜一匣及周易折中家中舊本之爲兩匣者 頗便於遠來 必先圖之 外此諸種 亦隨以漸次寄來寔爲少得鎮心之方 而此往復 動經三數月或拖至半年 然後始得獲見 是尤豈耐住處耶」〈前揭書〉

秋史가 流刑囚로서의 不安感, 그리고 夫人禮安李氏가 他界하여 3年, 이어 姉氏마저 他界한 卽後이고 보면 우울할 수 밖에 없는 情神의 狀況이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書畫와 周易에 沒入하려 든 점을 이해할 수 있다.

「書畫譜」란 靑나라 孫岳頌 등이 奉旨纂한 御定佩文齋書畫譜 100 卷을 말함인데 歷代의 書畫를 品評하고, 書畫家傳 및 書畫跋, 書畫辨證, 鑒藏 등 書畫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수록하여 高증, 주석한 것이고 「周易折中」이란 靑나라 聖朝가 御纂한 御纂周易折中 22 卷을 말함인데 周易의 訓解에 諸家의 說을 종합하여 經義를 發明한 것이다.

秋史가 流配生活 중 이것을 舍季弟相喜에 부쳐 보내도록 당부한 점에서 그의 예술과 學問의 경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李君尙迪許 所託書包 不知何時可得付來耶頃因洪吏錫祐 有另申一書 而俾圖借便 寄來之地 聞舊收護送下隸幾盡歸來 而遂無聞抑洪吏不所傳書 而亦不致力而然耶亦可訝」

〈前揭書 卷2與舍季相喜(3)〉

李尙迪은 중국을 往來하던 譯官으로 書法과 金石學統을 秋史로부터 이어 받은 사람이다. 그가 중국에서 가져온 책꾸러미가 언제부터 올 것인가 기다려지는 마음을 표백한 것으로 舍季弟 相喜에게 보낸 서한 第3信的 한 대목이다. 秋史와 尙迪은 師弟之間이다. 權勢에서 쫓겨나 유배생활중인 秋史를 스승으로 받드는 인간된 성실성·이어 감동하여 秋史는 尙迪에게 「歲寒圖」를 그려주고 거기에 자기의 심정을 題跋로 남긴다.²⁷⁴⁾

「家藏有不題籤之法帖兩套 靑布匣黃木衣 此名藏眞帖者也 內有稍書千文 鍾書靈飛 以及宋元人書者 辛隨暇覓出 付送於秋俾來時 鴻山叔主 借去端木國瑚 周易比亦爲覓來 同送之地 如何如何」

〈前揭書〉

「藏眞帖」이란 明나라 萬曆末 陳元瑞가 새로 새긴 「渤海藏眞帖」 8 卷을 말함인데 卷1에 鍾紹京의 「小楷靈飛經」 卷2에 褚遂良의 「千字文」 및 「蘭亭叙」 陸柬之의 「蘭亭詩」 卷3에 蔡襄의 詩牘, 蘇軾의 尺牘, 卷4에 蔡京의 「大觀御筆記」 黃庭堅의 尺牘 米芾의 「蕭閒堂記」 卷5에 米芾의 擬古詩 및 米友仁의 「蘭亭跋」 卷6에 趙孟頫의 「小楷黃庭 內景經」 「樂毅論」 「臨友軍三帖」 卷7에 「眞草千字文」 卷8에 「梅花詩」 「題桃園圖尺牘」등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이 「藏眞帖」과 「周易指」 등 두벌을 秋史가 舍季弟 相喜에게 부쳐 보내도록 당부한 것인데, 이 점에서 또한 그의 藝術과 학문의 경향의 一端을 엿볼 수 있다.

274) 拙稿 「秋史의 歲寒圖題文考」(『제주도』) 제 76 호, 제주도문화공보실 1979. p. 50)

文編中 果有可喜處 非一二 無緣共嘗 獨自看過 亦有何意趣耶 磊磊落落書 …… 明末遺民事
……七政如來 隨送貼粘 隨來送之 何必早晚計也 藝海珠鹿一卷之抽置者 …… 未知兒輩收
取 而從近便付送如何 唐空帖三卷依到 而不止此三卷矣 只是三卷云者 大是怪訝。

〈前揭書 卷2 與舍季相喜(4)〉

舍季弟 相喜에게 보낸 서한 第4 信은 「磊磊落落書」 「明末遺民事」 「七政帖」 「如來帖」
「隨送帖」 「藝海珠鹿」 등을 부쳐 보내도록 당부함과 「唐空帖」 10 卷 중 3 卷을 받
았음을 알린 용담이고 「中唐說」을 읽고 나서 천고에 나오지 못하는 훌륭한 논지였음을
세삼 깨달았다고 토로한 서한 내용이다.

罪通有頂 覺積如山之無狀累踪 何以得此於今日也 只有感淚被面而已 有非語言文字 所得說到者
也 況又拙書之特紆宸眷 至於紙本之下來 龍光所被 大海神山 無不震動

〈前揭書 卷2 與舍季 相喜(5)〉

秋史가 舍季弟 相喜에게 보낸 書翰 第5 信의 한 대목이다. 流刑囚로서 썼던 拙書가 震卷
을 입게 되어 君恩에 감동하고 있는 내용이다.

近因眼花轉欲 萬無由孰管臨池 王靈攸暨 費得十五日工力 僅得寫就 扁三卷三 而餘外二卷 以
若花醫 萬萬無續寫之道 未免還爲呈納 據棠陳白 於吳君書中 極知萬萬悚慄 而不可以強所不可強 亦
以此狀 另及於吳圭一爲好

〈前揭書〉

심한 눈병 때문에 붓글씨 쓰기가 힘든 사정을 고백한 대목인데, 그런 가운데도 편액 세
폭과 두루마리 셋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성은에 힘입은 바라고 여긴다. 그 밖에 주로 篇
額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다. 편액·판각에 좋은 종이가 긴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二扁 以若眠花 艱此寫就 而來紙響水太過 不合於使筆 反不如此紙矣 雖刻本必佳紙 然後可書
以刻本而不計紙者 不知書之艱難處矣 堂扁似更勝於齊扁」

〈前揭書〉

秋史는 大靜縣 유배생활 동안 상당수의 書畫와 篇額 등을 남겼으나 그것이 단순한 소
일거리였다기 보다 승화·순화의 일부였다.

二月望前 海俗不爲發船 望後無礙矣 今此另定一併以去 而果能即抵耶, 渡海以後恐不甚滯矣 …
……第赦文姑未來到 日日攢手以俟耳 去年亦於二月初來到 隔海之事 每如是 不勝焦鬱

〈前揭書〉

濟州의 民俗中 영등달인 2월에는 보름전에 出漁祭를 가져 바다로 배를 띄워 보내지
않는다는 俗信이 있는데 그 점을 설명한 대목이 있고 매년 초 유배지에 군왕의 사면문이
하달되는데 이것을 기다리며 애태우는 秋史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다.

이어 第6 信은 舍季弟 相喜가 孫子를 본 것을 家運 회복에 비유하여 기뻐하며

且聞季抱孫之喜 人孰不有子有孫 在於吾家 不可但以一添丁言 是門戶之大慶 積麻之流發……

先靈垂臨 悅豫之容 愀然如見於無形之中 遇喜感潮 又當何懷 黔孫之又是一黔.

〈前揭書 卷2 與舍季相喜(6)〉

그 밖에 舍仲弟의 문안·嫂氏의 병세 문안 子婦의 해산에 대한 걱정·두 누님과 서모의 강녕 등 이른바 連袂戚堂間의 안부를 걱정하였고 유배생활에 병약해진 자신의 처지를 표백하였다.

吾狀一如前邇樣 而痰嗽大爲添劇 其嗽急氣不旋之時 血症并發 無非瘴濕爲崇 水泉不佳 積滯痞滿不散 眠花有加無減 春瘴又早作 不能耐瘴 較益甚焉 恐無以支吾矣. 〈前揭書〉

大靜縣을 殘縣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그 곳은 濟州島에서 極南端 絕地이며, 교통의 연락이 극히 어렵고 토지도 모슬포를 “못살포”라고 말하는 것처럼 척박하다. 또한 바람도 濟州島에서 가장 사납다. 濕雨가 많아서 생활이나 건강에 해로운 惡地다. 그러므로 大靜縣은 인적이 드물고 殘邑이다. 그런 凋殘의 벽지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도 유형수를 大靜縣에 유배 보낸 것이다. 秋史의 병세는 바로 大靜縣의 風土가 화근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古董與如干種 更有入之之示 而何不另錄詳示耶 極爲紆鬱 古董別無所蓄 今所入之者 郎宋人仿製 雖非商周古物 非近人贗銅所可此也 商周古物 元無東來者 吾之所見 纔三數而已 初不善贗銅僞金 家儲所以無此耳 至如無可入之物 而強覓龜毛兔角亦所不敢 〈前揭書 卷2 與舍季相喜(7)〉

舍季弟 相喜에게 보낸 書翰 第7信的 한 대목인데 골동품 몇 종류가 秋史 本家에 입수되었다고 들어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궁금해 한 대목이다. 秋史의 골동에 관한 지식의 풍부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한편 憲宗 12년(1846) 6월 프랑스 해군소장 Cecile 이 군함 3척을 이끌고 충청도 외연도에 들어온 정황을 듣고 秋史가 느낀 西洋事情을 피력하고 있다.

佛朗悖書 只是憤痛萬萬 至其畏怯於再來 則便郎可笑之事 再來有不可必 設有再來 以其一船 何以越幾萬里 涉他境惹鬧耶 聞其過去船制 卽其中舶而每以中舶遍行天下萬國 大舶則不得常用 中舶人總不過八百內外矣 以此八百 又何以作鬧他境也. 〈前揭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秋史의 西洋事情은 淸을 통한 간접적 체험에서 터득하였다. 그러나 1840년대 西洋諸國이 帝國主義로 국력을 伸張하기 위해 海外에 진출하고 他國을 植民地化한다는 情勢에는 어두웠던 것 같다. 그 예로 그의 書翰 第7信을 계속해 보면 다음과 같다.

皇明嘉靖間 番舶稍稍市易於廣東笑處 萬曆以後 遂於濠鏡許其入處 而商舶定以二十隻 年年來往 其後二十舶 不能如數 而來稍稍減却 聞近年以來 不過十舶內外云 此皆中舶也 雖以十舶言之 亦不過八千矣 以此八千 又何以遠涉他境 况又十舶 非可論者耶 〈前揭書〉

外國과의 交易의 필요성은 언급함이 없이 외국의 상선은 타국을 침략하지 않으며 실증적으로 10 여척 8천명으로 어떻게 타국을 침략하겠는가, 하물며 10척도 안되는 불과 3척의 군함으로 어떻게 타국을 침략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강조하고 있다.

歲 新而海上恰是九年矣 往者屈也 來者伸也 屈伸相感理有不忒歟 況今大慶疊臻 聖孝梁光 匝域踰舞 霽澤旁流 雖此坎險因阨 亦不外於光天化日之中 默禱暗祝 另有雙攢之私 仲甲又此際回 白首弟兄 可得歡聚歟
〈前揭書〉

유배생활 9년이 되는 戊申新年에 秋史가 舍季弟 相喜에게 보낸 書翰 第8 信인데 朝廷의 聖孝益光을 진심으로 빌며 그 聖上의 德化가 험하고 곤궁한 유배지까지 고루 미침에 감사하며, 하루 속히 放釋되어 가족이 서로 만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축원하고 있다. 이어 회갑 맞는 命喜의 강녕, 늙은 누님과 서모의 안녕, 相喜 孫子의 돌림병 후와 애 어미의 順產 등 連袂戚堂間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안부를 말하였다. 이어 開心表文에 대한 자신의 所見과 文章道の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蓋文字 刪簡爲貴 亦有添長爲貴處 不宜一以刪法爲定格矣 且有關於音響節奏 非獨於詩律而已 未知如何 更加十分商裁也
〈前揭書〉

이어 秋史가 濟州島民과의 交流의 一面을 보여주는 대목을 엿볼 수 있는데, 여기서 [本草] 등 세종류의 책에 관한 얘기는 舍季弟 相喜에 보낸 書翰 第2 信에서 살펴본대로 같은 내용으로 거듭 재촉한 것이라 본다.

本草等三種書 此中人聞之 又賺錢雇人專此上送 以爲輸致之地 其意不可遏住茲以裁書付去 隨郎堅裏以送 如何如何
〈前揭書〉

이어 再從兄 金道喜가 出仕하여 中書가 되었음을 듣고, 건강을 염려하였다.

貞洞從氏 復入中書 雖與首揆有異 不如歸來亭 中退閒養病之爲勝矣 聞已出脚云 近節果有勝而行步凡節 無礙於軛影漏聲之間耶 爲之耿耿
〈前揭書 卷2 與舍李相喜(9)〉

재종형이 致仕하여 향리에서 조용히 은퇴하고 계실 것을 바라는 마음은 재종형의 건강상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세도가인 安東金門에 의해 심히 타격받고 있으며, 몰락지경에 있는 처지이기에 출사 후에 파생되는 어떠한 희생에도 피해를 보지말도록 염려하는 내재적인 의미도 깔려 있다고 본다. 結尾의 용담으로 죽기전에 예전에 보려고 하던 것들을 점차가져와서 한 번 볼 계획이므로 “淸愛堂帖”을 부쳐 보내달라는 부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舍季弟 相喜에게 보낸 書翰 第9 信은 放釋의 기쁨과 聖恩에 감사하며 歸鄉케 된 내용이다.

聖恩罔極 特蒙賜環之大澤 惟有祝天祝聖 不知所以報也 顧此罪孽山積 得此如天之殊恩 先事至今未伸 叩叫穹壤 雖在恩山德海之中 獨何顏自容於覆載 自仄於人類也
〈前揭書〉

放釋의 기쁨과 聖恩에 감사하면서 先親의 일이 신원되어질 것을 哀訴하고 있다.

喜報之來 在於去臘十九……倏此開歲 己至穀日 渾履膺此新霽 百福大吉 詹祝詹祝……
七日自靜而發 向本州 一宿於州底金史家 連兩日昌風行役 不至更損矣……似聞此夕 當有風云而
未可以暫時風候 妄動爲言 不敢徑庭 直造一時 爲悶迫矣 (前揭書)

秋史는 戊甲 12월 6일에 放釋되나 그 소식은 同月 19일에야 본인이 받는다. 己酉 정월 7일 歸京키 위해 大靜縣을 출발하여 濟州城에서 上陸하기 위해 바람이 자고 바다가 잔잔하기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심정이 안타깝다. 9년 동안의 유배생활에서 큰 병만 얻어 정신이 가물거려서 매사에 곤궁하였을 때 석방되는 처지가 되고 보니 하루속히 歸京하여 그 간의 회포를 토로하고자 한 것은 당연하나 濟州 바다의 바람과 파도로 해서 떠나는 게 늦어지니 그 심정이야 그 얼마나 안타까울 것인가 쉬 짐작케 한다.

(2) 아들에게 주는 書翰

天倫大定 宗祧有託 姑未卽見一氣之相貫注 非山川所可間 已於來書驗之 吾既在此 無以面命汝 汝惟葆養汝病慈 恪遵汝仲父訓戒 奉先事長之道克欽克慎 吾家傳來舊規 是直道以行 兢兢固守罔敢或墜 (前揭書 卷2 與嗣子 商懋(1))

秋史가 大靜縣에 유배된 다음 해 辛丑年 (1841)에 그의 '12'寸이 되는 泰喜의 아들을 입양하였는데 이것은 養嗣子 商懋에게 보낸 書翰 第1信의 대목인데 매사에 “直道以行” 하는 家訓으로 “奉先事長之道 克欽克慎”하도록 당부하였고, 家訓인 “直道以行”은 바로 秋史家의 家風과 그의 사상의 일면이기도 하다.

昕夕之祝 歲籥載新 待狀吉安念切 吾尙無恙如舊年 到底是恩造耳 (前揭書)

곧 유배생활을 탈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은 성운에 힘입은 바 크며 그 성운에 신하로서 감사한 내용이다. 이어 養嗣子 商懋에게 보낸 第2信은 舍仲弟 命喜의 문안과 流刑囚로서 夫人 禮安李氏의 소상과 사당 제삿날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애달피한 書翰이다.

追祥奄過 汝鬻攀痛廓然 吾亦於此一哭除服 寧有如許情理也……汝之仲父 近節益勝 兒少皆安好耶 念念 吾口鼻風火 自多涉春 如是作苦 悶切 其間記事 暨展廟之日 次第臨止 遠外年年慟缺 (前揭書)

秋史는 憲宗 6년 (1840)에 유배되어 2년 후에 夫人 禮安李氏의 부음을 받았다. 유배된 죄수였기에 아내의 임종을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없었고, 한 지아비로서 아내의 장례를 치루지 못한, 괴롭고 원통한, 피눈물 뿌린 슬픈 심사에 젖는다. “吾亦於此一哭除服”했다는 一哭 속에서 그 얼마나 고독의 비애를 통감할 것이겠는가 “其間記事 暨展廟之日 次第臨止 遠外年年慟缺”했다는 慟缺 속에서 夫人의 소상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피눈물 뿌려 夫人의 죽음을 애도하며, 變轉하는 스스로의 운명을 그 얼마나 자탄할 것이겠는

가²⁷⁵⁾

嗣養子 商懋에게 보낸 書翰 第3 信은 집안의 문안과, 舍仲弟 命喜의 회갑연 등 家間事에 대하여 그리고 舍仲弟 命喜의 회갑에 參席 못하는 心懷를 표백하였다.

青燈黃卷 能不輟課 老人無眠 每念汝輩 讀聲 恍若在耳畔 此心良苦 吾如舊吟嚙 胃道終不清開
眠花一以添紙 悶然 (前揭書)

朝鮮朝의 선비들이 유배당하면 책과 벗한 경우가 지배적이었는데 秋史도 유배생활 중에 책을 가까이 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舍季弟 命喜에게 中國 古典 등을 부쳐 보내달라고 당부했던 점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이러한 책과 가까이 하는 秋史에게 濟州島民들은 당시 「통감」·「논어」·「맹자」 등을 학습하는 것이 고작이었던 게 「四書」·「五經」勿論 서예와 천문 및 산수학까지도 教育을 받게 되어 과학적인 實事求是의 학문을 접하게 되어 濟州島는 近代 학문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秋史의 책과 가까이 하고 학문하는 자세는 학문하려는 濟州島民의 큰 자극이 된다.

此色李生時亨 年少才逸 決意欲此學 其志頗銳不可阻奪 使之上去 試與同研 雖其見聞不廣 若使磨淬 足以傲此地不讀者耳 其行從船而去 似遲緩矣. (前揭書)

이처럼 濟州島의 後學人을 위해 秋史는 本家에 최선을 당부한다. 庶子 商佑에게 보낸 書翰의 내용은 蘭法과 그 三轉의 妙法에 대해서 言及하고 있다.

今此多紙送來 汝尙不解蘭境趣味 有是多紙之求寫殊可憤筭寫蘭 不得過三四紙 神氣之相湊 境遇之相融 書畫同然, 而寫蘭尤甚 何由多得也 若如畫工輩麟應法爲之 雖一筆千紙 可也 如此作不作可也 是以畫蘭吾不冝多作 是汝所嘗見也 今以略干紙寫去 無以盡了來紙 順領其妙可耳 (前揭書)

蘭을 치는 妙法을 말한 대목이다. 이것으로서 秋史의 藝術觀의 一端을 엿볼 수 있는데 그는 多作主義가 아니라 技巧派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종형에게 드리는 書翰

轉丸滔滔 冬令已屈 形如槁木 心如死灰 坐送此流光而已耶 海國尙遲歛藏 而北陸則泉壤搖落 草木變衰矣 此時體候諸節 更若何……………從弟依昔頑鈍 忽患皮風之症 遍體鱗鱗斑斑 不勝搔屢 夜不能交睫……………室憂又以老 瘡作苦云 (前揭書)

上從兄 教喜에게 보낸 書翰 第1 信인의 대강인데, 문안과 자기 안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신의 처지를 “물결은 마른 나무와 같고 마음은 탄재와 같다.”는 비유는 流配에 직면한 작가의 정신적 상황의 心境의 표백인 것 같다. 이어 上從兄 教喜에게 보낸 書翰

275) 抽稿 「秋史의 悼亡詩와 祭文考」 (『玄平孝博士回甲紀念論叢』 대구; 형설출판사. 1980 pp. 417- 432.)

第1 信은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축원인사를 드렸고, 夫人 禮安李氏의 他界로 인한 자탄을 내용으로 하였다.

從弟積咎積殃 又及於無辜之室人 千里海上 訃車忽至 驚越震慟 猶遲第二 近四十年聯合之重 猶屬私情 屢世香火 一以委之 於不生不熟, 新來之兒子夫婦 身上使渠 雖賢孝出常 萬萬可以幹蠱 可以搯拄
〈前揭書〉

夫人 禮安李氏의 他界는 바로 “積咎積殃 又及於無辜之室人 千里海上 訃車忽至 驚越震慟”한 것이니 바로 秋史의 뼈를 깎는 듯한 비통함이었다. 그리고 夫人이 他界한 후의 여러대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걱정하였다. 이러한 걱정은 유배된 자신의 처지를 더 한층 자탄케 하는 것이었다.

百爾思之 頭緒茫然 不知何以爲好 豈料吾身目見 其如此類替 莫可收拾 撫躬自悼 有甚於長逝之哀矣 初終及時 尙幸」
〈前揭書〉

夫人을 잃은 비통이 절절하다. “撫躬自悼 有甚於長逝之哀矣” 하는 상황은 바로 비통이 극에 달하였음을 표백한 대목이라 하겠다. 이리하여 秋史는 鰥寡之孤獨에 젖어버리는 것이다.

(4) 조카에게 주는 書翰

痛哭痛哭 此何事 此何變 想惟 天地崩塞 攀號叩辯 何以爲生 以我先兄主宏大器度 峻整風裁 爲門庭斗杓 爲後儀型 位品未得稱德 年齡又薨上壽 困厄窮迫於荒山 寂寞之中 止於斯境 天乎人乎 痛哭痛哭 尙復何言 尙復何言 初終諸具 何以措辨於此時 能無遺憾歟

〈『阮堂先生全集』卷2 寄從姪商默〉

從姪 商默에 주는 書翰의 한 대목이다. 1843년에 上從兄 教喜가 他界한 소식을 접하고, 流配地에서 그지없이 통곡하여 自歎하고 있는 내용이다. 집안의 한 어른이 돌아간 것은 마치 천지가 무너져 막혀버린 것 같은 슬픔이어서 가슴칠 만큼 사람이며 하늘이 원망스러워 통곡에 통곡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심히 염려한 것은 초종 장례를 어떻게 유감없이 치루었는가 걱정한 것이다. 이어

汝之入吾門 纔五十日 遽罹荼毒幹蠱之道 搯拄之策 專擔於藐然隻身之上 如此情地 在古亦罕 惟當深加寬裁 克遵先訓 仰體先兄主冥冥之眷顧爲今日急務 不可但以傷孝爲戒也

죽은 上從兄의 초종 장례를 先訓에 따라 잘 치루도록 당부하였다. 비록 유배당한 처지 이면서도 上從兄 사후의 당부가 절절하여 한 집안의 宗家의 신분으로 그 염려가 뜨겁도록 강렬한 것이다.

嫂氏諸節 何持支 汝亦不至甚病耶 種種悲念之私 無以暫下 山事何以爲定 襄擇已吉耶 漠然大海之外都無聞知 北望痛哭 只欲溘然無知而已 心神震越 強不能接續 艱此佈及 萬望 十分支護姑不宣式
〈前揭書〉

上從兄 사후 嫂氏가 어떻게 지내 살지 심히 병약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장례때 山役은 어떻게 하였는지를 걱정하면서 大海밖에 있는 자신의 신상을 자탄하고 있다. 秋史로선 流配生活 동안에 夫人 禮安李氏의 他界와 함께 上從兄 教喜의 죽음은 글자 그대로 충격적이요 不運의 연속 그것이었을 것이다.

每有書生濫分之戒 薄亦可喜 大易不家食之吉 非家食可比 隨喜 隨順 安往 而不裕如也 且大海橫臨於前 碧鯨紫鯢 皆吾所有 魴鱸不論錢 是豈家食所能也
〈前揭書 卷2 與從姪商一〉

從姪 商一에게 준 書翰의 한 대목이다. 官의 영전으로 襄陽에 떠나간 從姪에게 준 書翰으로서 書生은 분에 지나치지 말라는 戒에 따라 비록 부임지가 박하더라도 가히 기쁘게 여기도록 그리고 周易에 집에서 먹지 않으면吉하다 하였으니 매양 형편에 따라 기뻐하고 순종하면 어디로 간들 넉넉치 않겠느냐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大海는 바로 내 소유이고 그것은 돈으로 따지는 것이 못된다고 얘기하였다.

이 從姪 商一에게 준 書翰은 秋史가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조카에게 준 단순한 書翰이라기 보다 秋史 自身의 人生觀의 一面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당쟁으로 유배당한 처지가 되고 보니 保身한다는 처지에서도 당연한 당부라 하겠으나 이러한 것은 士大夫의 意識構造의 한 端面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秋史의 漢文書翰은 유배생활의 진모와 家間事에 대한 配慮, 時局觀·藝術觀 그리고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 등이 표백되어 있어 秋史의 流配書翰은 개인의 단순한 用談만을 쓴 것이 아니라, 流配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여 자신의 유배생활의 갖가지 所懷를 진실하게 쓴 것이다.

특히 朝鮮朝 士大夫의 教養이 漢詩文에 있었음에도 秋史는 漢文書翰은 물론 한글書翰을 썼다는 것은 그의 實事求是가 主體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朝鮮朝 儒敎社會에 선 內外間도 外面하는 생활이었는데, 秋史는 流配당한 처지가 되고 보니 다시는 살아서 귀향할 수 없는 절망과 단절의식으로 인해 方外人으로서 무엇인가 쓰지 않고는 못견딜 절실하고 진실한 소망 때문에 書翰을 통해 표백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일반서한과는 달리 여기엔 人生의 眞實과 文學의 眞實이 바로 표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祭 文

一般的으로 “漫錄·漫筆·隨記·隨錄·雜記·雜錄·筆記·閑話” 등의 이름이 붙은 典籍들이 거의 다 隨筆에 속한다. 이것을 漢文學의 文體로 바꾸어 살펴보면 “辭·賦·表·奏·啓·策·疏·書·序·跋·記·銘·頌·行狀·傳·碑·誌·祭文·上樑文·雜著” 등이 다

同一한 隨筆文學에 속하며 그 범위는 넓다.²⁷⁶⁾

우리 나라의 경우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祭文은 발달했으나 文體 分類上 挽歌·挽歌詩의 발달은 지극히 미미한 것처럼 보인다.²⁷⁷⁾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流配祭文은 英祖 때의 尹塾의 「貞敬夫人 李氏祭文」과 憲宗 때 金正喜의 「夫人 禮安李氏 哀逝文」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兩者가 유배적 상황속에서 喪配를 당했다는 점에서 그 운명이 같고 兩者가 유배지 濟州島 大靜縣을 배경으로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유배에서 풀려나와 夫人의 죽은 사실을 알았고 후자의 경우 계속하고 있는 유배 중에 부인의 타계한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있고, 전자는 夫人의 죽음을 애도한 祭文의 표기를 한글로 기사한 國文式 祭文이라면 후자는 漢字로 기사한 漢文式 祭文이란 점에 있다.²⁷⁸⁾ 전자인 尹塾의 「貞敬夫人 李氏祭文」을 流配祭文으로 보는 근거는 準流配文學의 개념 규정 ②에 해당하는 이른바 제작 연대가 확실하고, 유배를 겪은 작가의 작품으로서 그 내용이 유배생활이 끝난 직후 세상에 대한 염세를 일으켜, 심적 상황으로 연속된 유배적 분위기의 성격을 띤 작품으로 확고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忠肅公 尹塾의 친필인 한글 祭文은 그 後孫 尹用滿氏의 호의에 의하여 金一根님에 제 공되어 그 문학적 각광을 받게 된 셈이다.²⁷⁹⁾ 종래에 한글 祭文이라면 閨中에서 지은 歌辭 形式인 가답에 閨房歌辭로 취급되어 졌지만²⁸⁰⁾ 尹塾의 한글 祭文은 士大夫의 作에다가 漢文 長詩形인 文章들이요, 歌辭가 아니니 그 한글 祭文을 閨房歌辭로 본 종래의 견해에 異色을 던져 주는 바라고 지적되고 있다.²⁸¹⁾

宜祖때 湖月堂 安敏學 (1542~1601) 이 자기 아내를 死別하고 그 슬픔을 한글로 祭文을 지어서 장례를 지낼 때 棺속에 屍身 위에 덮어서 成墳하였던 것이 4백년 뒤인 1978년에 그 後孫에 의하여 移葬時 發掘된 祭亡室郭氏文(가칭)이란 것이 있어²⁸²⁾ 한글 祭文을 房歌辭로 본 종래의 견해에 달리하는 그 位置를 確證하는 셈이 된다.²⁸³⁾

276) 崔康賢 「隨筆」(『韓國文學概說』 대구; 형설출판사, 1980 p. 282)

277) 前掲 註) 277) pp. 417 - 432 李奎報 (1168-1241)의 「東國李相國集」 李穡 (1328-1396)의 『牧隱詩文集』 徐居正 (1420-1488)의 「東文選」. 李退溪 (1501-1507)의 「退溪文集」, 許筠 (1569-1618)의 惺所覆額稿」 등의 文集을 보면 그 文體分類 항목에 있으나 詩類인 挽歌, 挽歌詩는 없다.

278) 金鉉龍 「祭文에 관한 研究」(『文湖』3집, 建國大學校, 1964, p. 108) “祭文을 漢文式祭文과 祭文式歌辭로 구분해 왔고 祭文의 始初에 대해선 佛敎에서 亡者를 위해 僧侶가 佛經을 외우는 데서 그리고 蔡喪禮때 뜻하는 婦女들의 辭說선은 痛哭의 文字化 巫堂들의 喪祭參與와 女子들의 祭祀參與는 祭文生成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279) 金一根 『상명사대』 3號 (1971), 『뿌리깊은 나무』 創刊號, 2號 (1976). 『제주도』(제 69호 1976)에 部分的으로 紹介되었다.

280) 前掲 註) 278) p. 108

281) 金一根 「貞敬夫人 李氏祭文」(『人文科學論叢』 9집 建國大學校 1976, p. 125)

282) 具壽榮 「4백년 사신위에 덮인 기적의 한글문학」(『文學思想』 77 1979.2 pp. 191~196)

283) 中宗代 李彥迪이 지은 母父人孫氏에 대한 祭文은 漢文祭文(晦齊集)을 後孫이 번역한 것으로 그것은 完全히 歌辭體를 意譯化한 것이다. 洪在侏 「教大春秋」 5호) 徐元燮 『어문논총』 6호 등의 발표 參照, 따라서 尹塾과 安敏學의 한글 祭文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1) 尹塾의 貞敬夫人 李氏祭文

尹塾은 英祖 10년(1733)에 나서 正祖 21년(1797)까지 文臣이다. 그의 字는 汝受, 本貫은 坡平이다. 英祖 37년(1761)에 과거에 급제하여 검열이 되고 이듬해에는 史官으로 入侍하였다. 英祖 38년 壬午년(1762) 5월 청지기 羅景彦이 사도세자의 罪를 英祖에게 고해 바쳐 思悼世子禍가 발생함에 英祖가 親鞫하게 되니 史官의 처지에서 세자의 처형을 반대하였다. 이 때 소극적인 영의정 申晩과 좌의정 洪鳳漢 등의 행동에 분통을 참지 못하고 이들을 비판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미움을 사서 처음에는 海南으로 유배당하고²⁸⁴⁾ 2년 후에 풀렸다가 同王 47년(1771) 7월에 다시 옛날에 샀던 미움이 빌미가 되어 두 번째로 濟州島 大靜縣에 유배되어²⁸⁵⁾ 同王 48년(1772) 2월에 喪配를 당하였어도 전혀 몰랐었다. 짓궂게도 상대방한 3개월 후인 5월 9일에²⁸⁶⁾ 放還되어 귀가해서 비로소 夫人의 죽은 소식을 듣고 3년상을 마치면서 同王 49년(1773) 癸巳 2월 17일에 腸斷의 비통을 달랠길이 없어 이 祭文이 지어졌고 부인의 기년 제사 때에 읊어졌다.²⁸⁷⁾

곧 尹塾의 이 祭文은 이러한 그의 명을진 마음의 응어리를 있는 그대로 비쳐 주는 역사적 증언의 구실을 한다.

아내의 상은 일년 만에 끝내는 것이 朝鮮朝 社會의 風俗이었다. 그러나 유형수 엮기에 부인의 初終 葬禮에 한 지아비로 치루지 못한 한을 달래기 위해 3년상을 채우겠다고 고집했을지 모를 일이다. 그만큼 부인에 대한 그의 사랑은 지극한 것이 있다. 형식적인 漢文 祭文이었다면 불과 100여자 內外면 쓸 수 있는 것인데 이 「貞敬夫人李氏祭文」은 23張의 內容이 前後 表紙가 完全한 채 胡蝶裝으로 28cm의 正方形으로 되어있다. 一面 18행씩 上下 36행으로 총 1528行 곧 1528句(歌辭式 句數)라는 長長한 大作인 것이다.

作品 末尾側面에 「갑신 삼월일 불초 현손 조형 근장 우안변 입쇼」라 첨기 했으니 이와 같이 장정한 것은 甲申년(1884) 3월에 尹塾의 玄孫 祖榮이 安邊 住所에서 한 것이며 따라서 표지에 「정경부인 연안니씨 제문」이라 쓴 것도 장정자가 쓴 것을 알 수 있다. 또 뒷 표지의 이면에 「이 책은 충숙공 친필이신 고로 억만년에 유전할 귀중품이니 우리 조손들은 무루히 봉독하며 경해야 삼치 안키를 주의하라 무진 이월일 불초 오디손 교창」이라 기술되어 있고 또 표지에 「忠肅公親筆(貞敬夫人 祭文)」이라 밝혔으니 戊辰年(1928)에 祖榮의 아들이 加筆한 것이다.²⁸⁸⁾

本 祭文은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죽음에 대한 애도가 주제인데 大別해서 4段으로

284) 英祖實錄 卷99 38年壬午閏5月丙子條 “……上竄命尹塾于海南”

285) 英祖實錄 卷119 48年8月癸酉條 “……塾大靜縣勿限年定配……”

286) 祭文中에 “5월 9일의 망외의 샤를 어드니”란 代目이 있다.

287) 祭文의 發語部分에 “계사 이월열이렛날 갑술”이란 于支가 있다.

288) 金一根 「前掲書」 p.127

구분해 볼 수 있다. 제 1단은 이 祭文의 緒頭라 하겠는데 우선 죽은 夫人에 대한 婦德을 기리고 있다.

유세죽 이월열이렛날 갑술 파평 윤숙은 습가 것춘글 혼당으로써 대략 망명 비고혼 정한을 퍼
 망실녕인 연안 니씨 녁년의 고희느니
 우리 금과 슬을 엇도다
 진실로 규척만 의논흔지라 필부의 그릇하미 업도다
 슬프다 내그대 마즈니 귀스 동동이로다

己巳년(1749)에 부부가 되고 2년만에 첫 아들을 낳아 기뻐하였는가 하면 壬申년(1752)에 가족이 홍역에 부인은 학질에 고통을 겪었고 아들을 보고 할아버지가 기뻐한 내용·부인의 내조로 학업을 부지런히 하였음을 회고하고 있다. 이어 乙亥년(1755) 男妹가 병에 걸리고 丁丑년(1757) 세 아이가 병에 걸렸으나 다행히 신령의 도움으로 회복되고 다만 큰 딸이 오래 앓아 누어 늘 가엾게 여겨지던 중 壬午년(1762) 思悼世子禍에 史官으로 入侍하게 되었다. 尹塾은 世子處刑을 반대하여 英祖의 노여움을 사서 金羅道 海南으로 流配당하게 된다. 위 段落은 해남으로 유배당하기 전의 집안 사정을 회고한 것인데 가족이 병고에 시달리는 불운하고 어려운 형편이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第2段은 海南으로 유배당하여(2)년동안의 유배생활 끝에 放釋되어 딸의 출산·장남의 혼인·아들의 출산·세째 딸의 죽음·부친 상·장남 사망과 아들에 대한 회상·모친상·부인의 병고 등 가족이 거듭된 불우한 상황을 겪었던 것을 회고하였는데 이러한 불우한 상황 속에 尹塾은 濟州島 大靜縣으로 유배를 당하게 된다.

성취 위엄을 개이사 절도 천극을 거두시니
 령○ 허남의 편비로 도류하시니
 하늘을 우러어 감음하야 성은 갑기를 심각하도다
 머리를 도로혀 북으로 바라니 그 티를 맛나미 짝 이시리노다
 염천한명의 아홉번 구러지고 열번 너머지도다
 겨요 누소의 이르러 편지를 도라가는 사람의 브치도다
 시비빅단이나 하니 남녀 빅성되기를 달게 너기도다

 간초하고 근심호미 두히의 구름기러기 망창하도다
 엇지 도흔비 덕티이 마른 흙의 밋춤을 귀약하여시리오.

第1次로 全羅道 海南으로 유배당하였을 때 불운한 심정을 표백한 것으로 遠惡地島配를 당하리라 생각하던 것이 海南으로 유배당하게 된 것은 오로지 聖恩에 있다고 감사해 한다. 是非가 많은 당쟁에서 비록 유배당한 처지이면서 聖恩으로 유배지에서 한 목숨이 부지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시달리며 근심 속에 2년간의 유배생활이 무사한 것은 마치 좋은 비 덕택으로 마른 흙에 미침과도 같다고 여긴다.

내 과연히 세상을 닛고 그디 쏘흔 볼스를 권하도다.
 몸이 한가하고 마음이 평안하니 듀문을 브러 아니하도다.
 아춤에 고기잡고 저무매 낙시하니 기리 통발과 낙시때를 안앗도다.
 산옹과 슈직이 서로 바회와 반석의 맞는도다.

 후 서울말을 면하던 귀를 가리우고 듣지 아니 하도다.

海南 流配에서 放釋된 후의 尹塾의 심정을 표백한 것으로, 다시는 出仕를 아니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벼슬길에 나서면 반드시 유배를 당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상황이니 다시 富貴功名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尹塾 자신의 생각이지만 부인의 진정한 바램이었을 것이다. 한 마디로 어찌다 서울 말을 전하면 귀를 가리우고 듣지 아니하겠다는 심정은 바로 유배당한 사람이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자세인 것이다.

일죽히 남 덕거의 이실재 명복의게 명을 드렸도다.
 큰오히 신명을 드르니 큰그르시 만가지 다 길하도 하도다.
 오직 나무드리를 꺼리니 스물던의 피하미 맛당타 하도다.
 허물며 괴질이 이서 빌의 두후로 붓터 하도다
 석로 늑혈을 내매 내 낭히 민망 넘너하논지라
 경영하야 경거하매 아내와 더브리 서로 의논하도다.

 잠간 조치를 두매 당춧 신네를 힘하러 하도다.
 이듬히 쯡춘의 날흠 같회고 패빅을 밧도다.

流配에서 풀린 후 세째 딸과 네째 아들 출산이란 경사가 잇달았으나 丙戌年(1766)에 세째 딸이 네살에 병으로 죽는 불운을 겪는다. 장남의 몸이 쇠약한 것이 늘 염려되어 流配生活 중에서 걱정된 尹塾은 이름 난 점장이에게 점을 쳐 보기도 한다. 아이의 운 수가 스무살 전에 피함이 마땅하다고 듣고 유배에서 풀린 후 아내와 더불어 의논하여 丁亥年(1767)에 婚禮를 올린다. 이러한 기쁨은 순간적인 것이었다. 아들의 혼사를 지낸 3개월 후에 尹塾은 부친상을 당하는 불운을 겪는다. 내 무슨 죄악을 쌓아 위로 하늘의 노여움을 입었느냐고 자탄한다. 이러한 불운은 실로 엄청난 불운으로 연속되는데 불과 17세밖에 아니된 장남의 죽음이 그것이다.

아들은 붓들고 며느리는 안아 쏘 경영하며 쏘 구완하도다.
 굽흔 그별이 니어 일오매 뉘 건티여 안주하리오
 겨요 성복을 지내매 그디 몬져 굽히 도라가도다.
 〇히 임의 뇨덜히야 어미를 브라고 느려 오논도다
 흥쥬원 시냇버들의 어미 주근 즈식을 맞다도다
 관을 안고 혼절하니 심간이 쓰여지고 가슴이 막히오다
 날뵈히 참연하고 구름이 근심하니 힘노기 귀운이 삭연하도다
 나는 너축의 이시매 망연히 드러 아지 못하도다.

어떻게 숨 돌이킬 수 없이 급한 사정이 잇달아 일어나는 실로 비극의 연속이다.

9월 과거에 아들을 위해 차비를 차려 주고, 푸른 옷 빠른 나귀 위에 일곱자 키가 현출한 것을 뒤에서 바라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자신이 젊어서 오르던 科擧를 아들이 그 자취를 이을 것으로 믿었었는데, 자신이 나를 가만히 속였다고 자탄하며 아들에 대한 회상을 하였다. 아들이 죽자 연강에 몸을 던져 물에 잠기려 하나 그렇지도 못하여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으나 설음이 이미 지나치게 큰지라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시시로 정신 잃고 누울 정도로 상심은 컸었다.

그런 가운데 尹塾은 모친상을 당하는 것이니 그 不運의 연속은 절정을 달한 셈이다.

급한 그 별이 홀연이 오니 놀나 니러 나다가 다시 업터지도다

문의 드러가 병후를 슬피니 ○슈하고 법도를 일토다
이순을 도호호매 눈이 멀게 되고 업드러지느도다
증후 | 날로 중후시니 가슴을 두두리매 으스말을 흐리오

.....
칠월은 나의 원슈 |라 못춤내 큰서름을 만나도다.

不運은 그 한계가 없는 것인지 尹塾에게 직면한 불운은 거듭된 불운을 낳는 실로 인간 비극이었다. 딸·부친·아들 등의 죽음 뒤에 모친상을 당하는 불운은 실로 그의 표현대로 원수와도 같은 것이었다.

염현 원자의 넘습 오솔 뉘도울고
턴형으로 군즈를 만나 포복하야 제구를 다스리도다
집이 혼갓 네벽뿐이라 창졸의 변을 만나도다
승미 풍화를 머리 썩터를 좁고 친히 판출호도다
힘이 진하고 세 박호매 그티 분곡도 못호도다
겨요 성복을 지내매 내병이 쏘 극독호도다.

집안이 가난하고 또 계속된 불운을 처리하고 난 후라 기진하여 모친의 염습옷을 마련한다는 것도 걱정거리다. 부인이 머리칼을 잡혀 한되 쌀, 한 푼 돈을 몸소 마련하게 되니 부인도 연달은 슬픔에 곡도 앓을 정도다. 尹塾은 이런 불운속에 기진하여 쓰러지매 병만 크게 도져 물골이 말이 아니었다. 辛卯年(1771) 7월 5일에 臥病 중인데 나졸들이 와서 다시 壬午年(1762)의 일로 샀던 미움이 빌미가 되어 제 2차로 濟州島 大靜縣에 유배된다.

第3段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壬午年 思悼世子禍에 세자의 처형을 반대하고 대신들을 叱責한 것이 두번 다시 빌미가 되어 영조의 노여움을 사서 濟州島 大靜縣으로 유배당하여 유배지로 가는 과정·항해의 어려움·유배생활의 어려움 등을 표백하였다.

문을 여러보매 데줄이 밧겨 잇도다
손의 내성명을 뼈 울호며 그름을 문느도다

일으되 대정 영벽하매 썩히 남두를 보노도다
 이의 지은죄 업논지라 일뜻출 아지못하도다
 지계를 겨요 날러열고 안희 말을 던하도다
 그디 놀나 낫빛출 일허 불을 벗고와 연고를 못도다
 눈물이 니어 느리매 원집이 다죽게 하리도다 하노다.

大靜縣 유배를 당한 尹塾과 부인의 놀란 동정이 표현되어 있다. 海南 유배가 끝나 앞서 지은 罪가 없는지라 실로 일 끝을 알지 못할 일이었다. 집안의 계속된 불운에 시달리고 있는 중에 그것도 尹塾 자신은 병 중인데도 大靜縣으로 유배당한다는 것은 온 집안을 다 죽게 하는 비극적 상황이었다. 한 번 나서 죽기를 겁냄이 아니라 애꿎은 팔자가 한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가 의문인 것이다.

턴위 진첩하야 금일니의 강을 건너라 하시오도다
 니어 선던이 이서 희류하물 형출혼다 하도다
 밋쳐 사당의 하적디 못하고 망즈를 염격치 못하도다
 선성 빅니의 도라 브라매 가슴이 막히도다
 예최하고 도보하야 힘하매 으지 뒤흠 쓰르도다
 겨요 똥문을 나매 그디 우논소리 밧기 들니이논도다
 촌땡이 배히논듯 하되 밋음을 츄마 톱연흠 갖도다.

나졸들이 發配를 재촉하는 말에 임금의 노여움이 겹으로 쌓여 오늘 안에 한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고 또 선전관이 꾸물거리면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먼길 떠남에 祠堂에 하직하고 죽은 아들과도 이별을 나누지 못하는 긴박 속에 유배길에 나선다. 아이가 뒤따르는가 하면 부인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태연한 채 길을 나서나 그야말로 一寸肝腸이 배이는 심정이었다.

내 이의 멀리가니 양네를 아직 기다리라 하도다
 아들이 내곶회 누어시니 몸을 어르만더 경계를 다시 하도다
 네 모친과 수씨 밧들물 내 이실 적갓치 하라 하도다

 두밤을 지내고 길흠 떠나니 으지 썩로며 우논도다
 당뵈 이를 보매 나쁜 간당이 언마나 하리오
 손을 들너 가기를 빅아매 가네 모친을 위로 하라 하도다
 내 이제 멀니 가니 잠스지닐 계교 업도다
 형의 상식을 니어 신녕이 주리게말라 하도다.

유배가는 도중 陪行한 아들에게 家間事를 당부하였다. 모친상 중에 유배당한 것이라 장례를 기다렸다 치르라는 당부와 어미와 형수를 잘 받들고 형님 상식을 잊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모친상 중인데도 유배를 당한 것으로 봐 조선조의 당쟁과 관계 있는 유형은 형벌의 집행에 있어 법의 고려를 떠나 정적 제거의 한 수단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츄 망일의 압호로 부안 이르로다
월식이 낮갓트나 병을 붓들너 경낙을 보라도다

.....
친상이 빈소의 이시니 뉘 구홀하며 뉘 슬허하리오
병든 안희와 외로운 아희들이 뉘게 의지하며 뉘 머기리오
눈물 뿌리고 지계의 의지하니 흰 이슬이 오시 짓는도다.

유배가는 도중 8월 보름에 扶安에 이르러 귀양살이 기별을 듣자 屈原처럼 자결할 심정도 먹었지만 어머님의 관이 빈소에 있고 병든 아내와 외로운 아이들을 생각하니 도저히 결행할 수 없어 지계문에 기대어 눈물을 뿌리며 身上을 자탄해 본다. 尹塾은 8월 보름에 부안에 이르러 부인에게 만갈래 슬픈 사연의 書翰을 썼고 8월 20일에 영암에 이르러 書翰 한장을 전했다.

흔 편지 일턴 줄이라 가시 녀너호도다
명신을 모호고 믿음을 가다듬어 뉘후 다시 씌도다.

尹塾이 훗날을 부인을 위해 長詩形의 祭文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편의 書翰을 쓰되 일천 줄이나 길게 썼던 力量이 그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尹塾은 부인에 대한 정성도 보통이 아니었다. 유배지 濟州島에 입도하기 전까지 부인에게 쓴 書翰이 5통이나 된다. 한편 ‘편지’란 어휘가 11회가 나타날 정도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유배가는 도중인데 부인의 병든 마음을 위로코자 물건을 바꾸어 보낼 정도이다. 그런데 尹塾 본인은 發配 時에도 환자였는데 영암에서 병을 10일간 조리해도 海南에서 5일 동안 병든 몸이 된다.

도동의 향호므로부터 심켜 더욱 효철헌도다
통박의 빌의호 바의 빅병이 모다 발호도다
우호로 토호고 둥간이 만히이매 스스로 뿌려져 아지 못호도다
병든 오일의 인귀를 분변치 못호도다.

병약한 몸이었지만 유배당해 가는 몸이고 보니, 백가지 병이 모두 나타나게 마련이었다. 그렇게 병든 5일은 물골이 형편이 아니었다. 10월 10일에 배를 타고 濟州로 향했으나 바람이 세어 배를 멈추게 하여

양네 던에는 빙세하야 바다를 건너지 아니하랴 호도다
지리히 두들의 믿음이 싸고 꺾음이 더상호도다
바다를 건너미 압희이시니 슬픔을 좃고 우지 아니호도다
가서 | 혼결갓치 막히니 삼십이 격흠 갓도다
스상 존몰이 문득 스삭을 격호도다.

모친 장례 전에 濟州島로 향하지 않기로 맹세하여 마음이 타고 기운이 꺾기는 2개월

간을 지낸다. 집에서 오는 편지가 막히니 마치 백년의 강물이 흐른 것처럼 생사가 허무해 보인다. 여기서 조선조 유형이 發配 도중 모친상을 당하면 그 장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는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유배가는 중간지에서 잠시 체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엇지 십월의 이피 펴네 지닌주를 알아시리오
 그씨의 아지 못하고 스스로 평인코도다
 조식의 어버이를 장치못하니 불효 1 크도다.
 복을 부라고 업더지니 텃디 어둡고 어둡도다
 조의 죄 관영하니 죽지 아니하고 모습하리오
 원역을 머금고 절치하야 사라 못당히 면네를 지내리도다.

드디어 모친의 장례를 치룬 소식을 인편의 서신에 의해 확인하여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지 못한 것을 자탄한다. 이어 부인을 위해 인편 편지와 물고기를 보내 위로하나 부인의 병이 중하다는 답서를 받고, 또 濟州로 가면 살아 귀가하기를 어찌 기약하겠느냐고 자탄하면서 부인에게 가간사를 부탁하고 약먹기를 자주 하도록 당부하여 동짓달 19일에 배를 탔으나 기후가 風候不順하여 해로가 순탄치가 않다.

물결이 노하고 구름이 어둡도다
 뱃길을 지나지 못하야 푸른 물결이 하늘의 다향도다
 중간 사이의 돛치 쓰여지고 뱃 기우러지논도다
 물결이 소소고 밤이 어두오니 지척을 분별치 못하노다
 좌편 물은 우편을 지나고 압물결은 뒤흘 넘논도다
 사람이 다 귀신의 얼굴이다 손을 묵고 파항기를 기다리도다.

해남을 떠나 보길도, 목섬을 향하는 도중의 해로가 물결이 사나워 순탄치 않아 바람을 피하기도 하여 세번째로 배를 타서 추자도에 향하여 날이면 날 마다 舟行기로 했으나 해로가 순탄치 않아 되돌아 오기도 하였다. 또 날이 밝아

날이 지월 그름이로다 영췌산이 바람의 드도다

 거문 밤이 망망하니 서동골 분별치 못홀노라

 삭풍이 썩를 펴하니 바다소리 귀를 놀래논도다

 급히 노역을 배퍼 연망히 포구의 드도다

 대풍이 뒤흘 조츠니 우설이 오솔 것논도다
 낭찍하여 비의 누리매 급히 촌인의 향하도다
 도로혀 바다물결을 바라보니 만년의 하늘에 다향도다
 등뉴하여 이를 만나던들 편각의 반드시 엄칠났다.

실로 어려운 항해 끝에 유배지 濟州島에 入島하였다. 7월에 발배하여 11월 말이고 보니 5개월간에 걸친 유배 여정을 밟은 셈이다. 바다 물결이 만리의 하늘에 닿을 듯한 대풍을 만나 실로 사경을 넘어서 旅程이었다.

濟州 보성에 도착하자 먼저와 있는 부인의 편지를 받아보고

가만히 그디 병을 헤아리며 반드시 도치 못함애 이룰이로다
회포를 덩치 못함애 일씩 슬프미 서로 모히돏다.

마음에 서린 恨을 억제치 못하여 온갖 슬픔에 사로 잡혀 자탄하여 버린다.
濟州에 들어 온 후 어머니 돌아감에 자식도리 못한 설움에 조석으로 곡하기도 한다.
그런 효심은 濟州의 특산물인 橘을 보고는 제전에 보냈으면 하고 생각한다. 또 1개월만에 공들여 일천줄이나 되는 書翰을 써서 부부가 살아서 만나기로 위로한다. 이어 최종 목적지인 大靜縣에 가서 謫所를 정한다.

내 대당을 향함도다
상술이 슬풀이 눈속의 푸르니 눈물을 뿌리고 병을 붓드렸도다
저춘 새의 피블이여 돌이 어즈럽고 길히 위탁함도다
쥬인을 덩하야 거함애 믿음에 어즈러운 실 갖도다
넋칠 싸고 빗겨 업드러더시니 성이 표연함도다.

大靜縣으로 가는 과정과 謫所를 정하여 살기로 작정하니 마음이 어지럽고, 살 길이 묘연하여 身上을 自歎한다.

흔흔하야 야반의 구들이 타눈줄을 깨닫지 못함도다
독혼 닌 칠규의 드니 먼저 덩신을 일토다
홀지의 놀나 니러나니 불이 방중의 창일함도다
급히 젓사름을 찬 개오며 닌를 마셔 슬피지 못함도다
지계를 열고 물을 부우니 화의 저기 그치도다
등준을 붉키고 이에 보니 대금이 타기를 다함도다.

유배생활에서 온돌의 과열로 해서 화재가 날 뻔했던 그 어려움을 표백하였다. 하마트면 유배지 謫所에서 불에 타 죽을 뻔했던 불상사였다. 이러한 일 있는 다음 정월 보름날에 상서롭지 못한 악몽을 꾸어 급히 부인에게 편지를 부쳤고 또 2월 보름 뒤에 악몽을 연속으로 꾸다.

둥춘망후의 꿈의 그디를 만나도다
우리 본집이 아니라 궁능훈 초사 로다
하늘 비출 보지 못함애 견회 방해 잇도다
그대 홀연 압홀 지나니 옷과 장속이 상희와 드르도다
몸이 가뵈야와 나는 듯함애 표홀하야 나꺼지 못홀 듯 함도다

내말노 그디 드려 모르되 〇희들을 버리고 어되로 가논고
두져햐야 담지 아니하고 망홀흔 스이의 숨어 피호도다.

틀림없이 부인이 他界한 것 같은 불길한 흉몽이라 여겨 부인과 子婦에게 書翰을 부쳐
각별히 子婦에게 너의 시어머나가 만드시 무슨 일이 생긴지라 네 앞에 書翰을 부치니 만
일에 아직 살아계시거든 너가 읽어드리고 이미 세상을 버렸거든 書翰을 영전에 올리라고
당부한다. 3월 초순에 2월 초에 쓴 子婦의 書翰을 받고 부인의 병환이 위급함을 알게
된다. 그러한 불안하고 암담한 분위기 속에서도 3월 14일 맏아들의 죽은 날 유배지에
서 大喪을 지낸다. 4월 초순에 또 부인의 운명을 점친다. 4월 26일에 인편에 부인의
부고를 받았는데 2월 17일에 타계한 것이다.

이월 십칠의 그디 이에 세상을 버리도다

.....

좌로 〇희 손잡고 우로 머너리 팔을 붓도다
내명도 | 이피 극히 흥하여 먼저 당조를 일도다
너희 업친을 보지 못하고 쏘 이에 일오도다
흔이 만일 아픔이 이시면 구원의 눈을 감지 못하리도다
네희 업친이 본디 약흔지라 쏘 병이 흉타흐니
만일 이 그별 드르면 반드시 보던치 못홀지라
상수를 괴이고 던치마라 비록 십년이 지나도 사던에 던치 말라.

이러한 遺言에 따라 장사를 지내고 비로소 전한다는 글 내용인데, 이 글을 읽고 尹塾은
한 지아버로서 아내의 임종을 가까이하지 못한 怨恨에 눈물을 얼마나 뿌렸을까 쉬 짐작하
게 한다. 그 원한에 가득찬 自歎을 다음과 같이 표백하였다.

그디는 비록 망호를 괴이나 나는 먼저 죽음의 알았도다
바다를 비라고 혼변 통곡함매 일빅 원역이 가슴의 모히도다
약년의 서로 만나 일만 간고를 혼가지로 지내도다
겨요 혼 과거를 어드매 경식 아니라 도로혀 원슈 |로다
여러번 축척을 보매 약질이 스스로 사라지도다
임년이 후로 날을 권하야 벼슬 말나 호도다
간난이 쏘흔 상식라 혼가지로 히노나 괴약호도다
경년이래로 세간의 쓰지 업도다
내 혹 말로 위로하야 굿회여 스스로 단축지 말나 호도다
나와 그디 오라지 아니하야
우호로 부모씨 뵈옵고 아력으로 모든 망아를 만나도다
.....
죽는 재 다 명이로되 그디는 횡수의 뇨덜흔 호도다.

부인의 죽음에 대하여 悲痛해 하며 임오년의 思悼世子禍로 인해 해남으로 유배당하고
석방된 이후는 부인의 말대로 벼슬을 앓고 부부가 한 가지로 함께 늙어가며 사후엔 부모
와 亡兒를 만나기로 기약했었는데 어찌서 부인이 먼저 돌아가는가 생각할 수록 슬픔이 끝

없다고 자탄한다.

창창한 하늘이 혼식이 날로 더 흐도다
멀니 어린것들을 생각하니 이명이 엇지 이러특시 박호노
희를 예서 지내면 만일에 슬리 업도다
내 주근들 뉘 거두며 내 혼이 어퇴로 도라갈고.

夫人의 죽음에 대한 自歎이 그 절정에 이르러 있다. 하늘이 어질지 못함을 원망하여
특별한 것이 극심하다 하여 자신의 운명이 어찌 이렇듯이 박한가고 自歎하고 있다.

그디 글시를 슈습하매 겨요 닷당이 츄도다
체득의 김피 감초매 당춧 아희들의게 세치라호미로다.

부인은 죽어 이 세상에 없지만 부인의 書翰은 남아 있어 장차 아이들에게 남겨주려 정
리해 보는데 이는 부인의 書翰에서 부인에 대한 그리움에 젖고 있는 至情이라 할 것이다.

第4段은 結詞에 해당하는 것인데 大靜縣 유배에 放釋되어 歸家하여 부인의 3년상을 맞
아 제문을 올려 새삼 부인을 그리며 애도하였다.

오월의 구일 망외의 사를 어드니
.....
이튿날 일 제취로 향하야 인하야 하포코져 하더니
이의 엄당을 만나니 연흥과 평슈 又도다
.....
또 첫위를 만나도다
니릿을 엄뉴하매
맛음이 즐고 해오르매 일일이 삼지 갖도다.

放釋의 승이 내리자 濟州로 향하여 出陸하려 했으나 날씨 관계로 7일간 머물게 되매
하루가 3년과 같다고 표백하고 있다. 방척되어 7일간이나 날씨 때문에 잠시 머물게 된
것을 이렇게 지루하게 여겼을 때 유배생활의 나날은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하였을까는 쉬
짐작된다. 이어 濟州를 떠나 陸地에 닿았다. 그 순간의 심정을 표백하였는데 무슨 낮으
로 돌아가 어머니의 영전에 절하며, 아내가 他界하고 아들은 이미 3년상을 지냈으니 심
회만 어지럽다고 표출하였다. 이어 6월 16일에 처가에 이른다.

슬프다 금일의 군을 어더 봄가
우리 쫄은 어퇴 가고 군을 보디 못하노노
넛 힝남으로 올적은 쫄이 이서 혼가지로 갖거 하더니
이제 남똥으로부터 오매 신녕이 엇지 알리오
.....
내 목예어 디답지 못하매 다만 눈물만 나리우도다
.....
다시 압외홀 바라보니 세 아희 무덤이 누누하도다

사라 엄의 슬하를 떠나고 주그매 엄의 피와 드르도다
당부의 강흔이 스스로 녹는 줄을 지닫지 못홀로다.

유배생활에서 풀린 자신을 처가에서 기뻐해 주나 아내가 없어 尹塾은 혈루를 뿌려 탄식하고, 처가집 앞산에 있는 세 아이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살아서 이미 슬하를 떠나고 죽어서 어머니 무덤과 다름에 腸斷의 自歎을 표백하였다. 가족을 재회하자 모두가 슬픔을 이기지 못해한다. 그리고 영전에서 통곡을 하면서

넷 내갈씨를 칭각하니 그디 지게 압회서 우더니
이제 내 이의 오매 그디 어드로 도라간요
사라서 니별하야 주그매 도라오니 혼 조각 나무신쥬로다.

그는 앞에서 살아서 이별하여 죽어서 한 조각 나무 신주가 된 아내 무덤 앞에서 통곡한다.

가던 날 손 사름이 어이써 여의 못쳤논고
어제 내 와 보니 굳이 능히 알오미 잇는가
기리 슬픔과 설우물 닛고 김피 혼 우흙 흙의 감초였도다
사라서 서로 칭각하더니 도라오매 놀러 더브러 의뢰하리오.

夫人을 그리며 통곡하며, 새벽 되어 두견의 울음을 들으며 애끓는다. 홀로 찬방에 누운 먼 반신반의 속에 꿈꾸다 깨어나

나무 그림자 지게의 당하매 의심컨댄 그디 오논듯호도다
바람닐피 혹 움직이매 그디 소리를 들논듯 호도다.

부인이 살아서 찾아오는 착각에 사로 잡힌다. 부인의 3년상이 되자

세회를 경영하야 혼귀를 짓지 못호도다
이제 그디를 위하야 당형이 이를 지으니
이성의 친이 턱속의 밋지 못흠인가.

부인을 위하여 祭文을 지음이 부부 사이의 가까움이 血肉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아내의 장사를 일년상에 그치는 게 통례이나 부부간의 남은 한이 하늘과 땅 사이에 더욱 간절하여 3년상을 한다고 표백하였다. 끝으로 부인의 신령이 집안을 가호하길 빌며

오직 원하느니 그디 신녕 내집을 보던하게 도와
능히 외로운 아들로 혁여금 시러곰 성넛하게 호고
다시 모든 〇희들을 도와 병업시 양솔하게 하리로다.

부인의 신령이 가호하길 빌며

그딤 도라가고 내 홀노이시니 이성에 못어지 즐거우리오
다만 도라갈 날을 기다려 그딤로 더브러 영묘를 혼가지로 향리로다
신녕이 그이를 드를가 실노 내 통뎡이로다.

생을 마쳐 저승에서 부인과 함께 하고 싶다고 虛無한 감정에 젖는다. 이상에서 본 尹塾의 「貞敬夫人 李氏祭文」이 같은 文學的 價値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종래 한글 祭文은 여성이 지어 閨房歌辭로 취급되었으나, 이것은 士大夫가 지은 한글 祭文이고 가사 형식이 아닌 漢詩譯語體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이 祭文은 종래의 국문학의 유형에도 들지 않는 특이한 것으로 祭文의 대상이 바로 祭文을 쓴 士大夫의 아내이고 한 지아비로서 아내를 그리는 정이 남달리 솔직하게 제문에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대부 위주의 조선조 사회의 관례를 깨뜨린 파격적인 문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유배생활, 유배지의 인정, 청빈한 선비의 모습, 당파에 시달린 험난한 관직생활, 유배당한 남은 가족들의 생활, 서민사회의 인심, 이러한 여러가지 사회의 단면을 한 주제속에 엮어 넣은 뛰어난 長篇叙事文學으로 유배를 겪은 작가의 작품으로 그 연대가 확실하며 그 내용이 유배생활이 끝난 직후 세상에 대한 염세를 일으켜 심적상황으로 연속된 유배적 분위기의 성격을 띤 작품으로 이것이 準流配文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恨中錄」과 표리를 이루는 작품으로 역사적 기록으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日東壯遊歌」 보다는 부피가 적지만 나온 시기가 같고 그 형식이 장편 서사시라는 점에서 조선조 후기의 운문학이 장편서사성으로 흐르는 경향을 보였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곧 운율이 파격을 통해서 산문시의 기능성을 보여주는 뛰어난 문학성을 지닌 작품으로 이 祭文은 부인의 죽음에 애도하면서 유배당한 자신의 처지를 자탄한데 일관한 것으로 사건기술에 앞서 日記體 모양으로 연월일을 밝혔다는 게 특이하다.

그리고 祭文이 갖는 一貫된 哀傷性의 깊이에 있어 尹塾의 祭文의 構造는 亡妻에 대한 哀傷과 유배당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自歎 등의 精神的 狀況으로 自己의 孤獨과 認識을 深化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特色을 찾을 수가 있다.

尹塾의 祭文은 發語辭 “유세차”란 形式句가 있고 祭文 中間에 그저 넣어서 흐름을 돕는 “오호통재며 오호통재라” 따위의 形式句와 마지막에 “오호애재상향” 따위 一行의 形式句도 나타나지 않은 從來의 祭文形式과는 다른 것으로 注目할 만한 作品이다.

2) 金正喜의 夫人禮安 李氏哀逝文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秋史가 유배지 濟州島 大靜縣에 유배생활 중 壬寅年(1842)11월 乙巳朔 13일 丁巳에 夫人 禮安李氏가 他界했는데 다음해 정월 乙亥朔 己丑에 訃告를 받았다. 이는 그가 유배당한 지 2년餘日이 되는 날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秋史의 流配서한 9통 속에 부인의 병환을 걱정한 내용이 9회나 빠짐없이 표출돼 있음을 볼 때,

부인은 평소애 병약했고, 그것이 秋史가 유배당하게 되자 더욱 악화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 부인의 타계는 秋史에 있어서 큰 충격이었다. 곧 亡妻의 임종을 가까이에서 直接 볼 수 없었고, 流刑囚이기에 그 亡妻의 初終 葬禮를 한 지아비로서 치루지 못한, 괴롭고 冤淚를 뿌린 슬픈 심사는 그 충격으로 해서 비통한 情感이 짙게 點綴되어 있다.

이런 비통한 心思는 전술한 바 있는 上從兄 教喜에게 보낸 書翰 속에서 「從弟積咎積殃 又及於無辜之室人 千里海上 訃車忽至 驚越震慟 猶屬第三 近四十年 辟舍之重 猶屬私情」²⁸⁹⁾ 이라 표백하고 있다.

이런 悲痛한 분위기 속에서 秋史는 流刑囚의 몸이면서도 상복을 갖추고 통곡하여 「夫人禮安李氏哀逝文」을 썼는데, 이는 流配漢文祭文으로 亡妻에 대한 哀逝와 喪妻를 입은 애절, 비통한 心的 狀況을 散文으로 표백한 것이라 하겠다.

壬寅十一月乙巳朔十三日丁巳 夫人示終禮山之楸舍 粵一月乙亥朔十五日巳丑夕 始傳訃到海上 夫金正喜 具位哭之

流配祭文 「夫人禮安李氏哀逝文」의 序頭이다. 부인의 訃告를 2개월이 지나서야 받은 사정으로 봐 유배지 濟州島가 遠惡地임을 쉬 짐작케 한다. 그런 사정도 모르고 전술한 바와 같이 秋史는 부인의 병환을 걱정하여 부인의 死後 하루 뒤와 5일 뒤에도 書翰을²⁹⁰⁾ 2통이나 써서 부친 바가 있는데 실로 기막히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慘生離而死別 感永逝之莫追 綴數行文 寄與家中 文到之日 因其饋奠 而告之靈几之前 日嗟嗟乎 吾柩楊在前 嶺海隨後 而未嘗動吾心也 今於一婦之喪也 驚越過剝 無以把握其心 此曷故焉

死生은 有命이다. 인생 백년을 함께 동고동락 해로하다가 死別하여 한 사람만의 隻影이 남아있게 될 때 그 얼마나 고독의 비애를 통감할 것이겠는가 恤寡存孤獨 바로 그것이다. 하물며 “吾柩楊在前 嶺海隨後”의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流刑囚의 몸으로 지내는 중 아내가 타계하여 살아서 헤어지고 죽음으로 갈라진다는 것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인의 죽음에 가슴이 무너져 마음을 바로 잡지 못했다는 秋史의 비통한 心情이 잘 표현되어 있다.

祭文은 死者를 슬퍼하며 그의 명복을 빌며 쓴 挽書라 하겠다. 中國의 文選엔 詩의 類別로 挽歌의 항목을 세우고 이것을 挽歌詩라고도 하는가 하면 日本에서부터 萬葉集의 三大部門의 하나로 挽歌가 있는데²⁹¹⁾ 우리나라에선 그런 類型이 정립되지 않았던 성실다.

希臘에서도 哀歌는 그 원시적인 前藝術的인 형식으로 여자들에 의해 노래가 불리어졌다. 또 남태평양의 섬들에서도 葬儀에 있어서 여성은 큰 역할을 했고 哀歌를 노래하

289) 『阮堂先生全集』 卷2 上從兄教喜氏(2)

290) 秋史의 한글書翰 第8信(임인지월 십사일 상장)과 第9信(임인지월 십팔일 상장) 參照

291) 西郷信綱 『詩の發生』(東京; 日本未來社, 1978) p.128

거나 극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여성의 의무였다.²⁹²⁾

이처럼, 死者 儀禮와 직결된 挽歌, 挽歌詩의 문학형식은 원시에서부터 고대에 걸쳐 보
다 넓은 세계성을 지녔다.²⁹³⁾ 물론 민족에 의한 특수성이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祭文은 발달했으나 文體分類上 挽歌詩의 발달은
없었던 느낌이다.²⁹⁴⁾

祭文은 儒家에서는 엄격한 형식이 있었다. 그러나 秋史의 것은 그러한 종래의 형식을
벗어나서 쓴 祭文이라 하겠다. 그런 예가 바로 몇 줄 글을 엮어 집으로 보내니, 글이 도
착하는 날 그 제전에 인연해서 영계 앞에, 고하도록 한 것은 祭文의 형식을 벗어난 것
이고, 비교적 散文 形式으로 자유자재로 썼다는 점이다. 그리고 文頭·文中·文末의 形
式句가 없다.

嗟嗟乎 凡人之皆有死 以不可有死而死焉 故死而含至悲 茹奇窀 將噴以爲虹 結而爲靄 有足以動
夫子心 有甚於栢楊乎 嶺海乎

秋史의 亡妻에 대한 哀號가 그 절정을 이루고 표백된 대목이다. 그 중 “故死而含至悲
茹奇 窀將噴以爲虹 結而爲靄”²⁹⁵⁾ 의 표현은 우리 古典詩歌의 脈略으로 볼 수 있다. 곧

- 노가디고 석어지여 만장송이 되여이서 <萬憤歌>
- 출하리 석어디여 낙월이나 되야이서 <續美人曲>
- 출하리 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思美人曲>
- 차라리 석어지 구름이나 되어이서 <別思美人曲>

등등의 發想法과 유사하다. 다르다면 秋史의 경우는 ‘物’을 접축하여 ‘情’을 일으
킨 ‘興’으로 感動한 表現이라면 梅溪·松江·北軒의 경우는 ‘物’을 서술하고 ‘情’을
의탁하여 ‘比’한 表現이라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

嗟嗟乎 三十年孝德 宗黨稱之 以至朋舊外人 皆無不感誦之 然人道 常而夫人所不肯受者也 然俾
也可忘

한 집안의 家道를 떨어뜨리지 않고, 30년 孝德을 쌓아 생을 마친 亡妻의 婦德을 기리
며, 그럴수록 부인의 사람됨이 새로워 못내 잊을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292) 『上揭書』 pp.128-135

293) 『上揭書』 p.135

294) 前揭 註 277) 參照

295) 金耀燮 「무지개詩人秋史」 (『文學思想』 119) 1982.9 p.218) “그래서 기막힌 원한을 장
차 뽑어내면 무지개가 될 것이고” 이것은 바로 추사의 詩論이라고 생각해 왔다. 슬픔의 글
을 무지개로 형상화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의 내통은 바로 시적인식이기 때문이라고 할까
한 바 있는데, 筆者는 古典詩歌의 脈略으로 볼 수 있는 發想法의 一端으로 보고 싶다.

昔嘗戲言 夫人若死 不如吾之先死 友復勝焉 夫人大驚 此言之出此口 直欲掩耳遠去 而不欲聞也 此固世俗婦女 所大忌者 其實狀有如是者 吾言不盡出於戲也 今竟夫人先死焉

秋史가 부인의 생시에 만약 죽으려면 나보다 먼저 죽는 것만 못할 것 이라 戲言한 바 있었는데, 그것이 장난이 아닌 실제로 부인이 먼저 돌아갔음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죽음을 입 밖에 표현한다는 것은 不吉한 예언이라는 俗信이 있듯이 그러한 戲言을 매우 싫어하던 부인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죽어갔는데 遠惡地 絶島安置로 있는 지아비를 입증시 가까이에서 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정녕 腸斷의 恨을 가슴에 품어 他界했을 것이다. 이어 結尾에

先死之有何快足 使吾兩目 鰥鰥獨生 碧海長天 恨無窮已

絶海孤島の 遠惡地 濟州島 大靜縣에서 유배생활 중 喪妻를 입은 流刑囚로서 鰥寡存孤獨의 실로 착잡한 心情을 푸른 바다 넓은 하늘에 한스러움만 끝없이 사무친다고 토로하고 있다.

上從兄 教喜에게 보낸 書翰 속에서도 “鰥鰥獨生 欲効於後死之責 而不可得 是豈生在世間事耶”²⁹⁶⁾ 라고 하여 自歎하고 있다. 이런 心情을 秋史는 전술한 바와 같이 「配所輓妻喪」에서 내세에 부부가 서로 바꿔 태어나서 내가 죽고 그대가 살아서 나의 이 鰥寡存孤獨을 그대가 한번 체험했으면 하고 부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情感을 나타내었다.

秋史의 「夫人禮安李氏哀逝文」은 一種의 挽書라 할 수 있는데 流配生活이란 特殊한 事情 아래 喪配를 당하여 哀號하는 슬픈 心思를 그린 運命의 自歎 및 悲嘆과 鰥寡存孤獨의 情感이 表現되어 있어 一般祭文과는 달리 그 애절함과 悲痛함이 짙다.

종래의 儒家에서 써 왔던 漢文祭文의 형식에서 벗어나 自由自在로 散文形式으로 썼던 祭文으로 夫人에 대한 哀悼와 流配文學의 直面目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流配地에서 夫人이 他界한 消息을 듣고 한 지아비로서 夫人의 입증을 가까이 못 본 亡妻에 대한 哀逝와 喪妻를 입은 애절, 비탄, 자탄 등의 心的 狀況을 表白한 逸品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兩者의 祭文은 流配라는 특수한 사정 아래 夫人이 他界하게 된 비극적 상황속에서 지어진 것이다. 한 평생 함께 살다가도 부인의 죽음이 비통한데 그 죽음을 유배라는 사정 아래서 맞게 되어 祭文을 쓰게 됐다는 것이니, 그 어느 祭文에도 찾아 볼 수 없는 自歎과 悲痛·哀號와 哀逝의 情感이 잘 표백되어 있다

296) 「前掲書」卷2 上從兄教喜氏(2)

第 4 章 結 論

朝鮮時代 流配의 發生은 주로 政治的·時代的 狀況인 士禍를 遠因으로 黨爭에 起因한 것이다. 그것은 士禍나 黨爭에 關여하여 敗北한 者에게 政敵 肅清의 한 手段으로 行해진 行刑的 所産이라 하겠다. 朝鮮朝의 流配地 중 濟州島와 楸子島는 絶海孤島로서 環海性과 隔絶性과 狹小性을 갖는 島嶼로 自然的·社會的으로 강한 制限을 받아 온 地域인 것이다.

때문에 濟州島는 政治的 流配者가 流三千里의 刑으로 圍籬安置하는 最極惡의 流配地였고 그 중 大靜縣은 遠絶地 島配의 가장 代表的인 地域이었다고 믿어진다. 濟州島는 高麗 忠烈王 때 元에 의해 異民族의 流配地로 시작되어 朝鮮 時代에 들어 와서 流配地로서 象徴的이고 代表的인 地域으로 定着되었다.

濟州島는 地政學的으로 中央과의 交通이 疏遠하였던 곳이며 自然的으로는 風候不順한 곳 이어서 凶年이 잦아 生活條件이 극심하게 나쁘고 文化的으로는 종래의 島嶼의 文化를 계승해 오다가 朝鮮朝에 와서 200여 년간 出陸禁止된 狀況 속에서 政治的 流配者들의 流入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믿는다. 그 중 流配地에서 流配·落鄕·定着은 한 連帶意識을 갖는 共感帶를 형성하는 데도 그 영향이 至大한 것으로 믿어진다.

士大夫가 濟州島나 楸子島에 流配당했다는 것은 流配者 당사자들에게는 生涯의 큰 不幸이었으나 士大夫들이 流配당하는 일이 없이 官職의 幸福만으로 살았다면 創造的 機會가 없었을 것이다. 流配가 契機가 되어 그러한 流配生活과 流配 중의 心的 狀況을 文學으로 昇華·表白하여, 國文學史上 珠玉같은 流配文學의 作品을 남긴 것은 國문학을 위해 進一步 발전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를 크게 注目해야 할 것이다. 곧 文學이란 生活의 반영이며, 그 生活의 농도에 따라 文學의 농도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流配文學에서는 他文學에서 찾아 볼 수 없는 人間의 眞實性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流配文學은 流刑囚가 流配地에서 겪은 流配的 事實의 直接 體驗과 그 感情的 內容, 그리고 流配的 狀況에 直面한 精神的 狀況을 文學化한 것인데 朝鮮朝의 流配文學은 時代的 政治的 狀況인 黨爭에 關與하여 流配되어 自己의 限界와 自己의 認識을 文學을 통해 表白한 것이라 하겠다. 그 限界가 絶望的이면 絶望的 일수록 그 認識은 강열해지기 마련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濟州 流配文學은 朝鮮朝 流配文學의 性格을 正當하게 理解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귀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叙上의 論述들을 綜合的으로 몇 개 項으로 묶어 結論하고자 한다.

첫째, 歌辭에 나타난 思想은 歌辭 「別思美人曲」, 「續思美人曲」, 「萬言詞」, 「萬言詞答」등 4篇 30段落에서 ‘身上歎 이 16, ‘憂時戀君에의 衷情’이 12, ‘贖罪와 悔改’가 2로 나타났다. ‘身上歎’을 근거로 하여 流配歌辭의 內容의 特質은 黨爭에 直面하여 王寵을 잃고 奸臣輩들의 거짓 꾸며낸 참소로 인해 流配를 당하게 된 不運하고 억울한 자신의

처지를 哀訴·自歎한 文學이라고 斷定할 수 있다. 遠惡地 濟州島 流配의 경우 流配된 士大夫들이 더 이상 朝廷에 復歸할 수 없는 絕島 圍籬安置의 重刑임을 알고 身上歎을 深化시켰던 것으로 믿어진다. ‘憂時戀君에의 表情’을 근거로 한 그 內容의 特質은 黨爭으로 인해 流配의 狀況에 直面한 처지이면서도 변함 없이 忠君憂國의 精神으로 戀君에의 戀慕와 忠念을 表白한 文學이라고 斷定할 수 있다. 이는 朝鮮朝 社會가 儒敎社會이며 이러한 儒敎的 倫理意識과 삶의 準據點이 바로 ‘忠’에 있으므로 어떠한 幸·不幸의 環境에서도 忠을 生活化했고, 그것이 流配歌辭에 反映되었음은 당시의 主潮라고 생각한다. ‘贖罪와 悔改’는 「萬言詞」에서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하면, 政治的 流配의 경우 자기가 겪는 流配가 한결같이 奸臣輩들의 참소에 의해서였다고 確信하고 있어 “贖罪와 悔改”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믿어지며, 一般的으로 黨爭과 관계 없는 流配의 경우 자기가 지은 罪를 자신이 分明히 알고 있기에 悔改와 贖罪의 感情을 表白한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憂時戀君과 表情’은 주로 美人系 流配歌辭에 나타나는 特性으로 曹偉의 「萬憤歌」를 비롯해 鄭澈의 「前後思美人曲」을 거쳐 金春澤의 「別思美人曲」·李眞儒의 「續思美人曲」에 이어 지는 美人系 流配歌辭 系譜의 完成의 그 배경이 바로 濟州島와 그 島嶼 地域이었다는 점에서 國文學史上 意義를 부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세째, 歌辭에 나타난 生活相은 食糧難·住居難·謫所難·日常生活難 등 실로 貧寒하고 처참한 生活이다. 絕海孤島의 流配生活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하고 극심하게 어려운 생활의 惡條件을 自己의 認識을 통해 자신의 限界로 받아들여 生活을 하였고, 또 다시는 살아서 歸鄉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케 하는 艱難辛苦의 絶望과 不安한 生活을 겪고 있어 濟州流配文學은 바로 이러한 면들이 두드러지게 素材로 文學에 反映되었다는 점에서 그 特徵을 부여할 수 있다고 믿어진다.

네째, 時調의 경우 7수에 나타난 內容은 戀君·身上歎·隱遁逃避 등으로 나타났다. 時調는 濟州島에서는 별로 쓰여진 것 같지 않으며 漢詩가 많이 쓰여졌음을 알 수 있었다. 漢詩가 流配文學의 主流라 지적할 수 있을만큼 朝鮮朝 士大夫의 知的 傳統과 敎養이 漢詩文에 그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流配당한 士大夫들은 자연히 漢詩文을 통해 自己 認識을 表現하게 되어 流配漢詩가 支配的으로 많았다는 것을 確信한다. 流配漢詩의 內容의 特質은 金淨·鄭蘊·李瀾 등 11명의 90수에서 身上歎 33·戀君 14·隱遁逃避 11·自然愛 8·憐憫 8·風情 5·懷鄉 3·無常 2·慨世 1·哀訴 1·懷古 1·樂天 1·別恨 1·痛恨 1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流配漢詩의 內容의 特質은 다른 文學에 비해 그 內容이 多樣함을 알 수 있거니와 이것을 크게 요약한다면 ① 身上歎(哀訴·別恨·病恨), ② 戀君, ③ 隱遁逃避(懷鄉·懷古·無常), ④ 自然愛(風情·樂天), ⑤ 憐憫·慨世의 文學으로 斷定할 수

있다. 隱遁逃避와 自然愛는 出仕·流配·隱遁의 과정을 거치게 된 朝鮮朝 山林學派 文學의 底流와 脈을 함께 하는 것으로, 流配漢詩는 山林學派의 底流와 그 形成 發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斷定할 수 있다.

한편 注目할 것은 憐憫인데, 流配地 濟州島民의 어려운 생활과 官員의 民弊를 告發하여 道民에 대한 憐憫의 情을 노래한 것으로 康津流配 때 丁茶山의 漢詩는 現實을 告發한 것으로 높이 評價하고 있는데 濟州 流配漢詩의 鄭蘊·金春澤·趙觀彬·趙貞喆의 경우가 國文學史的으로 그것보다 前代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섯째, 隨筆인 金淨의 「濟州風土錄」과 李健의 「濟州風土記」는 濟州島의 1,500年代와 1,600年代의 風俗·生活·信仰·官員의 橫暴 등과 流配的 狀況에 直面한 流配人의 感情이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中國이나 日本의 것처럼 官撰에 의한 것이 아니라 流配人의 直接體驗을 통해 기술한 民撰에 의한 것이라는 데 큰 意義가 있다. 金淨의 「濟州風土錄」은 이 方面의 최초의 것이었다는 데도 文學的 價値를 부여할 수 있다고 믿어진다. 한편 濟州島學의 중요한 資料로 새로운 評價를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섯째, 書翰은 주로 秋史 金正喜의 한글書翰 9통과 漢文書翰 21통, 가족관계가 깊은 것 만을 대상으로 考察하였다. 그 결과 大靜縣에서 쓴 한글 書翰의 발골은 秋史의 文學的 位置를 再評價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秋史가 한글 書翰을 썼다는 것은 그의 實事求是가 主體性에 있었음을 말해 준다. 한글 書翰 9통은 162文章으로 되어 있는데 종결어미 축약형이 154·의문 종결어미 4·서술종결어미 4 등으로 나타나 그의 文章 特性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女性 人稱 代名詞로 '계서'·'겨서' 등이 16개나 나타나 부부간의 대칭이 없었던 당시의 그의 獨創性이 注目된다. 종결 어미를 축약하여 結語 보조어간으로서 끝이 난 것은 일반 文章보다 상대를 존대하고 書翰을 연속적으로 써왔던 特性으로 생각된다. 秋史의 한글 書翰은 단순한 個人的 用談과 感情뿐만 아니라 부인의 병세에 대한 걱정 9회, 아우 命喜에 대한 건강 염려 8회, 聖恩에 대한 感謝 2회, 자신의 신병 3회 갖가지 流配生活 8회 등을 보여 주었고, 그 섬세함과 특수성을 함께 하는 人間의 普遍性을 보여 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秋史의 漢文書翰은 流配生活의 進모와 家間事에 대한 配慮·藝術觀·時局觀, 그리고 流配的 狀況에 직면한 精神的 狀況 등이 표백되어 있어 流配文學의 眞面目을 보여 주는 것으로, 秋史의 流配 書翰은 앞으로 秋史에 대한 作家論을 展開하는데 중요한 資料가 될 것으로 믿어진다. 아울러 秋史의 한글·漢文書翰은 日常的이고 平面的인 形편에서 보다 流配란 특수한 사정 아래서 書翰을 통해 자기의 존재양식을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 書翰文 보다 인생의 진실과 文學의 진실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일곱째, 祭文은 尹塾의 「貞敬夫人 李氏祭文」과 秋史의 「夫人禮安李氏哀逝文」을 고찰했

는데, 秋史의 것이 漢文祭文이었다면 尹塾의 것은 漢詩形 번역체의 순국문으로 된 장편 서사성을 띤 한글 祭文이다. 兩者가 流配地 大靜縣을 背景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같으며 또 兩者가 流配地에서 喪妻를 당했다는 점에서도 그 運命이 같으나 秋史의 祭文은 流配地에서 직접 쓰고 流刑囚로서의 變轉된 스스로의 운명을 자탄하여 그 비통함과 처절한 심정으로 鰥寡存孤獨을 표백했다면 尹塾의 祭文은 放還된 후 喪妻한 심사의 울분과 통곡을 부인의 3년상을 맞아 流配的 雰圍氣의 연속된 狀況속에 自歎과 夫人을 기리는 至情을 표백하였다.

兩者가 종래의 祭文이 갖는 特性에 사로 잡히지 않고 秋史의 경우 비록 漢文祭文이었다 해도 종래의 形式에서 벗어나 自由 自在로 썼는가 하면 尹塾의 경우 종래 한글祭文이 갖는 閨房歌辭的 性格에서 벗어나 士大夫가 한글祭文을 썼다는 特異性을 보여 주었다. 아울러 兩者가 流配生活동안 喪妻를 당한 自歎·痛恨을 祭文을 통해 표현하고 있어 他祭文보다 한결 그 文學性이 높다고 믿어진다.

國文學에 있어서는 流配的 性格이 支配的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濟州 流配文學의 性格은 不遇하게 絶海孤島에 流配되고 方外人으로 流配地에서 다시는 살아서 歸鄉할 수 없는 絶望·孤獨과 斷絶意識으로 유배된 自身을 自歎하는 身上歎이 支配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朝鮮朝의 경우 519年 중에 340年間이나 黨爭이 빚어졌다는 점에서 그러한 背景으로 形成된 流配文學은 國文學에 있어서 그 比重을 크게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流配文學의 研究는 國文學 研究의 중요한 課題요, 특히 朝鮮朝의 代表的인 流配地였던 濟州島를 中心으로 한 濟州 流配文學의 研究의 成果는 이 方向을 代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注目해야 할 줄로 믿는다. 流配文學의 研究는 國文學 研究의 大宗을 이룬다 해도 過言이 아니므로, 濟州 流配文學의 研究는 전반적인 國文學 研究에 直結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研究의 結果는 濟州島學의 展開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믿어지며, 지난 날 閉鎖的인 絶海孤島의 不毛地에 流配人과의 精神的 交流로 形成되는 濟州의 文化的 側面과 濟州島民의 精神史的 側面을 이해하는 根幹的인 바탕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믿어지며, 또한 精神的 不毛地인 濟州島에 流配人들의 영향으로 인한, 濟州島 地方文學의 形成에 대한 文學的 移植의 可能性을 研究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確信한다. 이러한 것에 대한 本格的인 研究는 앞으로의 課題로 삼는다.

流配文學을 濟州島를 중심으로 研究한 것은 學界에서 처음 있는 일로 여겨지나, 이것을 전반적으로 고찰하다 보니 流配文學의 作家論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作家論의 展開와 流配文學의 形式, 修辭 表現 등에 대한 분석 고찰은 앞으로의 課題로 남겨 두겠다.

A Study on the Exile Literature of Chosun-Dynasty
- Mainly on Jeju Island -

Yang, Soon Pil

The basic reason why the exile occurred in Chosun-Dynasty was mainly the calamity of savants under the political circumstances of the times and was the party strife in part. The exile was a kind of banishment given to the defector of the calamity of savants and party strife as a means of cleaning up the political rivals. Among the exilian places of Chosun-Dynasty, Jeju-Do and Chuja-Do were the isolated islands which had characteristics of separation and were the places restricted by the natural and social constraints.

Thus, Jeju-Do was the representative one of all political exilian places. Out of them Dae Jung Hyun was believed to be the worst place. At first, Jeju was the exilian place of other people by Ŭan-Dynasty in age of King Chung-ryul of Korea-Dynasty and it was also the typical place in Chosun-Dynasty and thereafter became the symbolic and representative one.

Jeju Do was geopolitically separated from the mainland and the climate of the island was naturally unseasonable and windy and thus had often bad harvest. Jeju had succeeded to the traditional culture of the island in restraint of outgoing to the mainland for 200 years in Chosun-Dynasty, and was influenced by coming of political exilian men. The process of exiling, rusticating and setting down had a great effect on promoting synesthesia which had a feeling of solidarity. It was very unhappy for the men of noble birth to be sent away from their own country to Jeju-Do or Chuja-Do. They wouldn't take the creative opportunity of literature if they had lived only for happiness in their official position without banishment. It should be noted that they could make a jewel of a literary work throughout the Korean literature, reflecting and sublimating their mental aspect through literature. That is, literature reflects life and the depth of literature changes according to the depth of life. In the exile literature we can find the sincerity of man and literature that we can't do in any other literature.

The content of the exile literature contains the direct experience of exile fact which an exile has undergone, and their emotional contents, and especially their mental aspects faced with their exilian circumstances. The exile literature of Chosun-Dynasty expresses their limits and recognition connected with the party strife under the political circumstances of the times. The more the limits become despairing, the more strongly the consciousness is.

In this respect the exile literature of Jeju-Do seems to be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ile literature of Chosun-Dynasty.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Kasa is 4, including thirty paragraphs that are 'Byulsamiinkok', 'Sok-samiinkok', 'Manunsa', and 'Manusadap'. 'Sinsangtan' which has the contents of grieving to oneself is 16 and the contents of the affection for the kings are 12 and the contents of repentance are 2. Seen from the 'Sinsangtan', the exile Kasa expresses the atonement and lament banished by the false charge of villainous retainers faced with the party strife. The banished men of noble birth knew that Jeju was the worst and isolated exilian place and they could not retaliate against the court any longer. Therefore they are believed to deepen their mental atonement. On the basis of sincere heart and loyalty for the kings, the exile Kasa expresses the affection and loyalty for the king and the country even though it is under the exilian circumstances. This shows us that the society of Chosun-Dynasty was Confucian one in which ethical consciousness and life were based on loyalty, therefore, people internalized it under any circumstance and it is reflected on exile Kasa.

Atonement and repentance show up in only "Manunsa." In case of political exile, exiles never repented since they were sure that the exile was consistently due to the defamation by the treacherous courtiers, while in case of exile irrespective of party strife, since they recognize their sins by themselves, they are believed to express the repentance.

Second, affections for the kings and loyalty is the characteristics shown in loyal inclined exile Kasa. The loyal exile Kasa like Chowee's 'Manboonka', Jung Chul's 'Samiinkok', and 'Sokmiinkok', Kim Choon Taik's 'Byulsamiinkok' and Lee Jin You's 'Soksamiinkok' possess a great significance in that they put their background of completion on Jeju-Do and islets around it.

Third, the aspect of exile life as seen from Kasa reflects the life on poverty in which they were lacking in rice, house, etc. They overcame the difficult life in economics in the isolated island and expressed the impossibility of the return to his hometown and uneasy life through their writings.

Fourth, in case of Sijo, the subject of seven Sijoes mainly dealt with the affection for the kings, the deploring of his present condition, a life in seclusion, etc. Sijo was hardly written in Jeju Province, but Chinese poetry was written a great deal. As high-ranking officials of Chosun Dynasty based their intellectual tradition and culture on Chinese poetry, it is natural that banished officials should express their troubles through the Chinese poetry.

The interior characteristics of exile Chinese poetry in 90 writings of 11 writers including Kim Jung and Lee Ick are classified as follows: 33 about repent of individual situation, 14 affections for the kings, 11 life in seclusion, 8 love for nature, 8 compassion, 5 taste, 3 nostalgic reminiscence, 1 retrospection, 2 transiency, 1 entreaty, 1 optimism, 1 departing lament, 1 great sorrow and 1 lament for the world.

From these, exile Chinese poetry is various in the aspect of content, compared to the other literature, and again this can be summed up to five categories. 1. the deploring of individual condition (entreaty, departing lament, great sorrow) 2. the affection for the kings 3. a life in

seclusion (nostalgic reminiscence, retrospection, transiency) 4. love for nature (taste, optimism)
5. compassion, lament for the world.

The exile Chinese poetry which has subjects of a life in seclusion and love for nature, is sure to have a great influence up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literature of Sanlim School of Thought.

Meanwhile, more important is commiseration, and Tasan's Chinese poetry which expressed the pity for inhabitants of Jeju-Do, exilian place, divulging their needy life, and public nuisance by governmental officers. Jeju exile Chinese poetry by Chung Ram, Kim Chun Taik, Cho Jung Chul are presumed more previous than Tasan's from the aspect of Korean literature history.

Fifth, in case of essay, Kim Jung's Jeju topography and Lee Gun's Jeju topography record depict the custom, the way of life, religion, exile's conditions. It is more meaningful that the essay was written by exiles which underwent their direct experiences. Also a literary value is given to the fact that Kim Jung's topography is the first of this kind.

Sixth, in case of letter, 9 Korean letters and 21 Chinese letters by Kim Jung-Hee were examined here. As a result of it, the recovery of Korean letter written in Dae Jung Hyun provided the opportunity to reestimate Choosa's literary position. Nine Korean letters are composed of 162 sentences in which there appeared 154 abbreviations of ending, 4 interrogative endings, 4 predicative endings through which we can understand his characteristics of sentences, and it is worthy of note that female personal pronoun like 'Kesho' and 'Kyeosho' revealed their appearances and second person pronoun which hadn't been in those days was created. Choosa's Korean letters included his own expression, nine times worry about his wife's reckness, 8 times care for brother's health, 2 times gratitude for King's goodness, 3 times his own health, 8 times exilian life. All these things showed us the universality of man with delicacy and peculiarity.

Choosa's Chinese letters express the whole aspect of exilian life, consideration of household affairs, the view of art, the view of the state of affairs and mental aspects faced with exilian life. These show us the important aspect of exile literature. In the near future his letters are believed to be important data in studying the theory of writers about Choosa.

Seventh, Youn Suk's funeral ode and Choosa's are were studied in this paper. The former was the ode written in Korean, which had characteristics of long lyrics and the latter use the funeral ode written in Chinese letters. But both of them were the same ode in that they chose a exilian place, Dae Jung Hyun as their settings. They shared their fortune with each other because they lost their wives in the exilian place, but they were a little different. Choosa wrote his funeral ode in the exilian place in a bitter and sad mood, grieving his destiny as an exile, but Youn Suk expressed his grief of fate and memory of his wife in the successive exilian sentiment with his grievous wailing when his wife had been dead for three years. Their odes were characteristic, since they had written them free from the traditional form though Choosa's were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and Youn Suk wrote in Korean without being bounded in

the traditional Kasa with having characteristics of the funeral ode in Korean.

In the Korean literature, the exilian characteristics are mainly found in plenty. Especially in Jeju exile literature, we can easily find the despair and solitude of an exile who is banished to a lonely island and who can't come to his mainland. The exile literature of Chosun-Dynasty has much more weight in the Korean literature because it has settings of party strife which has been going on for three hundred and forty years. Therefore the study of the exile literature is the main subject of the Korean literature and especially the results of the study of the Jeju exile literature play an important role in studying the Korean literature. It'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study of the exile literature is the lineage of studying the Korean literature, and so the study of the Jeju exile literature is the premise of that of the Korean literature. The results of this kind of study will be contributed to studying the Jejudology (studies of Jeju island) and will provide us for fundamental base of understanding the culture of Jeju and the spirit of Jeju people, which are produced by the spiritual interchange between the exiles in the barren and lonely island. And also the study makes us help setting up the local literature of Jeju-Do with the influence of the banished. This sort of thing will remain a future study.

It is the first attempt in the academic world to study the exile literature with an emphasis on Jeju-Do, but this study may not be very good because, I have examined the exile literature as a whole. The development and analysis of the theory of writers, the form of the exile literature and rhetoric will be studied next time.

1. 原 典

- 『三國史記』
『高麗史』
『隋書』
『元史』
『瀛洲誌』
李齊賢,『樸翁稗說』
李奎報,『東國李相國集』
『朝鮮王朝實錄』
『東史綱目』
『大典會通』
『大典通編』
『新增東國輿地勝覽』
『牧隱詩文集』
金 淨,『冲庵先生集』
——,『濟州風土錄』
徐居正,『東文選』
『退溪文集』
許 筠,『惺所覆韻稿』
李 健,『濟州風土記』
——,『流竄記』
鄭 蘊,『桐溪集』
——,『桐溪先生續集』
林 悌,『南溟小乘』
金尙憲,『南槎錄』
宋時烈,『宋子大全』
金春澤,『北軒集』
趙觀彬,『悔軒集』
趙貞喆,『靜軒瀛海處坎錄』
李元鎮,『耽羅志』
申光洙,『石北先生文集』 「耽羅錄」
亡懷子,『記行錄』 「瀛州遊山錄」
金正喜,『阮堂先生全集』

_____ , 『雪昆醜聞』

『日省錄』

李建昌, 『黨議通略』

金錫翼, 『耽羅紀年』

2. 著書

-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編 『韓國文化史大系Ⅱ』 高麗大學校, 1965
- 金起東, 『國文學概論』 서울: 大昌文化社, 1955
- 金東旭, 『國文學概論』 서울: 民衆書館, 1961
- 金秉坤, 『李朝黨爭史話』 서울: 三中堂, 1967
- 金用淑, 『李朝의 女流文學』 서울: 韓國日報社, 1975
- 金一根, 『諺簡의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74
- 金亨奎 등 3人, 『國文學概論』 서울: 一成堂, 1956
- 內務部, 『島嶼誌』 서울: 內務部, 1973
-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濟州篇, 서울: 文化財管理局, 1974
- 文璇圭, 『韓國漢文學史』 서울: 正音社, 1961
- 朴魯春外, 『歌辭文學全集』 서울: 精研社, 1961
- 朴晟義, 『韓國古典文學背景論』 서울: 宣明文化社, 1968
- 朴用厚, 『元大靜郡誌』 濟州: 博文出版社, 1968
- _____, 『南濟州郡誌』 서울: 상조사, 1978
- _____, 『濟州島誌』 서울: 白映社, 1976
- 白鐵, 『文學概論』 서울: 新丘文化社, 1957
- 白鐵外, 『새文章教室』 서울: 日新社, 1961
- 徐元燮, 『歌辭文學研究』 대구: 螢雪出版社, 1979
- 徐壹教, 『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研究』 서울: 韓國法令編纂會, 1968
- 沈載完, 『歷代詩調全書』 서울: 世宗文化社, 1972
- 柳宗鎬編, 『文學과 政治』 서울: 民音社, 1980
- 禹樂基, 『濟州道』 서울: 韓國地理學研究所, 1968
- 尹弘老, 『韓國文學의 解釋學의 研究』 서울: 一志社, 1976
- 李家源, 『大學漢文新選』 서울: 民衆書館, 1962
- _____, 『李朝名人列傳』 서울: 乙酉文化社, 1965
- 李丙燾, 『韓國史大觀』 서울: 普文閣, 1966
- 李相寶, 『韓國歌辭文學의 研究』 대구: 螢雪出版社, 1974
- 『李朝歌辭精選』 서울: 精研社, 1965

- 李御寧, 『韓國과 韓國人』 서울:三省出版社, 1968
- 林基中, 『朝鮮朝의 歌辭』 서울:成文閣, 1979
- 張德順, 『國文學通論』 서울:新丘文化社, 1960
- , 『韓國文學史』 서울:同和文化社, 1977
- 張籌根, 『韓國의 鄉土信仰』 서울:乙酉文化社, 1975
- 濟州道教育委員會, 『濟州教育通史』 제주:濟州道教育委員會, 1974
- , 『耽羅史料志』 제주:濟州教育委員會, 1981
- 濟州道, 『濟州道誌』 제주:濟州道文化公報室, 1982
- 鄭堯一外, 『韓國古典詩學史』 서울:弘盛社, 1980
- 震檀學會, 『韓國史』 서울:乙酉文化社, 1959
- 趙潤濟, 『國文學概說』 서울:東國文化社, 1955
- , 『韓國文學史』 서울:探求堂, 1979
- 崔康賢外, 『韓國文學概說』 대구:螢雪出版社, 1780
- 崔康賢, 『韓國紀行文學研究』 서울:一志社, 1982
- 崔勝範, 『隨筆文學』 대구:螢雪出版社, 1965
- 崔宗秀, 『金秋史評傳』 서울:知識產業社, 1976
- 崔載瑞, 『文學原論』 서울:春潮社, 1963
-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서울:成均館大出版社, 1977
- 허경진, 『許筠의 詩話』 서울:民音社, 1982
- 玄相允, 『朝鮮儒學史』 서울:民衆書館, 1949
- 黃秉國, 『李朝名人詩選』 서울:乙酉文化社, 1969
- 르네 웰렉·오스틴 웨 메 렌 共著, 白鐵·金秉喆 共譯, 『文學의 理論』新丘文化社 1965
- 黃善明, 「民衆宗教와 權威 信仰」 『主流』 1982
- Taine, H. A., 「文學史의 方法」 賴添茂樹譯 東京:岩波文庫 昭和 35
- Moulton, R. G., 「文學의 近代的 研究」 本多顯章譯 東京:岩波文庫 昭和 33
- 大久保正, 「上代日本文學概說」 東京:秀英出版社 昭和 51
- 西郷信仰, 「詩의 發生」 東京:『未來社』 1978

3. 論文

- 金永琪, 「流配文學論」 『現代文學(147)』 1967
- 姜景璿, 「古典的 島嶼性에 대한 考察」 『濟州大 論文集(13)』 1981
- 高柄翊, 「成宗朝 崔溥의 漂流와 漂海錄」 『韓國의 선비文化 14』 1982
- 具壽榮, 「四百年 屍身위에 덜힌 奇蹟의 한글文學」 『文學思想(77)』 1979
- 琴章泰, 「趙靜庵과 朝鮮의 선비 精神」 『韓國學報(10)』 서울:一志社, 1978

- 金榮敦, 「濟州島 民謠에 드러난 生活觀」『知恩 邊時敏博士回甲記念論叢』1978
- 金耀燮, 「무지개 詩人 秋史」『文學思想(119)』1982. 9.
- 金一根, 「諺簡의 綜合的 研究」『省谷論叢(5)』1974
- _____, 「貞敬夫人 李氏祭文」『建國大學人文科學論叢(9)』1976
- 金宗業, 「史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耽羅精神探究 세미나』, 濟州大學 1979,
- 金鉉龍, 「祭文에 關한 研究」『文湖(3)』建國大學校 1964
- 金炯孝, 「靜庵思想의 哲學的 研究」『韓國學報(10)』서울: 一志社, 1978
- 南都泳, 「朝鮮時代의 馬政研究」『韓國學研究(1)』東國大學校 1976
- 文璨植, 「流配歌辭의 內容的 考察」『全南大 語文論集(5)』1969
- 朴斗鎮, 「文學을 통한 意識構造의 改革」『延大教育科學(11)』1977
- 朴成哲, 「歌辭文學의 內容的 分類에 對한 研究」『建國大 大學院 碩論』1976
- 白大鎮, 「名詩漢詩選」『現代文學(69)』1960.9.
- 徐東鈇, 「流配文學考」『文湖(1)』建國大學校 1960
- 成樂熏, 「韓國黨爭史」『韓國文化史大系 II』高麗大學校 1965
- 安廷煥, 「謫所歌辭研究」『仁荷大 大學院 碩論』1981
- 梁重海, 「文化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耽羅精神 探究 세미나』濟州大 1979
- 柳玕善, 「歌辭文學의 作家別 및 內容的 分類攷」『高麗大 語文論集(11)』
- 尹貴燮, 「流配歌辭의 兩極」『同德女大論叢(2)』1971
- 尹元鎬, 「韓國隨筆의 片孳兒」『李熙昇 先生 頌壽記念論叢』1957
- 尹亨德, 「萬言詞研究」『檀國大 大學院 碩論』1966
- 李丙疇, 「阮堂先生의 經術文章과 歲寒圖」『東大教育大學院學術 세미나』1980
- 李相佰, 「頽廢의 氣風과 朋黨의 發生」『人物韓國史 II』
- 李相寶, 「韓國의 古代隨筆」『隨筆文藝(3)』
- _____, 「絕島流配의 恨」『文學思想(45)』1976
- 李熙鳳, 「韓國法制史」『韓國文化史大系 II』高麗大學校 1965
- 張德順, 「流配歌辭試考」『國文學通論』서울: 新丘文化社, 1960
- 鄭炳昱, 「尹孤山論」『月刊文學』1969.7
- _____, 「孤山 尹善道」『文學思想』1974
- 丁益燮, 「美人歌辭攷」『湖南文化研究(1)』全南大學校 1963
- _____, 「流配文學小考」『无涯 梁柱東博士 華誕記念論叢』1964
- 鄭在皓, 「歌辭文學에 나타난 自然觀研究」『高大 大學院 博士論文』1977
- 趙東一, 「古典小說과 政治」『文學과 政治』서울: 民音社, 1980
- 趙成桓, 「國文學과 謫所關係」『群山教大 論文集(7)』1974
- 秦東赫, 「李世輔의 流配時調研究」『檀國大 論文集(15)』1981

_____ , 「李世輔의 哲宗朝 現實批判 時調考」 『東方學志(30)』 延世大學校 1982
玄容駿, 「堂子の 儒式化와 三姓神話」 『제주도(14)』 1964